# 인민의 태양
# 김정은찬가

평 양 출 판 사
주체111(2022)년

# 인민의 태양
# 김정은찬가

## -인민의 체험, 력사의 증명-

평 양 출 판 사
주체111(2022)년

# 인민의 목소리에 화답하여

이 땅우에 준엄하고도 영광찬 력사의 한 년대가 흘렀다.

돌이켜보면 피눈물의 12월에서 떠나 그처럼 간고했던 길을 걸으며 얼마나 멀리도 오고 얼마나 많은 시련의 산과 바다를 넘고 헤치며 오늘에로 왔던가.

맞고보낸 날과 달들에 등을 떠미는 순풍도, 어서 오라 맞아주는 탄탄대로도 없었다. 앞을 막아선 시련마다가 불가능과 사선의 고비였고 그 어느 시대, 그 어느 인민도 겪어보지 못한 사상초유의 첩첩격난이였다.

하지만 인민은 일떠섰다.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넘어 생명부지나 한것이 아니라 불사신처럼 솟구쳐올라 강국의 새시대를 열었다.

바로 이런 강하고도 당당한 인민이 어떤 주저나 동요가 없이 강행돌파전으로 10년세월을 걸어오며 평범한 세월의 100년간에도 가질수 없는 참으로 고귀한 진리를 체험한것은 그 무엇이였던가. 안고있는 폭과 심도로 하여 결코 짧다고만 볼수 없는 흘러간 10년사가 금문자로 아로새긴 력사의 증명은 과연 무엇이였던가.

경애하는 원수님만 계시면!

이것이 파란많았고 가슴벅찬 승리의 열광도 줄기찼던 격동

의 10년세월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그이만 계시면 세상천지풍파가 다 덮쳐들어도 끄떡없고 배심든든하다는 인민의 체험이다.

오직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만이!

이것이 복잡다단하고 변화무쌍한 오늘의 세계속에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그이께서만이 인민의 나라를 굳건히 지켜내고 만방에 빛내일수 있으며 정의와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인간사회를 가꾸어가실수 있다는 력사의 증명이다.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무한한 헌신의 세계를 가슴뜨겁게 되새겨보게 하는 불멸의 10년려정!

그 해와 달들에 세기를 주름잡는 거창한 창조와 변혁의 산아들, 만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감동깊은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도 태여났던가.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를 자신의 둘도 없는 인생관이라고 하시며 경애하는 원수님 낮에도 밤에도 새겨가신 헌신의 자욱자욱은 그 얼마였던가.

인류사에 그 류례가 없는 도덕의리의 숭고한 세계로 수령영생위업의 새 력사를 펼쳐주시고 예지와 열정에 넘치는 강령적인 연설을 하시며 시대의 진로를 밝혀주시던 그이의 빛나는 영상이 안겨와 눈시울 젖어든다.

삼가 더듬을수록 인민이 복된 삶을 누리는 새세상을 일떠세우시려, 영원히 전쟁을 모르는 맑고 푸른 하늘아래 자자손손 복락을 누려갈 최강의 국력을 마련하시려 그이 바쳐오신 천신만고가 사무치게 어려온다.

친부모도 줄수 없는 사랑으로 온 나라 아이들과 원아들을 부럼없이 내세운 눈굽을 적시게 하는 사랑의 전설도, 한순간이라도 자애로운 품에 다시 안기고만싶어 가슴을 치는 날 바다에 뛰여들어 따라서는 군인들과 인민들의 모습을 보시며 불같은 정이 끓어넘치시여 그이의 눈가에 맺히던 눈물을 인민은 잊지 못한다.

정녕 그이께서 펼쳐주신 강성부흥의 대로가 있어, 그이께서 뼈를 깎는 고통과 피를 말리는 고뇌와 심혈을 바치시며 한몸을 혹사시켜오신 눈물겨운 로고와 헌신이 있어 이 땅우에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위대한 강국의 위상, 인민의 행복상이 눈부시게 펼쳐졌거니.

참으로 인류사에 류례없는 불같은 헌신, 순결무구한 열과 정의 10년이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그 헌신, 그 열과 정으로 10년이라는 세월에 100년, 1 000년을 압축해놓으시였다. 승승장구하는 강성조선의 영원무궁한 만년주추돌을 억척으로 다져놓으시였다.

그처럼 열정적이고 그처럼 강인담대하며 그처럼 순결무구한 절세의 위인상을 심장속깊이에 새겨안으며 인민은 **김정은**! 그이의 천재적인 예지와 무한대한 정력, 비범출중한 령도실력이야말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기적과 승리의 원천이라는것을 알게 되였다.

**김정은**! 그이의 자애로운 어버이의 품이야말로 이 땅의 남녀

로소가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그늘 한점 없이 삶을 빛내여 갈 영원한 태양의 품이라는것을 인민은 페부로 절감하였다.

인민의 체험처럼 절대적인것은 없다. 력사의 증명은 과학이다.

이 나라 인민들 누구나 원수님을 우러를 때면 인민을 위해 그처럼 고생많으시고 인민을 위해서라면 용암 한가운데라도 뛰여드실 그이는 정녕 인민의 태양이시라고 목메여 토로한다. 력사는 **김정은**조선의 10년사가 태양의 빛발로 영광스러운 가장 빛나는 년대였다는것을 웅변으로 보여주었다.

위대한 태양이 빛나 인민이 강해졌고 나라가 위용을 떨치고있으며 시대가 영광떨치고있다. 황홀경을 펼치는 행복의 요람, 사회주의선경들이며 문명의 창조물들 그 어느것이나 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손길아래 꽃펴난 대화원이다.

인민이 이처럼 위대하신분을 어찌 어버이라 부르지 않을수 있으며 태양이라 칭송하지 않을수 있겠는가.

아, 찬란한 인민의 태양 **김정은**원수님!

그이를 우러러 인민이 태양이라 함은 전 인민적체험의 최고정화이며 자기 운명에 대한 완전무결한 믿음, 세상을 굽어보는 민족적자존심과 높은 긍지의 거세찬 분출이다.

장구한 인류사에는 대를 이어 자기 수령들을 위대한 태양으로 높이 칭송하며 우러러모신 인민은 없었거니, 반만년민족사에 경애하는 그이를 또다시 태양으로 높이 모신 인민의 찬가, **김정은**찬가가 우주만리를 진감한다.

세계를 놀래우는 경이적인 사변들을 련이어 펼치시며 국제정치정세흐름을 주도해나가시는 경애하는 그이의 천출위인상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칭송의 목소리 행성에 끝없이 메아리친다.

한줄기의 빛으로 태양의 열도를 잴수 없다.

태양의 웅자, 그 위대함을 한권의 책에 다 펼친다는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절세위인에 대한 찬가를 심장으로 부르는 인민의 목소리에 조금이나마 화답하려는 소박한 마음에서, 그리고 한방울의 물에도 온 우주를 담을수 있다는 위안을 가지고 미흡한 점이 많을지라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천출위인상의 일단을 보여주는 도서를 세상에 내놓는다.

본사편집부

# 차 례

## 1. 가리울수 없는 눈부신 태양

수령님들의 모습으로 민심의 한복판에 …………………… 12
2월의 기상으로 천하를 울리다 ………………………… 23
눈물속에 새겨진 태양의 모습 ……………………………… 34
세상에 없는 수령영생의 대기념비 ………………………… 48
태양만이 태양의 위업을 계승한다 ………………………… 61

## 2. 백년대계를 밝히는 새시대의 방향타

자주시대의 위대한 홰불 ………………………………… 77
사상론을 더 높이 추켜드시고 ………………………… 89
강국건설의 휘황한 진로 ……………………………… 101
뛰여난 선견지명으로 ………………………………… 112
인민대중제일주의기치를 높이 드시여 ………………… 124
**김정일**애국주의를 인민의 심장속에 ……………………… 134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장엄한 선포 ……………………… 145

## 3. 강국의 존엄과 위상 만방에 떨치시다


드놀지 않는 담력과 배짱 ································ 160
조선의 힘을 최상의 경지에 ······························ 172
지구를 굽어보는 조선의 《북극성》 ······················ 185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결사대 앞으로! ················· 194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은 말한다 ··············· 203


## 4. 말하라, 위민헌신의 불멸의 자욱이여!


위대한 인민은 운명의 하늘································ 217
필생의 뜻-인민의 심부름군! ···························· 230
어려울 때 제일먼저 떠오른 어머니의 모습 ············ 242
《여기가 어디라고 오신단 말입니까!》 ·················· 257
성스러운 멸사복무의 려정 ································ 271
창조와 건설의 대번영기 ··································· 284


## 5. 하늘도 감복하는 숭고한 도덕의리


억년바위도 녹일 열화의 심장······························ 298
60여년세월이 흘렀어도 ···································· 307

바람부는 주작봉마루에서 …………………………………… 318
전사의 얼굴을 애타게 어루만지시며 ………………………… 328
광부의 안해는 말한다 ………………………………………… 341
《내 아들의 묘주가 원수님이시라니?!》 ……………………… 356
로병들을 영광의 최절정에 …………………………………… 367

## 6. 위대한 사랑으로 조국의 만년미래를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신다 ………………………………… 384
축복속에 만발하는 해바라기들 ……………………………… 398
전례없는 소년들의 대회합 …………………………………… 412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억만금도 아낌없이 …………………… 425
병든 자식, 상처입은 자식도 한품에 안아 ………………… 441
청년강국의 새시대 ……………………………………………… 452

# 1. 가리울수 없는 눈부신 태양

❖ 수령님들의 모습으로 민심의 한복판에

❖ 2월의 기상으로 천하를 울리다

❖ 눈물속에 새겨진 태양의 모습

❖ 세상에 없는 수령영생의 대기념비

❖ 태양만이 태양의 위업을 계승한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년륜을 새기며 흘러온 지난 10년세월, 그것은 단순히 세월과 더불어 흘러온 력사의 한 구간이 아니였다.

천지풍파속에서도 끄떡없이 창조와 건설의 거센 나래가 더없이 퍼덕이고 사랑과 정으로 더더욱 아름다워지는 이 땅에 위대한 강국시대를 펼친 가장 비범한 인간, 가장 정의로우며 가장 뜨거운 심장을 지닌 걸출한 위인이 누구인가를 만민이 현실로 목격한 성스러운 년대였다.

이 년대의 시작과 더불어 인민은 공화국의 존엄과 국력을 만방에 떨치고 정의와 진리가 우롱당하는 행성의 어지러운 정치풍파를 광휘로운 빛발로 밀어내며 인류에게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안겨줄 또 한분의 천출위인상을 보게 되였다.

공화국을 여러 차례 방문하여 위대한 수령님들의 접견을 받은바 있는 어느한 나라의 정객은 이런 글을 남기였다.

《어느한 대문호는 일찌기 태양은 동방에서 솟는다고 하였다. 그 말의 뜻을 나는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국방위원장을 만나뵙고서야 비로소 알게 되였다. 그래서 늘 조선이야말로 태양의 나라라고 생각해왔었는데 그 태양의 나라에 오늘 또 가리울수 없는 눈부신 태양이 솟아 인류에게 밝은 빛을 뿌려주고있다.》

그렇다.

지난 세기뿐 아니라 오늘까지도 인류의 태양으로 높이 우러르는 위대한 수령님들과 함께 공화국인민들과 세계 진보적인류가 가장 순결한 량심과 리성의 목소리로 열렬히 칭송하고 높이 받드는 태양이 또다시 동방의 조선에서 솟아올랐으니 그이가 바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시다.

**김정은**원수님!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위인적자질과 태양의 풍모를 한몸에 그대로 지니신 그이를 흠모하며 만민은 경애하는 그이이시야말로 파란많은 오늘의 세기를 밝게 비칠 가리울수 없는 눈부신 태양, 태양의 위업을 그대로 이어가실 21세기의 태양이라고 열렬히 칭송하고있다.

# 수령님들의 모습으로 민심의 한복판에

장군이 오시는것은 아, 아무도 몰랐으나
장군이 오신것은 누구나 알았다
장군은 가리울수 없는 우리의 빛
장군은 감출수 없는 우리의 태양
…

이 시는 해방된 이듬해의 4월 사랑하는 인민들을 찾아 함경남도에 오신 위대한 수령님을 환영하여 열린 간담회에서 시인 리찬이 절세위인에 대한 열렬한 흠모와 칭송의 북받치는 격정을 누를길 없어 심장으로 터친 즉흥시 《**김일성**장군찬가》의 첫 구절이다.

20대에도 이르지 못한 젊으신 나이에 민족개량주의, 좌우경기회주의 등 온갖 어지러운 주의주장들이 판을 치던 혼란속에서 시대의 지향과 인민의 념원, 력사발전의 합법칙성을 꿰뚫어보시고 주체의 진리를 밝히시여 우리 민족, 우리 조국의 자주적발전의 길을 열어놓으신 위대한 수령님.

자주의 기치밑에 반제민족해방전쟁을 선포하시고 류례없이

간고하였던 이 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자력독립의 위대한 본보기를 창조하신 걸출한 위인.

그처럼 위대한분을 높이 받들어모시였던 그날의 감격과 열광이 반세기가 훨씬 지나 이 나라 민심의 바다우에 재현되게 되였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전승절경축연회장으로 들어서는 일행을 맞이하던 일군들과 참석자들은 너무나도 깜짝 놀라 한동안 굳어졌다.

(아, 수령님! 분명 수령님이시다!)

영웅남아다운 기상이 차넘치는 름름한 풍채, 예지로 빛나는 안광, 웃음을 지으시는 존안에 피여나는 볼우물 지어는 머리단장모습까지도 수령님과 꼭같으신분이 그들의 앞으로 다가오고계시였던것이다.

뜻밖의 현실에 놀라워하는 사람들가운데는 오랜 기간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사업하였던 한 일군도 있었다.

그는 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이 하도 사무친 나머지 자기가 지금 꿈을 꾸는지 혹시 착각이나 한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하지만 다시금 정신을 가다듬고 우러러보았지만 그것은 꿈도 착각도 아닌 현실이였다.

그때를 회상하여 후날 그는 당시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피력했다.

《…그이는 외모뿐 아니라 음성까지도 위대한 수령님과 꼭

같으시였다.

분명히 젊으신 시절의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나는 수령님께서 환생하시여 우리들에게로 오신것이 아닌가 하는 크나큰 격정으로 하여 숨도 제대로 쉴수 없었다.

나는 해방후 만경대혁명학원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자란 혁명가유자녀로서 전화의 나날에는 친위중대에서 수령님을 호위하였고 그후에는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으로 장군님의 가까이에서 일하였으며 그 이후 수령님께서 서거하시기 전까지 그이를 모시고 사업하였다.

매일 매 시각 체험하였던 위대한 수령님의 위인적천품을 심장속에 간직하고 살던 제가 젊으신 시절의 수령님과 꼭같으신 또 한분의 위인을 만나뵈웠으니 그 심정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수 있었겠는가.

저도 그럴진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항일의 혈전만리, 불바다만리를 함께 헤쳐온 혁명의 1세들인 항일혁명투사들의 심정은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그들은 한결같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에서 일제에게 빼앗겼던 조국을 찾아주시고 인민들앞에서 개선연설을 하시던 30대의 **김일성**장군님을,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강령을 선포하시던 30대의 **김정일**장군님을 다시 뵈옵는것만 같다고 진정을 터치군 했다.

지금도 나의 귀전에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만나주실 때마

다 그이를 젊으신 장군님이라고 목메여 부르며 그이 품에 스스럼없이 달려가 안기던 로투사의 목소리가 귀에 쟁쟁하다.

그는 나의 손을 부여잡고 우리 수령님과 김정숙어머님께서 김대장의 장한 모습을 보셨더라면, 먼저 간 백두산시절의 투사들이 그 모습을 보았더라면 얼마나 기뻐하였겠는가고, 장군의 그 젊고 당당한 모습은 창창한 조선의 모습이라고 절절히 토로하였다.》

걸출한 대성인, 천하제일령장의 모습그대로 민심의 한복판에 오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그이는 우주의 만물을 끌어당기는 거대한 태양의 인력과도 같은 위인적천품을 지니시였기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에서는 이 나라 인민들이 터치는 진정, 감격과 격정의 환호성이 천지를 뒤흔들며 울려퍼졌다.

예로부터 민심은 천심이라 하였다.

민심은 결코 누구의 강요나 그 누구의 구령에 의하여 좌우되는것이 아니다.

그즈음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는 또 한분의 절세의 위인에 대한 전설같은 이야기로 꽃을 피우고있었다.

그이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시였다.

절세의 위인들이신 위대한 수령님처럼, 위대한 장군님처럼 어린시절부터 남달리 총명하시고 비범한 예지를 지니고계시며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그 어떤 분야에도 막힘이 없

이 다재다능하시고 담력과 배짱이 우주에 닿으시였으며 한없이 인자하고 겸허하신 품성과 지어 필체까지도 꼭같으신분이 바로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라는 이야기들이 민심의 복판을 흐르며 급속히 퍼져가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을 그대로 닮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흠모의 목소리, 원수님을 하루빨리 뵙고싶어하는 민심의 열파는 남조선인민들과 해외동포들속에서도 세차게 일었으며 온 세계를 뒤흔들고있었다.

바로 이러한 때인 2010년 9월 28일 공화국과 세계의 시선이 그 어느때보다도 집중되는 속에 수도 평양에서는 조선로동당 제3차 대표자회가 소집되였다.

공화국인민만이 아닌 세계 진보적인류가 그토록 커다란 관심과 기대속에 기다려온 력사의 이날에 대표자회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당중앙지도기관 성원으로,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높이 모시였다.

이것은 조국과 인민앞에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고 21세기의 위대한 태양이 솟아올랐음을 온 세상에 선언하는 력사적사변이 아닐수 없었다.

이 경이적인 사변은 온 세계에 《9.28충격파》를 일으켰다.

《조선에서 **김정은**시대가 닻을 올렸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김일성**주석께서 창건하시고 **김정일**장군님께서 령도하시는 조선로동당을 계승하시였다. 장

래의 조선당과 혁명위업은 **김정은**동지에 의해 계승될것이다.》

TV와 신문으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영상을 처음으로 뵈옵는 순간 온 나라 인민들의 심장은 누구라 할것없이 멎는듯했다. 그럴것이 너무나도 크나큰 감격이, 너무나도 거대한 흥분이 그들의 심장을 순간 제압하였던것이다.

《수령님이시다. 수령님께서 우리곁에 다시 오시였다!》

《아, 김대장! 그렇게 뵈옵고싶던 저분이 우리의 청년대장 김대장이시다!》

이 웨침은 삽시에 온 나라를 휩쓸어갔다.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원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들끓었고 그 감격은 날이 갈수록 더더욱 커만 갔다.

왜 그렇지 않겠는가.

뵈올수록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은 일찌기 백두산을 주름잡으며 강도 일제를 벌벌 떨게 하시던 20대의 청년장군 **김일성**장군님 그대로였고 고난과 시련의 나날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지키시려 전선천리를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주름잡아 달리시던 선군령장 **김정일**장군님의 모습이였던것이다.

사람들은 말했다.

《**김정은**동지의 모습을 뵈오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환생하시였다고 확신했다. 그이를 뵈옵는 순간 <**김일성**장군찬가>의 시구절이 절로 입가로 튀여나왔다.》

《백두의 혈통이신 청년대장 **김정은**장군을 모시였으니 우리

혁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이렇게 홍안의 장군 **김일성**장군님의 모습으로, **김정일**장군님의 모습으로 민심의 한복판에 먼저 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놀란것은 공화국인민들뿐만이 아니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을 뵈옵고 네팔의 한 인사는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B.C. 3세기 현재의 까뜨만두에 네무니라는 성인이 있었다. 백성들을 위한 좋은 일을 많이 하여 존경과 사랑을 받던 그가 세상을 떠나자 사람들은 그의 공적을 계승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까뜨만두지방을 네무니 빨리라고 불러왔다. 세월의 흐름과 함께 네무니 빨리는 네팔로 불리우게 되였고 그것은 곧 우리 나라의 이름으로 되였다.

2 000여년의 세월이 흘렀으나 네무니와 같은 성인이 다시 나타나주었으면 하는 네팔사람들의 소망은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조선인민은 정말 행운아들이다. 나는 름름하신 **김정은**각하의 모습을 뵈오면서 복잡다단한 20세기를 평정하기 위해 동방에 떠오르시였던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부활하시였다고 생각했다. 조선인민은 대를 이어 수령복을 누리는 정말 복받은 인민들이다.》

미국의 AP통신도 《**김일성**주석과 꼭같은 **김정은**령도자》라

는 제목의 글에서 이렇게 썼다.

《놀랄 정도로 너무나도 꼭같다. 북조선의 젊은 새 령도자인 **김정은**대장의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김일성**주석과 꼭같다. 모색과 미소, 자신만만한 걸음새 지어는 손가짐까지도…

북조선인민들에게는 젊은 시절 **김일성**주석의 미소짓는 영상이 깊이 자리잡고있다. 일본의 식민지통치에서 민족을 해방시키신 청년장군의 그 미소는 북조선인민들의 마음속에 길이길이 남아있는것이다.》

《**김정은**령도자의 모습이 **김일성**주석의 모습과 흡사하다. **김정은**령도자의 모색과 행동거지는 **김일성**주석이 부활하지 않았는가 하고 생각하게 된다. **김정은**령도자가 미소를 지을 때면 마치도 일제패망후 북조선을 이끌던 33살의 **김일성**주석을 보는것과 같다.》

남조선언론들도 그이의 존귀하신 영상을 우러러 《신통히도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국방위원장의 모습을 련상시킨다.》,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인민적품성을 그대로 닮은 령도자》, 《**김정은**령도자는 분명코 선대수령들의 유훈을 실현시킬것이다.》라고 높이 칭송하였다.

남조선 각계층속에서 울려나오고있는 이러한 목소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과 꼭같으신 불세출의 령장, 민족의 령도자로 공인하고있으며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여 수령님들의 념원은 반드시 실현될것

이라는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세계를 휩쓴 《9.28충격파》는 시간이 흐를수록, 날이 갈수록 태양칭송의 열풍이 되여 지구를 감돌았다.

주체101(2012)년 4월 15일.

평양의 **김일성**광장에서 울려나오는 폭풍같은 만세소리가 세계를 진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 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장에 나오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우러러 인민이 터치는 환호성이였다.

홍안의 밝으신 그 존안에 피여오르는 미소는 개선광장에 나오시여 인민들에게 보내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미소같았고 인민들을 향해 손저어주시는 그 모습은 인민들의 환호에 답례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 그대로였다.

《어쩌면 저렇게도 꼭같으신가.》

《우리 민족앞에 또다시 온 세상이 부러워할 대통운이 텄구나.》

젊은이들의 입가에서도, 로인들의 입가에서도 이구동성으로 이런 말들이 튀여나왔다. 동시에 그들의 얼굴에서는 맑은 눈물이 쉬임없이 솟구쳐올랐다. 그 눈물은 4월의 따사로운 해빛을 받아 눈부신 구슬이 되여 **김일성**광장의 포석을 아름답게 장식했다.

《**김정은** 결사옹위!》

**김일성**광장의 여기저기서 결사의 이 웨침이 울려나왔다.

그 누가 시킨것도, 약속한것도 아니건만 **김일성**광장에 모인 인민들, 행사를 TV로 시청하며 뜨거운 눈물로 두볼을 적시던 인민들모두가 터친 이 웨침은 항일전의 투사들과 전화의 용사들, 년대와 년대를 승리로 떨쳐온 인민들이 수령님들을 우러르며 심장으로 토로한 결사옹위합성의 련속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듯이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려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따르듯이 원수님만을 따르려는, 수령님과 장군님을 옹위하듯이 원수님을 옹위하려는, 하여 수령님과 장군님께 못다 바친 충정을 경애하는 원수님께 다 바치려는 이 나라 인민들의 신념의 분출이였다.

참으로 온 세상이 《부활》과 《환생》이라고 격찬한것처럼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걸출한 품격을 그대로 찾아볼수 있게 된것은 공화국인민이 받아안은 가장 큰 행복이며 영광이다.

그 행복과 영광의 단상우에, 그 민심의 한복판에 우리 수령님들처럼 인민의 운명과 미래를 다

---

칭송의 목소리

### 사회주의조선에 새별이 솟았네

오늘 조선은 또 한분의
위대한 수령을 모시였으니
그이는 정녕 천출명장, 인민의 어버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이시여라!
만민의 다함없는 흠모속에
그이께서 태양의 빛을 뿌리시나니
조선은 거연히 일떠섰노라

(조선통일지지 꾸바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지은 시)

---

말아안으시고 눈부신 태양으로 떠오르신 **김정은**장군!

어버이수령님을 따라걸어온 부강조국건설의 그 나날처럼, 위대한 장군님을 따라 전대미문의 봉쇄와 제재를 박차고 과감히 돌진해온 그 시절처럼 그렇듯 만사람을 매혹시키고 절대적인 신뢰를 받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힘찬 발걸음따라 온 나라가 산악같이 뭉쳐 나아간다. 성스럽고 영광에 찬 그 길우에서, 언제나 변함이 없는 민심의 한복판에서 수령님과 장군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은 승리와 번영의 기치로, 존엄높은 강성조선의 상징으로, 자애로운 인민의 태양으로 빛을 뿌릴것이다.

하기에 온 나라 천만인민은 혁명송가 《**김정은**장군찬가》를 온넋으로, 피끓는 심장으로 소리높이 부른다.

장군은 눈부신 세기의 태양
장군은 찬란한 승리의 기치
백두산대국 삼천리 밝은 미래 펼친다
그 이름도 위대한 **김정은**장군

# 2월의 기상으로 천하를 울리다

그가 령도자로 될수 있는가 아닌가는 민심이 결정한다.

민심은 결코 누구나 쉽게 틀어잡을수 있는것이 아니며 누구나 바란다고 하여 잡을수 있는것도 아니다.

민심은 곧 백성들의 마음이기 전에 령도자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하는 척도와도 같아서 령도자가 특출한 령도실력과 령도풍모를 갖추지 못하였음이 판단되면 이내 민심은 흔들리고만다.

이런 의미에서 민심은 나라와 인민의 운명을 지켜주고 옳바로 이끌어주어야 할 령도자의 진가를 결정하는 척도라고도 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으로 민심의 한복판에 먼저 오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발걸음은 처음부터 민심을 틀어잡았다.

척척척척척 발걸음 우리 김대장 발걸음
2월의 기상 떨치며 앞으로 척척척
발걸음 발걸음 힘차게 한번 구르면

온 나라 인민이 따라서 척척척

온 나라 인민이 애창하는 명곡 《발걸음》을 통하여서도 알수 있듯이 인민의 마음속으로 오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발걸음은 실로 위인적이였다.

조국과 인민을 위한 거창한 위업실현에 거연히 나서신 그이의 발걸음이 가닿는 곳마다에서 기적과 위훈이 일어났고 인민들은 그이와 걸음걸음 함께 하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으신 령도실력과 령도풍모를 알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을 몸가까이에 모시고 오래동안 사업하며 그이의 절세의 위인상에 매혹된 한 일군은 이렇게 피력했다.

《위인은 위인이 안다고 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령도자로서 지녀야 할 특출한 실력과 풍모를 갖추고 인민들로부터 전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고계시는데 대하여 높이 칭송하군 하시였다.

언제인가 장군님께서는 수령님께서는 나의 사상이나 성격, 취미와 습관을 두고 신통히 백두산을 닮았다고 하시였는데 **김정은**동지는 나를 닮았다, **김정은**동지의 정신과 기질은 백두산의 정기와 기상 그대로이다, 그의 신념과 의지가 얼마나 강하고 배짱이 센지 어떤 때에는 나도 탄복할 정도이다, 신념과 의지에 있어서나 담력과 배짱에 있어서 그를 따를만

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것이다라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또 언제인가는 우리들에게 경애하는 원수님은 천재중의 천재이라고 하시면서 **김정은**동지는 군사에도 밝고 첨단과학기술에도 밝으며 우리 인민이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가장 존엄높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하겠는가 하는것을 환히 알고 멀리 앞을 내다볼줄 아는 백두산형의 장군이라고 교시하시였다.

백번 듣는것보다 한번 보는것이 낫다는 말이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한번 뵈온 사람들은 누구나 장군님의 기상, 백두산의 기상을 그대로 닮으신 그이의 비범하고 특출한 위인상에 감탄을 금치 못해하였다.

원수님의 기상은 백두산악과도 같아서 그이의 발걸음은 첫 시작부터 천하를 울리였다.》

천하를 울리였다!

이 부름과 더불어 천하를 울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인적인 기상과 담력, 배짱에 대하여 인민이 떠올리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다.

그것은 공화국이 발사하는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를 《요격》하려는 적대세력들의 무분별한 책동을 짓부셔버리신 통쾌한 이야기이다.

공화국이 시험통신위성 《광명성-2》호를 운반로케트 《은하-2》호로 쏘아올리기 위한 준비가 완료되였다는것을 전 세계에 공개하였을 때였다.

당시 국제사회는 조선중앙통신사 보도와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당시)의 발표에 접하고 합법적으로 진행하는 공화국의 위성발사를 문제시할것이 못되며 더우기 요격할 명분이 없다고 평가하였다.

하지만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공화국이 위성이라는 명분으로 장거리미싸일발사를 시험하려 한다고 생억지를 부리면서 그 무슨 변이나 난것처럼 혼비백산하여 공화국의 평화적위성발사를 《적대행위》라고 벅적 고아댔으며 특히 일본반동들은 돌격대로 나서서 공화국이 위성을 발사하면 요격하겠다는것을 《국책》으로까지 선포하였다.

평화적위성발사는 공화국의 당당한 합법적권리일진대 적대세력들의 방해책동은 그야말로 비렬하고 도수를 넘는것이였다.

그 시기 정세는 매우 엄혹하였다.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조선이 위성발사를 중지하라는 미국의 강도적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좋지 못한 후과에 직면하게 될것이라고 우려하였고 미제의 압력에 겁을 먹은 일부 나라들에서는 조선이 위성발사를 포기하였으면 하는 눈치를 보이고있었다.

하지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몸소 반타격사령관이 되시여 전군에 우리의 평화적위성을 요격하는 경우 그 《요격》체계는 물론 침략의 아성까지도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릴데 대한 명령을 하달하시였다.

정녕 그것은 천하를 울리는 불호령이였다.

천만대적도 벌벌 떨게 하던 위대한 장군님의 기상과 담력을 그대로 닮은 백두령장이 내린 무서운 철추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안겨주신 공세적인 지략에 따라 조선인민군 륙해공군부대들이 고도의 전투태세를 갖추었고 명령을 받은 영용한 비행사들은 공화국의 위성을 요격하려는 적들의 함선집단을 향하여 비행하면서 제압하였다.

결국 공화국의 강력한 공세앞에 질겁한 적들은 《요격》이고 뭐고 다 집어던지고 빽소니를 치고말았으며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는 주체조선의 위용을 온 세상에 떨치며 지구를 박차고 거세차게 솟구쳐오르게 되였던것이다.

인공지구위성발사가 성과적으로 끝난 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이번에 인공지구위성을 《요격》하겠다던 적들의 책동에 반타격을 가한것이 **김정은**동지라고, 그가 반타격사령관으로서 륙해공군을 지휘하였다고, 만일 적들이 우리의 위성을 《요격》했더라면 **김정은**동지의 반타격전에 큰일날번했다고 하시면서 환히 웃으시였다.

참으로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의 성과적발사과정을 통하여 주체조선의 무진막강한 군사적위력은 물론 세계가 처음으로 알게 된 경애하는 원수님의 천출위인상, 불가능을 모르는 무적의 장군상이 만천하에 과시되였다.

행성의 공간을 꽉 채우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백절불굴의 기상에 대한 경탄과 찬사의 목소리가 전파를 타고 울려퍼

졌다.

《천변만화의 지략은 물론 적대세력을 옴짝 못하게 다불러대는 대국적인 기상은 어쩌면 **김정일**국방위원장과 신통히도 같은가. **김정은**대장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천지를 뒤흔드는 시대가 바야흐로 도래하였다.》

《미국이 주도하는 련합세력의 두려움은 사실상 조선의 핵과 미싸일보다도 **김정은**장군의 젊음이며 그 젊음에 필승의 신심과 배짱을 더한것, 그리고 인민을 하나로 단결시키는 신화와도 같은 힘이다.》

실로 그랬다.

공화국인민은 세상을 경탄케 하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힘찬 발걸음과 더불어 온 나라 남녀로소를 하나로 단결시켜 승리에로 이끄는 그이의 비범한 령도실력과 고매한 인민적풍모에 대하여 자기들의 두눈으로 직접 보고 심장으로 절감하였다.

건설한 때로부터 70여년이 흘러오면서 수만여㎥의 감탕이 쌓여 함흥의 대공업기지들에 깨끗한 공업용수를 보장하는데 지장을 주고있던 2.8비날론련합기업소 급수침전지가 단 며칠동안에 희한한 양어장처럼 전변된 놀라운 사실은 오늘도 사람들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고있다.

이 전변의 목격자, 체험자인 조선인민군 장령의 이야기는 바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비범하고 특출한 령도실력에 대하여 잘 말하여주고있다.

《2011년 10월 16일 위대한 장군님께서 2.8비날론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실 때 함경남도일군들은 급수침전지에 쌓여있는 감탕을 2.8비날론련합기업소와 흥남비료련합기업소를 비롯한 도안의 6개 공장, 기업소의 로력으로 돌격대를 조직하여 10월안으로 퍼내기 위한 전투를 벌리겠다고 장군님께 보고드렸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료해하시고 그만한 로력으로는 함경남도에서 위대한 장군님께 보고드린 날자보다 훨씬 오랜 기일이 걸려야 침전지에 쌓여있는 감탕을 다 퍼낼수 있다고 보시고 인민군대가 맡아 그 공사를 한주일동안에 해제낄것을 결심하시였으며 곧 위대한 장군님께 보고드리시였다.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하시면서 무조건 인민군대가 책임지고 그 문제를 풀라고 하시였다.

이렇게 되여 급수침전지 감탕제거공사는 우리 인민군대가 맡아하게 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사를 최단기간에 와닥닥 해제낄데 대한 구체적인 과업과 공사기간 인민들에게 사소한 부담도 주지 않도록 할데 대한 지시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지도속에 공사에 동원된 우리 인민군군인들은 함경남도인민들에게 자그마한 부담도 주지 않

으면서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결사전을 벌려 단 엿새만에 감탕을 말끔히 퍼내고 침전지를 희한한 양어장처럼 전변시키는 기적같은 현실을 펼쳐놓게 되였다.

공사가 불이 번쩍나게 최단기간내에, 완전무결하게 결속될수 있은 비결은 어디에 있었는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담대한 기상에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을 따라 부흥강국건설의 천만리길을 걸어온 우리 인민군장병들은 **김정은**원수님께서 지니신 백두산악과도 같은 그 기상에서 공사시작전에 벌써 승리를 확신하였던것이다.

장군님 그대로이신 백두산형의 절세위인에 대한 다함없는 찬가인 노래 <발걸음>을 더 높이, 더 크게 심장으로 부르며 우리 인민군군인들과 온 나라 인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야말로 영원무궁할 백두산강국의 위대한 계승자이시라는것을 가슴뜨겁게 절감하게 되였다.

그래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생전에 **김정은**동지는 누가 내세워주어서가 아니라 자기의 실력으로 인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우리 당의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해나갈것이라고, 자신께서는 이에 대하여 믿어의심치 않는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던것이다.》

한 나라, 한 민족의 전도와 미래는 전적으로 그 나라, 그 민족을 이끄는 령수의 정치실력, 령도실력에 달려있으며 인민

에게 있어서 대를 이어 탁월한 령도자를 모신것처럼 최대의 행운과 영광은 없다.

하기에 이 땅에 생의 뿌리를 둔 온 나라의 남녀로소가 위대한 장군님의 위업, 2월의 위업을 한몸에 떠맡으시고 부흥강국건설의 성스러운 길에 힘찬 발걸음을 내짚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억제할수 없는 환희와 격정에 휩싸였다.

그 환희, 그 격정의 대변이런가 대를 이어 누리는 수령복, 장군복을 두고 공화국의 이름있는 한 문인이 터친 고백은 사람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하여주고있다.

《돌이켜보면 우리 인민, 우리 조국은 어버이수령님을 모셔서야 비로소 식민지노예의 쇠사슬에서 벗어나 자기 운명과 발전에서 극적인 전환을 가져왔다. 위대한 장군님을 따랐기에 우리 인민은 그처럼 류례없는 시련과 고난속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강국건설의 새시대를 펼칠수 있었다.

바로 그러한 인민의 마음속에 수령님들의 모습으로 오신 또 한분의 천출위인이 눈부신 태양의 모습으로 안겨들었으니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게 된 그 기쁨과 감격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할수 있겠는가.

더우기 2월의 기상으로, 천하를 울리는 힘찬 발걸음으로 이 땅에 경이적인 기적과 전변을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그이의 영상에서 내 조국의 밝은 전도와 확고한 미래를 락관하는 인민의 자부와 긍지는 하늘에 닿았다.》

희천발전소에 가면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여러 차례나 찾아오시여 군인건설자들에게 백두산의 기상과 용맹, 단숨에의 기상과 본때를 안겨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의 자욱이 새겨져있고 대동강과일종합가공공장에 가면 어버이장군님과 함께 이곳에 오시여 인민들에게 더 많은 과일가공품을 안겨주시기 위해 인민사랑의 전설을 수놓아가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따뜻한 손길이 어리여있다.

인민은 조국수호의 길, 부흥강국건설의 길에서 힘차게 울려퍼지는 경애하는 그이의 발걸음소리를 들으며 끝없는 환희로 설레였다. 이 나라 방방곡곡으로 나날이 크게, 더 큰 보폭으로 이어지는 절세위인의 힘찬 발걸음소리를 들으며 세계는 젊음으로 약동하는 조선의 기상, 조선의 힘을 절감하였다.

하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김정은**동지가 있어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는 확고히 담보되여있으며 조국의 앞길은 끝없이 밝고 창창하다고, 자신께서는 **김정은**동지가 있기때문에 우리 혁명의 전도에 대하여 언제나 배심이 든든하며 혁명승리에 대한 신심에 넘쳐있다고,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은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될것이라고 교시하시였던것이다.

세계정치사에는 그 어떤 총선거나 대민족회의에 앞서 인민들의 한결같은 총의에 따라 국가령도자로 호칭되거나 추대된 그런 정치가가 있어본적이 없었다.

하지만 2월의 기상, 백두의 기상과 세상을 뜨겁게 하여주는 위인들의 인정미에 익숙하여진 이 나라 인민들은 원수님의 발걸음을 따라걸으면서 원수님만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위업을 받드시여 이 나라를 떠메고 나갈 령도자가 되실수 있음을 확신하였던것이다.

정녕 독특한 령도실력을 지니시고 민심의 바다우에 태양으로 솟아오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천하를 울리는 힘찬 발걸음으로 위대한 계승과 발전의 새로운 주체100년사를 수놓아가시는 천하제일의 위인이시다.

척척척척척 발걸음 우리 김대장 발걸음
2월의 위업 받들어 앞으로 척척척
발걸음 발걸음 더 높이 울려퍼져라
찬란한 미래를 앞당겨 척척척

# 눈물속에 새겨진 태양의 모습

주체100(2011)년 12월 대국상의 나날 공화국에 와있던 어느한 나라의 기자는 본사편집국으로 이런 글을 전송하였다.

《…인간의 꾸밈없는 눈물은 순결한것이여서 그것은 지어낼수도 꾸며낼수도 없다.

지금 이 시각 여기 조선의 모든 남녀로소가 흘리는 눈물이 바로 그러하다.

평양의 기온은 −20℃를 오르내리건만 수많은 평양시민들이 솜옷도 입지 않고 말그대로 중대보도를 들은 즉시 거리로 달려나왔다. **김일성**주석님의 동상과 모자이크벽화를 비롯한 여러 영상작품이 모셔진 곳을 찾아와 땅을 치며 흐느끼고 통곡하고있다. 어른들과 함께 아이들도 발을 동동 구르며 아버지를 부른다. 가시면 안된다고 장군님을 부르며 목메여 운다. …

수도 평양만이 아닌 온 조선의 인민들이 모두 달려나와 위대한 령도자의 서거를 비통한 마음으로 슬퍼하고있다.

조선인민이 흘리는 눈물을 통하여 령도자와 인민들사이의 뉴대가 얼마나 진실하고 뜨거운가를 잘 알수 있다.》

그처럼 열과 정을 다하여 사랑하시던 인민을 두고 조국을 두고 어버이장군님께서 가시였다는 사실을 정녕 믿을수가 없어 몸부림친 인민, 장군님의 전사, 제자들인 이 인민이 흘리는 눈물은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인민은 우리 인민이라고 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그대로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우리 인민이라고 외우고 또 외우시던 위대한 장군님. 인민을 위한 일을 하나라도 더 할수 없겠는가 하는 불같은 마음을 안으시고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인민행야전렬차에서 쪽잠에 줴기밥을 드시면서 초강도강행군길을 정력적으로 이어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한생의 총화는 그대로 《인민》이였기에 인민의 슬픔과 고통은 더없이 컸다.

하늘이 무너져내리는것만 같은 청천벽력같은 비보에 위대한 장군님을 부르며 태질하고 땅을 치며 통곡하다 쓰러지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늘어갔다. 더는 이 땅에서 웃음이란 없을것같았다.

그해의 겨울은 또 얼마나 춥고 맵짰던가.

그러나 온 강산을 동토대로 만들어버리는 강추위도 위대한 장군님을 애타게 부르며 흘리는 인민의 뜨거운 눈물과 장군님을 그리는 그 마음만은 얼구지를 못했다.

그 누가 지시하거나 명령한 일도 없건만 스스로 밤을 새워 조의식장에서 호상을 서고있는 사람들, 장군님에 대한 한없

는 그리움에 눈물지으며 송이송이 엮은 화환들이 눈발에 젖을세라 자기들의 솜옷을 벗어 씌우며 조의식장을 찾고 또 찾는 사람들…

그들속에는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쳐온 로투사들로부터 전화의 불비속을 뚫고온 전쟁로병들, 평범한 로동자, 농민, 인민군군인들과 사무원들, 청년학생들 지어는 유치원어린이들도 있었다.

남녀로소 할것없이 모두가 모자와 목수건, 장갑을 벗어들고 하염없이 쏟아지는 눈물속에 조의순서를 기다렸다. 커다란 슬픔속에 조의를 표시하고는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상을 우러르며 그곁을 차마 떠날수가 없어 스스로 호상을 섰다.

하지만 건강을 돌보아야 한다고 의견을 내놓거나 대책을 세우는 일군도 없었고 추위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조차 없었다. 있을수도 없었다.

그러나 위대한 장군님을 목놓아 찾고 부르는 인민의 흰눈처럼 순결하고 깨끗하며 꾸밈없는 모습, 모진 추위속에서도 위대한 장군님곁에 있어야 춥지도 않고 맘이 편하다고 하면서 시간의 흐름을 잊어버린듯 언제까지나 호상을 서고 추위속에서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구름처럼 모여들어 갈수록 커지기만 하는 인민의 거대한 추모행렬을 직접 목격하시며 가슴아파하시는분이 계셨으니 그이가 바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아껴주시던 인민인가. 인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을 주고 인민생활에 티끌만치라도 해를 끼치는 현상이 나타나면 그토록 가슴아파하시며 인민을 위해 자신께서 주실수 있는 사랑이란 사랑은 다 부어주시던 위대한 장군님, 장군님께 있어서 인민은 한시도 떨어져서는 사실수 없는 살붙이가 아니였던가.

위대한 장군님을 운명의 태양, 삶의 전부로 간직하고 하늘처럼 우러러모시고 따르던 충직한 인민을 추위속에 그대로 둘수 없다고 생각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위대한 장군님을 부르고 또 부르는 인민의 성의가 눈물없이는 볼수 없는 진정이기는 하지만 그들을 떨게 하는것은 장군님께서 바라시는 일이 아니며 이 사실을 우리 장군님께서 아신다면 얼마나 가슴아파하시겠는가 하는 생각이 원수님의 심중에서 좀처럼 떠나지 않으셨던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들의 편의를 최우선적으로, 절대적으로 보장해주는것이 위대한 장군님과의 영결을 앞둔 그 시각에 장군님을 위하여 자신께서 하실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업임을 확신하시였다. 이렇게 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담긴 친필서한을 한자한자 적어나가시였다.

장의행사기간 인민들의 리익을 옹호하고 편의를 철저히 우선적

으로 보장하는데 중심을 두고 모든 행사 조직진행할것이다

…

또한 의료보장대책, 더운물보장대책 철저히 따라세우고 평양시는 물론 전국각지에서 각종 사고방지대책을 예견성있게 세우도록 해야 하겠음

각급 당조직들에서 (일군들이) 책상에 앉아서만 추운 겨울밤 인민들 걱정을 하지 말고 일별, 시간별 교대로 현장에 나가 인민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슬픔을 나누며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도록 해야 하겠음.

당조직들(일군들)에서는 추운 겨울밤 추위속에서 인민들이 떨고있다는것을 아시면 우리 장군님께서 가슴아파하신다는것을 명심하고 인민들의 편의를 최우선 절대적으로 보장할것

**김 정 은** 2011 12 23

2011년 12월 23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친필서한에 접한 온 나라 인민들은 오열을 터뜨렸다.

《하늘도 그처럼 위대하신분, 어버이를 잘 모셔드리지 못한 불효막심한 우리에게 벌을 주느라 추위를 몰아오고 눈까지 퍼붓고있는데 가장 큰 슬픔을 안고계실 **김정은**원수님께서 오히려 인민들을 더 걱정하여주신단 말입니까.》

위인을 잃은 공허는 위인만이 메꿀수 있다는 말이 있다.

비록 친필서한은 요란하지도, 길지도 않았지만 인민은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야말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그대로 인민을 제일로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자애로운 어버이, 사랑의 태양이시라는것을 뜨거운 격정의 눈물속에 스스로 마음속에 새겨안게 되였다.

그렇게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을 잃고 눈물흘리던 이 나라의 천만자식들의 젖은 얼굴을 인민의 리익, 인민의 편의라는 따뜻한 사랑, 어버이의 사랑으로 닦아주시였다.

어느한 책임일군은 그때를 이렇게 감회깊이 회억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이 얼마나 크고 뜨거운가를 구태여 따로 고백하시거나 선언하지 않으시였다.

사랑의 친필서한을 보내주신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야외조의식장을 찾는 인민들과 호상을 서는 사람들이 모자와 머리수건, 장갑과 귀걸이를 착용하게 하고 조의를 표시할 때에만 벗도록 하며 그들이 추운 날씨에 불편을 느끼거나 동상을 입는것과 같은 현상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도록 할데 대한 지시를 주시였다. 그리고 다음날에는 야외조의식장들에서 호상을 서는 사람들의 몸을 덥히는데 필요한 수만개의 발열붙임띠와 발열신발깔개를 보내주시였다. 또 그 다음날인 12월 25일에는 추운 겨울날 맹물을 끓여주는것보다 더운물에 사탕가루를 풀어주면 좋아할것이라고 하시면서 평양시안의

조의식장들에 사탕가루, 산꿀, 우유가루, 빵, 과자 등 많은 식료품을 보내주시였다. 뿐만아니라 조의식장을 찾는 사람들과 호상을 서는 사람들이 추운 겨울에 동상을 입거나 감기에 걸리지 않게 의료보장대책을 세우도록 할데 대한 조치를 또다시 취해주시였다.

인민을 위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은 끝이 없었다.

사람들이 대국상을 당한 상제로서 목욕과 리발을 하지 않고있다는것을 아시고서는 목욕탕과 리발소를 비롯한 편의봉사시설들을 여느때와 같이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주시였으며 평양시안의 야외조의식장에서 호상을 서고있는 사람들과 보장부문 성원들에게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불돌이야기, 야외봉사매대는 물론 몸녹이는 가설물과 대형뻐스들에 대한 이야기, 동지팥죽봉사에 대한 이야기 등 대국상시기에 펼쳐진 인민사랑의 전설같은 이야기들을 다하자면 끝이 없다.

예로부터 우리 나라에는 상제가 되면 3년동안 기름진 음식과 편안한 잠자리를 삼가하면서 부모의 령혼을 지키는것이 하나의 풍습으로 전해져왔다. 하물며 민족대국상의 상제들인 우리 인민들에게 있어서 날씨타발은 물론이고 꿀물을 생각하며 손발이 시리다고 탓하는 일은 꿈에도 있을수 없었다.

하기에 조의식장에서 따끈한 사탕물과 꿀물을 받아안은 사람들은 쏟아지는 눈물을 걷잡지 못하였다.

정말 대국상의 나날에 수도시민들과 인민이 받아안은 뜨거운 사랑과 은정은 그 누구보다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계시면서도 장군님과 혈연의 정으로 이어진 인민을 먼저 생각하시며 장군님사랑을 그대로 부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충정의 세계였다.》

바로 그러했다.

대국상의 나날 수도 평양만이 아닌 조국의 최북단으로부터 분계연선의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 이르기까지 인민이 있는 모든 곳에서 이 세상에 사랑이라는 말이 생겨 처음 보는 광경이 펼쳐졌다.

그 사랑이 얼마나 따뜻한것이였는가를 일군들과 인민들은 오늘도 이렇게 전해간다.

《…그렇게 하는것은 자식의 도리, 전사의 도리가 아니라고 손을 내흔드는 사람들, 이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이라고 목이 메여 설복하며 봉사매대와 몸을 녹이는 뻐스들로 잡아이끄는 일군들과 봉사자들, 이끄는 사람도 이끌려가는 사람도 누구나가 한사람같이 터치는 격정으로 하여 조의식장들은 눈물바다가 되였다. 그럴수록 인민의 어버이에 대한 그리움은 더욱 간절해졌고 인민은 피눈물이 흘러내리는 얼굴을 경애하는 원수님 품에 묻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인민사랑의 빛발이 그대로 조의식장들의 맵짠 추위를 가시는 열원이 되였다.

이 나날에 동지죽을 받아안고 인민들이 격정의 눈물을 또 다시 쏟아부은 잊지 못할 12월 22일도 흘러갔다.

어버이장군님을 잃은 비통함에 잠긴 온 나라 인민들은 어느 누구도 이날이 동지날이라는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있었다. 설사 동지날이라는것을 알았다고 해도 동지죽 같은것은 감히 생각조차 할수 없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뜨거운 사랑이 깃든 동지팥죽이 야외조의식장주변의 가설건물들에서 인민들에게 안겨졌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속에서 동지죽에 대한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있는 인민들을 위하여 동지죽을 수도의 급양봉사망들에서 봉사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 동지날 전날에는 동지죽원자재공급대책까지 세워주신것이였다.》

《대국상속에서도 동지날을 잊지 않으시고 어버이장군님의 크나큰 사랑을 가슴뜨겁게 되새겨주시며 동지죽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인상을 우러르며 우리 장군님의 불같은 한생이 어려와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였다.》

민족의 대국상의 시련속에서도 변함없이 이어지고 더더욱 뜨거워만지는 어버이사랑속에서, 동이로 쏟고쏟은 뜨거운 눈물속에서 인민은 자기들의 운명으로, 미래로 받들어올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영상을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의 모습으로 새겨안았다.

남조선의 한 정치평론가는 《북의 2012년이 말하는 진리》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북주민들이 어버이로 믿고 살던 령도자를 잃고 어떻게 일어설것인가.

하늘땅을 놀래우는 비애의 곡성과 강처럼 흐르는 눈물을 멈출수 있을가. 이것이 진보적인류의 우려였다. 그러나 오랜 기간 <찰나>를 노려온 북의 적대세력에게는 대북프로그람을 적용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일심단결된 나라의 표상을 60억의 시야에서 지우는것이 그들의 꿈이였다.

당시 생중계는 북의 <조락>을 예언하며 추모행사에 찬물을 뿌려대던 사이비언론을 기슭으로 밀어버리고있었다. 눈여겨봐야 도저히 내부의 균렬을 찾을수 없었다. 오히려 비쳐드는것은 더 뭉쳐진 모습이였다. 만약 시청이 불가능했다면 세계는 령도자의 서거에 인민전체가 오열하는 현장을 볼수 없었을것이며 그렇게도 순결무구한 신뢰심이 있다는것도 몰랐을것이다. <몸녹이는 뻐스>와 치료소들에서 더운 차를 마시며 조의를 표하는 나라, 호상을 서는 젊은이들에게 모자를 씌워주고 장갑을 끼워주며 건강을 살펴주는 특이한 인정을 목격하지 못했을것이다. 과연 택시들이 병약자들을 찾아 무료봉사했다는 사실을 믿을수 있겠는가. 하지만 이 모든것은 엄연한 현실이였다.

세계 1만 2 000여개 언론기관은 도의를 지키는 국민들을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해주신분이 가장 큰 슬픔을 안고계신 **김정은**령도자님이시라는데 대해 새 소식의 홍수를 터치였었다.

세계는 호상을 서며 눈물로 포석을 적시던 사람들이 잠을 잊고 일터로 나가는 모습에서 마술적힘을 릉가하는 그분의 사랑을 보았다. 78년만에 닥쳤다는 12월의 강추위에 얼어버릴수 있었던 이북은 이렇게 견디였다.

견디여냈을뿐 아니라 더 굳은 결정체로 표면화되였다.

인간은 마음으로 본다고 한다.

어버이사랑에 습관된 북주민들은 금방 어버이께서 다시 오시였음을 알았고 자기들의 마음의 문을 여신 그분이시야말로 어버이이심을 눈물너머 확인하였다. 그들은 그분께서 쏟아내는 정이 수천만 심장을 울리고있다는것을 체감하였다. 이북을 투시해보면 해방조선에서부터 흘러온 근 70년세월의 자리길이 인간사랑으로 다져졌다는것을 알게 된다. 그것은 원자탄보다 위력하다고 하는 일심단결을 이룬 이민위천의 사상에 기초하고있다. 따라서 선대수령들과 같은 좌우명을 지니시고 정으로 인민의 마음의 문을 여신분께 매혹되는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그분께서 지니신 풍모의 단면이였다.

인류정치사에는 백성이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겠노라 뜻을

세우고 나섰다가 그것을 미지수로 남기고 사라진 정치인들이 많았다.

하지만 인류는 한 나라 인민이 흘리는 비애의 눈물이 닦아지고 그것이 의지로 바뀌지는 사실을 목격하였다. 공식추대가 있기 전에 이미 그분을 자기들의 령도자로 결정한것은 북의 민심이였다.》

그렇다.

그처럼 짧은 력사의 순간에 인민의 심장속에 오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대국상의 나날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을 그대로 안으시고 인민들 가까이, 더 가까이 다가오시였다.

인민의 어버이는 결코 바란다고 하여 저절로 되는것이 아니며 요란하게 선전한다고 해서 되는것은 더욱 아니다. 그 어떤 사람도 지닐수 없는 가장 숭고한 인민관으로 하여 스스로 만인의 절대적인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되는 과정에 인민의 어버이로 되는것이다.

은정어린 친필서한과 사랑의 특별조치와 더불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의 마음속에 위대한 어버이로 오시였다. 우리 인민이 피눈물의 언덕에서 뵈온 경애하는 원수님은 분명 위대한 수령님들의 모습 그대로였다.

당시 원수님 몸가까이에서 사업한 한 일군은 그때를 회고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한가정의 부모가 항상 마음속에 제일 큰 걱정거리로 안

고있는것은 자기 자식들의 아픔과 불편이다. 자식들의 아픔과 불편을 자기의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덜어주기 위해 제일로 윈심을 쓰며 지어는 자기자신까지 바치는것이 바로 부모이다.

마찬가지로 친어버이의 심정을 지닌분만이 인민들의 아픔과 불편을 깊이 헤아리고 말끔히 가셔줄수 있는것이다. 인민의 어버이에게는 인민이 겪는 자그마한 불편이나 걱정도 스스로 말아안고 가셔주는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수 없다. 경애하는 원수님은 인류정치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숭고한 풍모를 지니시고 인민을 아끼고 극진히 사랑하며 따뜻이 돌보시는 인민의 어버이이시다.

그래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다른 모든 정치가, 위인들에게는 결코 중대한것으로 보이지 않는 인민의 아픔과 불편, 괴로움이 제일 아프게 여겨지셨고 인민의 리익과 편의의 최우선, 절대시라는 력사에 류례없는 인민사랑의 원칙을 내세우신것이다.》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

바로 여기에는 이 세상 그 무엇도 인민우에 놓일수 없고 인민의 존엄과 리익은 그 어떤 경우에도 건드릴수 없으며 인민을 위한 일보다 더 긴급하고 중대한 일은 없고 그 해결에서는 오직 완전무결함만이 있어야 한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부동한 관점이 응축되여있다.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최대로 중시해야 할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 인민뿐이라는것이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삶의 지론이다.

그것이 어떤것이든 인민들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적으로 보장하는데 철저히 복종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것은 아무리 품을 많이 들이고 값진것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의의도 가치도 없다고 보시는 인민의 어버이.

이런 어버이를 대국상의 눈물속에서 운명의 태양으로, 삶의 태양으로 새겨안은것은 이 나라 인민에게 있어서 최대의 영광이였고 더없는 행복이였다. 대국상의 나날에 인민의 눈물너머로 비쳐온 태양의 빛발은 정녕 이 나라 인민에게 있어서 운명과 삶, 그자체였다.

# 세상에 없는 수령영생의 대기념비

절세위인들의 품속에서 한생을 빛내여온 국가의 한 책임일군은 자기가 쓴 책의 한 대목에서 이렇게 서술했다.

《위대한 장군님을 잃은 그해에는 례년에 없이 많은 눈이 내리였다. 절세의 위인과 영결하는 인민의 마음인양 소리없이, 하염없이 내리는 눈은 사람들의 마음을 더더욱 아프게 하였다.

인민들은 떠나가시는 어버이장군님을 찬눈길에 모실수 없기에 영결의 거리를 쓸고 또 쓸었고 그것도 부족한듯 저저마다 솜옷과 목수건을 벗어 장군님 지나가실 길에 정성들여 폈으며 지어 가정들에서 단 한번도 덮어본적이 없는 새 이불과 담요까지 가지고 나와 장군님의 령구차가 지나갈 도로에 펴드렸다. 영결의 거리거리에서 우리를 두고 장군님은 절대로 못가신다고 목놓아울며 령구차를 에워싼 인민들의 눈물겨운 화폭, 아프고 쓰린 마음을 달래지 못하여 령구차를 따라 영결의 거리를 달리다가는 쓰러지고 령구차가 멀어져 더는 보이지 않게 되였을 때에는 그 자리에 어푸러져 일어설념을 하지 못하고 땅을 치며 뜨거운 눈물을 쏟는 사람들의 모

습들이 영원한 그리움의 군상으로 이 땅에 력력히 새겨졌다. 자애로운 어버이를 안타까이 찾고 또 찾으며 곡성을 울리는 천만자식들의 그 눈물겨운 광경은 이 세상 그 어디에서 볼수도, 지어낼수도 없고 흉내낼수도, 재현할수도 없는 인류력사에 전무후무한 감동깊은 화폭들이였다.

억장이 무너져내리는것과 같은 비통한 아픔에 산천초목도 몸부림치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잃고 오직 위대한 장군님만을 굳게 믿고 따라온 인민들이였기에, 장군님과 떨어진 자신들의 삶을 어느 한순간도 생각해본적이 없던 이 나라의 천만자식들이였기에 장군님과 영결의 시각의 그 고통은 그 어디에 비길수 없는것이였다.

그런 인민이 어버이의 생전의 모습을 그대로 모시고 살수 있게 하여주신분이 계셨으니 그이는 바로 인민들에게 수령영생의 신념을 더욱 억세게 심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시였다.》

일찍부터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로선, 절대적인 권위를 견결히 옹호하는데 언제나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시였으며 그 어떤 조건에서도 위대한 장군님의 구상과 결심을 최대의 충성을 다 바쳐 완벽하게 실현해오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크나큰 상실의 아픔속에서도 수령영생위업의 위대한 새 력사를 펼쳐나가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온 나라 전체 인민의 절절한 그리움과 함께 자신께서 하셔야 할 중대한 사업의 의미를 깊이 헤아리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서거하신 직후에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장군님을 수령님과 함께 생전의 모습그대로 모시고싶은것이 나의 마음입니다. 장군님은 언제나 수령님과 함께 계시였으며 수령님께서 서거하신 후에도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주체의 한길을 드팀없이 걸으신 수령님의 가장 가까운 전우, 동지이시였습니다. 수령님과 장군님을 금수산기념궁전에 함께 모시는것은 도덕의리적으로 보아도 조선의 혁명가, 장군님의 전사들이 꼭 하여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장군님을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기념궁전에 함께 모시기로 결심하였습니다. …

수령의 영생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인민들이 수령이 생존해계실 때처럼 스스럼없이 찾아뵙고 인사를 올리며 그이와 마음속대화를 나누는것, 인민들모두가 기쁜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생전의 모습그대로 계시는 수령을 찾아 사연을 아뢰고 가르치심을 받게 하는것, 이것이 다름아닌 수령의 영생이다.

위대한 장군님을 생전의 모습으로 모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심중에는 장군님께서 생존해계실 때와 다름없이 늘

위대한 장군님을 찾아뵙고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으며 새로운 결의도 다져나가시려는 확고한 신념이 자리잡고있었다.

그리고 일군들과 인민들도 지난 시기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찾아뵙고 수령님과 마음속대화를 나누어온것처럼 생전의 모습 그대로이신 위대한 장군님을 자주 만나뵈옵고 자식된 심정에서 장군님께 인사도 올리고 자신들이 하고있는 사업정형을 보고하며 가르치심도 받게 하시려는 깊은 의도가 담겨져있었다.

위대한 장군님을 생전의 모습그대로 금수산기념궁전에 모심에 있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특별히 관심하신것은 위대한 장군님께 입혀드릴 옷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전에 늘 입고 다니시던 옷, 조국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헌신성과 한없는 소박성, 풍상고초를 그대로 보여주는 옷을 입혀드릴 생각을 하시였다.

그것은 다름아닌 잠바옷차림이였다.

위대한 장군님을 인민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있는 야전복차림, 잠바옷을 입으신 모습으로 모셔야 한다!

이것이 위대한 장군님을 생전의 모습그대로 금수산기념궁전에 모시기 위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품게 되신 결심이였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신에게는 아직 제낀형옷을 입을 경황이 없다고, 지금은 혁명하는 시대이라고, 혁명하는

시대에 자신에게는 할 일이 대단히 많다고, 일을 많이 하자면 옷도 전투적으로 입는것이 좋다고, 자신의 잠바는 자신에게 있어서 전투복이나 다름없다고, 자신께서는 활동형의 옷이 좋다는 가슴뜨거운 교시를 하신적이 있다.

어버이장군님께서는 여름철에 온몸이 땀에 절고 뙤약볕이 사정없이 쏟아지는 폭양속에서도 늘 야전복차림의 잠바옷을 입으시고 인민들속으로 들어가 그들과 함께 계시였다.

온 나라 인민들이 한번만이라도 꼭 입어보시였으면 하는 간절한 소원을 담아 지어올린 원수복도 단 한번도 인민들앞에 입고 나서지 않으신 장군님이시였다.

인민들에게 있어서 장군님의 야전복은 단순한 전투복이 아니라 세월의 모진 비바람과 강추위를 다 막아주고 사랑의 넓은 품에 뜨겁게 안아준 자애롭고 다심한 친어머니의 정깊은 옷자락이였다. 장군님께서는 그런 야전복차림으로 조국과 인민을 위해 마음써오시다가 달리는 렬차에서 순직하신것이다.

언제나 야전복인 잠바옷과 색날은 솜옷차림으로 인민들과 함께 어울리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한없이 소박하신 평민적인 옷차림새에 대하여 생각할 때면 그이께서 생존해계실 때 좋은 옷을 한벌도 해드리지 못한 죄책감으로 오늘도 가슴이 찢기는 아픔을 억제하지 못하는 인민들이다.

그래서 이 나라 인민들에게는 야전형의 잠바옷차림이 아니라 다른 옷차림으로 모신다면 인민들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

져있는 잠바옷차림의 장군님의 모습, 자애로운 인민의 수령으로서의 장군님의 영상에 그늘이 질수 있다고 보신분이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들은 장군님께서 생존해계실 때처럼 야전복차림, 잠바옷차림의 장군님을 사무치게 그린다는것, 그래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전의 모습그대로 영생하시게 하려면 반드시 잠바옷을 입혀드려야 한다고 보신것이다.

이렇게 되여 위대한 장군님은 야전형의 잠바옷차림으로 금수산기념궁전에 모셔지게 되였다.

금수산기념궁전을 수령영생의 대전당으로 완벽하게 꾸리기 위하여 위대한 장군님을 생전의 모습으로 모실 영생홀을 최상의 수준에서 꾸리는 문제로부터 시작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립상을 모실 홀을 다시 꾸리는 문제, 울음홀을 더욱 숭엄하게 꾸리는 문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훈장보존실들과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현지지도와 외국방문의 길에서 리용하신 승용차와 전동차, 배, 렬차보존실들을 꾸리는 문제 그리고 수령님과 장군님의 혁명생애와 령도풍모를 보여주는 귀중한 영상사진문헌들을 모시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치신 로고와 심혈, 뜨거운 지성에 대하여 이야기하자면 정녕 끝이 없다.

주체101(2012)년 2월 16일 주체의 최고성지에서 엄숙히 거

행된 금수산기념궁전을 《금수산태양궁전》으로 명명함에 관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공동결정을 공표하는 행사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의도에 따른것이였다.

수령을 모시는 전당의 이름을 어떻게 명명하는가 하는 문제는 단순한 명칭문제가 아니라 수령을 모시는 자세와 립장문제, 인민의 마음속에 수령의 영생을 지켜드리기 위한 심각한 정치도덕적문제이다.

이것은 수령영생위업실현에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가 바로 수령을 모시는 전당의 이름을 말그대로 인민의 수령, 인민의 태양을 함께 모신 전당으로서의 성격이 살아나게 명명하는것이라는것을 말해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은 력사상에 존재하였던 모든 위인들과는 대비할수도 없는 위인중의 위인, 우리 인민과 민족, 세계 진보적인류가 한결같이 흠모하고 따르는 태양이시였다. 그런것만큼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생전의 모습으로 모신 전당이 반드시 태양의 격에 맞게 명명되는것이 너무나도 응당하고 마땅한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모시려는 인민들의 절절한 소원

과 념원을 담아 금수산기념궁전을 태양의 집으로서의 성격이 살아나게 이름을 명명하는것이 시대의 요구라고 보시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금수산기념궁전을 《금수산태양궁전》으로 명명할것을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에 제의하시였으며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특별보도를 발표하도록 하시여 금수산기념궁전이 명실공히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영원히 높이 모신 태양의 궁전이라는것을 온 세상에 숭엄하게 공표하도록 하시였다.

하여 수수천년 인류력사에 있어본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있을수 없는 수령영생의 궁전을 뜻하는 금수산태양궁전이라는 새로운 고유어가 태여나고 수령영생위업실현의 또 한페지 새로운 장이 펼쳐지게 되였다.

주체101(2012)년 12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태양의 성지에서는 보다 새롭고 독특하면서도 숭엄하게 꾸려진 금수산태양궁전 개관식이 만사람의 관심속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이날 개관식에 참가했던 사람들은 그 어느것이나 최대의 정중성과 상상을 뛰여넘는 건축미학성, 수령님들의 위대함과 자애로움, 령도풍모와 인민성이 직관적으로 가슴에 젖어들고 마음속에 깊이깊이 새겨지게 하는 태양의 성지를 우러르면서 감탄을 금치 못하였고 인민의 마음을 고이고이 아로새겨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의 정에 넘쳐 뜨거운

눈물을 머금었다.

거룩한 태양의 성지에 비껴흐르는 다함없는 칭송과 흠모의 결정체들, 귀중한 사적물들과 훈장보존실 그리고 특색있게 꾸려진 광장공원이며 주단을 펼친듯 푸르른 잔디밭과 황홀한 분수터며 휴식의자 하나하나도 무심히 대할수 없는 인민들이였다.

왜 그렇지 않겠는가.

나라일이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몸소 금수산태양궁전광장공원건설장에 나오시여 새 품종의 잔디를 심는 방법도 일군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쳐주시고 화단형식과 나무수종, 수형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가르쳐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면불휴의 로고에 대하여 전설처럼 들은 이 나라 인민들이였던것이다.

이를 목격한 외국의 한 인사는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피력하였다.

《일반적으로 릉이라고 하면 무게와 정중성이 최대로 보장되고 숭엄한 감정이 안겨오도록 하는것이 공통의 견해이다.

특히 생전에 나라와 인민을 위해 업적을 남긴 위인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은 엄숙하기 전에 수령과 인민이 언제나 한데 어울려앉아 가정사도 의논하고 기뻤던 일, 슬펐던 일도 죄다 털어놓으며 간격없이

어울려사는 대식솔의 모습을 펼치고있다.

이 세상 고운 꽃들은 다 여기에 피여난것만 같은 드넓은 화초밭과 독특하고 정교한 조각품들을 련상케 하는 각종 형식의 휴식구들, 푸른 주단을 펼친듯 보기만 해도 마음이 상쾌해지는 드넓은 잔디밭들, 쉴새없이 뿜어오르는 분수들, 푸른 잎 설레이는 수많은 크고작은 나무들, 궁전광장의 휴식터들에 앉아 담소도 하고 이야기꽃도 피우고 즐거운 휴식의 한때도 보내는 인민들, 그들을 축복해주시는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의 자애로운 영상… 참으로 이곳은 수령영생의 대화원이고 인민의 공원이다.》

오늘도 공화국인민들이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속에 되새겨보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절절한 말씀.

금수산태양궁전은 말그대로 수령님과 장군님을 생전의 모습그대로 모신 태양의 궁전인것만큼 인민들의 발길이 끊어지지 않는 곳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

바로 이 숭고한 뜻을 마음속에 고이 간직하시였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금수산태양궁전의 외부를 돌아보시면서 지금까지 그 누구도 생각지 못한 중요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깨우쳐주시며 수많은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금수산태양궁전은 수령님들께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로서 우리 공화국의 영상이나 같은것만큼 궁전정면 웃부분에 국장을 새겨놓을데 대한 문제, 금수산태양궁전광장 주석단

아래벽에는 대원수별을 새기고 궁전정면에 수령님과 장군님의 태양상을 모시며 그우에 국장을 새겨놓고 국기를 띄우도록 할데 대한 문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로부터 두달후에도 금수산태양궁전의 불장식을 잘하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기둥과 벽체를 비롯하여 골조들이 두드러지게 살아나도록 불장식을 하되 공화국기발과 국장에 조명을 잘 집초시켜야 한다고 일군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 방안을 제시해주시였다.

이렇게 되여 훈장보존실과 사적물보존실이 새로 꾸려지는것과 함께 공화국기가 날리는 지붕아래 앞벽면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장을 새기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상을 정중히 모심으로써 금수산태양궁전은 태양의 성지로서의 존엄과 품격을 한층더 살릴수 있게 되였고 금수산태양궁전은 말그대로 절세의 위인들의 체취와 업적이 꽉 들어찬 성지로

칭송의 목소리

### 세계의 태양은 김정은동지이시다

이딸리아의 한 인사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유리공예 《빛세기측정기구》를 선물로 올리면서 자기의 진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조선은 비록 크지 않은 나라이지만 세계정치의 중심에서 위대한 힘으로 세계를 움직이고있다.

해빛은 이 측정기구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다.

다시말하면 세계의 태양은 바로 **김정은**동지이시다.

위대한 태양을 모신 조선이 세계를 주도하며 주체의 길로 확신성있게 나아간다고 생각하는 나의 심정이 그대로 이 선물에 반영되여있다.》

서의 품격을 보다 완벽하게 갖추게 되였다.

진정 비오는 날에도, 찬눈내리는 날에도 그리고 아침에도 저녁에도 이른새벽에도 찾아오시여 금수산태양궁전을 훌륭히 꾸리기 위해 바쳐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고를 세월이 흐른들 어찌 잊을수 있겠는가.

위대한 수령님과 함께 위대한 장군님의 체취와 숨결이 뜨겁게 어려있는 금수산태양궁전을 세상에 둘도 없는 영원한 태양의 집으로 훌륭히 꾸리기 위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주체101(2012)년 한해에만 하여도 40여차례나 몸소 현지에 나오시여 수십여차의 귀중한 가르치심과 1 150여차의 구체적인 과업을 주시였다.

이처럼 낮과 밤이 따로없이, 끊임없이 커만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심혈과 로고는 모든 세부들과 공간들을 훌륭하게 형성하도록 하였고 가장 숭엄하면서도 가장 완벽한 수령영생의 대전당으로 되게 하였다.

그렇다.

수령영생은 인민의 소원과 념원이 강렬하다고 하여 자연히 이루어지거나 완벽하게 성취되는것이 아니다.

수령영생은 오직 고결한 량심과 숭고한 도덕의리로 수령이 이룩한 혁명업적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해나가는 위대한 령도자, 인민의 지향과 요구를 자신의 실천으로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인민의

령도자에 의해서만 완전무결하게 이룩될수 있는것이다.

세계에는 국가령도자들과 위인들의 력사적공적을 후세에 전하기 위하여 건설된 릉묘들과 기념당, 성지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금수산태양궁전처럼 인류의 태양, 불세출의 위인들을 생전의 모습으로 모시고 내용과 형식, 규모에서 그처럼 숭엄하면서도 완벽하게 꾸려진 수령영생의 대기념비, 대전당은 없다.

절세의 위인만이 지닐수 있는 비범한 천품을 체현하시고 그것을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으로 뜨겁게 분출시키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도덕의리심이 펼친 자랑찬 화폭인 금수산태양궁전!

진정 금수산태양궁전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영원불멸할 업적과 절세의 위인상을 온 민족이 가슴깊이 새기고 온 세계가 똑똑히 알도록 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의도와 정력적인 령도가 낳은 수령영생의 대기념비이다.

# 태양만이 태양의 위업을 계승한다

비애의 구름이 가셔진 이 땅에 태양이 보다 찬란히 빛나게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충정에 떠받들려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맞이하면서 마침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만수대언덕에 함께 모시게 되였던 것이다.

환하게 웃고계시는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 영원한 태양의 모습을 우러르며 온 나라 인민은 수령님들의 생전의 모습을 다시 뵈옵는것만 같아 격정을 금치 못해하였다.

동상제막식에 참가하였던 로씨야의 한 시인은 이렇게 자기의 격정을 터치였다.

《2012년 4월 13일, 이날은 평범한 날이였다.

허나 조선에서의 이날은 이 나라 력사에 특기할 날이였다.

바로 이날 평양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참석하에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제막식이 성대히 진행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0돐 경축행사에 초청되였던 나는 이 제막식에 참가하는 행운을 지니였다.

나를 몹시 감동시킨것은 조선과 세계앞에 쌓으신 업적으로 하여 인류의 대성인으로 칭송받으신 두분의 동상을 나란히 모신것이였다.

동상들은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신 모습을 형상하고있었다.

이 역시 처음 보게 되는것이였다.

수많은 군중의 환호성이 하늘땅을 진감하였다.

많은 외국의 벗들과 취재기자들도 모두 감격에 넘친 모습이였다.

…

나는 제막식이 있은 날 밤 잠들수 없었다.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사실들은 력사의 이끼속에 묻히지 않는 법이다.

지난 시기 맑스의 유해가 이국땅 런던의 하이게트묘지에 안치되고 엥겔스의 유해를 넣은 함을 도바해협에 흘러보낸 소식들은 유럽사람들을 슬프게 하였다.

혁명의 배신자들이 쓰딸린의 시신을 화장해버리고 그의 동상들을 없애버린 행위를 두고 뜻있는 사람들은 분노를 금치 못해하였다.

이런 사실들에 비추어보면 오늘 평양의 동상제막행사는 참

으로 큰 대조를 이루며 세계를 감동케 하고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탁월한 업적을 이룩한 수령은 영생하여야 한다.

그것은 수령의 영생속에 그 나라 인민의 행복, 미래가 달려있기때문이다.

조선에서 **김정일**동지께서 서거하신 후 그이의 동상을 모신것은 바로 이 성스러운 위업실현의 뚜렷한 표현이 아니겠는가.

수령에 대한 숭고한 도덕의리심을 체현한분이신 **김정은**동지의 특별한 관심속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생전에 모시고싶어하던 조선인민의 절절한 념원이 드디여 실현된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체 조선인민의 간절한 소원과 념원을 안으시고 평양의 중심부인 만수대언덕에 **김일성**동지의 동상과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함께 모시는 사업에 깊이 관심하시였다고 한다.

인류사를 더듬어보면 동상을 흔히 엄숙한 모습으로 형상하여왔다.

허나 **김정은**동지께서는 력사의 전례를 따르지 않고 만민으로부터 태양으로 칭송받으신 수령들이시기에 두분들의 동상을 환한 미소를 담으신 태양의 모습으로 형상하도록 하시였다고 한다.

참으로 고결하고 숭고한 충정의 세계라고 하지 않을수

없다.

이 로씨야시인은 지금도 제막식에 참가한 평양시민들이 두분의 수령의 동상을 우러러보며 끝없이 흘리던 그 눈물을 잊을수 없다.

그 눈물은 수령들께 바치는 충정의 눈물이고 태양이 영원히 빛나게 해주신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고마움의 눈물이였다고 생각한다. 조선인민의 마음속엔 **김정은**동지와 같으신 또 한분의 태양이 있어 선대수령들이 영원한 태양으로 빛난다는 것, 이것이 확고한 신념으로 간직되여있다.》

그렇다!

인류력사에 특기할 새 전설로 아로새겨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고결한 충정과 도덕의리심에 의하여 사람들의 마음속에 절세위인들의 모습이 영원한 태양의 모습으로 새겨지게 되였으니 인민은 또 한분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그이께서 계시기에 어버이장군님께서 태양으로 영원히 빛난다는 철의 진리를 다시금 절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로 전국의 여러곳에 어버이장군님의 동상이 모셔질 때마다, 평양시와 전국각지에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의 모습을 모자이크로 형상한 영상작품들이 모셔질 때마다, 집집마다 일터와 초소마다 환하게 웃으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상초상화를 정중히 모시면서 인민들은 누구나 이렇게 격정을 터쳤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듯 영원한 태양의 모습을 새겨주신 절세의 위인의 헌신의 로고를 세월이 가도 잊지 않을것입니다.》

《수령님들과 맺은 정을 피줄처럼 소중히 간직하고 일편단심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따라갈것입니다.》

이를 두고 어느한 나라의 인사는 출판물에 기고한 글에서 이렇게 썼다.

《또 한분의 천출위인을 모셔 조선에서 모든 사업이 드팀없이 진행되고 특히는 선대수령들이 조선인민의 영원한 수령들로, 영원한 태양으로 찬양되고 그것이 법적으로 고착되는것을 보고 나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것은 태양의 품격을 갖추고 태양으로 칭송될 위인만이 태양의 영생을 실현할수 있고 태양만이 태양의 위업을 계승할수 있다는것이다.

나는 조선의 현실에서 다음과 같은것을 도출해내였다.

첫째로, 그것은 조선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군들과 온 나라 전체 인민들이 이미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인정하였다는것이다. 이것은 조선인민이 스스로 선택한것이며 따라서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좋은 일이고 조선인민의 복이다.

둘째로, 그것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당과 국가의 령도자로 됨으로써 조선인민이 시종 로세대혁명가들이 개척한 길을 따라 계속전진하고 수정주의, 자본주의의 길로 절대

로 나아가지 않으며 또 조선인민이 무료교육과 무상치료, 살림집무상공급 등 국가의 혜택을 계속 누릴수 있다는것이다.

셋째로, 그것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의 령도자로 됨으로써 너절한 인간들이 집권하여 로세대혁명가들이 마련한 혁명로선을 외곡수정하거나 조선에서 자본주의적인 개인소유제가 수립되여 극소수의 인간들이 먼저 부유해지는것을 얼마든지 방지하고 차단할수 있게 되였다는것이다. 그러니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받는 조선인민이 어떻게 사람들의 경모와 존중, 부러움을 받지 않을수 있겠는가.

**김정은**동지를 태양으로 모신 조선인민들을 축원한다.》

온 나라가 비애의 눈물에 잠겼을 때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대로 조국과 인민을 이끌어나가며 **김일성**민족의 창창한 미래를 책임지시려는 비장한 각오와 결단, 고결한 충정심을 안으시고 슬픔의 나락에서 허덕이는 인민을 안아일으켜 수령님과 장군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나아가도록 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정녕 위대한 수령님들과 꼭같으신 그이가 계시여 세상의 그 어떤 천지풍파도 두렵지 않다는것을 다시한번 가슴속에 쪼아박게 된 이 나라의 인민들이였다.

세계사회주의운동의 력사를 놓고보면 수령의 후계자문제를 바로 해결하지 못하여 혁명의 수령들이 영생의 모습으로 빛

나지 못하고 그들의 뜻과 위업이 그대로 계승되지 못하여 좌절되는 비극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온 세계는 수령영생위업의 새로운 장을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고매한 모습을 숭고한 경모의 정을 안고 우러르며 그이의 충정의 세계를 깊이 절감하게 되였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여 위대한 장군님의 영생위업은 확고하다고 한결같이 말하였다.

하기에 위대한 장군님을 잃은 비통함에 몸부림치던 공화국인민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충정의 세계에 고무되여 슬픔과 눈물을 천백배의 힘과 용기로 바꿀수 있게 되였으며 수령영생위업실현을 위한 숭고한 사업에 결연히 떨쳐나서게 되였다.

수령영생위업은 수령의 영광찬란한 혁명생애와 력사, 불멸의 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기 위한 성스러운 사업으로서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을 간직한 위인, 인민들의 충의지심을 하나로 분출시키는 비범한 예지와 특출한 정치실력을 지닌 인민의 령도자만이 실현할수 있는 거창한 위업이다.

2012년 1월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령도자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어버이장군님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일데 대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특별보도가 발표되였을 때에도 온 나

라 전체 인민은 물론 전 세계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충정의 세계에 깊이 매혹되였다.

특별보도가 발표되자 세계 여러 나라 신문, 통신, 방송들은 《**김정일**령도자 금수산기념궁전에서 **김일성**주석과 함께 영생》, 《북조선 **김정일**령도자를 생전의 모습으로 모시다》, 《북조선의 **김정일**령도자 광명성으로 영생》 등의 제목으로 그 소식을 전하면서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칭송하였다.

어느한 인터네트신문은 《**김정은**제1위원장의 계승정치》라는 제목으로 수령영생위업의 새로운 경지를 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다음과 같이 칭송하였다.

《**김정은**제1위원장의 정치방식가운데 가장 중요한 특징은 계승정치이다. 계승성의 상징적표현은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국방위원장을 대하는 **김정은**제1위원장의 모습에서 찾아볼수 있다.

최근 공개된 **김정은**제1위원장의 모든 론문과 담화, 연설내용을 보면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업적을 찬양하는 내용이 공통으로 들어가있음을 쉽게 알수 있다.

특히 론문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다>, 담화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자> 등에 이러한 내용이 집중되여있다.

또한 **김정일**국방위원장을 영원한 조선로동당 총비서, 국방

위원회 위원장으로 결정, 헌법과 당규약에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업적을 수정보충, 조선로동당을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천명, 당의 지도사상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정식화,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 계시는 금수산기념궁전을 금수산태양궁전으로 명명, 만수대언덕에 **김정일**국방위원장의 동상 모심 등의 조치를 통해 **김정은**제1위원장이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국방위원장을 계승한 후계자임을 분명히 하였다.》

참으로 하나의 특별보도에도, 한건한건의 로작들과 구호, 호소문과 결정서들에도 위대한 수령님들을 주체의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끝없는 충실성과 확고한 신념, 혁명위업의 계승자로서의 숭고한 사명감이 뜨겁게 맥박치고있어 누리를 진감시키고있다.

세상에 유일무이한 수령영생법전의 채택도 수령영생위업의 새로운 력사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끝없는 충실성과 숭고한 도덕의리의 세계가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이에 대하여 대외사업부문의 한 책임일군은 이렇게 회상하였다.

《2013년 4월초에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회의에서는 수령영생위업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법적담보로서 금수산태양궁전법이 채택되였다.

금수산태양궁전법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을 수령영생의 대전당

으로 영구보존하고 길이 빛내이기 위한 사업을 법화한것이다. 여기에는 위대한 수령님들을 금수산태양궁전에 생전의 모습으로 영원히 높이 모시며 전체 인민들이 금수산태양궁전을 민족의 존엄의 상징으로, 더없는 긍지로 소중히 간직할데 대한 법적의무가 규정되여있다. 이와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전 국가적, 전 인민적, 전 민족적인 사업으로 더욱 숭엄하고 완벽하게 꾸리며 그 누구도 다칠수 없게 백방으로 결사보위할데 대한 국가적의무가 규정되여있다.

이것은 탁월한 사상과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조국과 인민, 시대와 력사앞에 영구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받들어모시려는 우리 인민의 철의 신념과 의지를 내외에 엄숙히 천명한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이였다.

세상에는 이름있는 위인들을 위한 릉이나 묘, 기념당들을 세운 전례는 있지만 수령의 영생을 위한 법전이 채택된 일은 없다.

금수산태양궁전법은 수령에 대한 가장 순결한 충성심과 도덕의리를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내놓으신 세상에 유일무이한 수령영생의 법전이며 우리 인민은 이 법전을 가지게 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들을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수령영생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오죽하면 남조선의 법학교수까지도 북조선의 헌법은 세계최고의 수령영생헌법이라고 격찬하였겠는가.》

물론 자기를 낳아 키워준 부모를 존경하고 따르는것이 자식의 응당한 도리이듯이 자기를 어엿한 혁명가로 성장하도록 걸음걸음 이끌어주고 내세워준 수령에게 충성다하는것은 전사의 마땅한 본분일것이다.

그러나 수령에 대한 충실성의 높이, 사상정신적 및 도덕의리적높이가 하나와 같다고는 말할수 없다.

맑스에게 충실하였던 엥겔스는 맑스가 서거한 다음 혁명가들이 자기를 찬양하여 박수를 보낼 때면 맑스의 초상화를 가리키면서 이 박수는 맑스가 받아야 한다고 말하군 하였고 자기를 떠받들어올리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낮추어 맑스가 천재였다면 자기는 기껏하여 수재에 지나지 않으며 맑스가 《제1바이올린수》라면 자기는 《제2바이올린수》였다고 하면서 자기가 없었어도 맑스는 혼자서 과학적사회주의를 완성하였을것이라고 하였다.

레닌에게 충실하였던 쓰

칭송의 목소리

## 김정은령도자는 불세출의 위인이시다

**김정은**령도자는 저 하늘에서 지구에 내려오신 또 한분의 불세출의 위인이시다.

세계정치무대에는 **김일성**시대, **김정일**시대에 이어 **김정은**시대가 장엄하게 펼쳐지고있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의 글중에서)

딸린도 언제인가 어느한 나라의 이름난 작가로부터 레닌과 당신사이에 누가 더 위대한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자기는 레닌의 제자에 불과하며 자기의 생의 목적은 그의 훌륭한 제자가 되는것이라고 대답하였다.

이렇게 놓고볼 때 맑스와 엥겔스, 레닌과 쓰딸린과의 관계는 《제1바이올린수와 제2바이올린수》,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관계는 수령과 수령의 후계자사이의 관계를 초월한것이였다.

장군님께서 계시여 **김정은**이가 있고 장군님의 사업을 잘 보좌하는것이 자신의 필생의 사명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니신 숭고한 사명감은 아무리 세월이 흐른다고 해도 오직 위대한 장군님만을 영원히 태양으로 받들어모시려는것이였다.

하기에 12월의 피눈물의 언덕을 넘어서는 그때에 벌써 온 세계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인적풍모에서 수령의 위업을 받드는 참된 전사, 수령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해나가시는 탁월한 령도자의 숭고한 모습이라고 칭송한것이다.

정녕 용암처럼 뜨겁고 세월의 눈비에도 그 빛을 잃지 않는 백옥과도 같이 순결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충정의 세계를 알게 되면서, 위대한 수령님들을 최대의 충성을 다 바쳐 높이 받들어모시는 그이의 위인적풍모를 직접 목격하면서 인민

은 수령을 대하는 혁명전사의 자세와 립장은 과연 어떠해야 하는가를 심장으로 체득하게 되였다.

혁명은 수령에 의하여 개척되고 승리적으로 전진하는 수령의 위업이다.

이렇듯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신 걸출한 위인을 우러르며 인민이 진리로 똑똑히 깨닫게 된것은 무엇인가.

태양의 위업은 태양만이 계승할수 있다는 바로 이것이다.

오늘도 행성의 여기저기서 울려나오는 웨침이 있다.

《**김정은**각하께서 계시여 태양은 영원히 빛난다.》, 《사랑과 정으로 만인을 품어안으시는 또 한분의 태양 **김정은**각하》, 《이 세상 끝까지 따를 운명의 태양, 세계의 태양》, 《조선은 태양이 꺼지지 않는 나라》…

정녕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지니시였던 태양과도 같은 열과 힘을 지니신 인민의 태양 **김정은**원수님, 그이를 우러러 인민이 터치는 노래 오늘도 강산에 높이높이 울려퍼지고 있다.

수령님 못잊어 간절한 마음에
장군님 그리워 타는 가슴에
천백배 힘을 안겨주셨네
신념의 기둥 되여주셨네

아 인민이 높이 모신 위대한 **김정은**동지
우러러 신심이 넘쳐납니다 신심이 넘쳐납니다

# 2. 백년대계를 밝히는 새 시대의 방향타

❖ 자주시대의 위대한 홰불

❖ 사상론을 더 높이 추켜드시고

❖ 강국건설의 휘황한 진로

❖ 뛰여난 선견지명으로

❖ 인민대중제일주의기치를 높이 드시여

❖ **김정일**애국주의를 인민의 심장속에

❖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장엄한 선포

무릇 국가를 이끌고 혁명을 령도하자면 철학이 있고 정치리념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성공적인 정치를 할수 있다.

령도자에게 있어서 령도예술이나 풍모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것은 리념과 사상리론이다.

위대한 철학과 위대한 사상속에 위대한 령도자가 있다. 참된 위인은 철학가, 정치가가 되여야 한다.

위인의 높이는 사상의 높이, 철학적높이이며 오늘 그 최고봉에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신다.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사상리론적예지로 어버이수령님들의 혁명사상을 100% 계승하시고 더욱 발전풍부화하심으로써 백년대계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그이의 탁월한 사상리론적예지는 인류의 과학적사유가 도달한 지성을 전면적으로 체현하고 미래로 향한 지름길을 뚜렷이 밝혀주는 선견지명과 비상한 통찰력이며 고도의 과학성, 신속성, 정확성으로 일관된 비범한 분석판단력과 탐구력이다.

새시대의 방향타를 억세게 틀어쥐시고 력사와 인민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세계가 정의와 부정의의 대결속에서 파란많다 해도 위대한 사상리론으로 새시대를 열고 백년대계를 밝히는 그이께서 계시여 인민의 앞길, 인류의 앞길은 언제나 창창한 미래에로 잇닿아있다.

# 자주시대의 위대한 홰불

위대한 사상은 위대한 변혁의 시대를 탄생시킨다. 그 위대한 사상의 창시는 탁월한 수령에 의하여 이룩되게 된다.

우리 인민이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창시하시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발전풍부화하신 주체사상을 자주시대의 앞길을 밝혀주는 홰불로 높이 들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성과적으로 개척해온 나날은 인류력사에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었던 일대 변혁의 년대기들이였다.

주체사상은 우리 인민에게 삶과 투쟁의 활력을 안겨주는 생명수이고 운명개척에로 떠미는 위력한 힘이다.

주체사상이 있었기에 지난 세기 나라와 민족의 운명개척에서, 그 존엄과 지위에서는 하늘과 땅같은 차이를 가지는 극적인 전환이 일어났다. 주체사상의 거대한 힘을 원동력으로 하는 우리 인민들의 불굴의 투쟁에 의하여 이 땅우에서는 세인을 놀래우는 성과들이 수없이 창조될수 있었다.

새로운 주체100년대는 지난 세기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그리고 보다 휘황할 래일에 대한 신심과 락관에 넘쳐 사회주의 강국건설을 위한 진군길에 오른 우리 인민의 앞길과 새시대

의 앞길을 보다 휘황히 비쳐주는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지도적지침을 마련하여줄것을 요구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승리와 영광을 아로새겨온 주체조선의 100년사를 긍지높이 총화하시고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요구에 맞게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정식화하심으로써 수령님들의 혁명사상이 자주시대의 앞길을 밝혀주는 위대한 홰불로 영원히 빛을 뿌리게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김일성**주의가 자주시대의 위대한 지도사상으로 빛을 뿌리게 하는데서 결정적역할을 한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사상이였다는데 대하여 명백히 밝히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사상의 커다란 공적은 **김일성**주의의 력사적지위와 영원불멸성을 과학적으로 론증한것이며 **김일성**주의를 전면적으로 발전풍부화시켜 그 변혁적역할을 최상의 경지에 이르게 한것이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사상에 의하여 **김일성**주의의 견인력과 생활력이 비상히 높아지고 실천에서 그 정당성이 힘있게 확증되였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혁명발전의 력사적로정과 주체사상의 발전과정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내리신 결론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사상은 불가분리의 관계, 혼연일체의 관계에 있다는것을 밝히시였다.

**김일성**주의를 바탕으로 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사상이 나왔으며 장군님의 혁명사상에 의하여 **김일성**주의의 진수가 고수되고 심화발전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사상은 출발점과 기초도 하나이고 체계와 구성도 일치하며 그 구현을 위한 투쟁도 하나로 통일되여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기나긴 세월 조국의 미래도 함께 구상하시고 전략전술도 함께 세우시였으며 주체사상의 승리를 위한 장엄한 대진군도 함께 이끄시였다.

혼연일체의 관계에 있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사상을 수령님과 장군님의 존함으로 명명하는것이 너무나도 응당하고 자연스러우며 합법칙적이라는것은 바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주체사상의 발전과정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내리신 또 하나의 결론이시였다.

이러한 결론에 기초하시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주체101(2012)년 4월 6일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갈데 대한 내용의 력사적인 담화를 발표하시였다.

력사적인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정식화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이며 주체시대를 대표하는 위대한 사상이라는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비상한 분석력과 철의 론리로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사상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정식화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며 일군들은 숭엄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날의 력사적순간의 체험자, 목격자들가운데는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당중앙위원회에서 오래동안 사업하여온 일군들도 있었다.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와 비상한 탐구력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시던 잊지 못할 나날을 뜨거운 격정속에 되새겼다.

일찌기 **김일성**종합대학에서 혁명활동을 벌리시던 나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독창성과 위대성을 깊이 절감하시고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첫 시기에 선행한 로동계급의 100년사상사를 총화하시여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이야말로 수령님의 존함과만 결부시켜 부를수 있는 독창적인 사상이며 인류사상사에서 가장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최고봉의 사상이라고 그 력사적지위를 명백히 밝혀주신 위대한 장군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1970년대에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시고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

에 맞게 발전풍부화하시여 자주시대의 혁명사상으로 더욱 빛을 뿌리게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룩하신 특출한 사상리론적업적을 칭송하여 인민들은 일찌부터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사상을 하나의 사상으로 결부시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불러왔다.

그러나 **김정일**주의는 아무리 파고들어야 **김일성**주의밖에 없다고 하시며 당의 지도사상을 자신의 존함과 결부시키는것을 극력 만류하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사상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정식화하시여 자주시대의 위대한 지도사상으로 온 세상에 선포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는 일군들의 가슴이 어찌 흥분으로 세차게 높뛰지 않으랴.

그때의 심정에 대하여 당중앙위원회의 한 일군은 이렇게 토로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사상을 두분의 존함과 결부시켜 정식화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격정속에 우러르며 그이의 한없이 고결한 충정과 숭고한 도덕의리의 세계에 탄복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사상리론활동에 의하여 **김일성-김정일**주의가 완벽하게 정식화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리론적공적이 후세

에 끝없이 빛을 뿌리게 되였고 수령님과 장군님의 혁명사상은 무궁무진한 생활력을 남김없이 과시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그뿐이 아니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사상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정식화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우리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시였습니다.》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고전적정식화!

정녕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사상이 자주시대의 앞길을 밝히는 영원한 홰불로 타오르도록 하는것을 제일중대사로 여기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와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의 고귀한 결실이였다.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수령의 혁명사상을 끊임없이 심화발전시키는것은 주체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을 담보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사상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정식화하시고 그 사상리론적내용들을 더욱 심화발전시켜나가시는 나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혁명적본질을 인민대중제일주의로 규정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사상의 전 체계와 모든 리론들에는 인민을 하늘처럼 숭배하는 확고한 관점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 끝없는 헌신적복무의 정신이 관통되여 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와 같이 인민에 대한 관점을 최고의 높이에서 세우고 인민의 본성적지향과 요구를 가장 철저히 반영한 인민중시, 인민사랑의 사상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김일성-김정일**주의가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제일주의라는것을 새롭게 규정해주신것은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관통하는 근본리념, 기본정신을 뚜렷이 명시하여 그의 혁명적본질과 위대성을 최상의 경지에서 빛내인 거대한 사상리론적업적으로 된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인민대중의 한 성원이라면 누구나 쉽게 공감하고 자기의것으로 받아들일수 있는 정당하고 보편적이며 생활력있는 시대사상으로서 현실에서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남김없이 발휘되고있다.

공화국에서는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가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확립되고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투쟁이 보다 높은 단계에서 벌어지고있다.

이러한 현실을 목격하면서 진보적인류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가 《인민》이라는 이름과 더불어 자주시대의 앞길을 밝혀주는 홰불로 영원불멸할것이라는 신심과 확신에 넘쳐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자주시대의 영원한 지도사상으로 정식화하시면서 그 구성체계와 내용들에

대하여서도 명백히 밝혀주시였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시고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심화발전시키신 주체사상과 그에 의하여 밝혀진 혁명과 건설에 관한 리론과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이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조선로동당의 최종목적인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된 공산주의사회의 진면모와 그 건설의 합법칙적로정, 사회주의위업수행의 전 과정에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전략과 투쟁방침뿐 아니라 령도방법을 과학적으로 밝혀주고있다.

그리하여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를 이루고있는 완성된 사상이라는것이 보다 뚜렷해졌을뿐 아니라 오늘은 물론 먼 앞날까지도 변함없이 들고나가야 할 자주시대의 완성된 지도사상, 지도리론, 지도방법이라는것이 다시금 확증되였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오늘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사상리론적무기로 되고있으며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진보적인류의 앞길을 밝혀주는 자주시대의 위대한 홰불로 빛을 뿌리고있다.

어느한 나라의 공산당기관지가 《**김정은**령도자께서 자주시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공인되고있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국방위원장의 혁명사상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정식화하신것은 조선인민뿐 아니라 자주성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진보적인류에게 있어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 사변으로 된다.》고 쓴것은 이를 잘 보여주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실현하려면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완성하는것이 기본과업으로 나선다는데 대해서도 명철하게 밝혀주시였다.

사회주의강국은 국력이 강하고 끝없이 륭성번영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인민의 나라이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구상하시고 만년기틀을 마련하여주신 강대한 사회주의국가건설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이다.

적대세력들과의 치렬한 대결속에서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수행되는 사회주의위업은 정치와 군사, 경제와 과학기술,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강국의 징표를 갖춘 국가건설을 통해서만 승리적으로 완성될수 있다.

때문에 사회주의강국건설은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기 위한 투쟁의 력사적단계이며 그것은 사회주의의 기초를 다지고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해나가는 과정으로 된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높은 목표를 실현해나가는 투쟁속에서 사회주의완전승리를 담보하는 정치군사적력량과 경제기술적,

문화적기초가 튼튼히 마련되고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이 전면적으로 발휘되게 되는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기치밑에 사회주의강국을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면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당의 총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고 밝혀주시였다.

칭송의 목소리

## 인민사랑의 정치

인민조선의 새 력사와 더불어 수립되고 발전하여온 조선인민의 존엄과 행복은 경애하는 **김정은**령도자의 인민사랑의 정치로 하여 최상의 높이에 올라섰다.

인민이 높은 창조력과 문화수준을 지니고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창조하고 향유하며 끊임없는 발전과 비약을 이룩해가고있는것이 바로 조선이다.

미국은 이러한 현실을 바로 보아야 하며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조선의 참다운 사회제도를 본받아야 한다.

(아일랜드조선친선협회
위원장의 인상담)

인민정권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여야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와 창조적활동을 원만히 보장하고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보위하며 집단주의위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쳐나갈수 있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사회주의건설의 전기간 수행하여야 할 계속혁명의 과업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가

장 높은 단계의 혁명이다.

3대혁명을 통하여 **김일성-김정일**주의에 기초한 온 사회의 사상적일색화와 통일단결이 높은 수준에서 실현되고 경제, 문화건설에서 비약적인 발전이 이룩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목표들이 달성되게 되는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나갈데 대하여서도 밝혀주시였다.

자강력제일주의는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주체적력량을 강화하고 자기의 앞길을 개척해나가는 혁명정신이다.

자강력제일주의의 기반은 자기 나라 혁명은 자체의 힘으로 해야 한다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사상이며 자강력제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투쟁방식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이다.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오직 자체의 힘으로 자기 운명을 개척하여야 한다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자력자강의 정신이 공화국인민들을 불가능을 모르는 정신력의 강자로 키우고 공화국을 누구도 감히 넘보지 못하는 불패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켰다.

믿을것은 오직 자기의 힘밖에 없다.

자력자강의 정신을 가져야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뚫고나갈수 있으며 최악의 조건속에서도 최상의 성과를 이룩할수 있는것이다.

사대와 외세의존을 배격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자기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으로 밀고나가야 하며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도 주체적력량을 강화하여 자체의 힘으로 이룩하여야 한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사상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정식화하시여 자주시대의 위대한 홰불로 타오르도록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업적이야말로 수령의 위업을 계승해나가는 령도자가 이룩할수 있는 거대한 사상리론적공적으로 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여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오늘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의 존함과 더불어 온 누리에 더욱 찬연히 빛을 뿌리고있으며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은 대를 이어 승리의 궤도를 따라 힘차게 전진해나가고있다.

# 사상론을 더 높이 추켜드시고

푸르러 설레이는 거목에 억센 뿌리가 있고 굽이쳐흐르는 대하에 마를줄 모르는 시원이 있다.

마찬가지로 력사의 광풍을 맞받아 승리와 영광을 아로새겨온 주체조선의 자랑스러운 발전로정에는 사상중시의 자랑스러운 력사가 놓여있다.

사상의 위력, 사상중시의 정치가 있어 지난날 사대와 교조가 깊숙이 뿌리박혀있던 이 땅에 자주, 자립, 자위의 강국이 일떠서고 세계적인 정치적동란과 적대세력의 악랄한 압살책동에도 공화국은 강위력한 사회주의국가로 빛을 뿌리고있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길에서 사상을 틀어쥐면 승리하지만 사상을 홀시하고 사상이 변질되면 정신력이 붕괴되여 종당에는 나라와 민족의 붕괴라는 비극을 몰아오게 된다.

이전 쏘련작가 쎄라피모비츠가 쓴 장편소설 《철의 흐름》은 대중의 정신력, 사상의 위력이 높이 발양될 때 불가능도 가능으로 전환시킬수 있다는것을 형상적으로 잘 보여주고있다.

공민전쟁시기 적들의 포위를 뚫고 수천리 간고한 행군과 전투속에서 혁명적으로 각성되고 단련된 철의 대오, 그 어떤 시련도, 적의 포화도 끄주흐가 이끄는 붉은군대와 그를 따라 나선 인민들의 영웅적행로를 멈춰세울수 없었다.

드디여 목적지에 도달한 다음 열린 군중대회에서 허리까지 굽은 고르삐나할머니는 감격에 겨워 이렇게 웨친다.

《선량한 여러분, 좀 들어보시우! 글쎄, 싸모와르를 집에다 버리고 왔수다. 날 시집보낼적에 어머니가 그걸 지참품으로 주면서 <눈동자처럼 애끼라.>고 했는데 우린 그걸 버리고 왔수다. 그런건 다 없어두 좋수다. 우리의 사랑하는 쏘베트주권만 있으면 됩네다.》

싸모와르는 로씨야농촌가정들에서 물끓이는 기구로서뿐 아니라 여기에 장식을 다양하게 하여 대대로 전해지는 귀중한 가보로, 뜻깊은 선물로 되여왔다.

싸모와르는 없어도 쏘베트정권만 있으면 된다는 고르삐나할머니의 말은 당시 로씨야인민들의 사상정신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감동적인 대목이라고 할수 있다.

강한 정신력은 위대한 목적, 위대한 포부를 실현하려는 인민에게서만 생기게 되는 법이다.

쏘베트정권을 지지하고 사회주의를 사랑하는 강한 정신력이 있었기에 쏘련인민은 공민전쟁의 엄혹한 시련도 이겨낼수 있었고 횡포한 파쑈도이췰란드와의 간고한 싸움에서도 승리

할수 있었다.

그리고 세계에서 처음으로 인공지구위성도 쏘아올리고 사회주의강국도 보란듯이 일떠세울수 있었다.

하지만 그후 사상을 홀시하고 대중의 정신력을 계속 높이 발양시켜나가지 못하다보니 쏘련은 쇠퇴몰락의 길을 걷다가 결국 사회주의의 기발을 내리우고말았다.

문제는 정신적종심이 얕은데 있었다.

그 정신적종심은 자기 위업의 정당성에 대한 신념, 자기 수령, 자기 당, 자기 인민, 자기 힘에 대한 믿음의 크기를 의미한다. 인민의 신념과 신심의 확고성이자 정신적종심의 깊이인 것이다.

비록 령토는 크지 않고 인구는 많지 않아도 정신적종심만 깊다면 이런 나라, 이런 인민은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리지 못한다.

그래서 세상에 두개의 강유력한 힘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검과 정신이며 정신이 검을 타승한다는 말이 생겨난것이리라.

대중의 정신력을 발양시키려면 인민이 심장으로 받아들일수 있는 위대한 사상이 있어야 하고 대중의 높은 각오와 준비된 정치적력량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하여 인민의 정신력이 저절로 발양되는것이 아니다.

계급적으로 대립되여있고 서로 반목질시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인민의 정신력을 하나로 묶어세울수도, 발양시킬수도

없는것은 당연하다.

사회주의사회라고 하여도 옳바른 지도사상이 없고 광범한 대중을 공통된 목적과 지향밑에 하나로 단결시켜 원대한 리상과 포부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 탁월한 수령의 령도가 없으면 인민의 정신력이 높은 경지에서 발휘될수 없다.

참다운 정치가의 사명은 사상으로 인민을 이끌어 인민의 리상을 현실로 꽃피워주는데 있다.

인민의 정치가는 마땅히 사상중시를 정치의 위력한 무기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개척에서 사상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사상이 발휘하는 힘, 인민대중의 정신력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지니시고 비범한 령도로 사상중시의 새로운 경지를 열어나가고계신다.

시련과 난관이 겹쌓일수록 사상이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의 사상론을 더 높이 추켜들고 최후승리를 앞당겨와야 한다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드팀없는 신조이다.

철저한 사상론자로서의 경애하는 원수님의 비범한 위인상을 보여주는 하나의 명언이 있다.

《닭알에도 사상을 재우면 바위를 깰수 있다.》

짧은 하나의 문장에 동서고금의 그 어느 정치가나 철학가에게서도 들어본적이 없는 사상의 거대한 위력에 대한 새롭

고 비상히 숭고한 뜻이 담겨져있다.

《닭알로 바위치기》, 《닭알로 성치기》, 《닭알 지고 돌담모퉁이엔 가지 못하겠다.》, 《닭알꾸레미 모시듯》…

속담들이 보여주듯이 닭알은 쉽게 깨지는것으로 하여 예로부터 연약함의 상징으로 일러오고있다.

지금까지 인류는 사상의 중요성과 그 위력에 대하여 명인들이 남긴 수많은 명언들을 기억하고있다.

하지만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 명언처럼 닭알과 바위에 대한 비유를 통하여 사상의 위력에 대하여 생동하면서도 상징적으로 명명백백하게 인식시켜준 례는 알지 못하고있다.

닭알에도 사상을 재우면 바위를 깰수 있다!

사상을 틀어쥐고 사상중시의 정치를 펼쳐나갈 때 이 세상에 두려울것이 없고 상상할수 없는 위력한 힘을 발휘할수 있다는 철의 진리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 명언에 그 얼마나 명명백백하게 담겨져있는것인가.

《사상에 의하여 혁명의 명맥이 지켜지고 사상의 힘으로 혁명이 전진한다.》

《사회주의는 사상을 틀어쥐면 승리하고 사상을 놓치면 망한다.》

《사회주의의 위력은 본질에 있어서 사상의 위력이다.》

《혁명하는 당에 있어서 가장 위력한 무기는 사상이며 유일무이한 무기도 사상이다.》

《사상과 도덕이 만장약된 총대는 백전백승하는 법이다.》

…

온넋과 심장을 틀어잡는 귀중한 진리가 응축되여있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언들마다에는 사상론을 더욱 높이 추켜들고 사상중시의 정치를 펴나갈 때 이 세상에 두려운것이 없으며 불가능도 가능으로 전환시킬수 있다는 그이의 투철한 사상중시의 관점과 립장이 비껴있다.

사상중시, 그것은 인민을 사상의 강자로 준비시키며 그들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차게 추동해나가야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사상중시를 만능의 무기로 틀어쥐고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비범한 예지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이 심화되는데 맞게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한 사상사업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켜나가는데서 남김없이 발현되고있다.

민족이나 국가에 있어서 최대의 재보, 강대성의 제일징표인 정신력을 어떻게 키우고 발동시켜나가는가 하는데 정치가의 근본실력이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 있어서 인민대중의 사상발동, 정신력발동은 일시적인 전술적방책이나 정치적선전공세가 아니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 행정에서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가야 할 가장 위력한 방법, 전략적이며 항구적인 투쟁의 무기이다.

주체103(2014)년 2월말이였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과감한 진군이 벌어지고있던 그때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가 전례없는 규모로 소집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대회에 참석하시여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자》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연설에서 주체의 사상론, 이 위력한 무기를 더 높이 추켜들고 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오자는것이 이번 대회의 기본정신이라고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오늘의 사회주의수호전은 이미 이룩한 승리와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위력을 최대한 발양시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제국주의를 압도하기 위한 투쟁이라고 말할수 있다는데 대하여, 자본주의가 흉내낼수도 가질수도 없는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위력을 고도로 발양시켜 하루빨리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움으로써 모든 면에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차이를 하늘과 땅처럼 만들어야 한다는데 대하여 밝히시였다.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지난날에는 반동적인 사상문화가 침략의 길잡이였다면 오늘날에는 침략의 주역을 놀고있다고 하시면서 사회주의수호전은 외부적으로는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아나서는 제국주의자들을 정치사상적으로 제압하고 내부적으로는 비사회주의와 퇴페적인 사상문화를 혁명적인 사상문화로

쓸어버리는 공격전으로 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연설은 사상의 위력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실 철석같은 의지의 선언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2022년 3월 조선로동당 제1차 선전부문일군강습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서한에서도 사상이 모든것을 결정하며 사람들의 사상을 발동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주체의 사상론은 오늘도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당의 혁명령도원칙, 정치철학으로서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남김없이 과시할것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고 사상제일주의, 바로 이것이 난국을 타개하고 새 승리를 이룩할수 있게 하는 근본비결이며 조선로동당의 고유한 혁명방식이라고 하시면서 사상사업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밝혀주시였다.

사상을 사회주의강국건설의 강위력한 무기로 틀어쥐고나가시는 절세위인의 배심과 용기가 마디마디에 넘쳐나는 서한을 받아안으며 조선로동당출판사의 한 론설원은 이렇게 말하였다.

《제국주의자들은 반공화국제재압살책동에 끈질기게 매달리는 한편 흑백을 전도하는 모략선전에 열을 올리면서 우리를 내부로부터 와해시키기 위해 반동적인 사상문화를 끊임없이 들이밀고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의 반동적인 사상문화적공세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여러 나라들의 비극적인 실태는 우리에게 심각한 교훈을 주고있습니다.

현세기에 들어와 제국주의자들은 <아랍의 봄>이라는 간판을 내들고 사람들을 사상정신적으로 변질시켜 걷잡을수 없는 정치적혼란과 분렬을 조성하였습니다.

<아랍의 봄>에 유혹되였던 나라들에서 류혈과 분쟁, 테로가 란무하는 파국적인 후과가 초래되지 않았습니까.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밝혀주신대로 추호의 흔들림없이 주체의 사상론을 더 높이 추켜들고 사상전을 공세적으로 벌려나가는 바로 여기에 사회주의수호전의 확고한 승리의 담보가 있고 인민의 모든 꿈과 리상을 앞당겨오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 혼자만의 심정이라고 하랴.

적대세력들의 반동적인 사상공세를 혁명적인 사상의 위력으로 과감히 쳐물리치시며 우리식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시고 인민의 꿈과 리상이 꽃펴나는 리상사회를 건설해나가시는 사상리론의 거장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온 나라 인민의 흠모의 목소리이다.

한 나라, 한 민족이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는데서 가장 위력한 힘은 불굴의 정신력이다.

사상을 제일로 중시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들

을 정신력의 강자들로 키워 대중의 무한대한 정신력의 총폭발로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켜나가고계신다.

인민모두를 존엄높은 정치사상강국의 인민답게 정신력이 강한 인민으로 되게 하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이다.

대중을 사상의 강자, 정신력의 강자들로 준비시켜나가는데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특별히 중시하시는 문제가 있다.

그것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이 요구하는 혁명정신, 투쟁정신들을 시대정신으로 적극 내세우고 전체 인민이 그것을 체질화하도록 하는것이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 백두산영웅청년정신, 강원도정신, 군자리혁명정신, 자력자강의 정신…

새로운 주체100년대와 더불어 태여난 시대정신들마다에는 인민모두를 정신력의 강자들로 키우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웅지가 어려있다.

2014년 10월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자신께서 오늘 또다시 백두산에 오른것은 온 나라에 백두의 혁명정신과 기상이 차넘치게 하기 위해서라는데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살며 투쟁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는 완강한 공격정신, 백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 끝까지 싸우는 투쟁

정신인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안고 백두대지에 발전소를 일떠세운 청년들의 투쟁정신을 백두산영웅청년정신으로 명명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2016년 12월 원산군민발전소를 찾으시였던 그날에도 자체의 힘으로 발전소를 건설한 강원도인민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며 시련속에서도 자기 힘을 굳게 믿고 사생결단의 각오와 백절불굴의 의지로 떨쳐일어나 수령의 유훈과 당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해나가는 정신이 바로 강원도정신이라고 하시며 시대를 대표하는 정신으로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자체의 힘과 기술로 만든 지하전동차의 시운전과정을 료해하시면서도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우리 식의 지하전동차를 훌륭히 개발할수 있은것은 자력갱생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현대화이자 국산화이라는 관점밑에 투쟁한 결과이라고 하시며 로동계급과 과학자, 기술자들이 발휘한 자력자강의 정신을 높이 치하해주시였다.

대중의 정신력을 총발동시키기 위한 사상전을 전개함에 있어서 보다 높은 요구를 제기하고 빛나게 실천해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것이 아니라 주동적인 사상공세, 공격전을 벌려나갈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사상진지를 방어형이 아니라 공격형으로 편성할데 대한 사상을 제시하시고 사상진지가 공격형으로 편성되는

데 맞게 첨입식으로 정치사상사업을 진행해나가도록 하시였다.

정치사상사업을 첨입식으로 벌린다는것은 박달나무를 쐐기를 박아 짜개듯이 사상의 포문을 일제히 열어 요진통에 명중포화, 집중포화, 련속포화를 들이댄다는것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정치사상사업을 목적지향성있게 공세적으로 벌려나가는것을 말한다.

사상론을 틀어쥐고 사상중시의 정치를 펼쳐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지난 10년간 이 땅에서는 세인을 놀래우는 성과들이 끊임없이 창조되였다.

산간문화도시의 본보기로 훌륭히 일떠선 삼지연시며 인민의 행복이 넘쳐나는 려명거리, 미래과학자거리를 비롯한 보금자리들, 양덕온천문화휴양지와 마식령스키장, 미림승마구락부와 같은 선진문명의 창조물들, 류경안과종합병원과 옥류아동병원과 같은 의료봉사기지들…

겹쌓이는 시련과 난관을 과감히 뚫고헤치며 도처에 일떠세운 기념비적창조물들은 인민의 정신력이 얼마나 강하며 사상의 힘이 얼마나 위력한가를 웅변으로 보여주고있다.

정녕 인민의 불굴의 정신력이 있는한 그 어떤 광풍이 몰아친대도 끄떡없다는 필승의 신념과 배짱으로 사상의 위력을 천백배로 강화해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는 전체 인민을 정신력의 강자들로 억세게 키워주는 힘의 원천으로 되고있다.

# 강국건설의 휘황한 진로

부국강병!

세상에 이것을 바라지 않는 나라와 민족은 없다.

그래서 많은 정치가들이 부국강병을 저들의 정치적목적실현을 위한 명분으로 내세우고 대중을 유혹하고있다.

하지만 그 대다수가 부국강병실현의 명확한 진로를 밝히지 못하는 공리공담에 지나지 않는것으로 되고있다.

력사는 정치가들이 나라와 민족이 부흥하고 발전해나갈수 있는 옳바른 지침을 마련해주지 못한다면 강국의 꿈은 고사하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도탄에 빠뜨릴수 있다는 교훈을 보여주고있다.

부강조국건설의 진로는 어디에 있는가. 그에 대한 가장 옳바른 해답이 지금으로부터 10년전 주체조선에서 힘차게 울려퍼졌다.

주체101(2012)년 4월 15일이였다. 이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 탄생 100돐을 경축하는 열병식이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이날의 열병식에 참석하시여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진로

를 뚜렷이 밝혀주시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연설에서 오늘 우리는 새로운 주체100년대가 시작되는 력사의 분수령에 서있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펼쳐주신 자주의 길, 사회주의 길을 따라 곧바로 나아가는 여기에 우리 혁명의 백년대계의 전략이 있고 종국적승리가 있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 만난시련을 이겨내며 당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만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하시고나서 일심단결과 불패의 군력에 새세기 산업혁명을 더하면 그것은 곧 사회주의 강국이라고 천명하시였다.

비범한 통찰력을 지니신 절세의 위인께서만이 밝혀주실수 있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진로가 명시되는 참으로 력사적인 순간이였다.

돌이켜보면 이 땅우에 부강번영하는 불패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한생의 념원이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념원을 기어이 실현하는것을 필생의 사명과 의지로 간직하시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진로를 명시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는 사람들의 가슴가슴은 세차게 끓어번지였다.

이 나라 인민들만이 아니였다. 외국의 저명한 언론인은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터놓았다.

《2012년 4월 나는 평양을 방문하였다. 그때 평양에서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탄생 100돐을 경축하는 열병식이 성대히 진행되였는데 거기서 나는 일심단결과 불패의 군력에 새 세기 산업혁명을 더하면 그것은 곧 사회주의강국이라고 하시는 **김정은**령도자의 연설을 직접 들을수 있었다.

그이의 빛나는 안광에서, 확신에 넘치신 그이의 목소리에서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을 기어이 일떠세우시려는 드팀없는 결심을 읽을수 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밝혀주신 일심단결과 불패의 군력에 새세기 산업혁명을 더하면 사회주의강국이라는 사상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 로정에서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략적로선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강의 무기이며 위력한 추진력인 일심단결에 관한 사상은 사상중시로선을 확고히 견지하여 사상의 위력, 정신력의 위력으로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울데 대한 내용을 담고있다.

사회주의위업은 사상으로 개척되고 사상으로 전진하며 승리해나간다. 사상을 놓치면 사회주의위업은 실패와 좌절을 면할수 없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찌기 혁명과 건설에서 사상이 노는

역할과 불굴의 정신력으로 승리의 한길을 걸어온 지나온 력사를 전면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전체 인민이 사상의 위력, 정신력의 위력으로 부강조국을 일떠세울데 대한 사상을 내놓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일관하게 이끌어오시였다.

그리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주체사상을 신념화하고 그 요구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는 투사들로 자라났으며 혁명대오는 수령결사옹위의 결정체, 령도자와 인민이 사상과 뜻, 생사운명을 함께 하는 혼연일체로 강화발전되게 되였다.

일심단결을 대를 이어 옹호고수해나가는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지름길이 있다는 확고한 의지를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언제인가 전체 인민이 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친 일심단결은 우리식 사회주의의 상징이며 일심단결에 우리식 사회주의의 불가항력적위력이 있다고, 그 누구도 가질수 없고 흉내낼수도 없는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에 우리식 사회주의가 영원히 승리만을 떨쳐나갈수 있는 근본담보가 있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심단결의 힘으로 정치사상강국의 위력을 더욱 강화해나갈데 대한 사상을 천명하시였다.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정치사상강국의 위용을 더욱 높이 떨쳐나가야 하는것은 정치사상강국이 사회주의강국의 첫째가는 징표이고 령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일심단결이 우리식 사회주의의 초석이며 강국건설의 천하지대본이기때문이다.

혁명령도의 전 기간 언제나 정치사상적요인에 선차적의의를 부여하시고 수령을 중심으로 한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을 반석같이 다져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독창적인 사상과 령도로 하여 주체조선은 정치사상강국, 일심단결의 나라로 그 존엄과 위력을 떨치고있다.

우리식 사회주의를 허물고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을 해치려는 적대세력들이 존재하는한 정치사상강국의 위력을 강화하는 문제는 오늘 더욱 중차대한 과업으로 나서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2013년을 맞으며 하신 신년사에서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전체 인민의 일심단결은 우리의 최강의 무기이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위력한 추진력이라고 하시면

**일화 공룡척추의 뼈개수**

자연박물관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중앙홀에 전시한 공룡화석앞에서 공룡화석을 사진자료를 보고 만들었다는데 척추에서 꼬리마디까지 실감이 나게 정확히 만들어놓아야 한다고, 다른 나라 고고학자들과 생물학자들이 여기에 와서 이 공룡화석을 보게 되면 척추의 뼈개수가 정확한가 하는것까지 세여볼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공룡척추의 뼈개수?!

그이께서 다녀가신 후 공룡화석들은 진품과 똑같이 만들어져 전시되였다.

개관한지 한달 남짓한 시일이 흐른 뒤였다.

조국을 방문한 해외동포학자들이 자연박물관을 참관하였었는데 이때 한 학자가 진렬된 공룡화석을 주의깊게 살피며 척추의 뼈개수를 세여보고있었다.

서 령도자를 중심으로 한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을 더욱 반석같이 다져나갈수 있는 지침을 마련해주시였다.

그후에도 여러 기회에 일심단결을 억만금에도 비길수 없는 가장 큰 재부로 내세우시고 전체 인민이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강국건설을 위한 길에서 피와 목숨을 나누는 참다운 동지가 될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시였다.

이뿐이 아니다.

일심단결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변함없이 이어나갈데 대한 사상, 령도자를 중심으로 한 당과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억척으로 다질데 대한 사상,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인민중시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당과 인민대중의 혼연일체를 실현할데 대한 사상, 군민대단결을 더욱 공고히 할데 대한 사상 등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정치사상강국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도들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일심단결에 관한 사상을 심화발전시켜나가시는 절세위인을 모시여 주체조선의 일심단결은 당과 국가존립의 초석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떠받드는 억척의 기둥으로 더욱 공고화되고있다.

불패의 군력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기본담보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시하신 불패의 군력에 관한 사상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총대중시사상을 그대로 이어 나라의 군력을 더욱 강력하게 다져 군사강국의 존엄을 과시해나갈데 대

한 내용을 담고있다.

제국주의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총대를 강화해야 한다는것은 우리 민족의 피눈물나는 력사가 새긴 교훈이고 철리이다.

무적의 군력은 민족의 운명과 나라의 번영을 담보하는 제일무기이다.

군력이자 국력이며 군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길에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의 승리적전진이 있다고 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군사적위력을 강화하는데 선차적힘을 넣으신다.

그이께서는 인민군대를 강화하고 국방공업을 발전시켜 나라의 군사적위력을 강화하는것이 현시기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가장 선차적으로 제기되는 중요한 요구로, 주되는 과업으로 된다는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2012년 4월 일군들에게 우리는 지난날 군력이 약하여 나라를 통채로 잃고 식민지노예의 비참한 운명을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되였던 피눈물나는 력사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리시면서 군력이 약하면 자기의 자주권과 생존권도 지킬수 없고 나중에는 적대세력들의 롱락물로, 희생물로 되는것이 오늘의 엄연한 현실이며 따라서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가야 한다는데 대하여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그후에도 여러 기회에 군력강화에 계속 큰 힘을 넣어 조국의 안전과 나라의 자주권을 믿음직하게 지키며 지역의 안

정과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나라의 군력을 불패의것으로 다지기 위하여서는 강위력한 국방공업을 건설하여야 한다는데 대한 사상을 밝혀주시였다.

국방공업발전에 계속 큰 힘을 넣어 강력한 전쟁억제력을 마련하는것은 나라와 민족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그이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로선을 제시하신데 이어 우리 식의 위력한 국방공업을 건설해나가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다.

그후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국방공업부문에서 우리나라를 불패의 군사강국으로 빛내이기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전진을 이룩하도록 하는데 힘을 집중하여 우리 식의 무장장비들을 더 많이, 더 질적으로 만들어내야 한다는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시하신 새세기 산업혁명에 관한 사상은 과학기술중시사상을 틀어쥐고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과학기술적으로 확고히 담보할데 대한 내용을 담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헌신이 안아온 고귀한 결정체인 새

세기 산업혁명은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인민경제의 모든 분야를 지능로동에 의거하여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경제로 일신시킴으로써 부강조국건설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은 일대 변혁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세기 산업혁명을 힘있게 다그쳐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첨단돌파전으로 강국건설의 지름길을 열어나갈데 대한 사상을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새세기 산업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과학기술의 힘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놓을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새세기 산업혁명은 본질에 있어서 과학기술혁명이며 첨단돌파에 강국건설의 지름길이 있다는데 대하여 명철하게 밝혀주시였다.

새세기 산업혁명은 곧 과학기술혁명이다.

산업혁명은 생산기술에서의 변혁을 의미하며 그것은 과학기술발전에서 낡은것을

칭송의 목소리

### 인민사랑은 김정은령도자의 정치의 최고원칙

인민사랑은 **김정은**령도자의 모든 사색과 활동의 출발점이며 그이께서 펼치시는 정치의 최고원칙이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조선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만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것이 조선로동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인민을 세상에서 제일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로 보시며 령도자도 인민을 위하여 있다고 간주하고계신다.

(도이췰란드 MS려행사가 인터네트에 실은 글중에서)

없애고 새것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인 과학기술혁명에 의하여 일어나고 추동된다.

과학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있는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전수준은 해당 나라의 종합적국력과 지위를 규정하는 징표로 되고있다.

과학기술력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자원이며 사회발전의 강력한 추동력이다.

적대세력들의 책동을 짓부시고 이 땅우에 사회주의강국을 하루빨리 일떠세우자면 과학기술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는 웅지를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과학기술강국건설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을 천명하시였다.

나라의 전반적인 과학기술이 세계첨단수준에 올라선 나라, 과학기술의 주도적역할에 의하여 경제와 국방,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부문이 급속히 발전하는 나라가 바로 과학기술강국이라고 밝혀주신 그이께서는 그 실현을 위한 방향과 방도들도 환히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세기 산업혁명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 공화국을 경제강국으로 일떠세울데 대한 사상을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오늘 세계는 경제의 지식화에로 전환되고있으며 우리앞에는 나라의 경제를 지식의 힘으로 장성하는 경제

로 일신시켜야 할 시대적과업이 나서고있다는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이미 마련된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와 과학기술적잠재력에 의거하여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첨단을 돌파하고 이 하늘아래, 이 땅우에 경제강국을 일떠세우는것이 바로 강국건설에서 우리 인민이 달성해야 할 목표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요구에 맞게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강령적지침을 밝혀주시고 과학기술로 부흥하는 강국건설의 웅대한 설계도를 펼쳐주시였다.

참으로 강국건설의 진로가 밝혀진 일심단결과 불패의 군력에 새세기 산업혁명을 더하면 사회주의강국이라는 사상은 그 정당성으로 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 로정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략적로선으로 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밖에도 사회주의문명국건설에 관한 사상과 자강력제일주의에 관한 사상, 정면돌파전에 관한 사상 등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제기되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을 주시며 강국건설위업을 현명하게 이끄신다.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우리 혁명의 백년대계의 전략을 환히 밝혀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은 주체의 궤도를 따라 힘차게 전진해나가고있다.

# 뛰여난 선견지명으로

무릇 앞일을 예견성있게 내다보는 능력을 두고 선견지명이라고 일러왔다.

다시말하여 오늘에 살면서 먼 래일을 정확하게 내다보는 예지가 바로 선견지명이다.

과거와 현재는 일정한 범위내에서 이미 체험되였거나 얼마든지 감수되고 체득될수 있다. 하지만 아직 펼쳐지지 않은 미래를 내다보며 목적지향성있게 나간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학적인 예견성과 선견지명을 인간지성의 높이를 나타내는 중요한 징표라고 하는것이다.

얼마만큼 멀리 앞을 내다보는가, 그리고 예견의 정확성 등에서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 지어는 한치앞도 가려보지 못한다는 말도 있듯이 틀리게 예측하거나 전혀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력사에는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지 못하고 한치앞도 가려볼줄 모르는 정치인들때문에 재난을 겪은 례가 허다하다.

하나의 교훈적인 이야기가 있다.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끝났을 때 짜리로씨야는 미국에 놀라운 제의를 하였다. 미국이 700만∼800만US$의 가격으로 로씨야제국의 알라스카를 사지 않겠는가 하는것이였다.

짜리로씨야가 이런 제안을 하게 된데는 나름대로의 《타산》이 있어서였다. 일부 사람들이 이 상업적거래를 얼음 한보따리와 딸라 한보따리를 바꾸는 격이라고 한것처럼 알라스카는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미개척지여서 보이는것이란 얼음산밖에 없는 불모지였다.

당시 서부아시아지역에서의 세력권확장을 위해 크림전쟁을 벌려놓고있던 짜리로씨야로서는 무방비상태인 알라스카를 해상무력이 강한 영국에 빼앗길것만 같은 우려를 털어버릴수 없었다.

별로 쓸모도 있어보이지 않는데다가 당장 빼앗길바에는 차라리 제때에 팔아치우는것이 현명한 처사일것이라는 타산이 짜리로씨야로 하여금 미국에 이런 제안을 내놓을 결심을 하게 하였던것이다.

그것이 어리석은 타산이였다는것은 그후의 일이 잘 말해주고있다.

멀리 앞을 내다보고 있을수 있는 모든 일을 과학적으로 타산하는 예견성, 선견지명이 부족할 때 어떤 후과가 빚어지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실례이다.

력사에 이름을 남긴 위인들은 누구나 쉽게 볼수 없는 미

래를 앞당겨보는 남다른 예지와 선견지명의 소유자들이였다.

쓰딸린은 레닌의 천재성에 대해 그는 언제나 당안의 다른 지도자들보다도 한어깨 더 높이 솟아있으면서 그들보다 더 멀리 내다보는것으로 하여 《산상의 수리개》와도 같은 영재라고 하였다.

그의 이러한 견해는 레닌이 지닌 예지에 대한 평가인 동시에 선견지명으로 멀리 앞을 내다보는것이야말로 위인의 중요한 특징으로 된다는것을 강조한것이라고 할수 있다.

선견지명이 사람들의 활동에서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지만 바란다고 하여 누구나 다 지닐수 있는것은 아니다.

언제나 멀리 앞을 내다보며 그에 맞게 모든 일을 처리하는 예견성과 선견지명은 다 심오한 사색의 산물이다.

사색이 없이 앞날을 예견할수 없고 창발적인 지혜가 나올수 없다.

사색은 위인에게서 고유한 기질로 되고있다. 그래서 위인은 사색속에 산다는 말이 있는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그 어느 위인도 따를수 없는 심오한 사색과 탐구, 뛰여난 예지로 조국과 민족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고계신다.

그이의 사색은 혁신적인 안목으로 끊임없이 새것을 도출해나가는 창조적인 사색이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심오한 원리들을 밝혀내는 철학적인 사색이며 구체적인 현실에 발을 붙이

고 그에 해답을 주는 과학적인 사색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찍부터 총명하시고 비범하시여 사람들의 경탄과 놀라움을 자아내시였다.

그이께서 관심하고 탐구하시는 범위와 넓이, 깊이는 끝이 없었으며 사회정치적문제들에 대한 분석판단력은 상상을 초월한것이였다.

언제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한 일군과 이야기를 나누신적이 있으시였다.

그때 일군은 우리 나라가 대국들에 둘러싸여있기때문에 정세가 항상 복잡해지고있는것같다고 그이께 말씀올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런 견해를 부정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들을 모시여 존엄높은 우리 나라가 오늘 대국들을 움직일수 있는 전략적요충지를 타고앉아있기때문이라는 내용의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전략적요충지를 타고앉아있는 조선!

사실 《대국들에 둘러싸여있다.》와 《대국들을 움직일수 있는 전략적요충지》라는 표현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대국들에 둘러싸여있다는것은 이렇든저렇든 조선이 대국들의 영향을 받게 되여있다는것이지만 대국들을 움직일수 있는 전략적요충지라는것은 전략적요충지를 타고앉아 자기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대국들을 움직여나갈수 있다는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렇듯 우리 나라의 지정학적위치

의 특징을 론할 때 지난날의 낡은 견해를 단호히 부정하시고 민족자주, 민족자존의 정신에 기초하여 우리 나라가 대국들을 다스릴수 있는 전략적요충지에 있다는것을 명철하게 밝혀주시였다.

후날 그 일군은 복잡한 정세의 추이를 환히 꿰뚫어보시고 나라의 지정학적특징을 새롭게 밝혀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뛰여난 예지에 탄복을 금할수 없었다고 이야기하였다.

이뿐이 아니였다.

그이께서는 아직 20대에도 이르지 못하신 나이에 조국해방전쟁의 방대한 자료들에 기초하여 주체적립장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업적을 치밀한 론리와 체계속에서 그 누구도 론박할 여지가 없이 론증한 론문을 집필하시여 사람들을 놀래우시였다.

력사는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사회정치생활에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밝혀 사회발전에 이바지한 위인들을 적지 않게 기록하고있다.

그러나 경애하는 원수님처럼 일찍부터 복잡한 사회정치적문제를 주체적인 관점에서 가장 정확하게 보고 그에 맞게 풀어나간 위인은 알지 못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니신 폭넓고 심오한 식견은 인류지성의 가장 높은 경지에 이른 리상적인 지식과 견문으로서 그이께서 진행하시는 모든 사상리론활동의 과학성과 진리성,

독창성을 확고히 담보하는 토대로 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생전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뛰여난 선견지명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면서 **김정은**동지는 우리 당의 혁명사상과 리론에 정통하고있을뿐 아니라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학예술, 과학과 기술 그리고 력사와 건축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식견을 가지고있다고 교시하시였다.

오늘 세계는 심각한 사회정치적문제들로 착잡하게 뒤엉켜있을뿐 아니라 예상치 않던 사변들이 수시로 발생하고있다.

때문에 명석한 통찰력과 판단력의 소유여부는 해당 나라

일화

## 대번에 없애주신 《골치거리》

양각도축구경기장이 현대적으로 꾸려지고있을 때 이곳에 나오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주석단쪽에 시선을 주시며 경기장주석단이 너무 크다고, 주석단이 경기장규모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시였다.

그리시면서 경기장주석단은 광장주석단과는 다른것만큼 너무 크게 만들지 말고 관람석수를 늘여 더 많은 사람들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2층창문과 3층창문사이에 로대형식의 관람석을 만들면 관람석수를 많이 늘일수 있을것이라고 가르쳐주시였다.

흑백을 가리듯 너무도 명백히 부족점을 지적해주시며 자기들의 《골치거리》를 대번에 없애주시는 그이의 천재적인 예지앞에서 일군들은 무어라 할 말을 찾지 못했다.

정치가들의 정치실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징표로 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과학적인 선견지명으로 복잡한 정황과 사태, 제기되는 문제들의 본질을 깊이 통찰하시고 가장 옳바른 전략전술과 지침을 제시하신다.

하나의 현상을 보고도 즉시에 그 본질을 정확히 판단하시고 그 어떤 복잡한 사회현상이라도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에 맞게 명백히 밝혀내시는 그이의 비상한 통찰력과 선견지명은 최상의 경지를 이루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천재적인 예지의 비범성은 사상리론적 예지에서 뚜렷이 발현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사상에 대한 절대적인 신봉자가 되시여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로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사상을 100% 계승하시고 더욱 발전풍부화하심으로써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앞길,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불면불휴의 사상리론활동으로 지난 10년간 수많은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였다.

《청년들을 혁명의 계승자로 튼튼히 준비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자》, 《필승의 신념과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혁명의 승리적전진을 다그치자》, 《현 단계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에 대하여》…

나라의 전반사업을 돌보시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이렇듯 방대한 로작들을 발표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은 그이의 비상한 사색과 탐구를 떠나 생각할 수 없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심오하고도 정력적인 사색과 탐구로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새롭고 혁신적인 안목에서 보고 대하시며 그에 대한 독창적인 해명을 주시였다.

그이께서 제시하신 사상과 로선들은 그 과학성과 진리성으로 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힘있는 사상적무기, 투쟁의 기치로 되고있다.

위인의 선견지명이 어떤 높이에 있는가 하는것은 현실발전의 추이를 누구보다 먼저 꿰뚫어보고 거기에 작용하는 법칙과 경향성, 동향을 정확하게 분석한데 기초하여 가장 옳바른 로선과 정책을 밝히는데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언제나 조국의 앞날을 멀리 내다보고 미래를 구상하시며 부강조국건설을 현명하게 이끌어나가신다.

그이께서 인민중시, 군대중시와 함께 청년중시를 조선로동당의 3대전략의 하나로 내세우신것을 놓고서도 잘 알수 있다.

나라와 민족의 장래는 청년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당의 령도에 무한히 충직한 계승자들의 대부대만 있으면 두

려운것이 없고 못해낼 일이 없으며 최후의 승리의 양양한 전도가 있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한 의지이다.

하기에 그이께서는 당의 위업을 대를 이어 꿋꿋이 떠메고 나갈 주인공인 청년들을 사상정신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인민중시, 군대중시와 함께 청년중시를 조선로동당의 전략적로선으로 내세우시였다.

오늘 많은 나라들에서 자원위기, 생태환경위기, 물위기를 비롯한 여러 사회적난문제보다 더 심각한것은 청소년들의 정신도덕적타락이라는 목소리가 높아가고있다.

하지만 이 땅에서는 청년들이 백두산영웅청년정신과 같은 시대정신의 창조자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선봉대, 돌격대로서의 위용을 힘있게 과시하고있다.

그 어느 나라도 가지지 못한 이런 청년들을 가지고있는것은 청년문제해결에 나라와 민족의 강대성과 창창한 미래가 있다는것을 내다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견지명이 안아온 자랑찬 결실이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와 더불어 최우선시되고있는 과학중시로선과 정책도 마찬가지이다.

비범한 예지로 과학발전추세를 통찰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화국을 과학기술로 비약하는 나라, 인재가 차넘치는 나라로 만드실 원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수준에 끌어올리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상징으로, 다기능화된 과학기술보급의 중심기지로 훌륭히 일떠선 과학기술전당.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주체103(2014)년 6월 몸소 현지에 나오시여 전민과학기술인재화실현을 위한 또 하나의 거창한 설계도를 펼쳐주시였다.

몸소 《과학기술전당》이라는 명칭도 달아주시고 세계적수준에서 손색없이 꾸려 인민들에게 안겨주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의 손길아래 과학기술전당은 짧은 기간에 훌륭히 일떠설수 있었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와 더불어 이 땅우에 솟아난 수많은 창조물들은 부강번영할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시며 무엇을 하나 건설하고 만들어도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게 높은 요구성을 제기하시고 최상의 수준에서 완성해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비범한 예지와 현명한 령도의 결정체들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니신 선견지명은 그 어떤 복잡한 문제도 그 본질을 꿰뚫어보고 앞날을 예견하며 해당한 대응책을 수립해나가는 높은 경지에 이르고있는것으로 하여 더욱 비범하다.

언제인가 남조선의 한 출판물에는 이런 글이 실리였다.

《**김정은**령도자의 활동을 종합해보면 빈틈이 없고 두수, 세수, 더 먼수까지 내다보면서 일을 처리하시며 여러 분야를

동시에 장악해나가면서도 일의 선후차와 경중을 정확히 타산하여 추진하고계신다는것을 알수 있다.》

새로운 주체100년대가 시작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 들이닥친 시련과 난관은 말그대로 전대미문의것이였다.

예측불허의 첨예하고 긴장한 정세가 조성되고 남들 같으면 열백번도 더 쓰러졌을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압살봉쇄는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커다란 난관을 조성하였다.

한치앞도 예측하기 어려운 운명적인 정세가 조성될 때마다 세상사람들은 주체조선의 전도에 대해 우려를 감추지 못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때마다 천리혜안의 예지로 먼 앞날까지 내다보시고 가장 적중한 대응책으로 승리를 이룩해나가시였다.

적대세력들의 핵공갈위협이 극도에 달하였던 시기에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3월전원회의가 소집되여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병진로선이 제시되고 그로부터 불과 4년후에 국가핵무력완성이라는 민족사적대업이 이루어진것도 절세위인의 비범한 예지와 선견지명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미관계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세간의 여론이 정세를 락관하던 그때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진격로를 열어나가자!》라는 투쟁구호를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대화와 협상의 간판을 내걸고 제재를 계속 유지하여 공화국의 힘을 점차 소모약화시키려는 미국의 파렴치한 본심을 예리하게 꿰뚫어보시고 자력갱생을 번영의 보검으로 더욱 억세게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철석의 의지를 피력하시였던것이다.

그것이 얼마나 선견지명적인 결단이였는가 하는것은 그후의 현실을 통하여 여실히 증명되였다.

세계언론들도 《**김정은**령도자는 상상을 초월하는 과학적통찰력, 비상한 정치적안목으로 급변하는 세계정치의 동란속에서 용의주도한 결단을 내릴줄 아는 로숙한 정치가이시다.》, 《**김정은**령도자께서 비상한 결단과 예리한 통찰력으로 현 정치정세와 대외관계를 능숙하게 주도해나가신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뛰여난 선견지명과 비범한 통찰력을 지니시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현명하게 이끌어나가시는 절세위인을 높이 모시였기에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 인민대중제일주의기치를 높이 드시여

지구상에는 수많은 크고작은 나라와 함께 각이한 민족들이 존재하고있다. 하지만 그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서도 찾아볼수 없는 말, 오직 주체조선에서만 찾아볼수 있는 말이 있다.

바로 인민대중제일주의이다.

하기에 조선을 찾는 다른 나라 사람들은 누구라 할것없이 인민대중제일주의란 말에 놀라움을 표시하며 의아해한다.

세상에 전지전능한 존재라고 하면 흔히 불교의 석가모니나 그리스도교의 하느님, 이슬람교의 알라를 생각하는 그들에게는 현실적이며 눈으로 볼수 있고 느낄수 있는 존재인 인민을 전지전능한 존재로 내세우는 인민대중제일주의라는 말이 너무도 생소하고 놀랄만한 일이 아닐수 없기때문이다.

네팔의 한 인사는 《조선, 위대한 인민강국》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렇게 썼다.

《인민대중제일주의라는 말은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들을수 없고 그 어느 나라 사전에서도 찾아볼수 없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이 말이 공기와도 같이 일상생활과 사회의 모든

분야에 슴배여있다.

조선에서 인민대중은 하늘로 떠받들리운다.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당당한 권리를 행사하고있으며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해 복무하고있다. 조선에 가보면 하나의 특이한 현상을 찾아볼수 있는데 그것은 인민이라는 말을 가는 곳마다에서 들을수 있는것이다. 조선의 국호에도, 군대의 이름에도 인민이라는 말이 있다. 인민정권, 인민재판소와 같이 국가기관의 명칭에도, 인민문화궁전과 인민대학습당, 인민병원 등 근로자들을 위한 시설들에도 인민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다.

인민대중의 존엄과 지위가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되고있는 이러한 사회적풍토와 제도는 저절로 마련된것이 아니다.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며 인민을 제일로 사랑하고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김일성**각하와 위대한 **김정일**각하에 의해 마련된 풍토이고 제도이다.

그분들의 인민에 대한 사랑의 정치경륜은 존경하는 **김정은**령도자에 의하여 굳건히 이어지고있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위대한 인민관을 천품으로 지니시고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당건설과 활동의 근본리념으로,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내세우고계신다.》

력사에 존재한 사상가, 정치가들치고 인민에 대한 옳바른 견해를 밝힌 위인은 일찌기 없었다.

인민에 대한 가장 과학적인 견해와 립장을 밝히시고 인민중시의 참다운 정치를 펼치심으로써 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믿음을 받으신분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이시였다.

이민위천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한평생에 관통되여있는 좌우명이였고 절대불변의 신조였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이 세상에 전지전능한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하느님이 아니라 인민이라고 하시면서 인민이 있어 나라도 있고 조국도 있다는 숭고한 리념을 지니시고 인민을 위해 한평생을 바쳐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좌우명속에 있는 인민은 그 어떤 영웅호걸이나 특수한 몇몇 사람들이 아니라 평범하고 소박한 사람들이였다. 어디서나 볼수 있는 수수하고 소박한 사람들이 바로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 하늘로 내세우신 인민이였다.

항일무장투쟁시기 천도교 박인진도정은 위대한 수령님께 이런 물음을 드린적이 있었다.

《우리가 <한울님>을 숭상하듯이 장군도 숭상하는 대상이 있습니까?》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박인진도정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시였다.

…물론 나에게도 신처럼 숭상하는 대상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인민이다. 나는 인민을 하늘처럼 여겨왔고 인민을 하느

님처럼 섬겨오고있다. 나의 하느님은 다름아닌 인민이다. 세상에 인민대중처럼 전지전능하고 위력한 힘을 가진 존재는 없다. 그래서 나는 《이민위천》을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고있다. …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수령님은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한평생을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투쟁에 바치시였다고, 자신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높은 뜻을 받들어 인민을 하늘처럼 믿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려고 한다고, 부강조국건설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일하는것, 이것이 자신의 삶의 목표이고 보람이라고 하시였다.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며 인민의 충실한 복무자가 되여야 한다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뜻을 그대로 이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사상에서 근본바탕을 이루는 이민위천을 조선로동당의 인민관, 인민철학이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대중을 혁명의 주인으로 보고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하여 혁명을 전진시켜나가며 인민대중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것을 조선로동당의 인민관, 인민철학으로 정립하시면서 인민대중제일주의가 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의 최고정화로 된다는것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인민대중제일주의에는 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의 원리와 내

용들이 집대성되여있다.

인민대중제일주의는 인민을 혁명의 주인으로 내세우는 견해와 관점을 가장 훌륭히 구현하고있다.

인민대중을 혁명의 주인으로 보고 혁명을 해나가는 관점과 립장을 세워야 한다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밝혀주신 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의 중요한 원리의 하나이다.

인민대중이 혁명의 주인이라는것은 혁명과 건설을 맡아 수행할 권리와 책임을 지닌 직접적담당자가 인민대중이라는것이다.

혁명과 건설은 인민대중을 위한 사업이며 인민대중자신이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할 사업인것만큼 결코 그 누가 대신해줄수 없다.

인민대중제일주의는 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이 밝힌 혁명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라는 원리로부터 출발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제일로 중시하고 모든것을 인민의 리상과 꿈을 실현하는데 철저히 복종시킴으로써 인민대중의 지위를 끊임없이 높여나갈수 있게 한다.

이민위천을 한평생의 지론으로, 좌우명으로 삼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의 존엄과 지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시고 빛내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고귀한 혁명유산인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국호와 군대는 물론 수많은 기념비적

창조물들의 명칭도 인민이라는 부름과 함께 불리우고있으며 당과 국가의 모든 로선과 정책도 인민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하여 세워지고있다.

정치와 군사, 경제도 인민의 존엄과 행복을 수호하고 꽃피우기 위한것으로 되고 인민적인 모든것이 가장 정의로운것으로 되며 최우선, 절대시되고있는것은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인민대중제일주의의 빛나는 구현이다.

인민대중제일주의는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혁명을 해나갈데 대한 주체의 원리를 가장 빛나게 구현하고있다.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하여 혁명을 해나가야 한다는것은 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이 밝힌 중요한 원리이다.

인민대중은 모든것의 선생이며 대중의 힘은 무궁무진하다. 가장 지혜롭고 박식한 선생은 인민이며 인민대중속에 정의가 있고 힘이 있다.

인민대중에게 의거하는것은 인민대중의 창조적힘과 지혜를 적극 발양시켜 그 어떤 고난과 시련, 역경속에서도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안아올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인민을 믿고 인민에게 의거하면 백번 승리하지만 인민의 버림을 받으면 백번 패한다는것은 력사가 보여주는 고귀한 철리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들속에 들어가는것을 투쟁과 생활의 신조로 삼으시고 한평생 인민대중속

에 계시였다.

평범한 로동자, 농민들과 허물없이 마주앉아 나라일도 의논하시며 문제해결의 열쇠를 찾으시고 인민대중을 발동하여 혁명앞에 가로놓인 엄혹한 난관을 과감히 타개해오신분이 위대한 수령님들이시였다.

조선로동당이 력사에 류례없는 만난시련을 헤쳐오면서 승리만을 아로새겨올수 있은것도,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비상한 전진속도, 눈부신 비약으로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을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창조할수 있은것도 인민대중을 믿고 대중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최대로 발양시켜온데 근본비결이 있다.

인민대중제일주의는 인민대중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할데 대한 요구를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구현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정신을 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의 근본핵으로 규정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는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실현하는것을 최대의 중대사로 내세우고 인민을 위해서는 천만금도 아끼지 않으며 지어 생명도 서슴없이 바치는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이며 헌신이라고 밝히시였다.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는 조선로동당의 인민관, 인민철학에서 기본을 이루며 《전당이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나가는 우리 당의 혁명사상이 바로 인민대중제일주의이다.

인민을 위함이라면 돌우에도 꽃을 피우고 하늘의 별도 따와야 한다는 숭고한 뜻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한평생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께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인민의 행복이였고 가장 큰 괴로움은 인민의 불행이였으며 가장 큰 분노는 인민의 존엄과 리익에 대한 침해였다.

우리 인민들에게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한 생활을 안겨주시기 위하여 궂은날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깊은 밤에도, 이른새벽에도 공장과 농촌을 찾고 또 찾으신 어버이수령님들의 애민헌신의 자욱은 이 땅 그 어디에나 력력히 새겨져있다.

언제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장군님의 애국의 마음에는 언제나 인민이라는 두 글자가 꽉 차있었다고, 인민이 바란다면 하늘의 별도 따오고 돌우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는것

칭송의 목소리

### 대담하고 혁신적인 조치

이 세상에서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나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뿐이다.

영국을 비롯한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긴축정책과 공공부문예산삭감에 매달리고있지만 조선에서는 교육부문에 대한 국가적투자를 확대하고있다.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의 실시는 조선의 어린이들에게 자기의 재능을 더욱 활짝 꽃피울수 있는 보다 훌륭한 조건을 마련해줄것이다.

이렇듯 대담하고 혁신적인 조치는 인민의 지도자로서의 품격과 자질을 완벽하게 지니신 존경하는 **김정은**각하의 령도를 받는 조선에서만 취해질수 있다.

(영국주체사상연구소조가 발표한 공동성명중에서)

이 장군님께서 지니고계신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이고 의지였다고 말씀하신바와 같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행복하고 풍족하며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겠는가 하는 생각뿐이시였다.

인민의 요구와 리익이 모든 사업의 절대적기준으로 되고 사회의 모든 재부들이 철두철미 인민의 복리증진에 돌려지고 있는 우리식 사회주의야말로 위대한 수령님들의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헌신적복무정신이 안아온 고귀한 결정체이다.

이처럼 인민에 대한 가장 옳바른 견해와 관점에 기초하고 혁명과 건설의 승리를 위한 과학적인 원리를 밝혀준다는데 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의 진리성과 정당성이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본질을 이루는 인민대중제일주의가 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의 최고정화로 된다는것을 뚜렷이 밝히심으로써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있는 위력한 사상정신적무기가 마련되였다.

인민대중제일주의기치를 높이 드시여 인민의 꿈과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는 또 하나의 사상정신적무기를 마련해주신 절세위인을 우러르며 세계는 경탄의 목소리를 터치고있다.

어느한 나라 기자협회 위원장은 자기의 글에서 이렇게 썼다.

《네팔에는 한때 무정당판챠야트제도가 존재하였었다. 그

것은 당이 없는 국민참사회라는 뜻이다. 각이한 명칭을 가진 정당들이 있었지만 무정당정치제도가 거의 30년이나 존재했다는 사실은 그 어느 당을 막론하고 인민의 의사를 옳게 대변하는 당이 없었음을 보여주고있다.

세계 그 어느 나라를 둘러보아도 장구한 기간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으며 집권당으로 존재해온 당은 조선로동당밖에 없다고 나는 단언한다.

인민을 떠나 당의 로선과 정책도, 당건설과 당활동도 생각할수 없는것이 조선로동당이다.

인민의 모습을 자기의 당기에 새기고 창건 첫날부터 인민우에 군림한 당이 아니라 인민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며 인민에게 멸사복무하는 당을 건설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높으신 뜻은 오늘 **김정은**령도자에 의하여 굳건히 이어지고있다.

나는 무당파에 속한 언론인이다. 그러나 조선로동당에 대하여서는 지지의 목소리를 높이지 않을수 없다. 인민에게 자기 생명의 뿌리를 두고 인민과 함께 운명을 같이하는 당이기때문이다.

진정 인민대중제일주의는 **김정은**령도자의 신앙이다.

이 위대한 신앙이 있어 조선인민은 정신력과 창조력에 있어서 가장 강한 인민으로 될수 있었고 령도자의 두리에 일심단결되여 자력자강의 억센 힘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빛나는 력사를 창조하고있는것이다.》

# 김정일애국주의를 인민의 심장속에

인류력사의 갈피에는 애국에 관한 각양각색의 주의주장들이 기록되여있다. 만사람을 경탄시키는 애국적인 장거들도 수없이 전해지고있다.

오늘의 세계를 둘러보아도 나라마다, 민족마다 자기식으로 주장하는 애국주의를 찾아볼수 있다.

하지만 수령의 존함과 더불어 빛나는 애국주의는 그 어디에도 없다.

뛰여난 사상리론적예지를 지니신 절세위인을 모시고있는 주체조선에서는 태양의 존함으로 불리우는 애국주의가 탄생하여 강국의 미래를 앞당겨오는 기적과 혁신의 원동력으로 나래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신 애국주의를 **김정일**애국주의로 명명하시고 그것을 인민의 심장속에 깊이 새겨주시였다. 그리고 **김정일**애국주의를 사상정신적 원동력으로 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다그쳐나가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력사는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될수록 인민들의 애국주의, 애

국심을 약화시킬것이 아니라 더 높이 발양시켜야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언제인가 이전 쏘련신문 《쁘라우다》에는 《조국은 우리에게 한번 주어졌으며 죽을 때까지 하나이다》라는 제목의 글이 실린적이 있었다. 글에는 다음과 같이 씌여져있었다.

《조국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영예에 대하여, 순탄한 평화의 나날에나 간고한 시련의 시기에나 조국을 위해 복무하는 모든 행복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라. 조국과 운명을 같이하며 아름답게 조국을 사랑하며 조국에 대한 충실성을 간직하며 조국을 아끼고 귀중히 여기라. 삶의 어려운 순간에도 조국을 원망하지 말고 조국을 위해 힘자라는껏 좋은 일, 선한 일을 다하라.》

하지만 사회주의배신자들의 책동의 후과로 이미 사상정신적으로 변질된 사람들은 이 호소에 호응해나서지 않았으며 결국 쏘련의 붕괴를 막지 못하였다.

참다운 애국심, 사회주의조국과 자기 운명을 하나로 보고 조국을 위해 한몸바치는것을 더없는 영예로 여기는 애국자들이 없었기때문이였다.

오늘 공화국에서는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책동을 짓부시며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고있다.

전체 인민의 열렬한 애국심을 총폭발시켜나가는 거창한 위업인 사회주의강국건설은 그 어느때보다도 뜨겁고 열렬한 애국

심, 애국주의를 요구한다.

돌이켜보면 강국의 리상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는 그 누구보다도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신 절세의 애국자, 탁월한 수령들이 서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도탄에 빠진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기 위한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인민의 애국심을 굳게 믿고 무장대오를 조직하여 발톱까지 무장한 일본제국주의와 싸워 조국해방을 안아오시였다. 해방후에는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새 민주조선을 일떠세우자는 력사적인 개선연설을 하시여 애국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앞에 준엄한 시련의 시기가 닥쳐왔던 그때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모두 한마음한뜻으로 힘차게 일해나가자는 친필서한을 보내시여 온 나라 인민의 애국심을 불러일으켜 엄혹한 난관을 이겨내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튼튼한 도약대를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지니신 애국의 리념을 불씨로 애국주의의 거세찬 열풍을 일으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새로운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한 의지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애국의지에 떠받들려 **김정일**애국주의라는 새로운 시대어가 탄생하게 되였다.

주체101(2012)년 3월초 조국의 산길을 따라 야전차들이 달리고있었다.

종비나무와 목련과 같이 수종이 좋은 나무모들을 실은 자동차를 이끌고 달리는 야전차안에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타고 계시였다.

그이께서는 차창밖으로 고난의 나날에 입은 상처를 보여주는 산야를 내다보시며 깊은 생각에 잠겨계시였다.

그 누구도 그이의 심중에 무엇이 고패치고있는지, 나라의 중대사를 돌보셔야 할 그이께서 어찌하여 나무모들을 싣고 이 길에 오르시였는지 알지 못하였다.

어느한 인민군부대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오늘은 해방직후 절세위인들께서 몸소 모란봉에 오르시여 조국의 륭성발전과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식수사업의 첫 봉화를 지펴주신 력사의 날인 동시에 우리 나라의 식수절이라고 하시면서 식수절을 기념하여 나무를 심겠다고 하시였다.

나무심을 장소를 더듬어 찾으시던 그이께서는 나무심을 구뎅이를 미리 파놓은것을 보시고 이런것은 형식주의라고 하시며 나무심기를 할 때에는 누구나 자기 손으로 구뎅이를 파고 심어야 식수하는 보람을 느끼게 된다는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이날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김정일**애국주의는 내 나라, 내

조국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도 다 자기 가슴에 품어안고 자기의 더운 피로 뜨겁게 덥혀주는 참다운 애국주의의 정화라는데 대하여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김정일**애국주의!

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간직하고계신 숭고한 애국리념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심장속에 고동치는 애국의 세계를 되새겨보았다.

돌이켜보면 한평생을 통털어 애국이라고 말할수 있고 나라와 민족의 앞길에 영원히 빛날 위대한 애국사상과 정신을 유산으로 남기신 위인, 이 세상 그 어느 애국자와도 견줄수 없는 위대한 수령님 그대로이신 위대한 장군님과 같으신 절세의 애국자는 일찌기 없었다.

**김정일**애국주의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위대한 수령님의 애국의 높은 뜻을 이어 조국을 지키고 부강하게 하는 길에서 언제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성스러운 애국실천으로 구현해오신 숭고한 애국주의,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최고 정화였다.

**김정일**애국주의, 여기에는 전체 인민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시였던 애국애족의 마음을 심장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그것을 불씨로 애국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 부강조국건설의 새 력사를 펼쳐가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애국의 의지가 력력히 어리여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후에도 한평생 열과 정으로 심장을 불태우시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로고를 다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애국주의, **김정일**애국주의를 적극 따라배우고 구현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2012년 5월 우리는 **김정일**애국주의를 높이 들고나가야 한다고, 우리는 애국주의를 론할 때 애국주의일반을 론할것이 아니라 위대한 장군님께서 실천적모범으로 보여주신 **김정일**애국주의를 론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 일화 누구도 생각 못한 작고도 큰 문제

준공을 앞둔 릉라인민유원지를 찾으시여 물놀이장의 탈의실에서 탈의함들을 둘러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함들에 꽂혀있는 열쇠에서 시선을 멈추시였다.

그러시고는 생각깊은 어조로 사람들이 옷과 사품을 탈의함에 넣고 자물쇠를 채운 다음 열쇠를 어디에 건사하겠는가 하는것이 문제이라고, 사람들이 열쇠를 수영복속에 넣고 물미끄럼대를 타게 할 수는 없다고 하시면서 자신의 손목시계줄을 가리키시며 물놀이장들에서는 사람들이 시계줄모양의 고무띠에 열쇠를 꽂은 다음 고무띠를 팔목이나 발목에 끼고 물놀이를 한다고 하나하나 설명해주시였다.

누구도 생각 못한 문제였다.

허나 언제나 인민의 편리만을 생각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는 작고도 큰 문제였다.

그때만이 아니였다.

그해 7월에도 수도의 시민들과 청년들속에서 **김정일**애국주의교양을 실속있게 하여 그들이 장군님의 숭고한 애족애민의 사상을 깊이 새기고 실천에 철저히 구현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장군님은 한생을 바쳐 조국의 풀 한포기, 조약돌 하나까지도 자신의 심장과 열로 뜨겁게 달구며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라고, 수도의 시민들과 청년들을 **김정일**애국주의로 튼튼히 무장시켜 그들이 불보다 뜨거운 애국심을 지니고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한몸바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 **김정일**애국주의에 대하여 그토록 강조하시는것은 그것을 한갖 구호로 웨치거나 기발처럼 들고나가라는것이 아니시였다.

일군들과 인민들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애국주의의 숭고한 모범을 따라배워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실천활동에 철저히 구현하도록 하시려는 숭고한 의도에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들이 **김정일**애국주의에 대하여 옳바른 인식을 가지도록 하기 위하여 2012년 7월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치자》라는 력사적인 담화를 발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담화에서 오늘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실현해나가는데서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는것이 매우

중요한 요구로 나선다는데 대하여서와 일군들이 **김정일**애국주의에 대하여 깊이있게 리해하지 못하고있을뿐 아니라 그것을 실천활동에 구현하기 위한 사업을 옳은 방법론을 가지고 실속있게 해나가지 못하고있는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김정일**동지는 그 누구보다도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시였으며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한생을 깡그리 바치시여 조국청사에 영원히 빛날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계속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마음속에는 언제 어디서나 사랑하는 조국과 인민이 소중히 자리잡고있었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울창한 수림과 번듯하게 정리된 드넓은 대지를 보시면 부강번영할 조국의 래일과 대대손손 누려갈 우리 인민의 행복한 앞날을 그려보시며 정을 담아 푸른 산, 푸른 들이라고 조용히 외우기도 하시였고 외국방문의 길에 계실 때에는 두고 온 조국과 인민들이 그리워 내 나라, 내 민족이라고 감회깊이 불러보군 하시였습니다. …

한생을 애국의 한마음으로 불태우시며 험난한 길을 헤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헌신의 장정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시고 몸소 실천에 구현해오신 애국주의는 그 본질적내용으로 보나, 커다란 생활력으로 보나 오직 **김정일**동지의 존함과만 결

부시켜 부를수 있는 가장 숭고한 애국주의이라고, 그렇기때문에 자신께서는 애국주의에 대하여 말할 때 애국주의일반이 아니라 우리 조국을 지키고 부강하게 하는 길에서 실지 장군님께서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구현해오신 애국주의, **김정일**애국주의에 대하여 말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계속하시였다.

**김정일**애국주의는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최고정화입니다.

**김정일**애국주의는 우리의 사회주의조국과 우리 인민에 대한 가장 뜨겁고 열렬한 사랑이며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가장 적극적이고 희생적인 헌신입니다. **김정일**애국주의는 내 나라, 내 조국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까지도 다 자기 가슴에 품어안고 자기의 더운 피로 뜨겁게 덥혀주는 참다운 애국주의입

칭송의 목소리

**인 민 의　령 도 자**

**김정은**령도자께서 펼치시는 인민사랑의 숭고한 화폭은 그이의 투철한 인민관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그이께서는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 여기신다.

인민을 위하여 일군들도, 령도자도 있다는것이 그이의 좌우명이다.

그이의 모든 사색과 활동의 출발점은 인민사랑이며 이것은 정치활동의 최고원칙, 최상의 목표로 되고있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일군들에게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며 인민을 위하여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뛸것을 늘 당부하신다.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그이의 령도밑에 오늘 조선에서는 커다란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련대성 브라질위원회의 글중에서)

니다. …

**김정일**애국주의가 숭고한 조국관에 기초하고있으며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는 숭고한 인민관에 그 바탕을 두고 숭고한 후대관으로 일관되여있다는데 대하여 밝혀주시고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심장을 불태우시며 한평생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를 다 바치신 장군님의 숭고한 애국주의를 적극 따라배워야 하며 더하지도 덜지도 말고 실천활동에 그대로 구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러시고 이를 위해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서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김정일**애국주의!

참으로 이는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한평생에 대한 빛나는 총화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념원대로 이 땅우에 기어이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드팀없는 의지의 최고 정화이다.

지중해개발은행 리사장이며 이딸리아종합투자그룹 리사장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수많은 저서들은 읽으면 읽을수록 그 내용의 심오성과 철학성에 감탄을 금할수 없다고 하면서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치자>만 보아도 그렇다. 문구 하나, 표현 하나에 이르기까지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는 이 저서는 자기 땅에 태를 묻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이든지 스스로 애국의 길에 떨쳐나서게 하는 기치와도 같은 문헌이다. 그분께서 발표하신 저서들은 그 어느 사상가나 리론가도 내놓을수 없는 고전적문헌들이다. 하기에 세계 진보적정치계는 **김정은**각하의 저서들을 정치활동의 교과서로 깊이 연구하며 지침으로 삼고있는것이다.》

#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장엄한 선포

2019년 1월 1일부 《로동신문》에는 새로 창작된 노래 《우리의 국기》가 실리였다.

우리의 람홍색기발 창공높이 날릴제
바라보며 높뛰는 심장 애국의 피로 끓어라
거세찬 펄럭임에 조국의 숨결 어리고
목숨처럼 소중한 기폭에 인민의 운명 실었네
사랑하리라 빛나는 우리의 국기를
나붓겨다오 이 세상 다할 때까지
…

악보우에 남기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불멸의 친필이 우렁우렁하신 그이의 음성이 되여 심장에 와닿은듯 노래와 함께 충천하는 감동의 열기는 삽시에 온 나라를 세차게 격동시켰다.

이 땅 그 어디에서나 《우리의 국기》의 노래소리가 장엄한 대합창이 되여 울려퍼졌다. 창조와 혁신의 불꽃날리는 공장

들과 애국의 구슬땀 뿌려지는 드넓은 농장벌들에서도, 수천척 지하막장과 검푸른 날바다의 배전우에서도, 해빛밝은 교정의 창가마다에서도…

이 노래가 그토록 만사람의 심금을 틀어잡으며 소리높이 불리워지게 된것은 위대한 시대의 주도적감정으로 되고있는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완벽하게 반영하였기때문이다.

노래 《우리의 국기》를 창작한 작가는 이렇게 말하였다.

《격변하는 조국의 현실이 오늘 우리에게 묻는것이 있습니다. 위대한 **김정은**시대에 인민이 안고 사는 가장 큰 재부는 무엇인가고.

한해가 다르게 변모되는 조국강산에 늘어만 가는 행복과 문명의 재부들, 그속에 심신을 잠그고 부럼없이 터치는 기쁨의 웃음소리만으로는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고난의 굽이굽이를 돌이켜보고 생존을 위한 치렬한 경쟁과 싸움속에서 세계의 지도가 변하고 나라의 국기가 바뀌우는 준엄한 력사의 갈피를 펼쳐보느라니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공화국기발을 우러르게 되였습니다.

공화국기발을 우러르면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만세소리가 들려옵니다.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리념은 종이우에 잉크로가 아니라 국기에 존엄으로 새겨지고있습니다.

우리의 존엄, 그것은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우리 조국의 강대한 힘이며 세계가 공인하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절

대적인 권위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뜻과 의지로 흐르는 력사의 흐름을 보면서, 세기에 길이 남을 의미깊은 상봉과 회담장소마다에서 빛나던 우리의 람홍색국기를 보면서 인민들은 온 세계에 과시되는 공화국의 존엄을 다시금 뜨겁게 새겨보았습니다.

령도자의 존엄으로 빛나는 공화국기발, 국기에서 울려나오는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소리높이 노래하고싶은 심정을 담아 <우리의 국기>를 창작하였습니다.》

우리 국가제일주의!

이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변화된 주체조선의 전략적지위와 국력에 상응하면서도 인민들의 강용한 기상과 지향에 부합되는 사상정신적무기, 새로운 투쟁의 기치로 제시하신 독창적인 정치리념이다.

평화와 번영의 굳건한 담보를 가지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고있는 력사적전환기에 국가건설과 활동, 사람들의 사상정신생활에서 일대 변혁을 일으키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부동한 결심과 의지의 발현이다.

세계적으로 국력경쟁이 그 어느때보다 치렬하게 벌어지고있는 오늘날 사회주의강국에로의 힘찬 비약을 이룩하는데서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는 전체 인민이 민족적자존심을 최대한 발휘해나가도록 하는데 있다.

자기의 인격을 존중히 여기고 존엄을 지키려는 마음이 바

로 자존심이다.

이것을 두고 누구는 생존의 일부라고도 하였고 또 누구는 자존심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나 같다고 하였다.

자존심을 지킬수 없는 개인이나 민족의 처지를 노예와 비교하고 그러한 국가상태를 식민지로 락인하는것은 무리한 일이 아니다.

자기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못하지 않으며 더 우월하다는 신념에 기초하여 발현되는 민족자주정신으로서의 민족적자존심은 나라와 민족의 륭성번영을 담보하는 정신적원동력이다.

주체조선의 자랑스러운 70여년의 력사는 비록 크지 않은 나라라고 할지라도 민족적자존심, 자주적대가 강하면 대국들에 눌리우지 않고 세계무대에서 강국의 지위를 당당히 차지할수 있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민족자존을 생명선으로 틀어쥐시고 부강조국건설위업을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과 전통을 그대로 이어 새로운 주체100년대에 전체 인민이 높은 민족적자존심을 지니고 자력갱생, 견인불발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더욱 가속화시켜나가시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강국에로 비약하는 주체조선의 강화발전에 있어서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들고나가는것이 합법칙적요구로 나선다는것을 헤아리시고 그에 대한 과학적이며 전면적인 해답을 주시였다.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본질에 있어서 사회주의조국의 위대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며 나라의 전반적국력을 최고의 높이에 올려세우려는 강렬한 의지이다.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자신의 창조적지혜와 영웅적투쟁으로 부강조국건설에서 세계가 우러러보는 거대한 승리와 특출한 성과를 이룩해놓은 인민만이 당당히 가질수 있는 숭고한 사상감정이다.

공화국은 존엄높은 인민의 나라이다.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이 제도적으로 담보될뿐 아니라 가장 우월한 인민적시책이 구현되고있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가 공화국이다.

인민을 가장 신성하고 전지전능한 존재로 떠받들며 철저히 보호하고 보살펴주는것은 공화국정권의 제일가는 본분이다.

국가의 모든 정책이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집대성하여 작성되고있으며 정권기관들의 활동은 인민들의 창조력에 의거하여 진행되고있다. 가장 인민적인 사회주의보건제도, 교육제도를 일관하게 견지하고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높은 목표를 내세운것은 공화국에서만 찾아볼수 있는 현실이다.

어떤 환경속에서도 공화국정권이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고 인민의 존엄과 미래를 끝까지 책임지기에 인민들은 사회주의조국을 목숨바쳐 지키며 가사보다 국사를 더 중히 여기고있는것이다.

국가와 사회의 모든것이 인민을 위해 복무하고 인민대중이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공화국이야말로 그 어떤 힘으로도 당해낼수 없는 위대한 나라, 불패의 강국이다.

공화국은 사상적일색화를 실현한 일심단결의 나라이다.

가장 리상적인 국가는 만민을 공감시키고 집결시킬수 있는 우월한 사상과 정치가 구현되여 모든 공민들이 일심일체를 이룬 나라이다.

공화국의 발전행로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국가정치철학으로 확립하고 국가건설과 활동전반에 구현하여온 력사이며 그것이 전체 인민의 사상의지와 인생관으로 전환되여온 과정이다.

온 사회가 하나의 사상으로 일색화된 나라,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이 실현된 나라는 공화국밖에 없다.

불패의 정치사상강국을 건설한것으로 하여 공화국은 세계사회주의체계가 무너지고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반동공세가 집중된 속에서도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고수할수 있었으며 최강의 국방력도 갖출수 있었다.

공화국은 자립적민족경제와 자위적국방력을 건설한 기적의 나라이다.

국가의 자주권을 견지하고 지속적발전을 도모하자면 자체의 든든한 밑천이 있어야 한다. 제발로 걸어나가는 경제, 제힘으로 자기를 지킬 방위력이 없이는 자주정치도 실현할수 없고 언제 가도 부국강병의 위업을 성취할수 없다.

공화국은 외부세력의 끈질긴 방해책동속에서도 자력자강의 원칙에서 물러서지 않았으며 정의를 수호하고 사회주의의 앞길을 개척해왔다.

가중되는 제재와 봉쇄를 자강력증대의 기회로 반전시키며 자기식의 발전궤도를 따라 힘차게 돌진함으로써 남들이 걸어온 수세기를 도약하며 오늘과 같이 강대한 힘을 비축할수 있었다.

세계는 아직 크지 않은 나라가 경제와 국방건설을 다같이 틀어쥐고 성과적으로 실현한 례를 알지 못한다.

더우기 적대세력의 항시적인 전쟁위협과 봉쇄책동을 짓부시며 자력으로 국가를 유지할수 있다는데 대하여서는 상상도 못하고있다.

기존의 정치개념이나 경제학적인 공식, 수자로써는 가늠할수 없는것이 공화국의 무한대한 발전잠재력이다.

현시기 많은 나라들이 렬강들의 상품시장, 무기시장으로 전락되고 경제위기로 아우성치고있는 때 적대세력들의 가중되는 고립압살책동을 짓부시며 자립경제의 토대를 더욱 튼튼히 구축하고 나라의 방위력강화에 이바지하는 위력한 수단들까지 마음먹은대로 척척 만들어내고있는 나라는 오직 공화국뿐이다.

력사와 현실은 공화국이 견지하여온 자력갱생의 원칙이 얼마나 정당하고 위력한것인가를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공화국은 계승성이 확고한 전도양양한 나라이다.

사회주의국가정치체제의 계승문제는 관건적이면서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지난 20세기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일부 나라들에서 이 문제를 바로 해결하지 못한것으로 하여 사회주의제도가 무너지는 비극을 초래하였다.

하지만 공화국은 사소한 편향이나 우여곡절도 없이 계승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여왔다.

혁명의 앞날을 내다보며 령도의 계승문제와 혁명전통계승문제를 특별히 중시하고 청년문제해결에 커다란 힘을 기울인 여기에 공화국이 력사의 그 어떤 광풍에도 흔들림없는 근본비결이 있다.

세계는 공화국의 눈부신 전변상에 대해서도 감탄하고있지만 이것을 더 부러워하고있다.

그것은 계승성이 확고한 국가에 무한한 발전성과 창창한 전도가 있기때문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철저한 인민성과 사상의 유일성, 확고한 자립성과 일관한 계승성은 공화국의 고유한 특징이라고 하시면서 세계가 알수 없는 공화국의 막강한 국력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시였다.

우리 국가제일주의에 관한 과학적인 해명은 인민들에게 자기 조국의 위대함에 대한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뚜렷이 새

겨주는 강령적지침으로 되고있다.

오늘의 시대가 요구하는 민족적자존심은 이미 이룩한 성과에 자만도취되여 만세나 부르고 자화자찬하는 그러한 사상감정이 아니다.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안아오며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는 투쟁정신, 모든 분야에서 전면적발전을 이룩하고 세계를 압도하려는 투철한 각오와 의지이다.

력사는 한때 강국이라고 하던 나라들이 자만도취하여 태평가만 부르다가 망한 사실을 수없이 기록하고있다.

고대나 중세, 근대에는 말할것도 없고 적대세력들의 책동으로 적지 않은 나라들이 정치적혼란과 류혈참사의 소용돌이에 빠져든 비극적현실이 그러하다.

물론 부강하고 자주적인 국가건설의 중핵적인 과제를 해결하는것도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위대한 전취물을 고수하고 계속 공고발전시켜나가는 것은 그에 못지 않게 어려운 일이다.

더우기 힘의 강약과 리해관계에 따라 나라들사이의 관계가 좌우되고 렬강들의 패권주의가 날로 로골화되고있는 오늘의 세계에서 국력강화는 국가존립과 발전의 사활적인 요구로 나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내세우는 기본취지는 전면적인 국가부흥시대에 맞게 더욱 분발하여 강국

을 일떠세우기 위한 총돌격전에 매진하자는데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들고나가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높이에 맞는 국풍을 수립하는데 주목을 돌릴데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부강조국을 건설하여온 력사적과정에 형성된 고유하고도 우수한 국풍은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발양시키기 위한 토대로 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고 자주성을 목숨보다 더 귀중히 여기고 남달리 애국심이 높으며 투쟁하기 좋아하고 단결력이 강하며 화목하게 사는것과 같은 훌륭한 국풍을 적극 살려나가면서 강국의 위상에 어울리는 새로운 국풍을 계속 창조해나갈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시대의 투쟁의 기치로 우리 국가제일주의가 제시됨으로써 인민모두가 우리 국가가 제일이라는 더없는 자부와 민족적자존심을 지니고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추동해나갈수 있는 위력한 보검이 마련되게 되였다.

하기에 남조선의 어느한 인터네트신문은 《주체조선의 위대함, 우리 국가제일주의》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지금에 만족하지 말고 더욱더 강대한 나라를 만들자는 사상의식의 발현이다.

그래서 북은 경제건설총진군을 다그치며 정치강국, 사상강국, 군사강국과 더불어 문명강국, 경제강국을 건설하고있다.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정신력을 계승하여 지금까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부강한 나라의 면모를 만들어 주체의 사회주의조선의 위력을 세계에 보여주기 위한 사상이라고 볼수 있다.》

오늘 지구상에서는 일부 정치가들에 의해 민족리기주의와 배타주의가 공공연히 고취되고있다.

서방의 언론들도 일부 정치인들에 의해 《세계는 그야말로 1930년대 파시즘의 시대로 회귀하는것처럼 보인다.》고 우려하고있다.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결코 다른 나라와 민족을 깔보고 배척하며 자국만을 위한 세계질서를 수립하려는 패권주의적인 사고방식, 자기의 리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민족의 리익을 서슴없이 침해하는 극단한 민족리기주의가 아니다. 다른 민족에 대한 반목과 증오를 설교하는 협애한 배타주의와는 더더욱 인연이 없다.

여기에는 령도자와 인민이 혼연일체를 이룬 일심단결의 나라, 자기의 힘과 지혜로 부강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가는 자력자강의 나라, 위대한 수령을 대를 이어 모시고 찬란한 미래로 나아가는 전도양양한 나라에 대한 인민의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이 응축되여있다.

이 긍지와 자부심은 결코 세월이 가져온 우연도, 그 누가 선사한 재부도 아니다.

지난날 세계지도에서 빛을 잃었던 조국, 망국노의 설음을 강요당하던 인민을 한품에 안으시고 강대한 나라, 위대한 인민으로 세계앞에 당당히 내세우시려 한생을 뿌리처럼, 흰눈처럼, 초불처럼 바쳐오신 절세위인들의 심장속에 간직된 애국, 애족, 애민의 열과 정이 그대로 인민의 마음속에 주체의 사회주의가 제일이라는 신념을 새겨주었다.

위대한 사상과 진정한 애국의 넋을 기초로 하고 세상에 둘도 없는 사회주의국가에 대한 인민의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이 응축되여있는 우리 국가제일주의와 같은 정치리념을 력사는 아직 알지 못하고있다.

자기의 리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민족의 리익을 서슴없이 침해하는 극단한 민족리기주의와 타민족에 대한 반목과 증오를 설교하는 배타주의가 기승을 부리는 오늘의 세계에서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투쟁의 기치, 위력한 사상정신적무기로 내세우신 경애하는 원수님은 진정 누구도 따를수 없는 강한 민족적자존심과 천리혜안의 예지를 지니신 탁월한 정치가이시다.

# 3. 강국의 존엄과 위상 만방에 떨치시다

❖ 드놀지 않는 담력과 배짱

❖ 조선의 힘을 최상의 경지에

❖ 지구를 굽어보는 조선의 《북극성》

❖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결사대 앞으로!

❖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은 말한다

세계에 존엄높은 위대한 강국!

그 위상 하늘에 닿은 불패의 내 조국!

성스러운 10년력사의 총화와도 같이 이 부름이 인민의 심장을 세차게 울려주고있다.

그 부름과 더불어 출중한 령도력, 강인담대한 담력과 의지로 흘러온 10년세월에 우리 민족이 반만년을 이어오며 사무치게 갈망해온 강국의 세기적숙망을 최상의 경지에서 실현하신 백두령장의 위대한 장군상이 우렷이 떠오른다.

백승의 10년세월로 조선을 안아 더 높이 떨치고 온 세계를 격동시키신 희세의 천출명장 **김정은**장군!

그이의 탁월한 령도밑에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이 이룩되고 지역의 안전과 세계평화수호의 굳건한 담보가 마련되였다. 주체조선은 세계의 정치구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새로운 전략국가로 급부상하였으며 제국주의자들이 조선을 항시적으로 위협하던 시대는 영영 지나갔다.

세계를 진감하며 흔들어깨운 위대한 장군의 10년세월은 정의와 진리에 대한 가장 힘있는 선언이고 제국주의의 강권과 전횡에 종지부를 찍고 존엄높은 새시대를 안아올린 장엄한 포성이다.

력사의 기관차마냥 시대를 이끈 용용하고도 강력한 흐름은 이 조선이 걸어오고 세계에 솟구친 눈부신 격동기이며 긍지

높은 강국의 오늘과 더불어 무궁번영할 천만년미래를 열어준 불멸의 **김정은**애국영웅전이다.

애국이라 하기에는 그 업적이 너무도 높고 장군이라 하기에는 그 위력과 기개가 너무도 크고 위인이라 하기에는 그 풍격과 인력이 너무도 숭엄하고 강렬한 절세위인의 전설적인 만고의 업적과 눈부신 자욱자욱.

흐르는 해와 달과 더불어 그 비상한 가치와 생명력은 더욱 선명하게 부각될것이며 강대한 이 조선의 존엄과 위상은 무궁토록 만방에 떨쳐질것이다.

# 드놀지 않는 담력과 배짱

제국주의의 폭제와 전횡이 살판치는 오늘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걸머진 령도자는 어떤 형의 정치가여야 하는가.

그 리상형의 정치가의 모습을 세계는 바로 조선에서, 백두의 천출명장 경애하는 **김정은**장군의 출중한 위인상에서 찾고있다.

돌이켜보면 공화국의 탄생과 더불어 장장 70여년세월 지속되여온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은 지난 10년세월 말그대로 사상최악에 달하였다.

세상사람들이 얼마나 숨을 죽이고 조선을 지켜보았던가. 가장 강대한 힘을 가졌다고 하는 제국주의렬강들이 한꺼번에 달려들며 크지 않은 조선을 압살할 흉심밑에 어느 한시도 발악적공세를 멈춘적이 있었던가.

지난 세기 50년대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이 미국과 15개 추종국가 군대들과의 대결이였다면 지나온 10년간의 총포성없는 전쟁은 공화국이 지구상의 모든 제국주의렬강들과 맞서싸운 치렬한 대결이였다.

처음에는 감히 진로변경을 강박하고 그것이 통하지 않자 조선을 완전히 질식시키고 압살하기 위한 전대미문의 압박공

세에 광분하였다. 적대세력들이 세계를 전률케 하는 방대한 전략자산들을 모두 끌고와 핵전쟁을 불사하겠다고 날뛴 발광은 몇차례의 대전을 방불케 했다.

주저앉느냐 일어서느냐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 하는 가장 처절한 대결에서 과연 누가 승리하고 누가 패하였던가.

세상사람들이 한결같이 경탄하듯이 경애하는 **김정은**장군의 조선은 오늘 위대한 승리자로서 제국주의강적을 발밑에 굽어보며 거연히 서있다.

일찌기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김정은**대장은 어떤 역경과 시련속에서도 제국주의자들과의 첨예한 정치군사대결전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갈수 있는 모든 자질과 풍모를 최고의 높이에서 체현하고있는 천하무적의 장군이라고 교시하시였듯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시야말로 무비의 담력과 드센 배짱을 지니시고 제국주의렬강들과 그 추종세력들을 쥐락펴락하시는 또 한분의 백두령장, 새로운 주체100년대가 맞이한 희세의 영웅이시다.

담력과 배짱은 령장의 필수적기질이다.

아무리 지략이 있다고 해도 담이 없고 배짱이 없으면 령장으로 될수 없다. 승리의 열쇠는 령장의 지략에 있고 필승의 비결은 령장의 담력에 있다.

담력과 배짱은 결코 령토의 크기나 인구수, 군력과 경제력에 의해 결정되는것이 아니다. 담력과 배짱은 전적으로 령장

으로서의 강한 정신력과 특출한 기질에 있다. 그래서 《지략이 있는 배짱은 영웅의 표징》이라는 말도 생겨났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백두산의 돌은 칼갈아 다 없애고 두만강물은 말먹여 다 말리리…》라고 한 남이장군의 시를 애송하면서 대장부다운 그의 담과 호기있는 기개를 찬양해왔다.

세계전쟁력사를 놓고보아도 남다른 배짱과 담력으로 적들에게 공포를 주고 승리한 명장들에 대한 이야기가 적지 않게 전해지고있다.

짜리로씨야 꾸뚜조브장군의 경우가 그러하다. 그는 오만하게도 세계제패를 꿈꾸던 나뽈레옹에게 결정적인 패배를 안긴 명장으로 널리 알려져있다. 그의 기질에서 장점은 무인다운 배포유한 배심이라고 할수 있다.

이전 쏘련의 쥬꼬브원수도 쏘도전쟁시기 대적앞에서도 끄떡하지 않는 배심으로 파쑈도이췰란드군과의 싸움에서 많은 공로를 세웠다. 그는 파쑈도이췰란드군이 모스크바교외에까지 육박해들어왔을 때 우리가 과연 승리할수 있는가, 추궁하지 않을테니 솔직하게 내앞에서 말해보라고 하는 쓰딸린에게 꼭 승리한다고 확신성있게 대답하였다. 쓰딸린은 이에 대해 만족을 표시하고 신념과 배짱이 강한 쥬꼬브를 크게 신임하였다.

오늘 세계는 동서고금에 이름을 남긴 모든 명장들의 배짱과 담력을 다 합친것에 비할바없는 천하무적의 담력과 배짱을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은**장군의 비범하고 특출한 위인상에

경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배짱도 장군의 배짱이고 담력도 장군의 담력이다. 그이의 기질은 방어가 아니라 공격형이다. 전진도상에 난관이 가로놓일 때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에돌거나 피하지 않으시고 무비의 담력과 배짱으로 승리를 안아오고계신다.

천하를 쥐락펴락하시며 제국주의렬강들을 무릎꿇게 하신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담대한 배짱과 담력은 주체101(2012)년 3월초에 단행하신 판문점에 대한 현지시찰을 놓고도 이야기할수 있다. 그때를 추억하며 판문점의 부대지휘관은 이렇게 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너무도 뜻밖에 우리 판문점초소를 찾으시였을 때 초병들은 만세의 환호도 올리지 못하고 어찌할바를 몰라했습니다. 장내에는 격정이 세차게 파도쳤습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판문점이 어떤 곳입니까.

적들의 발광적인 침략전쟁연습으로 일촉즉발의 정세가 조성된 때에, 그것도 첨예한 대결의 최전방을 어두운 밤도 아닌 밝은 대낮에 찾아오신 그이를 눈물속에 우러르며 우리 초병들은 극도의 긴장감으로 마음을 조이였습니다.

그런 우리들의 심정을 헤아려보신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동무들이 정세가 제일 첨예한 시기 내가 대낮에 적들과 총부

리를 맞대고있는 최전방에 나왔다고 걱정하는것같은데 괜찮다고 흔연히 말씀하시며 판문각로대쪽으로 향하시였습니다.

초병들은 황급히 그이의 앞을 막아나섰습니다. 하지만 그이께서는 마치 정원에 산보를 나오신듯 가벼운 걸음으로 거침없이 로대에 오르시였습니다.

이 세상의 천만대적이 무리지어 덤벼든대도 눈섭 한오리 까딱하지 않는 백두산장군의 담대한 기상과 배짱을 페부로 절감하게 하는 순간이였습니다.》

태연하게 적진을 굽어보시는 그이를 우러르며 부대지휘관은 마음이 든든해지는것을 느끼였다.

(정말 우리의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제일배짱가이시구나!)

이윽고 판문각을 나서시여 조국통일친필비를 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경무관들과 함께 사진을 찍겠으니 그들을 다 데리고 오라고 이르시였다.

경무관들이 전투근무를 수행하기때문에 기념사진을 2차로 나누어 찍어야 할것같다고 말씀올리는 부대지휘관에게 그이께서는 최고사령관이 나왔는데 어느 놈이 감히 덤벼들겠는가, 최고사령관이 지켜주겠으니 그런 걱정을 하지 말고 다 데려오라고 다시금 이르시였다.

그러시고는 군인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아 대를 두고 길이 전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였다고 부대지휘관은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직접 지켜주시는 가장 안정된 판문점구역에서 마음놓고 전투근무장소를 비운 초병들이 그이의 품에 안겨 행복의 밝은 웃음을 짓고있는 모습, 그것은 세상에서 제일 강하고 위대하신분을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우리 초병들의 무한한 행복상인 동시에 그이께서 지니신 무비의 담력과 담대한 배짱을 온 세상에 시위하는 뜻깊은 화폭이였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대낮에 단행하신 판문점시찰소식은 적대세력들에게 지진이 일어난것같은 대충격을 주었다.

《판문각에서 쌍안경으로 남쪽을 바라보는 **김정은**최고사령관의 근엄한 모습, 그야말로 담력과 배짱이 없이는 적의 총구가 항시적으로 도사리고있고 <한미합동군사연습>이 한창 벌어지고있던 최전선에 나설 엄두도 내지 못할것이다. **김정은**최고사령관은 이런 담력과 배짱, 기질을 지니신 장군이시다.》

《미국과 남조선의 정계나 군부에서는 **김정은**최고사령관의 판문점시찰이 너무도 예상할수 없었던 그야말로 <허를 찌르는 상상밖의 행보>라고 하고있다.

서방의 군수뇌들은 그런 과감무쌍한 걸음을 할수 없다. 바로 그해 남조선에 갔던 오바마대통령도 최전방부대를 방문했다고 하지만 감히 판문점에는 가볼 생각도 못하고 두꺼운 방탄유리뒤에 숨어서 북쪽을 얼핏 스쳐보고는 돌아섰다.

이러한 행동거지만 보아온 미국이나 남조선의 군부가 북 최고사령관의 대용단에 어찌 당황함의 극치를 드러내지 않을수 있겠는가.》

남조선언론들도 《청청하늘에서 섬광이 일고 천둥소리를 듣는것같아 깜짝 놀랐다.》, 《백악관과 청와대가 공중분해되는것을 보는것같았다.》, 《결심이 단호하고 신념과 배짱이 강하신 백두산혈통의 장군만이 단행할수 있는 장거였다.》고 격찬하였다.

예로부터 명장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승전고만 울려퍼진다고 했다.

그 어떤 강적이 덤벼들고 불의의 사태가 조성되여도 눈섭하나 까딱하지 않고 무비의 담력과 배짱으로 승리만을 떨쳐가는 장군을 력사와 인민은 영웅으로 높이 칭송한다.

한 나라, 한 민족을 이끄는 령도자는 적과의 대결에서 피동이나 굴종이 아니라 강경고압의 자세로 단호하게 대처하며 무자비한 타격으로 적들의 도전을 짓부시는 담력과 배짱을 지녀야 한다. 그래야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킬수 있고 인민을 승리에로 확신성있게 불러일으킬수 있다.

오늘의 세계에서 이러한 강철의 령장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한분뿐이시다.

언제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우리는 적들이 단도를 빼들면 장검을 내들고 총을 내대면 대포를 내대는

우리의 신념과 배짱은 변함이 없다는것을 전 세계에 똑똑히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단도를 빼들면 장검을, 총을 내대면 대포를!

정녕 백두의 천출명장의 강철의 신념과 의지, 담력과 배짱이 담겨진 력사의 선언이였다.

— 적진을 아예 벌초해버리라.

— 항복서에 도장을 찍을 놈도 없게 모조리 쓸어버리라.

—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도전해나서는자들은 그가 누구든 최후종말을 면치 못할것이다.

결심에서 단호하고 타격에서 무자비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적대세력들과의 대결에서 뢰성벽력에도 드놀지 않는 산악같은 기개와 배심으로 언제나 승리만을 안아오신다. 《물거품이 된 북침전쟁연습》에 대한 일화도 이 나날에 태여났다.

2012년 2월하순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은 공화국에 대한 불의의 선제타격을 노린 모험적인 북침전쟁연습인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실전의 분위기속에서 대대적으로 벌릴것을 계획하고 방대한 침략무력과 핵선제타격수단들을 비롯한 공격무기들을 비상대기태세에 들어가게 하였다. 그리고는 호시탐탐 기회만을 노리고있었다.

적들의 대규모군사연습이 어느 순간에 핵전쟁으로 이어질지 모를 위험천만한 시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군지휘성원들에게 적들이 강행하려고 하는 합동군사연습직전부터

강타를 안기도록 하시였다.

그이의 자신만만한 담찬 음성은 긴장으로 굳어졌던 지휘성원들의 가슴을 쩡— 하게 울려주었다.

령장의 슬기와 담력이 번뜩이는 그이의 존안을 우러르는 인민군지휘성원들의 가슴마다에는 강철의 령장을 모시여 앞으로의 반미대결전은 우리의 승리로 빛나게 결속될것이라는 확신이 천연바위마냥 굳어졌다. 그후에 펼쳐진 현실이 그것을 웅변으로 확증해주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대변인성명이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을 앞둔 적들의 머리우에 떨어지는 무자비한 철추로 뢰성처럼 울려퍼졌던것이다.

《…조성된 정세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원칙적립장을 내외에 밝힌다.

1.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민족반역의 무리들과 내외호전광들의 새 전쟁도발책동을 우리 식의 성전으로 짓부셔버릴것이다.

…

3. 침략적인 전쟁과 간섭에 체질화된 미제호전광들에게 우리 군대와 인민의 진짜총대맛, 전쟁맛이 어떤것인가를 보여줄것이다.

주체101(2012)년 2월 25일

평 양》

바로 그 나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서남전선지구에 위치한 여러 군부대들을 시찰하시며 싸움준비상태를 확정하시고 침략자들이 우리에게 한점의 불꽃이라도 떨군다면 서해바다를 놈들의 무덤으로 만들데 대한 강력한 보복타격명령을 내리시였다.

그것은 청천벽력같은 폭탄선언에 기가 꺾이여 어쩔바를 몰라하던 적대세력들에게 조선은 결코 빈말을 하지 않는다는것을 보여주는 무서운 폭풍으로 되였다. 내외의 한결같은 규탄에도 불구하고 한사코 벌려놓으려던 적대세력들의 북침전쟁연습은 첫시작을 떼보기도 전에 된서리를 맞은 호박잎신세가 되고말았다.

하지만 그것은 적대세력들에게 안겨지는 강타의 시작에 불과했다.

적들의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이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서고있던 때 원쑤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며 요란한 포성이 천지를 뒤흔들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몸소

칭송의 목소리

### 초강경조치들로 련속 강타

지금 미국이 대조선압살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고있으나 조선은 이에 겁을 먹고 주저앉거나 양보하는것이 아니라 자위적군사력강화를 비롯한 초강경조치들로 련속 강타를 들이대고있다.

《핵선제타격권은 결코 미국에만 있는것이 아니다.》, 《정의도 우리 편에 있고 시간도 우리 편에 있다.》

조선에서 울려나오는 이 말들의 의미는 오늘 조선반도의 현실을 통하여 잘 알수 있다.

(로씨야신문 《하바롭스끼 엑쓰쁘레스》)

작전하고 지휘하신 조선인민군 륙해공군 합동타격훈련이였다. 이제 당장이라도 침략자들을 흔적도 없이 죽탕쳐버릴 영웅적조선인민군의 본때와 전투정신을 남김없이 보여준 섬멸적인 타격모습을 인공위성을 통해 지켜본 적대세력들은 죽음의 공포에 떨었다.

그 무서운 타격이 그대로 실전으로 이어지는 경우 결과는 상상하기조차 끔찍하였던것이다. 놈들의 침략기도는 산산이 부서졌다. 그것을 두고 당시 서방의 한 군사평론가는 이렇게 평하였다.

《북조선군의 무자비한 타격력에 지구가 깨여질가봐 두려웠다. 미국과 남조선의 방대한 무력이 집결된 조선서해에서 벌린 북조선군의 륙해공군 합동타격훈련에는 진짜불맛, 진짜전쟁맛이 어떤것인가를 몸서리치도록 보여주겠다는 **김정은**최고사령관의 드센 담력과 배짱이 그대로 어려있었다.

세계에서 제일가는 군사강국의 지위를 당당히 차지한 북조선은 이제 그 누가 자기를 조금이라도 건드린다면 상대를 만신창이 되도록 두들겨패고 완전히 깔고앉을 기회만을 노리고있다. 미국과 남조선은 현실을 똑바로 보고 분별을 잃지 말아야 한다.》

그때만이 아니였다.

2015년 8월 호전적인 미군부가 남조선당국을 내세워 그 무슨 《지뢰폭발》사건과 《북포탄발사》사건이라는것을 조작하고 정세를 최극단에로 몰아갔을 때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는 조선인민군 전선대련합부대들에 완전무장한 전시상태로 이전하며 전선지대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함에 대한 최고사령관 명령을 하달하시였다.

하여 조선반도에서 기어이 전쟁의 불집을 터뜨리려던 적대세력들의 엄중한 도발기도를 제압하시였다.

력사의 한순간이라고 할수 있는 지나온 10년세월 세계는 똑똑히 보았다.

경애하는 **김정은**장군이시야말로 하늘도 이기는 담력과 배짱을 지니신 천하무적의 최강자이시라는것을!

《세계사를 돌이켜보면 이름떨친 명장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용장이였다. 세계적인 명장들이 저마다 용맹으로 이름떨쳤지만 **김정은**국무위원장과 같이 백두산 그대로의 담력과 배짱을 가진 용장중의 용장, 명장중의 명장은 일찌기 없었다.》

《**김정은**령도자는 현세기는 물론 앞으로도 있을수 없는 담력과 배짱이 크고 매우 강한 지도자이시다.》

《최고의 담력가, 배짱가이신 조선민족의 위대한 령수 **김정은**장군 만세!》

…

인민이 칭송하고 세계가 한결같이 경탄하는 천하제일의 담력과 배짱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공화국은 제국주의강적들과의 대결에서 언제나 백전백승의 력사만을 자랑스럽게 새겨가고있다.

# 조선의 힘을 최상의 경지에

판이한 대조를 이루는 두장의 사진이 있다. 한장은 너털웃음을 치는 가증스러운 왜나라졸병들의 서슬푸른 총칼아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지게를 진채 허리를 펴지 못하고있는 한세기전 이 나라 인민들의 불쌍한 모습을 담은 사진이다.

다른 한장은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기념 열병식장에서 그 이름만 들어도 적대세력들이 전률하는 세계최강의 병기들을 바라보며 강대한 주체조선의 힘을 우주만리에 떨쳐가는 긍지에 넘쳐 열광의 환호를 터치는 공화국인민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다.

식민지약소국과 천하제일강국!

실로 하나의 완전한 탄생과도 같은, 하늘땅이 새로 열린것과도 같은 강대한 조선, 강대한 민족의 극적인 모습이라 해야 할것이다.

10년, 너무도 짧은 력사의 한토막이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그 세월은 우리 민족사의 반만년에 맞먹는, 아니 그보다 더 거창한 년대기였다고 말할수 있다.

힘이 약하면 나라가 망하고 인민은 노예가 된다. 돌이켜보

면 5 000년의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건만 힘이 약했던탓에 망국노의 쓰라린 치욕을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되였던 우리 민족이였다.

작가 박태원은 장편소설 《계명산천은 밝아오느냐》에서 망국의 운명에 처하였던 조선봉건왕조말기의 형편에 대해 이렇게 썼다.

《…저 해양너머의 식민주의자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면서 제멋대로 별명지어 <동방의 은둔국>이라 불러오는 이 나라—조선의 밤은 길었다.

조국의 운명과 민족의 장래를 생각하고 국가백년의 대계를 세울 때는 바로 이때련만, 이 나라 량반님네들의 잠은 좀처럼 깰줄을 모른다.

대체 어찌할 작정인가? 그냥 잔다. 세상모르고 그냥 자고들만 있다. …》

하늘에는 비행기가 날고 땅우로는 기차가 달릴 때, 자본주의나라들이 신식5련발총을 가지고 대포와 군함을 끌고 대륙과 대양을 횡단할 때 부패무능한 봉건통치배들은 군력강화에 낮조차 돌리지 않았으니 망할것은 당연한 리치였다.

조선군대가 해산되기 직전인 1907년에 병력수가 약 9 000명되나마나하고 기본전투무기란 창과 칼, 활, 화승대가 고작이였으니 더 말해 무엇하랴. 원쑤들은 맨주먹만으로 맞서려는 사람을 논밭의 허재비로밖에 여기지 않는다.

당시 조선의 이러한 실태를 놓고 미국대통령이였던 시어더 루즈벨트는 조선사람들은 자기 나라의 방어를 위해 손가락 하나 쳐들지 못하는 민족이라고 모독하였다.

조선의 군력을 허술히 본 일제는 군함을 끌고와 대포를 쾅쾅 쏘아대며 위협과 공갈로 불평등한 《강화도조약》을 체결하였고 나중에는 《을사5조약》까지 날조하여 국권을 통채로 강탈하였다.

단순히 짓밟혔던 나라가 아니였다. 이 행성에서 사라졌던 나라였다. 국호가 사라지고 지경이 사라지고 말과 글이 사라지고 성과 이름마저 사라졌다. 흘러가던 자연의 시간마저도 빼앗긴 말그대로 죽어버린 나라, 세상사람들이 기억조차 하지 않던 잃어진 민족이였다. 이것이 바로 한세기전 불쌍한 식민지약소민족이 당한 참담한 아픔이였다.

그때로부터 한세기가 지난 오늘 조선의 지위와 높이를 바꾸어놓는 력사의 기적이 일어났다.

고난의 언덕에서 솟구쳐 위성과 핵을 보유한 강국, 어제날 제국주의자들에게 위협을 당하던 나라로부터 제국주의자들에게 죽음과 공포를 주는 나라로 위용떨치고있다.

너는 왜 남처럼 크지를 못하느냐고 이 나라 시인도 가슴을 쥐여뜯던 나라, 채찍에 얻어맞고 멍에에 짓눌려 허리마저 굽었던 민족이 세계우에 우뚝 솟아 가슴을 쭉 펴고 천하를 굽어보고있다.

실로 하늘땅이 뒤바뀐것과도 같은 극적인 대사변, 이것은 결코 세월이 가져다준 우연도, 그 누구의 선사품도 아니다.

위대한 수령님들과 꼭같으신 또 한분의 백두령장 경애하는 **김정은**장군을 대를 이어 모시여 받아안은 크나큰 행운이다.

언제인가 공화국을 집어삼키려는 적대세력들의 발악이 극도에 달하였던 그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말씀하시였다.

자신께서는 늘 수령님과 장군님의 념원대로 우리 나라를 하루빨리 세상에서 제일 으뜸가는 강국으로 만들 생각을 하고있다고, 우리 나라를 세계의 상상봉에 올려세우자는것이 자신의 결심이라고.

힘이 강해야 조국도 지키고 후손만대의 행복도 담보할수 있다.

내 나라, 내 조국을 세기의 상상봉에 우뚝 올려세우실 불같은 열망을 안으시고 누구도 상상 못할 담대한 작전도 펼치시고 누구도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이라는 전략적결단도 서슴없이 내리신 경애하는 원수님.

그때를 가슴뜨겁게 되새겨보며 내각의 책임일군은 이렇게 말하였다.

《2013년 3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천명하시였습니다.

그이께서는 우리 당이 제시한 병진로선은 급변하는 정세에 대처하기 위한 일시적인 대응책이 아니라 우리 혁명의 최고리익으로부터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략적로선이며 우리 인민이 핵강국의 덕을 입으며 사회주의만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기 위한 가장 정당한 로선이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새로운 병진로선은 제국주의자들의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맞서야 하며 핵억제력이야말로 나라와 민족, 사회주의의 운명을 수호하기 위한 가장 위력한 자위의 보검이라는 진리에 기초한 백두령장의 철의 신념과 의지의 선언이였습니다.》

어찌하여 조선은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의 길을 택하지 않으면 안되였던가.

결론부터 말한다면 조선의 핵보유는 제국주의의 핵공갈과 대조선적대시정책이 가져온 필연적귀결이라는것이다.

세계적으로 우리 민족만큼 핵위협을 가장 직접적으로 제일 오래동안 당해온 민족은 없을것이다. 우리 민족은 히로시마, 나가사끼에 대한 미국의 핵공격피해를 직접 당하고 일본사람다음으로 많은 사상자를 낸 민족이다.

원자탄의 끔찍한 참화를 체험한 조선인민에게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국은 원자탄공갈을 감행하였다. 1950년 11월 미국대통령 트루맨이 조선전선에서의 원자탄사용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데 이어 그해 12월 미극동군 사령관 맥아더는 《조선북부에 동해로부터 서해에 이르는 방사능복도지대

를 형성할것이다. 그 지대안에서는 60년 혹은 120년동안 생명체가 존재하지 못할것이다.》고 폭언하였다.

전후에도 미국은 남조선에 핵무기를 끌어들여 그것을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에 실지 사용하기 위한 합동군사연습을 장장 수십년동안 끊임없이 감행해왔다.

2013년 3월만 놓고보아도 적대세력들은 하나의 전쟁을 치르고도 남을 핵항공모함타격집단과 전략핵폭격기를 비롯한 방대한 침략무력을 조선반도에 들이밀고 정세를 일촉즉발의 전쟁접경에로 몰아갔다.

— 제국주의침략자들에게는 절대로 말이 통하지 않는다. 제국주의자들과는 오직 힘으로, 폭제의 핵에는 정의의 핵억제력으로 대응해야 한다. 강위력한 핵무력우에 평화도 있고 조국의 부강번영도 있으며 인민들의 행복한 삶도 있다.

이것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성된 엄혹한 정세와 지나온 력사를 분석하시면서 새기신 신조였다.

뢰성벽력에도 드놀지 않는 담력과 배짱, 강철의 신념과 의지가 있어야 하고 값비싼 희생과 천신만고를 각오해야 하는 핵무력건설은 바란다고 하여 누구나 다 내릴수 있는 용단이 아니다.

발전되였다고 하는 나라들에서 자위의 강력한 보검이 핵무기보유에 있다는것을 알면서도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는것도 바로 이때문이다.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 그것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다고 해도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수호하는 길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을 투철한 각오와 의지를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만이 내리실수 있는 애국애족의 대결단이였다.

이런 드팀없는 의지를 지니시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련속적인 핵시험으로 자위적핵억제력을 질량적으로 끊임없이 강화해나가시였다.

공화국의 핵무기연구소 일군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지금도 귀전에 2016년 새해의 서막을 장쾌하게 열어제낀 첫 수소탄의 폭음이 들려오는것만 같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2015년 12월 15일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을 진행할데 대한 명령을 하달하신데 이어 2016년 1월 3일 최종명령서에 수표하시였습니다. 이에 따라 1월 6일에 진행된 수소탄시험이 가장 완벽하게 성공하였습니다.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 이는 병진로선의 정당성을 만천하에 떨치며 그 무슨 <진로변경>과 <핵포기>가 없으면 더는 앞날이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군사적위협소동에 악랄하게 매달리던 적대세력들에게 내린 준엄한 철추였습니다.

그후에도 우리 공화국은 대륙간탄도미싸일장착용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이라는 집중적인 련속타격으로 핵전쟁접경에로 몰아가는 적대세력들의 침략기도를 단호히 분쇄해버리였습

니다.》

최첨단과학기술과 막강한 경제적잠재력의 종합체라고 할수 있는 수소탄, 행성의 많은 나라들이 그처럼 소원하면서도 가지지 못한 《꿈의 무기》가 마침내 주체조선의것으로 되였다.

공화국의 전략적지위가 달라졌다. 주체조선은 명실상부한 핵보유강국으로 그 전략적지위가 급상승하였다.

《절대병기》로 불리우는 수소탄시험이후 《조선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이 되여 우리의 립장을 대변해주면 좋겠다.》고 한 유엔주재 발전도상나라 대표들의 주장은 국제무대에서 대세를 평정할수 있는 세계적인 지위에 올라선 공화국에 대한 국제적지지성원과 신뢰의 뚜렷한 표시였다.

5천년민족사의 꿈과 리상을 터쳐올린 수소탄의 장엄한 폭음에 적대세력들은 전률하였다. 절망과 공포의 비명을 질러댔다.

《조선의 첫 수소탄시험 백악관을 통채로 들부셨다.》, 《조선은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으로 핵대국의 지위에 오르게 되였다.》, 《미국의 전략적인내정책수정은 불가피하다.》…

남조선의 전문가들도 《이번 핵시험은 수소탄시험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북은 앞으로 핵무기보유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일것이다.》고 평하였다.

첫 수소탄시험에서의 완전성공으로 공화국을 세계적인 군사강국의 전렬에 당당히 올려세우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미싸일공업을 개발창조형공업으로 확고히 전환시켜 국가핵무력완성의 완결단계목표를 빠른 시일안에 점령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주체106(2017)년은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을 실현하고 주체조선의 위상을 만천하에 힘있게 떨친 사변적인 해로 조국청사에 아로새겨져있다.

이해의 3월 18일 공화국의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은 우리식으로 새롭게 연구제작한 대출력발동기지상분출시험에서 단번성공함으로써 미싸일강국건설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기적을 창조하였다. 이날의 대성공으로 하여 나라의 미싸일공업은 견본모방형으로부터 개발창조형으로 확고히 전환되게 되였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형의 대출력발동기지상분출시험을 현지에서 지도해주시면서 로케트공업발전에서 대비약을 이룩한 오늘은 영원히 잊을수 없는 날, 《3.18혁명》이라고도 칭할수 있는 력사적인 날이라고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그후 주체106(2017)년 7월 4일에 진행된 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14》형시험발사의 대성공은 세계를 진감시켰다. 거대한 섬광, 경축의 불보라인양 아름답게 새겨지는 미싸일의 비행운…

이날 시험발사 전 과정을 지도해주시면서 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14》형시험발사에서 성공한 날인 7월 4일을 《7.4혁명》의 날로 영원히 아로새겨야 한다고 말씀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그해 7월 28일 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14》형 2차시험발사를 또다시 성공에로 이끄시여 공화국을 최강의 대륙간탄도미싸일보유국의 지위에 보란듯이 올려세우시였다.

무분별한 핵공갈책동에 발악적으로 매달리는 제국주의자들과의 대결전에서 결정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새형의 대륙간탄도미싸일무기체계를 우리 식으로 개발완성하도록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주체106(2017)년 11월 28일 새형의 대륙간탄도미싸일 시험발사준비가 완료되였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시험발사 승인한다 11월 29일 새벽에 단행! 당과 조국을 위하여 용감히 쏘라! **김정은** 2017. 11. 28》이라는 친필명령을 하달하시였다.

드디여 주체106(2017)년 11월 29일 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15》형이 지구를 박차고 만리대공으로 날아올랐다. 새형의 대륙간탄도미싸일의 성공적발사를 지켜보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오늘은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이 실현된 뜻깊은 날이라고 긍지높이 선언하시였다.

그러시고 이번 시험발사에서의 성공을 《11월대사변》으로 명명하여 조국청사에 영원히 아로새기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굴함없는 공격정신과 정력적인 령도아래 공화국은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이 제시된 때로부터 4년만에 그리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있은 1년만에 국

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 미싸일강국위업의 실현을 온 세상에 긍지높이 선언하였다.

동방의 새로운 핵강국의 출산을 맞이하느라 세계는 격렬하게 요동쳤다. 적대세력들이 자기의 입으로, 공식적으로 표명하였으며 국제사회에서 인식전환이 일어났다.

《조선은 아시아지역의 모든 미군기지는 물론 미국본토를 공격할수 있는 진정한 핵억제력을 보유하였다.》, 《조선의 현실을 공정하게 보고 대하여야 한다.》…

공화국의 자위적국방력강화를 한사코 막아보려고 미쳐날뛰던 적대세력들은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던 나머지 방공호를 준비한다, 대피훈련을 한다 하며 복닥소동을 피워댔다.

《3.18혁명》과 《7.4혁명》에 이어 《11월대사변》을 승리적으로 결속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미 마련된 전쟁억제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해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여 주체조선이 틀어쥔 군사기술적강세를 더욱 불가역적인것으로 만들어나가시였다.

이 나날 공화국은 초강력다련발공격무기인 초대형방사포, 신형장거리순항미싸일, 극초음속미싸일, 철도기동미싸일, 신형잠수함발사탄도탄을 비롯한 첨단무기체계를 련이어 개발하여 나라의 전쟁억제력, 전쟁수행능력을 전 세계에 과시하였다.

주체111(2022)년 3월 24일, 이날 지구가 또 한번 움씰 들리우는 사변이 일어났다.

주체조선의 절대적힘, 군사적강세의 힘있는 과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새로운 전략무기 출현!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7》형시험발사 단행!

그 소식은 온 세계를 충격의 해일속에 잠기게 했다. 인민의 환희와 격정은 하늘끝에 닿았다.

《주체조선의 절대적힘, 군사적강세를 힘있게 과시하는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시험발사 성공적으로 단행!

이 얼마나 가슴뻐근하도록 통쾌한 우리의 승리입니까.

희세의 걸출한 령장을 모시여 3월 24일이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이 이룩된 11월 29일과 더불어 조국청사에 금문자로 아로새겨 길이길이 빛내가야 할 위대한 승리의 날로 되였습니다.》

《조선의 하늘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만큼 조국과 인민의 존엄과 명예도 우주창공에 닿았습니다.》

《막 눈물이 납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강대한 나라, 이렇게 위대한 나라의 공민이라는 자부심이 가슴속에 꽉 차넘칩니다.》

칭송의 목소리

## 세계는 보게 될것이다

**김정은**각하는 현대군사가의 기질과 풍모를 최상의 높이에서 가장 완벽하게 체현하신분이시다. 세계는 앞으로 자기의 최고사령관께 무한히 충직한 조선인민군과 조선인민의 힘이 얼마나 강한가를 똑똑히 보게 될것이다.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장)

경애하는 원수님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불가항력을 만장약하고 우주만리로 솟구쳐오른 새형의 대륙간탄도미싸일은 최상의 경지에 올라선 주체조선의 무진막강한 힘을 다시금 만천하에 과시하였다.

참으로 폭풍처럼 달려온 10년려정은 주체조선의 지위가 새롭게 높아지고 조선의 의지에 의해 세계가 변해온 날과 달들이였다.

절대의 위력을 가진 조선의 힘, 그것은 이 세상 제일 강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장군의 힘이다!

**김정은**장군의 조선을 당할자 지구상에 없다!

희세의 천출명장을 우러러 강국의 인민이 터치는 환호성 위인칭송의 찬가되여 우주만리에 끝없이 메아리쳐간다.

백두의 억센 힘 세계에 떨친
절세의 영웅을 우러릅니다
강국의 인민이 터치는 환호성
삼천리강토를 뒤흔듭니다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장군께
영광을 드립니다 **김정은**장군께
영광을 삼가 드립니다
…

# 지구를 굽어보는 조선의 《북극성》

그 순간은 지구도 자전을 멈추는듯싶었다. 온 세계가 두눈을 번쩍 뜨며 또 한번 초대형급조선충격으로 진동했다.

주체108(2019)년 10월 2일, 주체조선의 자위적군사력을 더 한층 강화하는데서 새로운 국면을 개척한 새형의 잠수함탄도탄 《북극성-3》형시험발사에 성공한 소식은 멀리 갈수록 더 커지는 파도처럼 대륙을 휘감으며 행성을 뒤흔들었다.

바다의 흰 물줄기를 폭포처럼 내리쏟으며 불쑥불쑥 솟구치는 조선의 미남자, 옥동자같은 《북극성》도 멋지기 그지없었지만 만리창공에서 굽어보는 둥근 행성은 가슴찌릿하게 온 나라를 세차게 격동시켰다.

어느 일터, 어느 가정에서나 《북극성》이야기로 꽃을 피웠다. 어느 누구를 만나보아도 나날이 강해지는 국가의 존엄과 국력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으로 가슴끓이였다.

《강대한 우리 조국이 천하를 진동시켰습니다. <북극성-3>형의 장쾌한 뢰성, 그것은 우리 조국을 누구도 감히 어쩌지 못한다는 장엄한 선언이였습니다.》

《깊고깊은 바다속에서 솟구쳐 다시 높고 아득한 대공을

가르며 우주만리에까지 단숨에 올라선 눈물겹도록 자랑스러운 우리의 <북극성>입니다. 무슨 말로 가슴에 끓어오르는 격정과 환희를 다 표현할수 있단 말입니까.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

원쑤들은 이 말의 참뜻을 내 조국의 하늘가에 울려퍼진 장쾌한 승전의 폭음을 통하여 똑똑히 새겨야 할것입니다.》

《<북극성-3>형시험발사소식을 들으며 지구를 함께 안고 돌며 지구의 맥박을 생생히 듣는듯 참으로 감개무량했습니다. 거대한 대양의 중압도 돌파하고 우주의 높이도 점령한 그 힘 장하고도 가슴뿌듯합니다. 우리 조선이 통채로 우주에 올랐습니다!

10월 2일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주체조선의 국력과 우리의 존엄이 어떤 높이에 올라섰는가를 보여준 민족적대경사의 날입니다.》

새형의 잠수함탄도탄 《북극성-3》형시험발사의 장엄한 불뢰성에 적대세력들은 혼비백산했다.

《북이 새로운 전략무기체계인 잠수함탄도탄의 시험발사장면을 공개하자 군은 대경실색했다.》

《미국과의 대결전에 대한 북의 단호한 의지가 무섭다. 결코 쉽게 볼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미국본토 앞바다에서 북이 시험발사한 탄도미싸일이 작렬하는 장면이 전 세계의 언론에 공개될 우려도 매우 높은 상황이다. 앞으로 **김정은**령도자

는 세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최첨단무장장비들을 계속 과시할것이다.》

한 나라에서의 새 무기시험은 흔히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그 성능과 위력은 물론 한마디 짤막한 보도마저도 세계에 강한 충격을 주는 사변으로 되고있다. 무엇때문인가.

해와 달을 이어 련이어 솟구쳐오르는 조선의 《북극성》탄도탄들.

참으로 거기에는 너무도 소중한것이 실려있다. 결코 장약한 핵이나 거대한 동력 그자체가 아니다.

그 하나하나에는 제국주의폭제를 기어이 끝장낼 경애하는 **김정은**장군의 철의 신념과 의지가 무겁게 실려있다.

온 세계를 또 한번 진감시킨 강국조선의 《북극성》충격, 깊은 바다속을 헤치며 우주만리에까지 단숨에 솟구쳐올라 지구를 굽어본 한장의 사진을 두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하신 말씀 오늘도 만사람의 심장을 세차게 울려준다.

이 《북극성》에서 지구를 내려찍은 사진을 보니 정말 멋있다고, 우리 국가의 존엄과 위상이 이 한장의 사진에 담겨져있다고, 오늘은 정말 잊지 못할 영광스럽고 행복스러운 날이라고.

우주에 솟구쳐올라 지구를 굽어보는 조선의 《북극성》!

세상에는 지구를 굽어보는 나라도 적지 않고 그것을 찍은

화면들 또한 헤아릴수 없다.

진정한 인류의 과학발전과 진보를 위해 지구를 보는것도 있지만 많은 경우 전쟁과 침략, 탐욕과 전횡의 보이지 않는 화살표와 시간표를 꿈꾸며 지구를 매일같이 샅샅이 훔쳐보는 세력들도 있다.

허나 조선은 참다운 존엄과 밝은 미래를 위하여 가장 강한 정의의 힘으로 아름다운 지구를 굽어본다.

이 행성이 폭제의 희생물이 되여서는 안되기에, 사랑하는 아이들의 고운 꿈이 짓밟혀서는 절대로 안되기에 조선의 《북극성》은 적대세력들의 악의 소굴을 준엄한 시선으로 굽어보고있다.

세계적으로 핵과 대륙간탄도미싸일, 전략잠수함탄도탄은 3대전략무기로 인정되고있다.

특히 전략잠수함탄도탄은 은밀히 움직이는 잠수함에서 발사되기때문에 사전탐지가 어렵고 상대방의 미싸일방어망을 교란시킬수 있어 군사적판도를 바꿀 절대의 병기로 불리우고있다.

적대세력들이 공화국의 전략잠수함탄도탄시험발사에 그처럼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있는것도 그것이 저들에게 직접적인 위협으로 되고있기때문이다.

지구표면의 70%이상을 차지하는 바다, 그 넓고도 깊은 보이지 않는 바다속 그 어디에나 조선의 《북극성》은 자기의 발사지점을 정할수 있어 그 사정반경은 상상하고도 남음

이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를 진행한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세계를 뒤흔든 주체조선의 《북극성》의 강력한 대진동들…

이 강력한 솟구침은 고금동서에 존재한 강국들의 힘에 대한 모든 전설과 신화를 초월하는 참으로 놀라운 사변이 아닐수 없다.

그것은 걸출한 위인이시며 절세의 영웅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만이 안아오실수 있는 불멸의 대공적이다.

우리 식의 전략잠수함에서 탄도탄을 발사할수 있게 된것은 인공지구위성을 쏘아올린것에 못지 않은 경이적인 성과라고 하시며 주체조선의 전략잠수함의 탄도탄이 적대세력들의 뒤잔등에 매달아놓은 시한탄으로, 가장 무서운 멸적의 비수가 되게 해주신 그 강의하고 영웅적인 령도의 자욱자욱을 어찌 다 헤아릴수 있으랴.

지금도 공화국의 국방공업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2015년 5월 경애하는 원수님의 직접적인 발기와 세심한 지도속에 개발완성된 위력한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를 처음으로 진행하던 뜻깊은 그날을 잊지 못하고있다. 그이를 모시고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에 참가하였던 한 일군은 말한다.

《풍랑을 헤치고 륙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시험발사장에 도착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시험발사를 시작할데 대한

명령을 하달하시자 바다면을 뚫고 솟구친 탄도탄이 거세찬 불줄기를 뿜으며 날아올랐습니다.

탄도탄이 공중에서 불덩어리가 된채 머리우로 지나가는 참으로 위험천만한 순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이께서는 끄떡없이 갑판우에 서시여 탄도탄의 비행자세와 각도 등 제원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심장이 졸아드는것만 같습니다.》

흐르는 공기조차 재워진 화약처럼 팽팽하고 사생결단의 의지력이 없으면 기꺼이 설수 없는 그 잊지 못할 화선결사전의 참전자였던 국방과학일군이 들려준 이야기를 통하여 아직 세상이 다 보지 못한 주체의 탄도탄개척이 어떤 준엄한 혈로였는가를 그 일각이나마 느낄수 있다.

군수공업부문의 한 일군의 심장의 토로는 또 얼마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는것인가.

《깊은 바다속에서 솟구쳐오르는 <북극성>들의 비행운을 바라볼 때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달려오신 강행군의 초침소리가 심장을 울립니다.

탄도탄이 날아오르는 그 짧은 한순간을 위해 10여차례나 위험천만한 시험발사장에 나오시여 의논해주시고 걸린 문제도 풀어주시며 희생적인 헌신과 눈물겨운 로고를 깡그리 바쳐오신 그이이시였습니다.》

그 어떤 세력이든 우리를 상대로는 불장난질을 해볼 엄두

도 못내게 만들어야 하며 만약 물리적힘이 격돌하는 상황이 온다고 해도 우리의 절대적인 주체병기들앞에서는 그가 누구이든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으면 안되는 강한 힘을 가지는 것이 우리 당의 국방건설의 중핵적인 구상이고 확고부동한 의지라고 하시며 국방력강화의 간고한 초행길을 그렇듯 줄기차게, 주저없이 걸어오신 경애하는 원수님.

그이의 정력적인 령도가 있어 공화국은 전략잠수함 탄도탄의 수중사출시험을 성공시킨데 이어 2016년 8월 보다 높은 단계의 탄도탄수중시험발사에 성공함으로써 자위적군사력강화에서 더 큰 진보를 이룩할수 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에서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북극성》무기체계를 사거리를 연장한 지상대지상탄도탄으로 개발할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또다시 제시하시고 여러 차례 시험발사를 지도해주시였다.

천지를 뒤흔드는 요란한 동음을 장쾌하게 터뜨리며 만리대공을 향해 발사되는 《북극성-2》형을 바라보시며 백점, 만점이라고, 흠잡을데 없이 완벽하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이제 우리 인민군대는 수중과 지상 임의의 공간에서 가장 정확하고 가장 신속하게 전략적임무를 수행할수 있게 되였다고, 《북극성-2》형탄도탄은 완전히 성공한 전략무기라고 긍지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주체110(2021)년 10월 공화국은 측면기동 및 활공도약기동

을 비롯한 훨씬 진화된 조종유도기술들이 도입된 새형의 잠수함발사탄도탄의 시험발사에서 또다시 성공하였다.

이에 기겁한 적대세력들은 조선이 신형잠수함발사탄도미싸일시험발사에 성공함으로써 기존의 《북극성-1》형과 《북극성-3》형에 이어 다섯번째로 되는 잠수함발사탄도미싸일을 개발하였다, 조선은 요격회피능력을 갖춘 각종 전술유도무기들을 개발한데 이어 신형장거리순항미싸일과 철도기동미싸일, 극초음속미싸일 등 신형무기체계들을 련이어 개발하여 《한》미당국을 놀라게 하고있다고 하면서 비명을 질렀다.

강위력한 우리 식의 주체무기, 핵공격수단들을 더 훌륭히, 더 많이 만들어내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손길아래 공화국은 완전무결한 핵방패를 구축하고 그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수 있는 강력하고 믿음직한 전략적 억제력을 굳혀나갈수 있게 되였다.

세계는 우주로 치달아오르는 《북극성》의 장엄한 폭음에서 횡포한 침략의 무리들에게 보내는 조선의 정의의 목소리, 조선인민의 엄숙한 성명을 듣고있다.

조선을 건드리는자는 천벌을 받는다!

이것은 태양의 노성이고 하늘이 내리는 철추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장군!

인민은 무한한 신뢰와 절대적인 매혹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그이를 숭엄히 우러른다.

과감히 치솟아올라 지구를 굽어보는 《북극성》의 힘과 같은 주체조선의 강용한 기상에서, 그 무한대한 령도의 위력에서 **김정은**장군이시야말로 새로운 주체100년대가 받들어올린 불세출의 령장이심을 온넋으로 절감하며 우리 원수님 만만세를 소리높이 부르고 또 부른다.

#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결사대 앞으로!

평양시교외의 어느한 곳에 가면 소박한 사적비가 세워진 장소가 있다. 그곳이 바로 지구천지를 뒤흔들어놓은 주체조선의 《11월대사변》뢰성이 터져오른 력사적인 장소이다.

사변은 순간에 오지 않는다고 하였다. 강국의 출현에는 그것에 바쳐진 진통과 노력이 있고 위대한 성공과 승리에는 반드시 그를 떠올린 값비싼 피의 대가와 희생이 동반된다.

력사에 다시없을 이 기적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결사적인 애국헌신이 안아온 고귀한 산아이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결사대 앞으로!

만고절세의 애국자 **김정은**장군께서 화선의 진두에 서시여 강국조선의 신호총성을 울리시듯 마음속으로 결연히 내리신 발사명령의 한자한자에 얼마나 진한 피와 땀과 눈물이 스며있는것인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헤쳐오신 화선길, 외워볼수록 이름할수 없는 세찬 격정이 가슴속에 차넘친다.

지나온 10년려정에 어찌하여 이런 간고한 싸움의 길, 결사의 길, 희생의 길을 기필코 가야만 했던가.

존엄, 바로 그때문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 있어서 조국과 인민의 존엄, 그것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제일 귀중한것이다. 어떤 대가를 치르어서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목숨이고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가꾸고 빛내여야 할 삶의 전부이다.

세상에서 제일 강한것이 존엄을 지키는 힘이다.

존엄을 놓고 결단을 내려야 할 때에는 말이 사라지고 총대가 나선다. 힘이 없는 존엄은 애달픈 하소연이나 넋두리에 지나지 않는다. 크지 않은 이 조선이 제국주의가 살판치는 세계속에서 존엄을 지켜내자면 전쟁도 각오해야 하였고 사지판에 목숨도 내대야 하였다.

보통의 정치가는 자기의 당리당략을 추구하지만 인민의 령도자의 최고의 정치리념은 바로 인민의 자주적존엄을 실현하는데 있다. 인민을 다스리는 정치와 인민을 받드는 정치가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존엄을 지켜주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고 그것을 위하여 기울이는 헌신보다 눈물겨운것은 없다.

흘러온 세월에 인민이 우러러뵈온 절세위인들의 거룩한 영상은 천만아들딸들을 정히 등에 업고 옷자락에 감싸안아 눈비를 다 막아주시며 자신의 천만로고와 피땀으로 그 어떤 원쑤도 감히 건드릴수 없게 억척같이 보위해주신 강의하고 고마운 어버이의 모습이였다.

나는 한평생 민족의 존엄을 위하여 싸워왔다. 나의 일생은 민족의 존엄과 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투쟁력사였다고 말할수 있다. 우리 민족을 해치거나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건드리는 놈들을 나는 한번도 용서하지 않았다. 우리 인민을 깔보고 우롱하는자들과도 타협하지 않았다. …

조국과 민족을 위한 위대한 한생을 총화하시면서 이렇게 절절하게 회고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

위대한 수령님은 력사의 불모지에 인류의 첫 자주강국을 세우신 존엄의 개척자이시라면 위대한 장군님은 그 자주의 강국을 강력한 보검으로 다져주신 존엄의 수호자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 처음으로 세워주신 자주의 이 조선, 위대한 장군님 불패의 힘으로 다져주신 이 조선을 천하제일의 사회주의강국으로 만방에 떨쳐가시는 바로 여기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존엄의 세계가 있다.

주체105(2016)년 1월 첫 수소탄의 장쾌한 폭음으로 온 세계가 주체의 핵강국, 사회주의조선, 위대한 조선로동당을 우러러보게 하라는 엄숙한 선언으로 천하를 뒤흔드신 **김정은**원수님!

제국주의폭제의 불구름을 갈가리 찢어발기며 각이한 사정권을 가진 《화성포》계렬의 탄도탄들과 《북극성》계렬의 수중 및 지상발사탄도탄들을 련이어 개발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 **김정은**원수님!

우리는 죽으나사나 성공시켜야 한다, 백번 실패하면 백번 다시 일어나 무조건 성공시켜야 한다고 하시며 그이께서 얼마나 뜨겁게 호소하시였던가.

우리의 탄도탄에는 우리 당의 권위, 우리 인민의 존엄이 실려있습니다.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

자신께 귀중한것이 많지만 만약 존엄을 위해서라면 그 모든것을 다 바쳐서라도 존엄을 지킬것이라는 절세위인의 숭고한 그 뜻.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은 천만금과도 바꿀수 없다, 생명보다 귀중한것이 민족자존이다, 조국의 존엄을 짓밟는것을 절대로 용서치 않을것이다, 설사 묻힐 땅이 없으면 서서 죽더라도, 말라죽더라도 지켜야 하는것이 존엄이라는 철의 의지를 안으시고 부국강병의 세기적대업실현에 결연히 나서신 경애하는 원수님.

이 운명적인 결단이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병진로선을 불러왔고 온 세계를 진감시킨 절대병기의 위력을 과감히 떨치였으며 남들이 엄두조차 낼수 없는 강국의 계단들을 초고속으로 날아오르는 《3.18혁명》, 《7.4혁명》, 7.28의 기적적승리, 《11월대사변》을 안아왔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결사대 앞으로!

이는 그 길에 설사 지뢰밭이 놓여있다 하더라도 주저없이 끝까지 가리라는 결사의 각오로 강행군길을 재촉하시며 경애하는 그이께서 매일, 매 순간 자신께 스스로 내리신

명령이였고 진군의 나팔소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신형전술유도무기위력시위사격을 조직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신형대구경조종방사포시험사격을 또다시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 무기시험사격을 지도하시였다.》

…

국방력강화의 자랑찬 승리의 폭음을 련이어 울려나가도록 정력적으로 이끄시느라 경애하는 원수님 얼마나 피로가 겹쌓이셨으랴.

지면과 화면들에서 그이의 혁명활동소식들을 전해들으며 환하게 웃으시는 그이의 모습을 인민은 많이 뵈웠다.

허나 다는 알지 못한다. 고생과 시련은 마음속에 묻어두시고 인민앞에서는 희열의 미소만을 보내시는 그이의 심중에 얼마나 뜨거운 눈물이 고여있는것인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결사대 앞으로!

그 길은 왜 그렇게도 피어린 대가를 요구했고 그이께서 한해에 100년맞잡이의 고생을 겪으셔야만 승리가 왔던가.

최후결사전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험난한 로정에서 그이께서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한몸의 위험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순간도 멈춤없이 달리시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 새벽어둠을 헤치시며 넘고넘으신 험한 산발, 비발치는 길 아닌 길을 걸으시느라 옷자락마저 화락하니 흙물에 젖었던 언덕, 깊은 밤 파도속을 뚫고가시던 사생결단의 항로, 아슬아슬한 발사현장들에서 몸소 결사전을 진두지휘하신 화염자욱한 제1선참호들…

《안됩니다. 안전한 곳으로 가시기 전에는 절대로 시험을 시작할수 없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위험합니다. 절대로 안됩니다. 조국과 인민이, 후손만대가 우리를 용서 안합니다.》…

위험한 마지막계선으로 더 나가시면 절대로 안된다고 막아나서는 전사들에게 자신께서는 희생을 각오하고 왔다고, 이 피어린 길을 자신께서 가야지 후대들이 또 걷게 할수야 없지 않는가고 절절한 심정을 피력하신 불굴의 화선령장.

어느 순간에 실수가 없다고 장담할수 없는 위험천만한 시험장에서 조립과 기동과정은 물론 발사현장에까지 한몸을 내대시고 과학자들과 함께 계신 그 화폭을 인민도 보고 온 세계가 보았다.

초긴장상태의 감시소에서 그 가슴조이는 30분동안 미싸일의 상승비행고도를 몸소 세여주시고 탄착점에 떨어지는것까지 확인해주시며 시험발사의 성공을 무한한 감격속에 결론하시던 그이의 숭엄한 영상을.

그이의 사생결단의 화선천리길을 마음속으로 따라걸으며 인

민이 심장으로 웨치는 가슴뜨거운 목소리들이 여기에 있다.

《눈물없이는 볼수 없는 광경이였습니다. 부두도 잔교도 없는 바다기슭이였습니다. 파도세찬 망망대해에서는 하나의 점과도 같은 너무도 자그마한 배였습니다.

그 작은 배에서 내리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파도치는 바다물속에 서슴없이 들어서실 때 뜨거운 격정으로 눈시울을 적시였습니다.

내 나라, 내 조국의 존엄을 만방에 떨치신 화선의 새벽길들에서 닳고닳았을 그이의 신발도, 삼복의 폭열속에서 그처럼 많이 흘리신 땀과 함께 바다물에 축축히 젖은 옷도 미처 말릴새없이 초대형방사포의 화력진지에로 나아가신 그이의 발자취를 따라서며 가슴은 세차게 높뛰였습니다.

영원히 잊을수 없습니다.

서슬푸른 번개가 구름을 찢고 지동치는 우뢰, 대줄기같은 폭우로 하여 한치앞도 가려보기 힘든 속에서 사나운 비바람을 뚫고 날으신 그이의 하늘길, 길길이 덮쳐드는 산악같은 파도속에서 몸소 단정의 조타

---

칭송의 목소리

**강 의 한　나 라**

조선의 대륙간탄도미싸일은 철저히 조선인민이 자체의 힘으로 만든것이다. 조선은 결심하면 무조건 해내고야마는 강의한 나라이다. 이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은 세계를 앞서나가고있다. 미국과 서방의 고립압살책동속에서도 핵무기를 보유한것은 조선의 힘과 의지를 그 누구도 당할수 없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마쟈르로동당의 성명중에서)

---

를 잡으시고 돌풍이 사납다고 배에서 뛰여내리면 자멸이다, 만리길을 왔다고 해도 도중에 멈춰서면 한발자국을 내짚은 것만도 못하다는 결사의 의지로 심장의 피를 끓이신 한밤중의 바다길을.

하지만 사랑하는 조국과 인민을 위해 파도치는 바다물속에도 애국헌신의 자욱을 깊이 남기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습니다.

물속에서는 발자국이 남지 않는다지만 그 푸른 물결아래에 찍혀진 위대한 령장의 발자취는 인민의 마음속에 력력히 새겨져 길이 전해질것입니다.》

《인민의 운명을 걸었던 결사의 화선에서 성공의 그 순간 우리 원수님의 환하신 웃음속에 가리워져있는 만단의 로고를 미여지는 아픔을 안고 보았습니다.

행복에 묻혀 핵전쟁의 불구름이 삽시에 사라지고 조국의 지위와 힘이 우주와 대륙에 뻗치는 련이은 사변들을 너무도 모르고 맞이하군 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웃음도 그렇게 피여났습니다. 》

《그 어떤 원쑤도 범접 못하는 나라에서 행복을 누려가는 사람들에게 말하고싶습니다.

인민들에게, 후대들에게 천년만년 끄떡없을 안전담보력을 마련해주시기 위해 천길절벽이 가로막아 더이상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우리에게는 무조건 성공시키는 길밖에 다른

길이란 없다고, 우리가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걸고 화선길에 나설 때 이만한 실패와 곡절도 각오하지 못했단 말인가라고 강심을 가다듬으시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결사대 앞으로! 라는 심장의 구령소리를 높이 울리신 우리 원수님의 희생적인 헌신의 순간들이 강국조선을 떠받들어올리였음을 부디 잊지 말라고 말입니다.》

…

정녕 그렇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결사대 앞으로!

이 성스러운 부름과 더불어 인민의 존엄, 공화국의 힘이 절정에로 도약했다. 그 존엄과 힘이 위대한 강국의 새시대를 펼치였다.

사나운 풍랑을 맞받아 돌진하는 전투함과 같이, 세기를 주름잡는 백두산군마와 같이 만고의 령장께서 조국과 인민을 이끌어 줄기차게 이어오신 그 무수한 강행군길, 피어린 자욱자욱들을 모두 합치면 절세의 **김정은**위인실록이 될것이다.

#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은 말한다

온 나라가 승리자의 크나큰 격정과 환희에 넘쳐 조선로동당창건 76돐을 뜻깊게 경축하고있던 주체110(2021)년 10월 11일 평양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이 성대히 개막되였다.

전람회장에는 지난 5년간 개발생산된 각종 최첨단무기, 전투기술기재를 위주로 하여 주체조선의 무진막강한 국방력발전수준을 남김없이 과시하는 전시품들이 집결되여있었다.

전람회에서는 종합군악대의 특색있는 례식과 인민군전투원들의 격술시범출연, 전투비행사들의 기교비행에 이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뜻깊은 기념연설을 하시였다.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은 불패의 자위로선을 변함없이 견지하여 국가방위력강화의 새 전기를 열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웅대한 포부와 령도력, 실천적집행력을 집약적으로, 직관적으로 더 잘 알수 있게 하고 공화국의 국방과학, 군수공업의 경이적인 발전상과 그 눈부신 전망을 과시하는 일대 축전으로, 대규모열병식에 못지 않게 큰 의의를 가지는 사변적인 계기로 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이 전례없이 특색있게 진행된 소식은 일파만파로 행성에 퍼져갔다.

국내외에서 폭풍같은 반향이 일어났다. 인민이 터치는 심장의 웨침, 세인의 격찬은 천지를 진감하였다.

## 《우리는 위대한 강국의 공민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개막된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은 온 나라를 크나큰 환희로 설레이게 하였다.

쓸어보고 만져보고 바라보고 또 바라볼수록 한없는 긍지와 자부가 커지는 우리의것, 인민의 행복과 안녕을 믿음직하게 수호하는 주체병기들의 장엄한 모습은 인민의 심장마다에 위대한 강국의 공민된 긍지와 자부심을 더해주었다.

평양시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은 강력한 군사력보유노력은 평화적인 환경에서든 대결적인 상황에서든 주권국가가 한시도 놓치지 말아야 하는 당위적인 의무적권리이고 중핵적인 국책으로 되여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기념연설의 구절구절을 새겨볼수록 우리 국가가 지닌 강대한 힘이 얼마나 귀중한것인가를 가슴뿌듯이 느끼게 된다고 하면서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터놓았다.

《경사로운 조선로동당창건기념일을 맞으며 열린 국방발전전

람회장을 돌아보면서 온 세상에 대고 나는 강국의 공민이라고 목청껏 웨치고싶은 심정을 누를길 없었습니다.

지난날 국력이 약해 망국노의 운명을 강요당해야 했던 우리 인민이 아니였습니까. 그 인민이 오늘날 그 누구도 넘볼수 없는 최강의 국가방위력을 지니였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막 부풀어오릅니다.

얼마나 강대한 우리 국가입니까. 얼마나 위력한 우리의 주체병기들입니까. 보면 볼수록 그 무엇도 두려운것 없고 배심이 든든해집니다.》

이것이 어찌 그 한사람만의 심정이겠는가. 수도의 거리들에서도, 북변의 두메산골에서도 이 나라 공민이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서나 들을수 있었다.

후대들의 머리우에 영원히 푸른 하늘을 펼칠 믿음직한 주체병기들의 모습을 정녕 무심히 바라볼수 없다고 하면서 평양제1중학교 교장은 새세대들의 맑은 눈동자를 바라보는 이 나라 공민들의 뜨거운 심정을 담아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강해야 한다고, 우선 강해지고봐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연설에 접하였을 때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것을 어쩔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후대들에게 물려줄수 있는 가장 큰 재부는 바로 존엄이 아니겠습니까.

강국의 공민이라는 그 무엇에도 비할수 없이 크나큰 궁지

와 자부심이 후대들에게 대대손손 이어지게 될것이라고 생각하니 끝없이 휘황찬란할 조국의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문천탄광 지배인의 심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위대한 당을 따라 불패의 자위의 로선을 변함없이 견지함으로써 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적대세력들은 기필코 두려워하고 우리 인민에게는 승리에 대한 신심과 희망찬 앞날을 락관하게 하는 무진막강한 군력을 다져놓았습니다.

우리의 머리우에 영원히 맑고 푸른 하늘을 펼쳐놓은 이 강위력한 힘이면 세상에 무서울것도 없고 못해낼 일도 없다는 신심이 백배, 천배해집니다.》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이 성대히 진행된 소식에 접한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의장은 흥분된 심정을 이렇게 터놓았다.

《조선로동당창건기념일을 맞으며 성대히 개막된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은 우리 조국의 강대성과 현대성, 선진성이 응축된 빛나는 절정으로 세계 방방곡곡에서 폭풍같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세계최강의 병기 과시>, <놀라운 무기개발속도>, <불굴의 추진력>, <조선인민을 축하한다.>, <조선인민이 부럽다.> …

세계를 뒤흔드는 끝없는 격찬의 목소리들은 우리 해외동포들로 하여금 조국의 위상을 페부로 절감하게 하였으며 강국

의 위대한 새시대를 창조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열렬한 흠모와 매혹의 감정을 활화산처럼 지펴올렸습니다.

대국이라 자처하던 나라들까지도 눈을 비비고 살펴보는 희한한 새 첨단무기들이 병풍처럼 짝 들어찬 국방발전전람회장이야말로 누구도 함부로 넘볼수 없는 우리 조국의 절대적힘의 뚜렷한 과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힘이 없으면 진실도 허위로 매도되고 정의도 부정의로 심판당하는 오늘의 어지러운 세계에서 민족의 운명개척과 발전, 민족의 존엄과 승리는 오로지 절대적인 힘에 의해서 담보된다는것이 력사의 철리입니다.

**김정은**시대는 영원히 전쟁이 없는 땅에서 살고싶어하던 우리 민족의 천추의 한을, 오매불망 바라마지 않던 세기적숙망을 풀어주었습니다.

우리 조국의 강대성과 불패성의 신화는 반만년민족사를 뚜렷이 구획짓는 새시대를 열어놓았습니다.

<진짜강대국은 조선>, <한다고 결심만 하면 무조건 해내고야마는 **김정은**령도자>…

동방에서 서방의 한끝까지 지구의 방방곡곡 그 어디서나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격찬의 목소리에서 우리 해외동포들은 한없는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가슴깊이 새겨안고있습니다.》

## 《감사의 큰절을 올리고싶다》

《정말 멋있다!》, 《훌륭하다는 말로밖에 달리 표현할수 없다.》, 《5년기간에, 이것이야말로 정말 기적중의 기적이다.》…

천만인민의 심장에서 울려나오는 목소리는 서로 달라도 거기에 담겨진 뜨거운 진정은 오직 하나, 영원한 존엄과 행복의 담보를 마련해주신 절세의 애국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끓어오르는 감사의 정이였다.

《우리 조국이 도달한 국방과학, 군수공업의 경이적인 발전상과 전망을 보여주는 첨단무장장비들을 돌아보면서 사랑하는 인민을 위하여 누구나 선뜻 들어설수 없는 국방공업혁명의 길, 사생결단의 생눈길을 굴함없이 헤쳐오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헌신이 어려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이의 천만고생이 모이고모여 주체조선의 선진성과 현대성, 영용성이 응축된 장엄한 전람회가 마련될수 있었고 우리 인민 누구나 가슴뿌듯이 새겨안는 강국의 공민이라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도 떨쳐진다는 생각으로 가슴은 마냥 부풀어올랐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여 우리 조국이 강대하고 우리 인민의 존엄과 영광은 하늘에 닿았습니다.》(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국방발전전람회에서 하신 기념연설에서 저 무장장비들마다에는 우리 국방과학자들과 군수로동계급이 우리 당을 따라서 국방건설의 길에서 천신만고를 헤쳐온 잊지 못할 하많은 사연들이 깃들어있으며 자기의 열정과 지혜를 깡그리 바쳐 희생적으로 투쟁한 그들의 진한 피와 땀방울이 슴배여있다고 말씀하실 때 조국과 인민의 존엄과 안녕을 위해 자신께서 바쳐오신 로고는 묻어두신채 모든 영광을 국방과학자들에게 돌려주시는 그이의 뜨거운 사랑에 격정의 눈물을 흘리였습니다. 우리의 **김정은**동지 같으신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국가과학원 실장)

《생각할수록 가슴이 뜨겁습니다. 인민에 대한 열화와 같은 사랑을 안으시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결연히 헤쳐오신 국방공업혁명의 생눈길, 위험천만한 화선길이 있어 펼쳐진 오늘의 눈부신 현실이 아닙니까.

만고의 영웅, 불세출의 위인의 그 눈물겨운 헌신과 불멸의 업적이 있어 우리는 휘황찬란한 미래, 천하제일강국의 높은 령마루를 향해 질풍노도쳐 가고있는것입니다.

민족의 은인을 우러러 온 나라 인민은 심장속에서 용암처럼 끓어번지는 고백을 터치고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김책공업종합대학 학부장)

## 완전히 새롭고 독특한 형식의 전람회

남조선의 한 언론은 공화국에서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 개막식이 강국의 면모를 과시하며 완전히 새롭고 독특한 형식으로 진행되였다고 하면서 이렇게 평하였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조선로동당창건 76돐 기념일이 무난히 넘어간데 대해 안도의 숨을 내쉬고있다가 하루도 못되여 뒤통수를 단단히 얻어맞았다.

10월 10일 저녁까지만 해도 미국은 조선반도상공에 정찰기들을 수시로 들이밀고 동향을 살피면서 바짝 긴장되여있었지만 별다른 군사적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자 안도감을 내비쳤었다.

그러다가 북에서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이 성대히 개막된 소식이 알려지자 깜짝 놀랐다. 북이 당창건기념일을 맞으며 무기전시회를 열고 이를 공개할줄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것이다. 이번 당창건 76주년은 정주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북이 국방발전전람회를 개최하여 새롭고 특이한 군사적위력시위를 단행하는통에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3대혁명전시관의 야외에서 진행된 국방발전전람회의 개막행사는 **김정은**국무위원장께서 환하게 웃으시며 지켜보는 가운데 종합군악대의 특색있는 례식으로부터 시작하여 군인들이

각목과 기와장을 격파하는 격술시범출연, 공군전투기들이 다양한 색갈의 구름띠를 만들면서 펼치는 기교비행과 초저공비행, 락하산병의 강하기교 등 경쾌감과 장엄함이 한데 어울리는것이 매우 이채로왔다.

특히 **김정은**국무위원장께서 중앙무대우에 전시된 신형땅크를 주요배경으로 연설을 하시고 각종 첨단전략무기들을 병풍처럼 둘러친 전람회장에서 높은 비행기교를 보여준 공군비행사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국방력강화에 공적을 세운 군인들을 표창하면서 개막행사의 무게감을 한껏 증폭시켰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형식의 <심야열병식>개최로 세상을 놀라게 한 **김정은**국무위원장께서 이번에는 첨단무기전시회라는 새로운 형태의 <열병식>으로 국력을 과시하였다.

이것은 **김정은**국무위원장의 창조적인 정치방식을 보여준다. 그야말로 <사변적인 정치행사>, <독특한 전람회>, <전략적인 전람회>였다.》

## 첨단전략 및 전술무기들의 막강한 위력

공화국이 사상 첫 국방발전전람회를 통하여 그동안 축적해온 국가방위력을 내외에 장시간 과시하였다고 하면서 남조선언론은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북이 최근 5년간 개발한 주요첨단무기들이 전시된 국방

발전전람회장은 그 형식과 규모에 있어서 선진국가들이 개최하는 무기전시회들과 결코 짝지지 않을 정도로 장엄하였다.

북은 이번 전람회에 <화성포>계렬의 각종 탄도미싸일들과 <북극성>계렬의 잠수함발사탄도미싸일들, 극초음속미싸일, 신형 76㎜함포, 스텔스기술로 설계한 호위함, 신형전술유도탄, 철도기동미싸일, 신형반항공미싸일을 비롯하여 지난 5년간 개발한 신형무장장비들을 모두 공개하였다.

첨단무기들을 쫙 깔아놓은 전람회장의 정면중앙무대를 기준으로 한쪽에는 남조선을 타격할수 있는 무기체계가, 다른쪽에는 일본과 괌도, 알라스카, 미국본토를 타격할수 있는 첨단무기들을 전시하고 전람회장벽면에는 <주체의 핵강국>, <미싸일맹주국>이라는 대형문구를 게시하여 미국과 남조선, 국제사회에 핵강국으로서의 위용을 과시하였다.

북이 새로운 첨단무장장비들을 공개할 때마다 미국과 남조선에서 <모조품>, <미완성무기>라고 깎아내렸지만 이번 전람회를 통하여 현실적으로 닥쳐온 엄청난 안보위기를 어떻게 모면할지 몰라 몹시 곤혹스러워하고있다.

미국은 전시된 대륙간탄도미싸일의 사거리가 13 000㎞이상으로 보인다, 태평양과 미국본토를 횡단하게 된다, 북의 본토공격위협은 부인할수 없는 현실이라며 공포에 떨고있다.

당국이 천문학적인 자금을 들여 들여온 스텔스전투기 <F-35A>,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를 비롯한 <세계

적인 첨단무기>, <북핵을 억제할수 있는 전략무기>라는것들도 부속품과 실탄이 없는 고철덩어리, 페품에 불과하다는것이 드러나 북에 비한 전략적렬세는 자명한 현실이라는 개탄이 터져나오고있다.》

## 일당백군인들의 영용한 기상

세계의 주요언론들은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 개막식에서 진행한 인민군군인들의 격술시범출연들을 《충격적인 장면》이라고 하면서 앞을 다투어 보도하였다.

《워싱톤 포스트》를 비롯한 미국의 언론들은 웃옷을 벗은 인민군군인의 배에 화강석판을 올려놓고 그것을 다른 군인이 함마로 깨는 장면, 여러명의 군인들이 각목으로 다른 군인의 가슴을 내리쳐 부러뜨리거나 머리로 벽돌을 박살내는 장면, 한 군인이 자기의 몸을 묶은 쇠사슬을 끊고 유리쪼각이 널려있는 우에 누워 화강석판을 격파하는 장면 등을 빠짐없이 전하면서 《초인간을 방불케 하는 특공무술시범》, 《극적인 시범동작》, 《북병사들의 맨손무력시위》, 《일당백용사란 저런 모습》 등으로 대대적으로 소개하였다.

BBC방송, 《텔레그라프》를 비롯한 영국의 언론들도 인민군군인이 웃옷을 벗고 못이 촘촘히 박힌 지지대우에 누운채로 배우에 화강석판을 올려놓고 함마로 이를 격파하였다, 구호

를 웨치면서 망치로 주먹아래에 있는 여러장의 기와장을 까부셨다, 두명의 군인은 목으로 철근을 힘껏 구부렸다고 하면서 《바지만 입은 영웅의 사나운 표정》, 《천하무적의 군인들의 모습》이라고 전하였는가 하면 인민군군인들의 격술시범출연이 볼거리가 매우 많지만 《이런 무서움을 동반하는 묘기는 집에서 따라하지 말라.》는 권고까지 하였다.

까타르의 위성TV방송을 비롯한 외신들도 조선의 《도술같은 무술》, 《강렬한 볼거리》, 《기상천외한 무술》이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 4. 말하라, 위민헌신의 불멸의 자욱이여!

❖ 위대한 인민은 운명의 하늘

❖ 필생의 뜻―인민의 심부름군!

❖ 어려울 때 제일먼저 떠오른 어머니의 모습

❖ 《여기가 어디라고 오신단 말입니까!》

❖ 성스러운 멸사복무의 려정

❖ 창조와 건설의 대번영기

자애로운 어버이 **김정은**원수님!

동트는 새벽길도 먼저 걷고 숫눈길도 앞서 헤치시며 눈비바람 다 막아 인민들에게 사랑을 주시고 심장을 통채로 주시는분이여서, 인민을 위하여 사시장철 천신만고를 다 기울이시면서도 늘 부족함과 송구한 마음으로 심신을 가다듬으시는분이여서 누구나 그이를 우러를 때면 눈물부터 앞선다.

그이의 발자취는 이 강산 어디에나 닿지 않은 곳이 없다.

철부지어린이들로부터 로인들에 이르기까지, 수도로부터 조국의 마지막기슭과 멀리 외진 섬에 이르기까지 그이의 정과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으며 그이의 은덕이 흘러들지 않은 가정은 하나도 없다.

10년세월 경애하는 그이와 인민의 뉴대는 뜨거운 피줄기로 쉬임없이 뻗어가고 이어져 합쳐지면 살고 떨어지면 살수 없는 하나의 생명체를 낳았거니.

말하라, 그이 찍어가신 무수한 위민헌신의 불멸의 자욱이여!

혹한의 추위속에서도 따스한 봄의 기운을 느끼게 하고 몰아치는 폭풍속에서도 창창한 미래를 가슴후련히 열어주시는 위대한 어버이의 멸사복무의 자욱자욱을.

력사여, 길이 전해가라!

마음속에 오직 인민, 인민만을 안으시고 사랑하는 인민을 위해 자신의 한몸을 깡그리 불태워가시는 인민의 태양의 무한한 사랑의 세계를.

# 위대한 인민은 운명의 하늘

뜨겁고도 절절한 웨침이 만사람의 심금을 울려주고있다.

위대한 인민!

자자구구 새길수록 심장은 격정의 파도로 세차게 설레인다.

세상천지에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인민이 있다 하지만 이렇듯 값높은 부름속에 존엄과 영예를 떨쳐가는 그런 인민은 없다.

인민, 그지없이 소박하고 평범한 인민을 위대한 인민으로 그렇듯 높이 떠받드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는 숭고한 인민관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지금도 현지지도의 길에서 인민들의 순박하고 기대어린 눈빛을 마주할 때면 이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아낌없이 바칠 각오와 결심이 더욱 굳어지군 합니다.

보통의 국가지도자는 이런 심정을 느낄수 없으며 이런 진정을 토로할수 없다.

참으로 류다르시다. 그이께 있어서 인민은 과연 무엇이기에

이렇듯 불같은 심정을 터놓으시는것인가.

그이께 있어서 인민은 순간도 떨어져서는 살수 없는 심장, 한목숨 깡그리 다 바쳐서라도 빛내여야 할 운명의 하늘이고 삶의 전부이시다.

인민은 행복속에서 그이를 알지 않았다.

지금도 어제런듯 어려온다. 뼈아픈 상실의 아픔속에 이 나라 천만상제들이 몸부림치던 주체100(2011)년 12월의 그 나날 과연 무엇이 영영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것같던 인민을 따뜻이 안아 일으켰던가.

추운 겨울밤 추위속에서 인민들이 떨고있다는것을 아시면 우리 장군님께서 가슴아파하신다는것을 명심하고 인민들의 편의를 최우선, 절대적으로 보장할데 대하여, 어머니된 마음으로, 어머니의 손길로 인민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줄데 대하여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간곡한 당부.

얼어붙은 12월의 대지를 불덩이처럼 달아오르게 한 사랑이였다. 조의식장들에 줄지어 늘어선 더운물매대, 몸녹이는 가설물들, 의료천막들, 로선별철야운수수단들…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으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에게 오시였다.

력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한없이 숭고한 인민관을 받아안던 격정의 그 순간을 잊지 못해하는 당중앙위원회 한 일군의 절절한 목소리가 여기에 있다.

《지금도 피눈물의 그 언덕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일군들에게 절절히 하신 당부를 생각하면 눈굽이 젖어듭니다.

2012년 1월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을 위하여 한생을 바쳐오신 장군님을 생각하면 우리 인민들이 장군님의 영상으로 안겨온다고, 모든것을 다하여 장군님을 모시듯이 우리 인민들을 받들어야 한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습니다.

장군님을 모시듯이 인민들을 받들어야 한다!

고금동서에 인민을 위하고 인민을 사랑한다는 말은 전해졌어도 인민을 받든다는 말을 그 언제 들어본적이 있었습니까.

그날에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말씀은 인민의 지위, 인민을 대하는 관점과 립장을 최상의 경지에로 승화시킨 인민관의 최고정화였습니다.》

인민을 위대한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받들어야 한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세계에서 당과 국가의 지도사상인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혁명적본질이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정식화되고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가 당과 국가활동의 근본원칙, 근본방식으로 확고히 전환되게 되였다.

그런분이시기에 평범한 인민의 부름앞에 《위대한》이라는

가장 값높은 부름을 붙이시며 위대한 조선인민 만세를 심장으로 터치지 않으시였던가.

위대한 조선인민 만세!

인민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절대적인 믿음이 응축되여있는 이 부름이 힘있게 울려퍼진 력사의 순간들을 더듬어보자.

주체104(2015)년 10월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이 장장 70년세월 그 어떤 광풍에도 끄떡없이 승리와 영광만을 아로새기며 혁명을 전진시켜올수 있은것은 우리 당을 운명의 전부로 믿고 따르며 당의 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위대한 인민이 있었기때문이라고, 우리 당의 력사는 곧 인민이 걸어온 길이고 우리 당의 힘은 곧 인민의 힘이며 우리 당의 위대함은 곧 인민의 위대함이고 우리 당이 이룩한 승리는 위대한 우리 인민의 승리라고.

걸어온 천만리를 승리적으로 총화하고 가야 할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며 그이께서는 뜻깊은 연설의 마감에 가슴속에 차오르는 인민에 대한 다함없는 신뢰와 칭송의 마음을 담아 불같이 호소하시였다.

《우리모두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해 나아갑시다!

불패의 당,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위대한 조선인민 만세!》

세계는 경탄하였다.

력사적인 당창건 70돐을 경축하는 연설이여서 의례히 조선로동당 만세가 높이 울려퍼질것이라고 누구나 생각했었다.

하건만 그이께서는 위대한 조선인민 만세를 소리높이 부르시였다.

위대한 조선인민 만세, 진정 그것은 령도자가 인민에게 드리는 감사의 서사시였다.

인민의 정의로움, 무궁무진한 힘에 대한 가장 값높은 례찬이였다. 인민을 운명의 하늘로 떠받들고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시려는 위대한 어버이의 불같은 심장의 분출이였다.

하기에 세계의 수많은 출판, 통신, 방송들은 《인민으로부터 시작하여 인민으로 끝난 인민을 위한 연설이였다.》고 대서특필하면서 유사이래 인민이 처음으로 받아본 정의 고백이고 처음으로 들어본 인민사랑의 연설이였다고 격찬을 아끼지 않았다.

남조선 각계에서도 《<인민에 대한 감사>로 시작하여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로 마무리된 연설》이라고 하면서 감동을 금치 못하였다.

그때로부터 다섯해가 흘러 조선로동당이 창건 75돐을 맞이한 높은 연단에서도 숭엄한 그 화폭이 다시금 펼쳐졌다.

사랑하는 인민을 위해 그처럼 천신만고를 다 겪으시면서

도 오히려 인민들에게 고맙습니다라는 만장을 울리는 뜨거운 인사를 보내시며 당과 조국청사에 길이 남을 력사적연설을 다름아닌, 그 무엇도 아닌 《위대한 우리 인민 만세!》로 결속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위대한 수령님을 받들어 한세기에 두 제국주의강적을 물리치고 재더미우에서 천리마의 기적을 창조한 영웅적인민, 위대한 장군님을 따라 그처럼 험난하였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시련의 고비들을 뚫고헤치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토대를 마련했고 오늘은 온갖 시련과 역풍을 맞받아 조국을 승리와 존엄의 상상봉에 우뚝 올려세운 고맙고도 미더운 인민.

하기에 그이께서는 우리 인민을 세상에 없는 위대한 인민이라고 하시며 조선말어휘표현이 다양하지만 우리 인민을

**일화**

### 43℃의 고온속에서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온실안에서 온몸을 땀으로 흠뻑 적시시며 남새생산에 대한 가르치심을 주실 때 일군이 온도가 43℃이므로 어서 밖으로 나가주실것을 말씀드리였다.

하지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없다고, 수도시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남새를 먹일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한 곳에도 다 가보겠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인민을 위한 일이라면 이보다 더한 곳에도 가보겠다!

이는 한평생을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시려는 위대한 어버이의 진정이였다. 인민을 위한 길이라면 불바다 사선천리도 웃으며 헤쳐가실 절세위인의 위대한 심장의 토로였다.

위대하다고밖에 달리 표현하지 못하는것이 안타깝다고 얼마나 절절히 말씀하시였던가.

아마도 위대하다는 말보다 더 훌륭한 문구가 있다면 그이께서는 주저없이 그 모든 영광을 인민에게 안겨주셨으리라.

예로부터 인민은 나라의 근본이라고 하였다. 허나 오랜 세월 인민이라는 부름은 착취와 압박, 천대와 멸시, 온갖 무권리의 대명사로 되여왔다.

오늘도 수많은 정객들과 국가수반들이 이른바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국가》를 세운다고 표방하고있지만 그 모든것은 한갖 인민을 기만하기 위한 빈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근로하는 평범한 인민의 지위를 위대한 인민으로 하늘높이 떠올린 위인은 그 어느 시대, 그 어느 갈피에도 없었다.

경애하는 원수님 오직 한분뿐이시다.

위대한 인민, 실로 이 부름은 인민을 더없이 신성시하고 운명의 하늘로 떠받드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신 공화국의 인민만이 받아안은 최상최대의 행운이다.

인민에 대한 관점과 립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기에 그이께서 제일 분노하실 때는 인민이 업수임을 당하고 인민의 리익이 침해당할 때이다. 인민우에 군림하고 인민의 리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서는 그

가 누구이든, 직위와 공로가 어떠하든 무자비하게 징벌하여야 한다는것이 그이의 정치신조이다.

이 드팀없는 의지에 의하여 세도, 관료주의가 사회주의화원에 돋아난 독초로, 주되는 투쟁대상으로 규정되고 세도군, 관료주의자들의 반당적, 반인민적, 반사회주의적행위들에 강한 타격을 가하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도 열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존귀하신 영상으로 제일로 숭상하시며 하늘처럼 떠받드시는 위대한 인민, 거기에는 몇몇 사람만이 아닌 이 땅의 모든 인민, 외진 섬, 깊은 산골마을의 마지막 한사람까지 그리고 상처입은 사람, 마음속아픔을 안고있는 사람들과 이역에 사는 해외동포들도 다 안겨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주체110(2021)년 9월 공화국창건73돐 경축행사에 참가한 로력혁신자, 공로자들을 만나시여 따뜻이 축하해주시고 주체111(2022)년 희망찬 새해의 첫날 금수산태양궁전에서 당대회결정관철의 첫해 투쟁에서 남다른 공훈을 세운 공로자, 로력혁신자들을 한품에 안으시고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신 감동깊은 화폭은 오늘도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고있다.

그들모두는 성실한 땀과 노력으로 나라의 재부를 늘이는데 이바지한 탄부, 직포공, 농장원들과 사회주의문명의 개화기를

열어나가는데 기여한 과학자, 교육자, 예술인, 체육인들을 비롯한 각계층의 평범한 사람들이였다. 소박한 그들자신의 표현대로 이 나라 공민으로서, 이 땅에서 나서자란 아들딸로서의 본분을 다하려고 애써 일해왔을뿐이였다.

그런 그들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몸소 만나주시고 크나큰 사랑을 안겨주시였으니 세상에 이런 영광, 이런 행복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지금도 영광의 그 시각을 생각할 때면 눈물이 솟구칩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저의 장알박힌 이 손을 꼭 잡아주시고 기념사진을 찍어주실 때 꿈이 아닌가 하여 막 손을 꼬집어보았습니다.》

뜻깊은 공화국창건 73돐 경축행사에 참가하여 태양의 축복을 받아안은 평양화력발전소의 평범한 로동자는 축하의 꽃다발을 안겨주는 사람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하였다. 우리 원수님의 대해같은 은정을 받아안은 공로자, 로력혁신자들가운데 자기와 같은 로동자들이 많았다고, 정말 우리 세상은 로동계급의 세상이라고.

2022년 새해의 첫아침 금수산태양궁전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은 증산군 풍정협동농장 관리위원장은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터놓았다.

《지난해 공화국창건 73돐을 맞으며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된 경축연회장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

리 농업근로자들을 몸가까이 불러주시고 농사문제도 하나하나 토론해주시였습니다.

그런데 뜻깊은 새해의 첫날에 또다시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신의 제일 가까이에 농사군인 저를 세워주실줄을 정말 몰랐습니다.》

이것은 그만이 아닌 영광의 그 자리에 섰던 애국농민들, 아니 온 나라 농업근로자들의 한결같은 심정이다.

주체110(2021)년 8월 경애하는 원수님을 몸가까이에서 만나뵈온 영광의 자리에는 한때 잘못된 길에 들어섰다가 사회주의건설의 어렵고 힘든 부문에 탄원진출하여 인생의 새 출발을 한 청년들도 있었다.

개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조양탄광 김광철청년돌격대 대장은 그날의 감격이 되새겨져 눈굽을

칭송의 목소리

### 김정은령도자의 신념은 확고하다

인민에 대한 배려를 조선의 그 어디서나 찾아볼수 있다.

조선민족의 령도자에게 있어서 행복한 미래를 창조하는 위업에서는 그 어떤 사소한 부족점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 사업을 위해서라면 그이께서는 하루의 사업일정을 최대한 쪼개고 또 쪼개여 일하고계신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김정은**령도자의 한해》를 담은 우리의 기록일지에 아무리 함축을 한다 해도 모든 사실을 다 담을수 없다. 다만 신문지면에 발표된 사실만을 렬거하였을뿐이다.

하지만 명백한것은 조종간을 억세게 틀어잡고 사회주의를 위한 정책, 강성하는 위대한 조선을 건설하려는 그이의 신념은 확고부동하다는것이다.

(로씨야신문 《빠뜨리오뜨》의 글중에서)

적시였다.

《온 나라의 축복속에 성대히 진행된 청년절경축행사에 참가한것만도 영광인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저희들을 만나주실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저희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제날 나라앞에 죄를 지은 떳떳치 못한 과거를 가진 청년들이 아닙니까.

제가 지난날의 과오를 꼭 씻고 더 많은 석탄산을 쌓아 충성의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올리자 그이께서는 환하게 웃으시며 저의 등을 두드려주시였습니다.

나이는 몇살인가, 어떻게 탄원하게 되였는가도 물어주시고 소박한 결의도 대견하게 들어주신 그이께서는 인생의 새 출발을 한 동무들이 훌륭한 인생길을 끝까지 걸어갈것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하시며 저희들을 한품에 안으시고 뜻깊은 기념사진도 찍어주시였습니다. 사랑이면 이보다 더 큰 사랑, 믿음이면 이보다 더 큰 믿음이 또 어데 있겠습니까.》

어찌 이들만이랴. 바람세찬 이역땅에서 조선사람의 존엄과 긍지를 안고 떳떳이 살아가고있는 한 해외동포는 이렇게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재일동포들을 <이역에 사는 위대한 우리 인민>이라고 정담아 불러주시고 해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을 그대로 이어 꼭꼭 보내주시는 거액의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에서 저희들은 이역에 사

는 우리 동포들의 운명과 미래까지도 위대한 사랑의 한품에 안아주시는 그이의 크나큰 믿음과 정을 깊이깊이 새기고있습니다.》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땀을 많이 흘리고 고생을 많이 하는 소박한 근로자들, 마음속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 먼 곳에 있는 사람모두를 위대한 우리 인민이라고 값높이 불러주시며 열과 정을 다해 극진히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믿음과 사랑은 참으로 끝이 없다.

위대한 인민을 운명의 하늘로 떠받드시며 위민헌신의 려정을 쉬임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머나먼 외국방문의 길에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 인민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하나라도 더 할수 없겠는가를 두고 심혈을 기울이시는 그이를 우러르며 한 외국인도 참으로 순간에 마음이 끌리는 친인민적인분이시라고, 스스럼없이 마음을 터놓게 되는 소탈하고 인민적인 령도자이시라고 흥분된 심정을 피력하지 않았던가.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도, 제1차 시, 군당책임비서강습회 참가자들과 조선로동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 참가자들앞에서도,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회의에서 하신 강령적인 시정연설에서도 위대한 우리 인민, 이 부름과 더불어 억척의 의지를 가다듬으시였으니 경애하는 원수님은 인민을 이 세상 가장 높이 내세우시고 그들의 존엄과 삶을 최상의

경지에서 빛내주시는 절세의 위인이시다.

위대한 우리 인민!

바로 여기에 인민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최상최대의 평가와 믿음이 있고 모든것을 다 바쳐 인민을 영원히 운명의 하늘로 떠받드시려는 그이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가 있다.

위대한 인민, 높이 울리는 이 부름과 함께 휘황한 래일을 마중해가는 인민의 신념과 의지는 백배해지고 인민의 만복은 활짝 꽃펴나고있다.

# 필생의 뜻－인민의 심부름군!

참다운 위인만이 진정으로 인민을 사랑하고 인민을 위하여 참답게 복무할수 있다.

력사에는 인민을 위해 복무하고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 한생을 바친 위인, 명인들이 적지 않았다.

맑스와 엥겔스, 레닌과 같은 수령들의 인간성과 인민성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일화들도 전해지고있다.

하지만 자신을 인민의 심부름군으로 여기시며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같으신 그런 위인, 그런 인민의 수령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인민의 심부름군!

력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이 부름속에 위대한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우리 인민을 정히 받들어야 한다고 하시며 인민대중제일주의의 화원을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한없이 숭고한 위인세계가 집약되여있다.

주체106(2017)년 1월 1일, 이날은 온 나라 인민이 얼마나 자애로운 어버이를 모시고있는가를 더더욱 뜨겁게 절감한 잊

을수 없는 날이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믿고 전체 인민이 앞날을 락관하며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를 부르던 시대가 지나간 력사속의 순간이 아닌 오늘의 현실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헌신분투할것이라고, 티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 인민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인민의 참된 충복, 충실한 심부름군이 될것을 새해의 이 아침에 엄숙히 맹약하는바이라고 경애하는 원수님 절절히 말씀하실 때 온 나라 인민이 얼마나 뜨거운 격정으로 설레였던가.

《그날에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말씀을 삼가 더듬을수록 마음은 한없는 격정에 젖어듭니다.

심부름군이라고 하면 남의 시킴을 받아 그것을 말아해주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온 세상이 그토록 흠모하고 칭송해마지 않는 수령께서 아니 글쎄,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심부름군이 되시겠다니 세상에 이런 일도 있습니까.》

새해의 첫아침에 인민의 충실한 심부름군이 될것을 맹약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흐르는 눈물속에 받아안은 한 로동자가 터친 심장의 웨침에는 하늘도 감복하는 민심이 다 담겨져있다.

격정에 젖은 민심, 그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지구상에는 200여개의 크고작은 나라들이 있고 각이한 사

회제도가 존재하고있다. 그 많은 나라의 권력자, 정치인들이 저마다 인민을 위한다고 표방하고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선거철이면 각양각색의 정치세력들이 저마끔 화려한 공약과 구호들을 내들고 인민들을 현혹케 하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정부관료들이 국민들앞에서 엄숙한 표정으로 《선서》하는 모습도 볼수 있다.

하다면 그것이 과연 진정이겠는가. 자본주의사회에서 정치인들이 언제 한번이라도 평범한 인민들을 위하여 복무한적이 있었던가.

그런 정치인은 아무리 눈을 씻고 보아도 찾아볼수 없다. 인민을 멸시하고 통치대상으로밖에 여기지 않는 자본주의정치인들에게서 인민의 심부름군이란 말은 상상조차 할수 없다.

이 땅에 펼쳐지는 인민중시, 인민사랑의 참다운 현실은 정치인, 령도자들이 어떤 령도풍모를 지녀야 하는가를 웅변으로 보여주고있다.

나라의 모든것이 인민을 향해 문을 활짝 열고 인민을 위해서라면 저 하늘의 별도 따다주는 세상, 당도 국가도 군대도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고 일군들도 인민을 위하여 헌신분투하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이 땅 그 어디에나 새겨져 빛을 뿌리는 이 구호에 인민을 위한 복무를 좌우명으로 삼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드팀없는 신조가 그 얼마나 뜨겁게 새겨져있는것인가.

그 성스럽고 긍지높은 인민에 대한 복무의 세계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하여 최상의 경지에 올라섰으니 그이께서는 자신을 한 나라의 령도자이기 전에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 인민의 심부름군으로 여기신다.

인민의 참된 충복, 충실한 심부름군!

그이께서 인민앞에 다지신 이 엄숙한 맹약에는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다 바쳐가실 열화같은 진정의 토로가 담겨져있다.

나는 이제라도 당장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목

## 일화 로동자들이 일하고있으므로 가보아야 한다

몹시도 무더운 날에 대동강돼지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유기질복합비료직장으로 가자고 하시자 일군이 그곳은 배설물냄새가 세게 난다고, 유기질복합비료직장에만은 내려가지 말았으면 한다고 간절히 말씀올렸다.

하지만 그이께서는 일없다고, 유기질복합비료직장은 돼지배설물냄새가 세게 나기때문에 가보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거기에서도 우리 로동자들이 일하고있으므로 가보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곳으로 향하시였다.

로동자들을 제일로 사랑하시는 그이,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는 절세위인의 진정이 넘쳐나는 뜨거운 그 말씀에 천하가 진동하는듯싶었다.

숨을 바치라면 서슴없이 바칠 각오가 되여있다. 나는 자신을 언제나 인민의 아들로 생각하고있으며 인민의 충복이라는 립장에서 모든 문제들을 대하며 풀어나가고있다. …

온 나라 인민의 한결같은 념원에 의하여 원수칭호를 받으시며 인민의 아들, 인민의 충복으로 살며 투쟁하실 불같은 결심을 절절히 피력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더듬을수록 마음은 한없이 젖어든다.

세기를 인도하는 천재적예지로 백승의 진로만을 펼쳐주시는 그이의 탁월한 혁명사상을 응당한 높이에서 정립하지 못하는 전사들의 마음을 헤아리시며 나의 사상은 아무리 전개하여야 인민의 심부름군으로 되여야 한다는것밖에 더 나올것이 없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간곡한 그 말씀.

고금동서에 어느 수령, 어느 위인이 이처럼 심원하고도 가슴울리는 심중을 이처럼 열렬히 피력한 례가 있었던가.

그날은 례사로운 날이였다. 중요한 회의가 소집되거나 력사적인 로작을 발표하신 날도 아니고 자신의 마음속고백을 스스럼없이 터놓으신 평범한 하루였을뿐이다.

허나 바로 이날에 탁월한 위인의 혁명사상이 인민의 심부름군이라는 표현으로 정의되였다.

불세출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혁명사상, 정치철학은 시대와 력사,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전면적이고도 세부적이며 심오하면서도 독창적인 해답을 주는 진리와

승리의 대백과전서, 현대인류지성의 최고정수를 이루고있다.

21세기를 대표하는 사상리론의 영재, 대세의 흐름을 주도하시는 정치의 거장, 세련된 령도예술과 만인을 매혹시키는 특출한 풍모를 지니신 대성인, 미증유의 통찰력과 신비로운 사색력, 놀라운 저술력을 겸비하신 천재적인 실력가이신 그이의 사상리론적예지와 비범성은 미처 다 헤아리기 어려운 세계를 이루고있다.

인민의 심부름군, 너무도 소박한 부름이 그처럼 천재적이고 걸출한분의 필생의 뜻으로 선언되였다.

나의 사상을 알려거든 인민을 섬기는 나의 마음을 읽으라, 이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심장의 고백이다.

그런분이시기에 조선로동당을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심부름군당으로 품들여 강화발전시켜나가고계신다.

지금 우리 인민들은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변함없이 우리 당을 어머니당이라 부르며 따르고있다고 하시며 당을 어머니라 스스럼없이 불러주는 인민의 크나큰 믿음에 보답하자면 우리 당이 진정한 인민의 심부름군당으로 되여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일군들에게 간곡히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앞에서 스승이나 웃사람이기 전에 심부름군이라고 할수 있다고, 어머니는 자기 자식들의 요구라면 무조건적으로 군말없이 다 받아들이며 거기

에 바쳐진 자기의 노력과 수고에 대하여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이것은 이 세상 모든 어머니들이 하나와 같이 지니고 있는 속성이라고 말입니다.

자식 하나를 낳아 키우는데 5만공수가 든다고 하지만 자식을 낳아 키워 시집장가를 보낼 때까지 어머니가 바치는 수고와 로고를 어찌 5만공수에 비길수 있겠습니까. 집안의 모든 궂은일, 마른일을 도맡아하며 소갈길, 말갈길을 묵묵히 다 걸어가는 어머니입니다.

자식을 위하여 궂은일, 마른일을 가리지 않는 심부름군 어머니처럼 인민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심부름군당으로 되는것, 이것은 인민을 운명의 하늘로 떠받드는것을 최고의 리념으로 내세우고 투쟁하는 우리 당에 대한 또 하나의 새로운 정의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몸가까이 모시고 일하는 당중앙위원회 일군의 이 말에는 조선로동당에 인민의 심부름군당이라는 이 세상 가장 고귀하고 정깊은 이름을 지어주신 그이에 대한 인민의 다함없는 감사의 마음이 뜨겁게 담겨져있다.

— 주인과 심부름군과의 관계로 볼 때 주인의 자리에는 응당 인민이 서야 하고 심부름군의 위치에는 일군이 있어야 한다.

— 일군들은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야 한다. 일군을 위하여 인민이 있는것이 아니라 인민을 위하

여 일군이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 있어서 이보다 더 엄격한 원칙, 이보다 더 절박한 요구는 없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군들이 인민의 심부름군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할데 대하여 간곡하게 당부하고계신다.

주체101(2012)년 5월 만경대유희장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지도는 우리 일군들이 어떤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일하여야 하며 인민을 위해 어떻게 뛰여야 하는가를 깨우쳐주신 잊을수 없는 현지지도였다고 하면서 평양시당 책임일군은 이렇게 말하였다.

《그날 만경대유희장구내의 도로가 심히 깨지고 보도블로크사이로 잡풀이 돋아난것을 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시고 한포기한포기 풀을 뽑으시면서 일군들의 눈에는 이런것이 보이지 않는가, 일군들과 관리성원들의 인민에 대한 복무정신이 령이 아니라 그 이하이라고 엄하게 지적하시였습니다.

그이께서는 만경대유희장의 현 실태는 우리 일군들이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간직하지 못하면 무슨 일을 해도 당의 의도를 잘 받들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고 무거운 어조로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만경대유희장을 완전히 새롭게 변모시키는 과정이

우리 일군들속에 낡은 사상관점을 들어내는 계기, 낡은 일본새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로 되게 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습니다.

만경대유희장의 구내길을 걸으시며 인민들이 즐겨 리용하는 문화휴식장소를 이런 상태에 처하도록 내버려두고도 량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가슴아파하지 않는 일군, 인민들을 귀중히 여길줄 모르는 일군들이 천만명이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고 하시던 그이의 절절한 말씀은 우리 일군들로 하여금 인민의 심부름군으로서의 마음의 신들메를 더욱 조이도록 해주고있습니다.》

만경대유희장에 대한 현지지도를 진행하신 다음날에도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우리는 모두가 인민의 아들딸이라고, 우리는 인민의 아들딸로서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

칭송의 목소리

##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다하시는 령도자

세계대중보도수단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령도자께서 오늘날 자기 활동에서 어디에 첫째가는 힘을 집중하고 계시는가에 대해 최대의 관심을 가지고있다.

소위 《민주주의적인》 대중보도수단들이 조선이 마치 《군사화》로 내달리고있다는 인식을 주기 위해 애를 쓰고있지만 실지에 있어서 조선은 사회주의건설에 모든 힘을 집중하고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그이께서는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복리증진령역을 확대하는데로 이끌어가고계신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인민을 사랑하시고 인민을 믿으시며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다하고계신다.

그이께서 조국땅의 방방곡곡을 밟으시며 벌리시는 현지지도로정을 놓고보면 이에 대해 잘 알수 있다.

(로씨야신문 《빠뜨리오뜨》의 글중에서)

쳐 일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심부름에는 자기란 없다. 오직 남을 위한 수고만 있을뿐이다.

그것은 말처럼 쉬운것이 아니다. 한가정의 자식을 키우고 돌보는데도 오만자루의 품이 든다고 하였는데 온 나라의 천만식솔을, 그것도 가장 어렵고 힘겨운 때 품에 안아 보살피고 정을 다해 떠받든다는것은 참으로 어려운 중책이 아닐수 없다.

하건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 모든것을 심부름군이라는 말속에 다 담으시고 그것을 더없는 자부로, 최고의 영광으로 정히 간직하고계신다.

그이를 몸가까이 모시고 현지지도의 길을 동행한 한 일군은 자기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칼바람부는 눈보라길과 사나운 바다길, 비내리는 건설장의 진창길…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걸으신 인민사랑의 눈물겨운 자욱자욱들을 돌이켜보느라면 그이께서 한 종합목장을 찾으시였던 감동깊은 이야기가 떠오른다.

우리 인민들에게 맛좋은 고기와 우유를 먹이시기 위하여 그이께서 목장을 찾으신 그날은 2018년 8월의 어느 일요일이였다.

숨막히는 폭열속에서 그것도 휴식일에 자기들의 일터를 찾으신 그이를 만나뵈온 이곳 일군들의 가슴은 뜨거웠다.

이날 그이께서는 땀으로 옷깃을 화락하니 적시며 오랜 시간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축산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러시고 요즘 고온현상이 계속되고있는데 오늘도 날씨가 간단치 않게 무덥지만 목장을 돌아보고나니 마음이 거뜬하다고, 자신께서 가는 길은 인민을 위한 길이라고, 이 길은 더우나 추우나 무조건 가야 할 길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인민을 위한 길에 더우나 추우나 무조건 가야 할 길이다!

이 말씀에 인민을 위하시는 그이의 불같은 사랑이 얼마나 철철 흘러넘치고있는것인가.

이렇듯 인민을 사랑하고 이렇듯 인민을 위해 자신의 한몸을 깡그리 바쳐가시는 그이의 무한한 헌신의 세계를 표현할 수 있는 문장, 어휘는 사전에 없다. …》

경애하는 원수님은 바로 이런분이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에서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이 신성하게 내세우고있는 위민헌신의 리념은 실지 뼈를 깎고 살을 저미면서 인민의 생명과 생활을 책임지고 무조건적인 복무로 인민을 받드는 실천의 지침이고 행동의 기준이라고.

실지 뼈를 깎고 살을 저미면서!

세상에 그이처럼 인민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무를 정치리념

으로 내세운 령도자가 그 어디에 있었는가.

그이의 마음속에는 오로지 인민에 대한 생각밖에 없다.

이런분을 어찌 인민이 따르지 않을수 있으며 그이께 심장을 통채로 맡기지 않을수 있으랴.

세상을 둘러보자. 재앙과 고통, 절망속에서 형세가 갈수록 혼란스러워지는 오늘날 세계는 인민을 점점 더 외면하는 세계로, 당은 있어도 인민이 보이지 않고 인민의 목소리가 멀어지는 암울한 세계로 되고있다.

사랑하는 인민앞에 스스로 심부름군이 되는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간직한 절세의 위인을 모시였다는것은 얼마나 크나큰 행운인가. 이보다 더 큰 행복을 인민은 모른다.

하건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금도 만족을 모르신다. 오로지 인민들에게 더 큰 기쁨과 행복만을 마련해주시려 낮이나 밤이나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의 한길을 줄기차게 이어가고계신다.

사랑하는 인민의 충실한 심부름군이 되시여!

# 어려울 때 제일먼저 떠오른 어머니의 모습

이 나라 인민의 절절한 마음을 담아싣고 내 조국의 하늘가에 노래가 울려퍼진다.

…
이 세상에 우리 어머니처럼
근심많은 어머니 어데 있던가
동트는 이 나라 새벽길을 먼저 걷고
숫눈길도 앞서 걷는 우리 어머니
눈비바람 막아주며 우릴 키운 품
아 그 고생 우린 못잊어
…

인민의 넋이 시어가 되고 인민의 심장에 높뛰는 박동소리가 선률로 옮겨진 위인칭송의 찬가 《우리 어머니》!

어디서나 울리고 누구나 부른다. 일손을 잡으면서도 부르고 이른아침, 깊은 밤 불밝은 집집의 창가들에서도, 아이들도 어른들도 맑은 소리로 가슴에 넘치는 환희를 노래한다.

어쩌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이처럼 신통하게 담았는가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리는 감사의 꽃바구니와 같다고 누구나 한결같이 말하는 노래 《우리 어머니》.

경애하는 원수님 마련해주신 덩실한 새집에서 비바람 몰아쳐도 근심을 모르는 신흥군사람들이며 예로부터 재난만을 가져다주던 례성강하류의 북쪽에 자리잡았다고 하여 강북리로 불리우던 자기네 마을이 이제는 복이 강물처럼 흐르는 강복리가 되였다며 눈물에 겨워 말하는 금천군 강북리사람들도 이 노래는 틀림없이 자기들의 노래라고, 잠에서 깨여나 다시 잠자리에 들 때까지 떠날줄 모르는 자기들의 심정이 그대로 담겨져있다고 흥분을 토로한다.

《<이 세상에 우리 어머니처럼…> 하고 첫 구절을 떼기만 해도 눈물이 막 나옵니다. 그뒤에 <근심많은 어머니>란 구절을 더 잇자니 목이 꽉 메여와 노래를 제대로 부를수가 없었습니다.

한두명의 자식을 키우는 어머니도 힘들어 지칠 때가 많은데 온 나라 천만자식을 돌보시는 우리 원수님께서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큰물피해를 입은 우리들을 위해 그토록 마음써오신 그이의 천만고생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그이의 눈물겨운 헌신이 이 노래에 다 담겨져있습니다. 진정 그이는 어머니이십니다.》

이것이 어찌 대청리의 평범한 녀인의 목소리라고만 하랴.

이 나라 인민이 꼭 하고싶었던 말, 온 세상을 향해 높이 터치고싶었던 심장의 웨침이다.

어머니!

이 세상의 모든 녀성들을 다 준다고 해도 바꿀수 없는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어머니이다. 한번 잃으면 어디에서도 다시 찾을수 없는 사랑도 어머니의 사랑이다.

어머니는 사랑의 화신이다. 정겨운 그 시선, 밝고밝은 웃음, 따뜻한 목소리…

자식들을 보살피는 그 손길은 얼마나 살틀한가.

마치도 온기를 주고 사랑을 주기 위해 태여난듯 정과 따스함으로 충만된 어머니, 어머니가 곁에 있으면 자식들은 행복하다. 뜨거이 안아주는 그 품에 몸과 맘 맡기면 온갖 시름 사라지고 마음은 편하다.

먼 옛날부터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오고있다. 어느날 하늘신이 천사들을 불러다놓고 하는 말이 지상에 내려가서 사람들이 제일 아름답다고 하는것가운데서 3가지를 골라가지고 오라고 하였다.

천사들은 지상에 내려와서 사람들을 만나 의논하던 끝에 가장 아름다운것 3가지를 골랐는데 그중 하나는 예쁜 꽃이였고 다른 하나는 어린애의 웃음이였고 또 다른 하나는 어머니의 사랑이였다.

천사들은 그 3가지를 가지고 지상에서 하늘로 올라가 하늘

신앞에 내놓았다. 그런데 그동안에 예쁜 꽃은 시들어 볼품이 없게 되고 어린애의 웃음도 본래의 모습을 잃었다. 하지만 조금도 변치 않고 여전히 아름다운것은 어머니의 사랑뿐이였다.

이것은 하나의 전설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전설이라기보다 자기들의 심정을 담은 현실적인 이야기로 받아들이고있다.

어머니의 사랑이란 이런것이다. 생명을 이으려는 힘보다 더 강한것은 없듯이 어머니는 자식들을 위해 온갖 고생 마다하지 않고 피와 살, 생명까지도 서슴없이 바친다.

하여 누구는 백발을 인 나이에 어머니를 찾아 바다를 건느고 하늘길을 헤친다. 누구는 전장에 쓰러져 눈을 감으면서 마지막힘을 모아 어머니를 부른다.

사람이 제일 급할 때 저도 모르게 찾게 되는 사람도 어머니이고 아이들이 울 때 본능적으로 찾는 사람도 바로 어머니이다.

이 나라 남녀로소에게는 어려울 때나 괴로울 때나 언제나 먼저 찾는 위대한 어머니가 계신다.

어려울 때 누구보다 령도자의 자애로운 영상을 먼저 떠올리며 절절히 그리는 인민의 믿음과 기대를 그 무엇보다 귀중히 여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그이께서는 불행에 처한 인민들을 누구보다 먼저 품어안아 따뜻이 보살펴주고계신다.

지금도 사람들은 몇해전 나라의 북부피해지역에 펼쳐졌던

세상에 다시없을 숭고한 인민사랑의 세계를 가슴뜨겁게 새겨보군 한다.

그때 북변 두만강연안에 해방후 기상관측이래 처음 보는 돌풍이 불어치고 무더기비가 쏟아졌다. 산이 깎이여 절벽이 되고 사태에 큰 골짜기가 통채로 메워졌으며 거리와 마을들이 감탕에 덮였다. 사품치는 대홍수로 고립무원한 섬이나 다름없이 갇혔던 사람들속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오갔다.

《온통 물천지인데 이제 우린 어떡하나요?》

《원, 걱정두. 우리 원수님께서 계시지 않소. 그이께서 꼭 우릴 구원해주실거요.》

바로 그 시각, 피해지역상공으로 한대의 직승기가 날아왔다. 은빛동체 번쩍이는 직승기를 보는 순간 삽시에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평양에서 오는 직승기다!》

《우리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직승기가 날아온다!》

사람들은 울고웃으며 저공비행하는 직승기주위로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직승기에서 내린 한 일군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어서빨리 가보라고 자기들을 떠밀어 이곳으로 보내주셨다고, 그이께서 피해지역 인민들 걱정으로 침식을 잊고계신다고 웨치다싶이 말하자 모여온 사람들속에서는 흐느낌소리로 가득찼다.

하지만 그들은 다는 알지 못하였다. 얼마나 뜨거운 손길이

자기들을 보살펴주고있는지.

불시에 엄혹한 대재앙이 들이닥쳤던 그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 나라 북변의 상처입은 인민들을 품어안으시고 마음쓰시였다. 당중앙창가에 사랑에 젖은 그이의 음성이 울리였다.

북부지역에서 폭우로 인하여 큰 피해를 입었다고, 몇달 지나지 않아 겨울이 닥쳐오겠는데 폭우로 한지에 나앉은 인민들을 빨리 안착시켜야 한다고, 력량을 집중하여 한두달어간에 한지에 나앉은 인민들에게 살림집을 지어주어야 한다고…

그로부터 얼마후 뜻밖의 자연재해로부터 피해지역 인민들에게 더 큰 행복을 안겨주시려 마음쓰는 위대한 어머니의 목소리가 뢰성처럼 울려퍼졌다.

—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의 아픔보다 더 큰 비상사태는 없으며 인민의 불행을 가셔주는것보다 더 중차대한 혁명사업은 없다.

— 조성된 비상사태에 대처하여 우리 당은 200일전투의 주타격방향을 북부피해복구전투에로 전환시키고 난국을 타개할 중대결단을 내리였다.

— 억만금을 쏟아붓고 나라의 재부를 통채로 기울여서라도 이제 당장 들이닥칠 엄혹한 강추위앞에서 피해지역 인민들이 고생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

어머니당의 피끓는 호소는 천만인민의 심장을 울리고 온 나라를 무한히 격동시켰다.

모든 힘을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선의 승리를 위하여!

인민이 당하는 불행을 순간도 묵여둘수 없는 제일 큰 아픔으로 여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화같은 사랑속에 세계가 알지 못하는 거창한 대격전이 벌어졌다.

대재난의 그날로부터 60여일, 그 나날 북부피해지역은 단순히 피해복구가 아니라 천지개벽되였다. 자연의 광란은 오랜 세월 다져온 삶의 터전을 지도에서 없애버렸지만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화같은 사랑은 만복의 보금자리를 새로 지도우에 새겨놓았다.

어찌 이들만이랴. 은파군 대청리주민들도 뜻밖에 큰물피해를 입은 자기들의 아픔을 제일먼저 아시고 선참으로 달려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전설같은 사랑의 이야기를 뜨겁게 전하고있다.

후날 혹심한 자연의 광란으로 집을 잃었을 때 제일먼저 떠오른 생각이 무엇이였는가고 묻는 기자에게 대청리의 주민은 이렇게 말하였다.

《제일먼저 떠오른것은 낳아 키워준 친부모나 혈육들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이였습니다. 그이께서 꼭 우리를 구원해주실것이라고 믿었기때문이였습니다.

그런데 물이 채 찌지 않아 군의 일군들도 아직 올념을

하지 못하고있던 대청땅에 그것도 감탕이 질벅한 험하디 험한 그 길로 우리 원수님께서 제일먼저 달려오시지 않으셨겠습니까.

몸소 운전대를 잡으시고 감탕에 빠진 차를 뽑으며 험한 진창길을 앞장에서 헤쳐가시는 그이의 모습에서 불행에 처한 자식을 위해 사생결단하고 달려가는 위대한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

은파군 책임일군에게는 때없이 펼쳐보군 하는 한권의 책이 있다. 지금도 그 책을 펼쳐보느라면 대청리에 큰물피해를 입었던 나날들이 어제런듯 생생히 안겨오고 흘러간 분분초초에 새겨진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화같은 인민사랑이 가슴속에 사무쳐와 눈굽이 젖어든다며 그는 추억을 더듬었다.

《2020년 8월 대청리일대에 물란리가 났습니다. 련일 쏟아져내린 폭우로 물길제방이 터졌던것입니다. 다행히도 주민들은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켰으나 단층살림집 730여동과 논 600여정보가 침수되고 179동의 살림집이 무너지는 등 피해가 컸습니다.

심각한 사태에 직면하고보니 어찌할바를 몰랐습니다. 군안의 여기저기를 오가면서 큰물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느라 필사의 노력을 다했으나 자연의 광란은 모질게 덮쳐들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얼마후였습니다. 문득 전화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송수화기를 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전화를 걸어오신것이였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

울먹이는 목소리로 겨우 올리는 저의 인사를 들으신 그이께서는 대청리의 실태를 보고받았다고 하시면서 대피한 주민들은 다 어떻게 하고있는지 걱정된다고, 이제 인차 중앙당 부서들과 본부가족세대들로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가장집물들을 지원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조직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순간 전류와도 같이 강렬하고 뜨거운것이 온몸에 흘러들었습니다. 쌓이고쌓였던 만시름이 순간에 스르르 풀리는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원수님의 마음속에 언제나 은파군인민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으로 눈물이 왈칵 솟구치는데 다정하신 그이의 음성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당에서 대청리주민들이 큰물피해를 받았다는것을 알고있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그들을 안착시켜야 합니다. 살림집도 새로 지어주고 피해복구와 관련한 대책을 세워주겠으니 대청리주민들이 신심을 가지고 안정된 생활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내가 신심을 잃지 말고 안착되여 생활하라고 하였다는것을 피해지역 인민들에게 꼭 전달해주어야 하겠습니다.

덤비지 말고 침착하게 큰물피해복구사업을 잘 지휘하여야

하겠습니다.

절절하게 하신 그 말씀은 불행을 당한 인민일수록 더 따뜻이 품어주는 숭고한 사랑이였습니다. 그 시각 대청리에서는 한입 건너 두입 건너 이런 뜨거운 속삭임이 퍼져갔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대청리일을 환히 알고계십니다.>

<당에서 살림집을 새로 지어준대요.>

우리 원수님께서 다 알고계신다!

정녕 그것은 우리 원수님의 심장속에 언제나 인민이 있다는 뜨거운 격정의 목소리, 그이께서 계시기에 그 어떤 천재지변속에서도 마음든든한 인민의 굳건한 믿음과 다함없는 감사의 메아리였습니다.

하지만 어찌 다 알았겠습니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전화를 놓으신 후 평양에서 은파까지 한달음에 달려오실줄을, 그리고 점심식사도 미루어가시며 대청리일대의 큰물피해상황을 현지에서 료해하실줄을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또다시 그 험한 길을 헤치시며 대청리피해현장을 찾으신 그이께서는 피해지역의 살림집 800세대가운데서 400～500세대만 새로 짓고 나머지는 보수하는 방안도 제기되였다는것을 아시고 지을바에는 화가 복이 되게 800세대를 다 새로 지으라고, 농장원들이 1동2세대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독집을 좋아하는지 알아보고 농장원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설계를 잘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시였습니다.》

어찌 이들뿐이랴.

이 땅 그 어디에서나 예상치 않은 자연재해로 불행을 당한 인민에게 제일먼저 와닿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전설같은 사랑의 이야기가 끝없이 전해지고있다.

피해지역 인민들이 당한 불행을 보고받으시고 한달음에 달려가시여 험한 돌서덜과 진창길을 밟으시며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돌아가시는 길도 뒤로 미루시며 한자한자 쓰신 공개서한을 수도의 당원들에게 보내주시고 수도의 핵심당원들로 최정예수도당원사단을 조직하여 파견해주신 그이이시였다. 태풍이 채 가셔지지 않은 황남땅의 포전에도, 김화군피해복구현장에도 그이께서 계시였다.

피해지역 인민들이 평양의 하늘을 바라보며 나를 기다린다고, 집을 잃고 한지에 나앉은 인민들이 이 비바람속에서 자신을 기다린다고 절절하게 말씀하시며 함경남도 태풍피해현장으로 달려가신 그날의 충격적인 사실은 또 얼마나 만사람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는것인가.

바로 그 길이 언제 산사태가 무너져내릴지 모를, 물먹은 철길로반들이 어느 시각에 주저앉을지 모르는 그처럼 위험천만한 길이였음을 과연 어느 누가 알고나 있었던가.

그렇듯 사랑하는 인민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험로역경도, 천만고생도 주저없이 사생결단의 각오와 의지로 헤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세상에 이런분이 또 계시랴.

그토록 인민밖에 모르시는분,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친어머니가 되시는 위대하신분!

흘러간 력사를 돌이켜보면 국민을 우위에 놓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떠든 정치가는 많았다.

하지만 어느 누가 인민의 불행앞에서 그렇듯 크나큰 격정으로 잠 못이루며 한달음에 달려간적이 있었는가. 어느 누가 옷자락을 흙탕물로 적시며 감탕길을 걸어본적이 과연 있었던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찾으시였던 그 어디에서나 늘 들을수 있는 말이 있다.

《태풍이 채 가셔지지 않은 우리 농장포전을 제일먼저 찾

## 일화 한밤이 전하는 이야기

어느날 깊은 밤 인민군대의 한 중대를 찾으시여 병실에서 굳잠에 든 군인들의 모습을 보시고 다른 침실로 가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잠든 병사들의 얼굴에서 이윽토록 눈길을 떼지 못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오래간만에 병사들의 땀내를 맡아봅니다.》

병사들의 땀내!

순간 동행하던 일군들은 코마루가 찡해옴을 어쩔수 없었다.

자식들의 땀냄새를 싫어하지 않는것은 오직 부모뿐이다.

그럴진대 병사들의 땀내를 맡아보는것이 그리도 좋으신듯 잠자는 그들을 사랑어린 눈길로 바라보시는 그이이시야말로 병사들의 진정한 친어버이가 아니신가.

으신분은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습니다.》

《온 나라 대가정을 돌보시며 어느 하루도 마음편히 쉬지 못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들이 당한 불행을 두고 그처럼 가슴아파하시며 함경남도당 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소집하도록 하시고 피해복구용 주요자재를 국가예비분에서 해제하여 긴급보장하며 중앙에서 재정물질적으로 강력히 지원할데 대하여 명령하시였다는 소식을 전해들었을 때 우리의 가슴가슴에 해빛처럼 따사롭게 흘러드는 어머니당의 사랑이 너무도 고마워 아이들도, 어른들도 모두가 눈물을 흘리였습니다.》

…

정녕 어머니이시다.

행복에 웃는 자식보다 불행에 우는 자식을 위해 마음쓰며 더 따뜻이 품어안아 온갖 사랑과 정을 다해 극진히 보살펴주는것이 어머니의 무한한 진정이다.

어머니!

이처럼 친근하고 소중한 부름이 어디에 또 있으랴.

아이들도 어른들도 어머니라 부르며 끝없이 안겨드는 품, 그 품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한없이 넓고 자애로운 품이다.

행복넘친 날에도, 시련의 나날에도 그이는 언제나 인민의 마음속에 계신다. 인민의 곁에서 그들의 숨결을 듣고계시며 인민이 겪는 불행과 아픔을 깨끗이 가셔주고 행복만을 안겨

주신다.

이 땅에 불행을 겪는 사람이 단 한사람도 있게 하여서는 안된다는 숭고한 세계, 고생을 겪고 어려움을 당한 인민들일수록 더더욱 뜨겁게 품어주는 위대한 어머니의 정깊은 손길이 있어 재해지역들에 경이적인 기적이 펼쳐지고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높이 울리고있는것 아닌가.

위대한 어머니의 따뜻한 품, 정깊은 손길에 어찌 인민이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지 않을수 있으랴.

눈물겹고 진정에 넘친 그이의 사랑의 해빛이 언제나 어디서나 가슴에 따스히 흘러들기에 어려울 때일수록 인민은 그이의 자애로운 영상을 제일먼저 우러른다.

우리에게 위대한 어머니가 계신다!

열백번 다시 태여난대도 인민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 조선로동당의 품에서만 영원히 살리라.

그 어떤 천지풍파에도 끄떡없을 억척의 신념을 안고 인민은 위대한 어머니의 노래를 목메여 부른다.

…

이 세상에 우리 어머니처럼
제일 좋은 어머니 더는 없으리
열백번 이 땅에 다시 태여난다 해도
어머니의 품에서만 살고싶어라

우리 심장 그 뜻으로 고동치리라
아 영원히 함께 하리라
어머니 어머니 우리들의 어머니
조선로동당이여

오래전에 세계의 이름난 한 문호는 《음악이 사랑앞에서는 자리를 양보하는데 그것은 사랑도 선률이기때문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였다.

진정 선률로 새기지 못한 선률, 노래로 못다 울린 위대한 어머니의 노래가 그 얼마나 많은가.

# 《여기가 어디라고 오신단 말입니까!》

인민이 사는 곳이라면 그 어디에든 달려가 품어안아주시며 남모르는 마음속고충도 헤아려주시고 주실수 있는 온갖 사랑과 은정을 다 베풀어주시는 인민의 어버이 **김정은**원수님.

흘러간 10년세월 경애하는 그이께서 이 나라의 크고작은 마을과 어촌이며 공장과 농장, 학교들을 찾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걷고걸으신 위민헌신의 길은 수만리였던가 수백만리였던가. 10년이라는 그 세월의 날과 달들에 그이를 만나뵈옵고 혈연의 뜨거운 정과 사랑을 받아안았던 하많은 사람들의 체험이 터치는 격정에 넘친 목소리는 이 땅의 산천초목도 설레이게 한다.

《그때 우리 검덕사람들은 깜짝 놀라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큰물에 언제 무너져내릴지 모를 좁은 협궤철길로 우리들을 찾아 들어서시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저기서 흐느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백발인 로인들과 녀인들, 철부지아이들까지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걷잡지 못하며 맨발로, 내의바람으로 길가에 떨쳐나왔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오신단 말입니까, 원수님!

저의 목소리만이 아니였습니다. 그이를 우러르는 남녀로소가 심장으로 이렇게 웨치고있었습니다. 피해는 혹심했어도 한지에 나앉은 불행을 당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건만 원수님의 안색은 몹시 흐려져있었습니다. 경애하는 그이를 우러르며 검덕사람들은 정말 심장이 미여지는듯했습니다. 동서고금에 자연의 광란이 무섭게 몰아치는 속에서 극심한 피해지역에 서슴없이 들어서는 그런 령도자가 있었습니까. 인간이 사는 이 행성에 피해지역 인민의 정상이 그토록 가슴아프시여 잠 못드시고 그 아픔을 한시라도 빨리 가셔주시려 지척이여도, 만리여도 달려오시는분은 오로지 경애하는 원수님뿐이십니다.》

검덕의 한 녀성일군의 토로에 하늘도 감복하는 민심이 력력히 비껴있다. 이 나라 모든 사람들이 실생활체험을 통하여, 10년이라는 력사가 이 땅에 펼쳐진 눈부신 현실을 통하여 증명한 고귀한 진리가 아로새겨져있다.

조국의 북변 경성군의 중평지구에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이 일떠선 대규모의 남새온실농장과 현대적인 양묘장.

절세위인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인민사랑의 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선 이곳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희열에 넘치신 시선으로 온실바다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자신의 마음속진정을 토로하시였다.

지리적으로 멀고가까운 곳은 있어도 자신의 마음속에는 멀고가까운 인민이 따로 없다!

남새온실농장이 함경북도인민들의 식생활에 이바지한다면 더 바랄것이 없다!

자애로운 어버이의 심장의 분출에 접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과 피줄처럼 인연을 맺고 사는 온 나라 인민이 격정으로 설레였다.

마음속에는 멀고가까운 인민이 따로 없다!

그 어느 명서에서도 본적이 없고 그 어느 명언집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참으로 인민의 마음을 후덥게 하여주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 말씀.

정녕 여기에는 인민을 언제나 마음속에 두고 사는 인민의 아들, 인민의 어버이가 지닌 숭고한 인민관이 집대성되여있다.

조국땅 이르는 곳마다에 인민의 문명과 복리증진을 위한 창조와 변혁의 새 력사를 펼쳐가시는 **김정은**원수님.

경애하는 그이께 있어서 나라의 방방곡곡에 사는 인민은 비록 평양과 멀리 떨어진 두메산촌에 살든, 망망대해의 외진 섬에 살든 그 언제나 자신의 마음속의 지척에 있다.

인민이 사는 곳이 지척이여도, 만리여도 인민을 위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은 차별을 모른다.

주체104(2015)년 8월이였다.

그때 나라의 많은 지역에서 례년에 드문 폭우가 때없이 쏟아져내렸다. 라선지역 하늘에서도 짧은 시간에 너무도 엄청난 물을 퍼붓다십이 했다.

홍수 그것도 대홍수가 터진것이였다. 전란이라 해도 이보다는 더 처참하지 않을것이다.

미친듯이 쏟아붓는 비줄기속에서 천하가 물에 잠겨버렸다. 난바다같은 물시위를 헤가르며 도로를 건느던 사람들이 금시 눈앞에서 없어졌다. 집들이, 마을들이 간데없이 사라졌다.

부모처자의 생사여부도 알길없고 죽음의 공포가 넋을 희롱하는 밤.

무시무시한 그밤에 나무뿌리 드러난 산등성이우와 물이 차오르는 단층살림집지붕우, 홍수 허리치는 아빠트옥상에서 사람들이 주고받는 말이 들려왔다.

《평양에도 이렇게 비가 올가?》

《평양은 물에 잠기면 안될텐데…》

《하늘아, 평양에 갈 비구름이 있거든 차라리 여기에 다 쏟으라.》

이 나라 백성들의 심장의 고백이였다. 천길깊이에서 샘솟는 민심의 웨침이였다.

라선에서 평양은 멀리에 있어도 난생처음 겪는 물란리속에서, 난생처음 보는 살풍경앞에서 사람들은 자기들의 목숨과 가산보다 평양을 걱정하고있었다.

그곳엔 인민의 어버이께서 계시고 모두의 고향집이 있으며 자손만대 안겨살 미래가 있어서가 아니였던가.

그 고백과 민심에 대한 검증이런듯 날이 밝을무렵에 사람

들은 서로의 모습앞에 목이 메였다. 너나없이 아닌밤중에 자리를 차고 나와 맨발에 속옷바람이건만 누구나 가슴에 안은건 위대한 수령님들의 초상화였다.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날이 밝을무렵인 새벽녘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한건의 보고를 받으시였다.

그것은 멀고먼 라선땅에서 날아온 대홍수피해에 대한 자료보고였다.

그이께서는 주의깊게 문건을 보시였다.

읽다가는 멈추시고 멈췄다간 또 읽으시며 몇번이나 보고 또 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마음은 쓰리시였다.

파묻혀버린 집들과 무너져내린 아빠트들, 흙사태와 나무뿌리에 뒤엉킨 마을들, 레루장만 앙상한채 끊어져나간 철길이며 돌사태, 통나무사태에 형체없는 도로들…

자료보고는 인민을 위해 그리도 애쓰시는분, 인민의 아픔엔 그리도 한없이 여린 그이의 가슴을 아프게 허비였다.

흐려지는 그이의 눈앞에 생사를 다투는 위기의 순간에도, 천행으로 뻗쳐온 구원의 손길앞에서도 수령님들의 초상화를 먼저 생각하고 광란하는 물속을 헤쳐간 사람들이 떠올랐다.

누구도 그들더러 그렇게 하라고 한적이 없었다.

그러나 그리도 소박하고 수수했던 이 나라의 인민, 라선의 사람들은 최후의 순간에 그처럼 고결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문건에서 눈길을 떼시며 흐려진 눈을 닦으시려 손수건을 꺼내드시였다.

아, 얼마나 훌륭한 인민인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우리 인민은 참 좋은 인민이라고 늘 외우시던 그 참뜻이 다시금 되새겨져서인가 경애하는 그이의 심중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슴속에선 수령님들을 모시듯, 수령님들을 받들듯 인민을 하늘처럼 받드시려는 심장의 호소가 고패쳐올랐다.

마침내 피해지역 인민들뿐 아니라 온 나라를 격동시키는 소식이 전해졌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지도밑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라선시큰물피해복구문제가 중요의정으로 토의되였으며 그이께서 피해복구전투지휘사령부를 친히 조직해주시고 인민군대가 라선시큰물피해복구를 전적으로 맡아 조선로동당창건기념일전으로 완전히 끝낼데 대한 명령을 하달하시였던것이다.

세계는 깜짝 놀랐다.

나라의 최고중대사인 국방사업과 관련한 전략적문제들이 토의되는 중요회의에서 큰물피해복구사업이 토의되다니?!

전류처럼 세차게, 생명의 해빛처럼 따뜻하게 흘러든 이 사랑의 젖줄기를 따라 인민군대의 정예부대들이 즉시에 라선의

대건설전역에 전개되였다. 그뒤를 이어 온 나라가 라선을 찾으며 이곳으로 파도쳐 달려왔다.

순간에 라선은 천만의 마음이 모이는 라선, 세계가 눈여겨보는 라선으로 되였다.

그해 9월 어느날이였다.

장령도 군관도 병사도 꼭같은 전투원이 되여 낮과 밤을 모르고 살림집건설의 백열전을 벌리는 속에 어느덧 날이 밝아 해빛이 쏟아져내리기 시작했다.

이때 한대의 수수한 뻐스가 그들쪽으로 오고있었다.

사람들의 눈길이 일시에 그쪽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들의 눈길은 인차 자기들이 하는 작업공정에로 다시 돌려졌다.

수시로 피해복구지역에 드나드는 지원자들을 태운 뻐스로 생각했기때문이였다.

그러나 충격은 그다음에 있었다.

건설현장에 다달은 뻐스에서 오매에도 그리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내리시는것이 아닌가.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오시였다!》

주먹밥을 씹던 꼬마병사의 웨침소리였다.

살림집건설장은 삽시에 환희로 설레였다. 여기저기서 감격에 목메인 흐느낌이 터져나왔다.

《여기가 어디라고 오신단 말입니까, 원수님!》

경애하는 그이께서 그처럼 머나먼 이 건설현장에까지 찾아오실줄 어느 누가 생각이나 해보았으랴.

평양에서 라선까지는 2천여리길.

지척도 아니였다. 나라의 크고작은 일을 돌보시느라 언제나 분분초초가 새로운 그이께 있어서는 먼길에 바쳐진 시간은 천금같이 귀중한 시간이였다.

하지만 피해지역의 사랑하는 인민들과 군인들을 한시라도 빨리 만나보고싶으시여, 피해입은 인민들이 살게 될 살림집 건설장에 하루빨리 와보고싶으시여 그이께선 순탄치 않은 2천여리 로정을 비행기로 하늘길을 날으시고 배로 바다길을 달리시였고 뻐스에 오르시여 먼지날리는 그 험한 길을 한달음에 달려오시였다.

인민들과 군인들은 뻐스에서 내리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뵙는 순간 목이 꽉 메였다.

너무도 수수한 뻐스를 타고 오신 그이께서 너무도 수수한 운동화를 신고 내리시는것이 아닌가.

모두가 경애하는 그이를 우러르며 만세도 부르기 전에 울음부터 터뜨렸다.

만사를 미루시고 2천여리를 달려오시여 건설장을 찾으신 그이의 겸허한 모습에 마중나온 건설현장일군들도 격정을 금치 못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시며 큰물피해로 살

림집을 잃고 한지에 나앉은 라선시수재민들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다고, 자신께서 직접 피해복구현장을 돌아보아야 마음이 편할것같아 찾아왔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일군들로부터 건설정형과 그동안 이룩한 성과를 보고받으시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인민군대에서 착공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불과 10여일동안에 1 300세대의 살림집벽체축조를 완전히 끝냈고 현재 콩크리트층막치기와 내외부미장작업을 진행하고있으면 대단하다고 하시며 한낮의 뜨거운 해볕이 내려쪼이는 나지막한 둔덕에 서시였다.

## 일화 대화봉이 전하는 이야기

완공된 마식령스키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시운전중에 있는 삭도를 타보시겠다고 하실 때였다.

그이께서는 위험하다고 만류하는 일군들을 가볍게 나무람하시며 차거운 삭도의자에 앉으시였다. 그러시고는 인민들이 리용할 모든 주로들을 다 보겠다고 하시며 대화봉 정점으로 향하시였다.

그이의 모습을 우러르는 일군들의 가슴은 뜨겁게 젖어들었다.

얼마후 삭도에서 내리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삭도가 안전하면서도 편리하게 설치되였고 주로들의 상태도 나무랄데가 없다고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한 나라의 령도자가 준공식도 하지 않은 스키장에서 아찔하게 높이 설치된 삭도를 타고 인민의 안전을 념려하여 하늘을 난적이 있었다는 사실은 동서고금에 없었다.

그곳에서 살림집지구며 유치원, 탁아소를 비롯한 공공건물들의 건설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먼지이는 건설장을 돌아보시며 군인들이 이룩한 자랑찬 위훈을 거듭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콩크리트층막버팀대들이 아직 그대로 서있는 작업장에까지 들어가보시며 살림방들의 크기와 구조도 가늠해보시고 앞마당에는 주민들이 남새를 심어먹을수 있게 터밭도 조성해줄데 대해 따뜻이 이르신 원수님께서는 살림집바깥벽에 품이 좀 들더라도 띠장식미장을 할데 대해 일깨워주시고 지붕과 벽체도 보기 좋은 색갈의 가열도장판과 외장재로 조화가 되게 시공하도록 세심히 가르쳐주시였다.

큰물피해를 입은 인민들에게 이전과는 대비도 할수 없는 희한한 선경마을을 안겨주시려는 어버이의 뜨거운 사랑이 깃들어있는 그이의 가르치심.

머나먼 조국의 최북단에까지 찾아오시여 사랑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며 걸음걸음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그이를 우러르며 일군들은 또다시 뜨거운 격정을 금치 못했다.

그러는 그들을 믿음에 찬 시선으로 바라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라선시피해복구전투에 동원된 전체 지휘성원들과 군인들이 피해복구전투에서 승리의 개가를 높이 울림으로써 우리당 력사에 또 하나의 인민사랑의 새 전설을 새기리라고 믿는다고 확신에 넘치신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하늘길, 배길, 령길로 2천여리를 달려 오시여 위대한 사랑과 령도의 자욱을 새기신 원수님께서 떠나시게 되였다.

인민들과 병사들이 목청껏 만세의 환호를 올리며 바래워드렸다.

자신께서 타신 뻐스를 따라 땀젖은 작업복차림그대로 달리며 환호를 올리는 사람들을 향해 오래도록 손저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안광에는 넘칠듯 뜨거운것이 고여올랐다.

너무나도 조용히, 소문없이 오신 걸음이여서 그이께서 가신 후에도 라선시인민들은 선뜻 믿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원수님 오셨다는 그 소식이 바람처럼 온 라선땅에 퍼져갔고 원수님께서 서계셨던 건설장둔덕으로 인민들이 물밀듯이 찾아왔다.

원수님의 발자욱이 아직도 남아있는듯한 그 자리에 눈물방울을 떨구며 한줌두줌 깨끗한 자갈을 모아 깔면서 사람들은 누구나 이렇게 말했다.

우리 원수님은 인민을 위한 곳이라면 천리나 만리가 아니라 우주의 한끝이라도 찾아가실분이시라고.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라선피해지역에 대한 현지지도소식에 접한 해외에 사는 고령의 동포는 이렇게 자기의 심정을 터놓았다.

《백성들의 고통에 순간이라도 참기 어려워하는 령도자가

한달음에 2천여리를 달려와 건설자와 홍수피해자들을 격려하는 모습은 탁상과 별장을 오가며 말정치를 하는 정객들과 얼마나 엄청난 대조를 이루는가.》

어찌 라선뿐이랴.

인민이 살고 군인들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비록 만리길에 있다 해도 경애하는 원수님께는 언제나 지척이고 만사를 불문하고 가보셔야 할 인민행장정의 불변의 지점들이다.

경애하는 그이께서 조국과 인민을 위한 불철주야의 대장정의 첫걸음을 떼신 그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민을 찾아, 군인들을 찾아 얼마나 많은 길을 걷고 또 걸으시였는가.

언제나 그 어디서나 자신을 진심으로 따르는 인민의 마음을 혁명의 제일재부로 소중히 간직할것이라고, 용감하고 슬기롭고 아름다운 우리 인민을 위하여 만짐을 지고 가시밭도 헤치며 미래의 휘황한 모든것을 당겨올것이라고 하시며 초인간적인 불굴의 용진력으로 헤쳐가신 숫눈길, 건느신 바다길은 그 얼마였던가.

그 길에는 자그마한 쪽배와도 같은 목선을 타시고 풍랑사나운 바다길을 헤치며 나라의 한끝 섬마을을 찾으신 눈물겨운 이야기도 있으며 로동자들이 일하고있으므로 무조건 들어가보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유해가스가 나는 작업현장에 서슴없이 들어서신 사랑의 이야기도 있다.

인민들은 과학자들을 금방석에 앉히시려고 연풍과학자휴

양소의 터전부터 설계, 건설과 완공에 이르기까지에 끝없는 심혈을 바치신 그이께서 가시덤불과 눈무지속을 어떻게 헤쳐가시였으며 현대적으로 일떠선 아빠트의 17층에 꾸려진 휴식터가 인민의 기쁨이 넘쳐나는 행복의 휴식장으로 꾸려졌는지 직접 보시려고 그이께서 혹독한 습기속에 걸어올라가신 층계가 그 몇개였는지 다는 모른다.

삼라만상이 다 잠든 야밤삼경에 국가방위력의 일층 강화를 위하여 사생결단의 길을 떠나지 않으면 안되였던 만단사연이 깃든 그 나날들과 사람들이 다 즐기며 휴식하는 명절날, 일요일에도 품안아 애지중지 키워가는 원아들을 찾아 대성산종합병원이며 동해기슭의 육아원과 애육원 그리고 방방곡곡의 공장, 기업소들과 학교들에 사랑의 자욱을 새겨가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고를 인민은 잊지 못한다.

칭송의 목소리

## 끝없이 새겨지는 인민사랑의 화폭

**김정은**각하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풍모는 그이께서 지니신 투철한 인민관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며 인민을 위하여 뛰고 또 뛸데 대하여 당부하신다.

그이께서 새겨가시는 인민사랑의 화폭은 공장과 농촌, 마을과 학교, 유치원, 탁아소에 이르기까지 조선의 방방곡곡에 끝없이 펼쳐지고있다.

조선인민은 **김정은**각하께서 베푸시는 사랑에 누구나 감격을 금치 못하면서 그이의 령도를 일편단심 받들어갈 일념에 넘쳐있다.

(캄보쟈신문 《크마애 아마따》의 글중에서)

무더운 삼복철의 고온속에서, 때로는 엄동설한의 강추위속에서, 어느때는 일촉즉발의 첨예한 분위기가 시시각각 생명을 위협하는 속에서 온 나라의 방방곡곡을 찾아 그이 이어가시는 인민행장정은 순간의 주춤도, 멈춤도 몰랐다.

여기가 어디라고 오신단 말입니까, 원수님!

이 땅 그 어디에서나 울려나오는 이 목소리는 위대한 태양의 뜨거운 빛발속에 늘 접하며 사는 이 나라의 민심이 터치는 더없는 진정이다.

정녕 지척이여도 만리여도 인민이 살고 군인들이 있는 곳이라면 다 찾아가시여 행복의 꽃바다를 펼쳐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헌신의 대장정속에 이 땅의 새날이 밝고 해가 저물었거니 동시대 사람들은 물론 우리의 후대들은 력사의 새 페지에 인민을 위하여 안가신데가 없는 인민의 태양 **김정은**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을 금문자로 아로새겨넣을것이다.

# 성스러운 멸사복무의 려정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헌신의 장정은 인류사에 그 류례가 없는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의 려정이다.

이 세상에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한생토록 정력을 쏟아부었다는 위인은 많았지만 자신을 깡그리 바쳐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였다는 말은 그 어느 책갈피에도 없다.

인민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헌신은 물론 인민을 위해서는 생명도 서슴없이 바치는 진정한 인민의 어버이만이 터칠수 있는 심장의 토로인 멸사복무!

인민을 위해 일생을 바쳤다고 하는 력대의 위인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인민에 대한 복무의 특유성은 바로 이 멸사복무에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의 10년려정우에 얼마나 많은 사랑과 헌신의 이야기, 얼마나 많은 인민의 꿈이 꽃펴나 세인의 심장을 뜨겁게 울려주며 시대를 격동시켰던가.

이 시각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철주야의 현지지도를 늘 가까이에서 목격하던 감격의 그 나날들을 언제나 잊지 못해

하는 국가의 한 책임일군의 절절한 목소리가 심장을 울린다.

《독서를 즐겨하는 덕에, 경영상필요로 해외에 많이 나들며 수시로 국외의 사실자료에 접하는 덕에 저는 세계 이름난 정치가들에 대한 견해를 일정하게 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한생 그 무엇에 몰두하여 혼신의 힘을 쏟은 국가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적지 않게 알고있습니다.

서방의 한 언론인은 평생 독신으로 산 영국녀왕 엘리자베스1세가 <나는 영국과 결혼했다.>고 한 말을 두고 <일신상의 모든 잡사를 뒤전에 놓고 국가일에만 전심전념한 녀왕의 평생을 들여다보게 하는 창구>라고 하면서 력대로 성공한 정치가들은 례외없이 자신을 위해서보다 남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바치였다고 쓴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의 저서에 <그렇지만 그는 휴식과 안정을 절대의 권리로 간주하였다. 대체로 모든 나라의 국가수반들은 시간별, 일별, 주별에 따라 세워진 집무계획에 따라 일을 한다. 이 집무일과를 어기는 일은 거의 없다. 공식적인 사업계획과 함께 충분한 휴식도 계획되여있는바 이것도 어기는 일이 거의 없다. 주말휴식과 피서지에서의 휴양도 다 계획되여있어 국가수반은 이에 따른다.>고 서술하였습니다.

이 글은 인류정치사에 뚜렷한 흔적을 남긴 정치가, 국가사업에만 전심전력한 국가수반이라 해도 그가 누구이든 휴식을 철칙으로 여겼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그러나 동서고금을 둘러보아도 자신의 한몸을 초불처럼 불태우시며 명절날, 휴식일도 없이 오로지 인민의 꿈을 꽃피우시기 위해 사랑과 헌신의 대장정을 불철주야로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과 같으신 절세의 위인은 없습니다. 원수님 걸으시는 성스러운 멸사복무의 그 려정우에 인민의 꿈을 담은 얼마나 값지고 무수한 열매들이 알차게 주렁졌습니까.

멸사복무!

인민에 대한 복무정신, 인민에 대한 사랑의 열도를 론함에 있어서 이보다 더 뜨겁고 희생적이며 절대적인 복무의 대명사는 없을것입니다.

멸사복무, 그것은 말그대로 자기의 한목숨과 인민의 행복을 맞바꾼다는것인데 생명을 내건 이런 복무, 죽음을 각오한 이런 복무는 인류력사 그 어느 시대, 그 어느 나라에서도 일찌기 있어보지 못하였습니다.

이 땅우에 마련된 모든 기적과 행복의 열매들은 인민의 꿈을 꽃피우시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나갈 철석의 의지를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천만고생과 바꾼것이라는 철리가 멸사복무라는 이 시대어에 그대로 비껴흐르고있습니다.》

체험자가 터치는 심장의 목소리를 타고 절세위인께서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의 성스러운 려정을 가고 또 가신 력사의 그 나날들이 우렷이 안겨온다.

주체102(2013)년 10월 어느날의 깊은 밤이였다.

미림승마구락부건설을 책임진 일군들은 좀처럼 가슴을 진정하지 못하고있었다.

그도그럴것이 방금전 이곳을 돌아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걱정을 끼쳐드렸던것이다.

준절하게 하시던 질책의 말씀이 그냥 귀전에서 메아리쳤다.

봉사건물에 가시여서는 봉사건물바깥벽에 통나무를 댔는데 창문웃부분과 밑부분에만 대다나니 보기 싫다고, 통나무가 모자라서 채 붙이지 못한것같은감이 든다고 지적하시였고 홀을 보시면서는 홀을 넓게 꾸리고 거기에서 승마복도 대여해주고 필요한 상품도 팔아주게 하면 좋겠는데 홀을 작게 꾸리고 필요없는 방들만 꾸려놓았으니 아이보다 배꼽이 큰 격이 되였다고, 설계가들이 설계를 하면서 머리를 쓰지 않다나니 봉사건물을 얼치기로 만들어놓았다고 걱정하시였다.

…

안타까움이 일군들의 가슴을 허비였다.

그때로 말하면 완공의 날까지 불과 며칠밖에 남아있지 않던 때였다. 인민과 약속한 일은 하늘이 무너져도 제기일에 반드시 해내야 한다는것이 습벽처럼 되여버린 그들로서는 참으로 심장이 터지는 일이였다.

그러니 이 일을 정녕 어쩌면 좋단 말인가.

이제 설계를 전부 다시 검토하고 수정방안을 찾자고만 해

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것은 뻔했다. 또 그렇게 되는 경우 완공날자를 어기게 된다는 결론밖에 더 나올것이 없었다.

일군들은 가슴에 재가 앉았다. 건설장을 망연히 바라보느라니 근심이 밀물처럼 차올랐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문득 건설장으로 강렬한 전조등빛이 비쳐들었다. 뒤이어 승용차의 발동소리가 들려왔다.

일군들이 허둥지둥 달려가니 뜻밖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차에서 내리시는것이였다.

일군들모두의 눈길이 손목시계에 미쳤다.

3시 10분.

그러니 건설장을 떠나셨던 그이께서 3시간만에 다시 오신것이 아닌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자책과 놀라움이 뒤섞인 일군들의 얼굴을 한동안 아무 말씀없이 지켜보시다가 나직한 어조로 좀전에 여기에 와서 봉사건물을 돌아보고 건설을 거칠게 한데 대하여 되게 비판하였는데 그대로는 잠을 이룰수 없어 다시 왔다고 하시며 건설대상들이 있는 곳으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그이를 따라서는 일군들의 눈굽은 뜨겁게 젖어들었다.

제구실도 바로 못한 우리들이 무엇이라고 이처럼 밤길을 또다시 오신단 말인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불철주야의 현지지도의 길을 걷고 또 걸으시는 경애하는 그이의 헌신의 세계는 그끝이 과연 어디인가.

생각할수록 그이에 대한 감사의 정과 함께 미림승마구락부를 세계에서 으뜸가는 승마구락부로 훌륭히 일떠세워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안겨주시기 위해 바치시는 그이의 불같은 열정에 고개가 숙어졌다.

그리고 하루밤에 두차례나 찾아오신 그이의 걸음걸음에서 어떻게 하나 미림승마구락부를 세계적인 창조물로 건설해야 한다는 높은 요구와 함께 또 그렇게 할수 있다는 하늘같은 믿음을 눈물겹게 새겨안을수 있었다.

미림승마구락부의 일군들, 건설자들이 더더욱 격정에 목메인것은 그이께서 떠나가신 후 공사장을 쩌렁쩌렁 울렸던 방송원의 랑랑한 목소리를 들었을 때였다.

(아니, 그럼 경애하는 그이께서 이 공사장을 떠나신 후 저 멀리 최전연의 병사들을 찾아가시였단 말인가. 그러니 그이께서는 한밤을 꼬박 지새우시며 현지지도의 길에 계신것이 아닌가.)

방송원의 목소리를 눈물속에 들으며 공사장안의 모든 사람들이 하늘중천에 떠오른 태양을 우러렀다.

눈부신 태양!

그로부터 발산되는 해빛이 그처럼 따사로운것은 거대한 태양

이 자기를 깡그리 불태우기때문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오늘 자신을 그렇게 불태우시며 멸사복무의 려정을 끊임없이 이어가고계시는것이 아닌가. 바로 그 려정우에 인민의 꿈이 우후죽순처럼 꽃펴나는것이 아닌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며 자기들을 몇시간만에 다시 찾아오셨던 그이의 불같은 모습을 다시금 그려보았다.

3시간만에 다시 달려오신 원수님의 밤길!

그 길은 마음속에 오로지 인민, 인민만을 안으시고 인민을 위한 길만을 걸으시는 인민의 어버이만이 걸으실수 있는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야밤삼경의 길, 멸사복무의 려정이였다.

바로 그런 무수한 헌신의 밤길과 더불어 경애하는 원수님의

### 일화 떼수 없는 습관

어느날 24시가 가까와올무렵에야 사업을 마치시고 잠시 피로를 푸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또다시 서둘러 집무실로 향하시였다.

일군들의 얼굴은 삽시에 굳어졌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그들에게 미소를 지어보이시며 이제는 밤을 새우면서 일하는것이 습관이 되여 나는 일없다고,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동무들은 어서 휴식하라고 흔연히 이르시였다. 그러시며 보다 진중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나는 밤을 새워가며 일하군 하는데 이것이 이제는 뗄수 없는 습관으로 되여버린것같습니다.》

뗄수 없는 습관!

정녕 그것은 조국과 인민을 위한 헌신에 뿌리를 둔 절세위인의 습관이였다.

성스러운 멸사복무의 려정우에는 그 얼마나 많고많은 인민사랑의 이야기들이 꽃펴났던가.

그 길우에는 푸르른 물결에 비낀 인민들의 행복넘친 모습을 어서 안아오고싶으시여, 인민들에게 더 큰 기쁨을 안겨줄 보배강의 출렁임소리를 한시바삐 듣고싶으시여 아득히 뻗어올라간 위험한 철사다리도 서슴없이 타고 오르신 그 눈물겨운 사연도 있다.

그 불멸의 려정우에는 머나먼 전선길에서 방금 돌아오시였건만 아이들을 위한 소년단야영소의 개건공사가 걱정되시여 잠시나마 휴식하시기를 바라는 일군들의 간절한 청도 마다하시고 그날 새벽으로 공사장을 찾아 험한 눈보라길을 달려가신 어느 일요일의 이야기도 있으며 한몸의 위험은 뒤전에 미루어놓고 시운전도 하지 않은 삭도를 타고 아찔한 창공을 날으면서 그것을 리용할 인민들의 안전을 가늠해보신 마식령의 전설도 있다.

여기에 한 작가의 수첩에 씌여진 체험의 글발이 있다.

《…인민들의 입에 심야강행군이라는 말이 자주 오르군 하던 2015년 11월 어느날이였다.

례사로운 그날 출근길에 오른 평양시민들, 아니 온 나라 인민들은 바로 간밤 22시 30분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하철도의 개선역에서 새로 만든 지하전동차를 타시고 인민들이 리용할 전동차의 시운전을 몸소 지도하신 사실을 알게 되였다.

22시 30분에?! 아니, 그럼 우리가 단잠에 든 시간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 수천척 지하안에 계시였단 말인가?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들사이에 오고가는 이 말에 그 누구나 눈굽을 적시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어제는 하늘길에서 한몸의 위험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만든 경비행기를 타고 몸소 시험비행을 하시더니 오늘은 깊은 땅속길을 누비시며 인민이 타고 다닐 지하전동차의 첫 손님이 되시여 편리를 헤아려보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낮에는 낮대로 인민생활향상의 전구들을 찾아 초강도강행군을 하시고 밤에는 밤대로 첨단문명의 지름길을 앞장에서 열어가시며 심야강행군을 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며 이 땅의 인민들 누구나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다.

인민을 위한 사랑의 장정, 멸사복무의 려정을 평방으로가 아니라 립방으로 넓혀가시며 바다로, 하늘로, 땅속으로 종횡무진하시는 그이의 헌신이 사람들의 가슴을 세차게 쥐여흔들었다.

정말 인민을 위한 만짐에 최대급행이요!

언제인가 누군가 토로한 이 말이 온 나라 인민들속에 퍼지기 시작한것도 바로 이무렵일것이다.

인민을 위한 만짐에 최대급행!

아직은 어느 이름난 문사도 이런 명문장을 만들어내지 못하였다. 하지만 인민이 심장의 진정을 터쳐 금언의 명문장

을 말하고있다.

나의 옆에서 걷고있던 80고령의 한 늙은이가 누구라에게 없이 조용히 뇌이고있었다.

얼마나 힘드시겠소. 우리 원수님도 인간이신데!…

아, 정녕 그렇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도 인간이시다. 인간이시기에 그이께서도 쉬셔야 하며 인간이시기에 그이께서도 가정의 락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이께선 그것을 모르시는가? 아시면서도 그 길로는 가실수가 없는 이 나라 천만사람들중의 오직 한분이신가?…

맑스는 언제인가 위대한 력사적발전시기의 하루는 20년과도 대등하다, 후에 가서 20년이 하루로 압축되는 시기가 올수도 있을것이라고 말한적이 있다.

그러나 맑스도, 그후의 어느 위인도 자기의 활동으로 그런 위대한 격변의 시기를 마련하지 못하였다.

그러한 위대한 격변이 오늘 무한대한 열정과 끝없는 용진력을 지니신 불세출의 위인 우리 원수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이의 지칠줄 모르는 멸사복무전, 이를 생각하면 저절로 눈물이 나온다.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져내려 더 쓸수가 없다. 이렇게밖에는 더 쓸수가 없는 이 야속한 붓아!…》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의 려정은 령도자로서의 사명감만으로, 정치적의지 하나만으로 걸을수 없다.

오로지 그처럼 위대하고 귀중한 인민에게 행복의 꽃주단을 펼쳐줄 일념으로 심장을 끓이는 불타는 열정.

세상에서 나의 조국, 나의 인민이 제일로 번영하고 행복해야 한다는 강렬한 의지와 열망.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바로 이 열정, 이 의지와 열망으로 심신을 녹이시며 쉬임없이 멸사복무의 자욱을 새겨가시는것이다.

언제나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의 려정에 집무실을 두시고 온 나라 방방곡곡을 찾고찾으시며 력사에 류례없는 창조와 변혁의 기적, 세계적인 사변들과 거창한 전변들을 련이어 안아오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그이께서 걸으신 멸사복무의 천만리려정만큼 인민의 웃음소리는 더욱더 높아만 갔고 그이께서 흘리신 땀방울, 맞으신 눈비만큼 무수한 행복의 열매들

칭송의 목소리

### 김정은각하는 자애로운 어버이, 운명의 태양이시다

**김정은**각하께서는 **김정일**각하의 인민사랑의 세계를 그대로 체현하고계신다.

그이께서는 민족의 대국상을 당하고 낮에 밤을 이어 비분에 몸부림치는 인민들의 편의를 최우선적으로, 절대적으로 보장해줄데 대하여 간곡히 가르치시였다.

어버이를 찾고 부르며 혼절하는 인민들에 대한 의료보장대책도 철저히 세우고 더운물도 따라주며 일군들이 현장에서 인민들을 위로하라고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김정은**각하는 **김정일**령도자와 꼭같으신 조선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 이 세상 끝까지 따를 운명의 태양이시다.

(방글라데슈신문 《블리쯔》의 글중에서)

이 주렁지고 기름진 창조물들이 파도쳐 솟구쳤다.

장구한 인류사에서 순간이라고 할수 있는 그처럼 짧은 기간에 이룩된 인민을 위한 경이적인 기적들은 언제나 인민을 가슴에 안으시고 인민이 아직은 다 모르는 뼈를 깎는 고통과 피를 말리는 고뇌와 심혈을 바치시며 자신을 혹사시켜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눈물겨운 고생과 헌신, 뜨거운 로고와 맞바꾼 위대한 승리이다.

하건만 그이께서는 인민의 꿈을 꽃피우시기 위한 그 길에서 만족을 모르신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멸사복무의 려정만을 변함없이 걸어가실 열화같은 맹세를 다지신 당창건 일흔돐 경축광장에서의 그날로부터 10여일이 흐른 어느날 자신의 심중을 이렇게 터놓으시였다.

인민을 위해서는 한몸이 설사 한알의 모래알이 되여 길우에 뿌려진다고 하여도 더 바랄것이 없다는 고결한 인생관을 지니고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여야 한다.

한알의 모래알이 되여 뿌려진대도.

참으로 이 숭고한 뜻으로 이어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위한 멸사복무의 려정은 그 사랑의 열도에 있어서나 헌신의 열정에 있어서 력사에 있어본적이 없는 전대미문의 인민행장정이다.

1805년에 도이췰란드의 작곡가 베토벤에 의하여 창작된 기악련쇄곡 《열정》이 있다.

표현이 강렬하고 규모가 웅장하며 기교가 높은 《열정》은 베토벤의 음악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작품의 하나이다. 유럽의 한 음악평론가는 이 곡을 두고 《세기를 이어오며 인간의 헌신은 베토벤의 곡 <열정>에 의해 가장 아름답게 구가되였다. 과거사는 물론이고 현재도, 래일에도 자기의 목표를 향한 인간의 헌신을 더 높게, 더 깊이 찬미하는 그 이상의 곡은 나오지 못할것이다.》고 피력한바 있다.

이것이 정녕 옳은 견해이겠는가. 물론 동서고금의 하많은 력사책들에 기록된 명인, 위인들이 당대에 어느한 특정한 분야에서 보여준 헌신을 두고 한 말이라면 납득이 갈수도 있다.

하지만 21세기의 오늘날에 조국과 인민을 위한 거창한 위업을 한몸에 안고 태동하는 용암마냥 부글부글 끓어번지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불타는 심장, 인민이 알고 세계가 격찬하는 절세위인의 그 위대한 심장에서 뿜어나오는 무한대한 헌신의 열정을 베토벤이 다시 살아 목격했다면 아마도 그는 자기가 고심참담끝에 창작한 곡 《열정》을 다시 썼을것이다.

# 창조와 건설의 대번영기

흘러온 10년의 령마루에서 바라보는 이 땅의 모습은 참으로 멋있고 아름답다.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세월이라지만 한해한해를 10년맞잡이로 전변의 큰걸음을 성큼성큼 내짚으며 천지개벽의 새 모습을 펼친 우리 조국이다.

시대의 변화는 건축에서 뚜렷이 표현된다. 건축만큼 나라의 발전면모를 직관적으로, 종합적으로, 웅변적으로 보여주는것은 없다.

건축으로 보는 조선의 모습, 참으로 그것은 심취될수록 세인의 경탄을 자아내는 기적으로 충만되고 인류의 지성이 머리숙일만큼 멋있고 황홀한 문명으로 가득찬 아름다움의 절정이다.

그림같이 황홀하여 눈이 부신 땅과 바다!

정녕 노래 《조국찬가》의 구절 그대로이다.

풍치수려한 대동강반에 일떠선 미래과학자거리 46층에 오르면 황홀경을 펼친 평양의 일만경이 한눈에 굽어보인다.

바로 이곳에 서시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한편의 시

를 읊으시듯 말씀하시였다.

정말 멋있다고, 평양의 모습이 날로 웅장화려하게 변모되여가고있다고.

멋있는 시대, 스스럼없이 터져나오는 이 불덩이같은 심장의 분출속에 건설의 대번영기와 더불어 날로 새로와지는 주체조선의 문명에 대한 열렬한 찬가가 있다.

창조와 건설의 대번영기!

경애하는 원수님을 따라 조국의 대지우에 아로새겨온 대건설실록의 갈피를 펼쳐보면 세상을 놀래우는 승리와 기적들로 충만된 이 땅의 눈부신 전변상이 그대로 어려온다.

건축 및 거리형식의 모든 요소들을 완벽하게 갖춘 창전거리와 현대적인 문화정서생활기지인 릉라인민유원지, 조선인민군무장장비관과 같은 웅장화려한 모습으로 장식된 2012년.

1 000여세대의 살림집과 학교, 병원, 탁아소, 유치원, 상점들이 갖추어진 은하과학자거리와 옥류아동병원, 문수물놀이장, 마식령스키장 등의 눈부신 자태와 더불어 건설의 최전성기로 빛을 뿌린 2013년.

주체적건축미학사상의 요구대로 선편리성, 선미학성을 철저히 구현한 위성과학자주택지구와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숙, 연풍과학자휴양소 등 아름다운 건축물들로 인민의 보금자리를 더욱 넓힌 2014년.

현대미와 조형미가 결합된 미래과학자거리와 평양국제비행

장 항공역사,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등 시대를 대표하는 훌륭한 건축물들이 웅장하게 일떠선 2015년.

주체건축의 본보기인 과학기술전당의 준공식으로 새해의 첫 문을 열어제낀 2016년.

대자연의 재난을 가시기 위한 투쟁을 동반하는 속에서도 규모와 공사량에 있어서 미래과학자거리의 두배가 훨씬 넘는 려명거리를 불과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일떠세운 기적의 신화가 태여난 2017년.

백두산기슭에서부터 동해의 명사십리, 양덕군의 온천지구에 이르는 머나먼 길을 주름잡아 달리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삼복철강행군으로 인민의 심장을 격정으로 끓게 한 2018년.

백두산아래 첫동네 삼지연땅에 산간의 리상도시가 솟아오르고 로동당시대 문명창조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양덕온천문화휴양지, 중평남새온실농장과 양묘장 등 인민의 복리를 활짝 꽃피우는 귀중한 재부들이 일떠선 2019년.

풍치수려한 대동강반의 명당자리에 최상급의 평양종합병원 건설착공식이 진행된 소식과 큰물과 태풍으로 혹독한 재난을 입었던 은파군 대청리와 금천군 강북리, 리원군 학사대리, 개성시와 황해남도 등 피해지역들에서 새집들이경사로 흥성거린 2020년.

1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평양의 동쪽관문에 초고층, 고층살림집들이 세상에 보란듯이 솟아났고 특색있는 보통강강

안다락식주택구가 일떠섰으며 검덕지구에 사상초유의 산악협곡도시가 일떠서고있는 2021년…

하나하나 꼽아보자고 해도 가슴벅차다.

우후죽순과도 같은 그 기세는 세계는 물론이고 그 창조의 주인들까지도 놀라게 하고있다.

건설의 대번영기와 더불어 이 땅우에 솟아난 하많은 새 이름, 새 모습들을 하나의 화폭으로 집약하면 문명발전의 대로천전람관을 이루리라.

로동당시대의 화려한 꽃다발과도 같은 무수한 창조물들에는 하나의 이름처럼 공통점이 있다.

인민이다.

공화국의 건설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제1차 건설부문일군대강습을 마련해주시고 력사적인 서한 《당의 주체적건축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건설에서 대번영기를 열어나가자》를 보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다시금 되새겨본다.

주체의 사회주의건축은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제일주의건축이라고, 우리 나라에서 건축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라고 하시며 건설에서는 마땅히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 편의가 최우선시되여야 하며 인민들의 정서와 미감에 맞게 사상예술성과 실용성이 완벽하게 보장되여야 한다고 하신 서한의 구절구절을.

인민을 위한 열과 정이 얼마나 불같으시면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건축분야에 구현하시여 인민대중제일주의건축이라는 세상에 없는 정의를 내리시랴.

건설의 대번영기라는 말은 이렇게 인민과 더불어 시작되였다. 인민의 요구와 리익, 인민의 행복을 위해 태여났다.

인민을 하늘높이 떠받드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그이께서는 인민을 위한 문명창조에서 《이쯤하면》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으신다.

《어느한 나라의 건축가들은 과학기술전당을 돌아보고 조선의 얼굴이 보이는 세계적인 대작이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하나를 건설해도 국보적인 건축물, 세계적인 건축물을 창조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위인상에 대하여 긍지높이 말해주었습니다.》

머리희슥한 한 건축가의 토로에 누구나 가슴뿌듯이 받아안는 철리가 있다.

인민들에게 안겨주는 모든 창조물들은 세계최고의 수준이여야 하며 무엇을 하나 건설하여도 오늘이 아니라 50년, 100년을 내다보면서 후세에 물려줄수 있고 오늘의 시대를 대표할수 있는 건축물이 되여야 한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뜻이 담겨져있다.

이제 우리 인민이 제일 잘사는 세상을 만드시겠다고, 이제부터 우리의 투쟁구호는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누**

리게 하자!》이라고 하시며 경애하는 원수님 최고에 또 최고를 끊임없이 창조하여 인민들에게 안겨주고계신다.

그이께서 새 건축물들을 보시며 제일 기뻐하시는 때는 과연 언제였던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연풍과학자휴양소를 돌아보시며 말씀하신것처럼 그 순간은 바로 인민들에게서 합격받을수 있다고 기꺼이 여겨지는 그 순간이다.

절세위인의 현지지도강행군을 가까이에서 체험한 한 일군이 지금도 눈물겹게 외우는 이야기가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중평남새온실농장과 양묘장건설장을 찾으시였던 2019년 10월 어느날이였습니다.

오랜 시간 온실들과 새로 일떠선 종업원살림집들을 돌아보시느라 날이 어두워졌지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선뜻 그곳을 떠나지 못하시였습니다. 지방의 농촌지역 인민들이 이런 좋은 집에서 살게 된다고 생각하니 춤이라도 추고싶다고 하시며 그이께서는 환하게 웃으시였습니다.

얼마나 좋은 밤인가고, 오늘같은 날이 한달에 한번씩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하신 그이의 말씀에 동행한 우리 일군들은 목이 꽉 메여왔습니다.

그이께서는 이런 살림집에서 살면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가 절로 나올것이라고, 온 나라 어디서나 이 노래가 더 높이 울리게 하기 위해 더 힘껏 일해야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진다고 하시며 오늘은 여기서 이 한밤을 새고싶다고 불같은 심중을 터놓으시였습니다.

인민들에게 새 보금자리를 안겨주신것이 그리도 만족하시여 날저문 마당가의 수수한 돌의자에 앉으시여 한량없는 기쁨을 금치 못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

그 영상을 우리러 북방인민들만이 아닌 온 나라 인민들모두가 뜨거운 눈물로 두볼을 적시였습니다.》

훌륭한 살림집을 받아안고 꿈만 같은 행복에 겨워있는 인민들에게 더 좋고 더 훌륭한 백점, 만점짜리 주택, 현대적인 거리를 마련해주시려 그토록 심혈을 기울이시는 그이의 높으신 리상은 한계를 모른다.

인민에 대한 복무정신이 그렇듯 열렬한분이시기에 그이께는 하루 24시간이 언제나 모자랐고 인민을 위한 길에서는 천리도 지척이였다. 인민을 위한 사색과 창조는 언제나 즐겁기만 하시였다.

인민에 대한 불같은 정과 열을 하나하나의 건축물들에 기울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심혈과 로고, 비범한 창조의 세계는 상상을 초월한다. 오래동안 건축창조분야에서 일해온 일군들은 하나같이 이야기한다.

때로는 밤을 꼬박 밝혀 연구하신 수천페지나 되는 최신 건축자료를 내려보내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형성안현상응모까지 조직해주시며 건축가들을 걸음걸음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세상에는 위인들도 많고 건축의 발상지, 건축의 황금시대를 자랑하는 나라들도 있다. 세계건축사에 기록된 로마네스크, 고시크, 르네쌍스, 바로코, 로코코건축양식으로부터 각양각색의 건축리론들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류의 탐구와 사색이 빛발쳤던가.

하지만 경애하는 원수님처럼 오늘만이 아니라 먼 앞날까지 내다보시며 인류가 들고나가야 할 건축대강을 내놓으시고 몸소 건설주, 시공주, 창작가가 되시여 건설의 대번영기를 펼치신 이야기는 있어본적이 없다.

그이께서 한자욱 떼시면 곧 거대한 변이 뒤따랐고 또 한자욱 옮기시면 나라의 면모가 달라졌다. 그이께서 건설장들을 찾으실 때마다 마식령속도, 조선속도, 새로운 평양속도, 려명신화 등이 창조되여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아침과 저녁이 다른 신화적인 건설기적들로 세계를 놀래웠다.

금시라도 들려올것만 같다.

인민들에게 한시바삐 행복의 보금자리를 안겨주시려 란간없는 계단을 두개, 세개씩 나는듯이 짚고 오르시던 발자욱소리가, 몸소 종이우에 그림을 그려가시며 건축의 묘리를 가르쳐주시던 그이의 옷자락에 감겨돌던 릉라도의 모래바람소리가, 연풍과학자휴양소건설장의 험한 길을 성큼성큼 질러가시며 시공의 묘안을 가르쳐주시던 가슴뜨거운 그날의 음성이…

눈앞에 어려온다.

건설장을 찾으신 그이의 옷자락을 흠뻑 적시던 비물이며 인민의 가슴에 무겁게 매달리던 그이께서 신으셨던 신발의 흙덩이, 아슬한 공중삭도에 제일먼저 오르시여 그 안정성을 확인하시던 마식령스키장의 겨울날, 삼복의 폭열속에서 흙먼지 자욱한 건설장을 오랜 시간 돌아보시느라 땀에 젖어들었던 어랑천발전소건설장,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

그 길은 땅에만 새겨진것이 아니였다. 인민의 웃음꽃이 피는 보금자리를 한시바삐 안아오실 일념으로 그이께서 오르시였던 하늘길들, 엄혹한 자연재해로 하여 불행에 잠겼던 인민에게 하루라도 더 빨리 행복을 주시려는 열망으로 가슴 불태우시며 조국땅 한끝에로 이어가셨던 하늘길, 바다길…

세상은 아직 이렇듯 위대한 정열과 헌신의 세계를 모른다. 인민을 위한 그렇듯 무한한 헌신의 세계가 력사의 어느 갈피에 기록된 적 있었던가.

칭송의 목소리

### 조선에서 건설의 대변영기가 펼쳐지고있다

조선에서는 시대를 대표하는 기념비적창조물들과 아름다운 사회주의거리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나고 건설의 대변영기가 펼쳐지고 있다.

**김정은**각하께서 펼치신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웅대한 설계도가 열매를 맺고있다.

세상을 놀래우는 세기적인 변혁과 거창한 창조는 **김정은**각하의 정력적인 령도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말레이시아 《광명일보》의 글중에서)

이렇듯 숭고한 위민헌신이, 인민을 위해 바치시는 그이의 사색과 심혈, 로고가 이 땅우에 새로운 현실, 놀라운 변혁을 가져왔다.

건축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의 손길따라 온 나라를 또 한번 몰라보게 변모시킬 새로운 대건설시대가 장엄하게 펼쳐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주체건축의 새로운 비약과 발전을 안아올 웅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주체111(2022)년 2월 제2차 건설부문일군대강습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불멸의 대강이 천만의 심장을 무한히 격동시키고있다.

이번 대강습을 계기로 건설사업전반을 새롭게 혁신하여 주체건축을 세계적수준에서 또 한번 질적으로 비약시키자고 한다고 하시며 앞으로 20～30년을 기한부로 온 나라 인민들의 생활환경을 근본적으로 개변시켜 우리 나라를 세계가 선망하는 사회주의리상국으로, 인민들이 최상의 문명을 누리며 편안하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회주의락원으로 건설할 거창한 설계도를 펼쳐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그이께서 밝혀주신 새로운 건설혁명대강을 받들고 21세기의 문명개화기, 건설의 대번영기를 더욱 빛내여갈 비상한 열의로 충만되여있는 속에 주체111(2022)년 2월 평양에서 화성지구 1만세대 살림집건설의 포성이 장엄하게 울려퍼졌다.

수도의 1만세대 살림집건설장뿐 아니라 대야금기지들과 화

학공업기지들에서, 새로운 동력기지건설장들과 간석지건설장들에서 그리고 검덕지구와 련포지구, 전국의 농촌들에서 조국의 부강발전과 인민의 복리를 위한 거창한 대건설전투가 힘있게 전개되고있다.

세월을 주름잡는 새로운 건설혁명의 날들과 함께 더욱 눈부시게 펼쳐질 휘황한 래일에 대한 확신으로 온 나라가 끓어번지고있다.

력사는 또다시 아로새기게 될것이다.

절세의 애국자, 창조의 거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탁월한 령도가 어떤 위대한 기적과 변혁을 또다시 안아오는가를.

그 품에서 바야흐로 밝아오는 이 땅의 래일은 또 얼마나 눈부시랴!

# 5. 하늘도 감복하는 숭고한 도덕의리

❖ 억년바위도 녹일 열화의 심장

❖ 60여년세월이 흘렀어도

❖ 바람부는 주작봉마루에서

❖ 전사의 얼굴을 애타게 어루만지시며

❖ 광부의 안해는 말한다

❖ 《내 아들의 묘주가 원수님이시라니?!》

❖ 로병들을 영광의 최절정에

인간에게 부으시는 정, 인간에게 베푸시는 의리가 그대로 자신의 넋이고 한몸이신듯 온 심신을 초불처럼 불태우시며 낮이나 밤이나 인민을 위해, 조국을 위해 나라의 방방곡곡을 찾고 또 찾으시는 열혈의 인간 **김정은**원수님!

그이는 뜨거운 인간애로 위대하고 고결한 의리로 거룩하신 인류의 대성인이시다.

존함이 그대로 사랑과 정, 의리의 대명사인양 인민의 심장속에 생의 명줄로 뿌리내린 그이는 이 땅에 생을 둔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참다운 생을 안겨주시고 죽어서도 끝나지 않는 삶을 주시는 영생의 은인이시다.

그이의 한없이 뜨겁고 고결한 사랑과 의리에 떠받들려 얼마나 많은 유명무명의 사람들이 영생의 삶을 빛내이고있는가.

희세의 천품을 타고나신 그이의 품속에서 세상에 부럼없는 존엄높은 생을 살고 죽어서도 끝나지 않는 영생의 삶을 누리는것은 이 나라 인민들이 받아안은 특전이고 더없는 행운이 아닐수 없다.

조국과 인민을 위한 성스러운 한길에 청춘도 생명도 기꺼이 바치고 먼저 떠나간 사람들에 대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도덕의리의 세계는 그 열도와 순결함에 있어서 동서고금에 없는 하늘도 감복하는 숭고한 도덕의리의 최고정화이다.

지난 10년간의 격동의 세월 공화국인민들은 이 벅찬 현실의

체험자, 목격자로서 그리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대해같은 사랑과 믿음속에 사는 인간으로서 숭고한 도덕의리의 새 력사를 펼쳐가시는 그이의 천출위인상을 똑똑히 새겨안았다. 력사는 경애하는 그이이시야말로 인류사에 길이 전해가야 할 또 한분의 도덕의리의 최고화신이시라는것을 지울수 없는 진리로 시대앞에 증명하였다.

# 억년바위도 녹일 열화의 심장

주체104(2015)년 1월말 어느날이였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훈련에 동원되여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오던 한 비행사가 뜻밖의 정황속에서 최후의 순간까지 자기의 임무에 충실하다가 영용하게 희생되였다는 보고를 받으시였다.

이름은 차영일, 비행중대장.

너무도 애젊은 나이에 자신의 곁을 떠나간 전사, 그렇게도 비행사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자신의 심정을 몰라주고 저 하늘가에 빈자리를 남겨둔채 떠나간 그를 생각할수록 경애하는 원수님의 마음은 못내 쓰리고 아프시였다.

집에는 두살밖에 안되는 귀여운 아들과 나이 서른도 미처 못된 안해가 있다는 사실이 경애하는 그이의 가슴을 더욱 허비시였다.

이름할수 없는 비통함을 정녕 누를길 없으신듯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틀후 일군들을 몸가까이 부르시였다.

그 자리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희생된 비행사에게 높은 국가수훈을 하고 유가족들에게는 렬사증을 수여하도록 할데 대하여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

일군들로서는 인차 대답을 올릴수 없었다.

사실 희생된 전투비행사로 말하면 조국수호의 길에서 무비의 위훈을 떨친 용사도 아니였다. 그저 조국을 지키고 인민을 보위하는 성스러운 군사복무의 나날에 총잡은 군인의 본분을 자각하고 비행훈련을 하던중 생을 마친 너무도 평범한 비행사였다.

하건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성스러운 하늘길에서 복무의 나날을 보낸 한 비행사의 삶을 그렇듯 빛내주시는것이였으니 그 사랑, 그 은정에 담겨진 위인의 심중을 지휘성원들은 며칠후 눈물겹게 절감하게 되였다.

그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솔직히 말하여 다른 나라들에서는 비행사들이 30살만 지나도 비행기를 타지 않겠다고 하고있다고, 하지만 우리 비행사들은 비행기를 타는것이 위험을 동반하는 일이라는것을 알면서도 한생토록 조국의 하늘길에 충정의 비행운을 새겨가고있다고, 우리 비행사들이야말로 희생성을 발휘하여 조국의 하늘을 지켜가고있는 애국자들이라고 말할수 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영용한 전투비행사들의 혁명정신을 그토록 귀중히 여겨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그이께 있어서 비행사 한명한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귀중한 혁명전우였고 설사 그들의 육체적생명에 끝이 난대도 영원히 내세워주고만싶으신 진주보석

과도 같은 존재들이였다.

비행사에게 국기훈장 제1급을 수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또다시 강조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가 남긴 생의 마지막모습을 두고 차영일비행중대장이 비행기를 구원하려고 애쓰다가 희생되였는데 그는 마지막순간까지 당과 혁명에 충실하였다고 볼수 있다고 값높은 평가를 주시였다.

일군들은 숭엄한 감정에 휩싸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용히 손수건을 꺼내 눈가에 가져가시였다.

사랑하는 남편을, 아버지를 기둥처럼 믿고 살았을 가족들의 모습도 따뜻이 그려보시며 그이께서는 차영일비행중대장의 안해가 30살도 안되였고 아들은 두살이라고 하는데 정말 가슴이 아프다고, 그가 남기고 간 아들과 안해를 잘 돌봐주어야 한다고, 차영일비행중대장이 희생되는 순간 아들과 안해를 생각하였을것이라고 자신에게 말씀하시듯 뇌이시였다.

일군들은 끝내 눈물을 보이고야말았다.

몇번이나 눈가에 손수건을 가져가시던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시며 차영일비행중대장의 아들과 안해를 우리가 맡아 잘 키우자고 갈리신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북받쳐오르는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조용히 잠든 비행사를 붙안고 목놓아 오늘의 격정을 터치고싶었다.

하지만 그 시각 경애하는 원수님의 심중에서는 미처 다 터놓으시지 못한 뜨거움이 용암마냥 끓어번지고있었다.

만사람의 눈물을 자아내는 가슴뜨거운 일은 그로부터 며칠 후인 광명성절에 또다시 있게 되였다.

온 나라가 경축분위기에 휩싸여있는 민족최대의 명절인 이날에조차 비행사를 잃으신 상실의 아픔에 잠겨계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집무실로 부르시였다.

형언할수 없는 비애가 짙게 어려있는 그이의 존안을 우러르며 일군들은 원수님께서 찾으신 의도를 어렴풋이나마 직감할수 있었다.

숭엄한 분위기에 잠겨있는 일군들을 한사람한사람 바라보고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차영일비행중대장의 영웅적희생을 다시한번 높이 평가하시고나서 한통의 편지를 그들앞에 내놓으시였다.

비행사를 잃은 가슴아픔을 강잉히 누르시며 그이께서 비행사의 안해에게 한자한자 직접 쓰신 편지였다.

평범한 비행사에 대한 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뜨겁고 가슴치는 사랑이여서 일군들의 눈에는 뜨거운것이 고여올랐다.

한 일군이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감동이 극하여 읽다가는 끊어지고 끊어졌다가는 다시 이어지기를 그 몇번…

동지의 남편 차영일동지는 우리 당의 훈련제일주의방침을 높

이 받들고 근위부대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다져나가기 위한 성스러운 하늘길에서 장렬한 최후를 마치고 야속하게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나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영용하고 끌끌한 또 한명의 전투비행사를 잃은것을 생각할 때면,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 하늘같은 아버지를 너무도 뜻밖에 잃고 가슴에서 억장지성이 무너져내릴 동지와 가족들모두의 마음을 생각하면 내 가슴이 란도질당하듯 아파 쓰려옵니다.

동지의 남편 차영일동지는 생의 최후순간에 조국의 푸른 령공을 지켜선 우리 공화국의 전투비행사들은 당과 혁명의 부름에 어떻게 충실해야 하는가를 똑똑히 보여주고 갔습니다.

비행사는 당의 비행전투훈련명령을 관철하기 위해 날으던 하늘길에서 희생되여 몸은 비록 사랑하는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어도 당과 혁명에 무한히 충직한 그의 고귀한 정신은 우리의 심장속깊이에로 돌아왔으며 그의 투철한 혁명정신은 길이길이 우리모두의 기억속에 영원할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비통함에 무슨 말이 힘이 되고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겠냐만은 꼭 부탁하니 힘을 내여 일어서도록 하시오.

아들 차령웅이를 아버지처럼 당과 혁명에 무한히 충직한 훌륭한 사람이 되게 잘 키웁시다.

동지의 남편 차영일동지가 당의 비행전투훈련명령을 받들고 마지막으로 최고사령관의 앞에서 조국의 푸른 창공을 날으던 사진

을 보내드립니다. 남편의 마지막하늘길입니다.

비록 짧았어도 영원히 빛날 비행사의 값높은 한생에 숭고한 경의를 드립니다.

김 정 은

2015년 2월 14일

참으로 억년바위도 녹이는 열화의 심장만이 토로할수 있는 위인의 진정이였다. 뜨거운 심장을 지닌 열혈의 인간의 무한대한 인간애가 발산하는 그 열도를 가늠할수 없는 순결한 의리심의 극치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 왜서 그렇게도 안타까이 전사의 비행모습을 찍은 사진을 찾으시였는지 또 이 편지를 쓰시면서 그이께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시였는지 일군들은 사무치게 헤아려졌다.

이 시각 전우에 대한 생각이 다시금 북받쳐오시는듯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끝내 쏟아지는 눈물을 걷잡지 못하시였다.

편지를 읽고난 일군도, 곁에 있던 일군들도 경애하는 그이의 모습을 뵈옵는 순간 그만 참고참았던 오열을 터뜨리고야말았다.

(원수님의 마음속에 렬사의 유가족이 그리도 가슴아프게 자리잡고있은줄 우린 미처 몰랐습니다. 원수님, 이제 더는

마음을 쓰지 말아주십시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격해지는 감정을 애써 누잦히시며 일군들에게 가족을 찾아가 편지를 전달해줄것을 당부하신 다음 손수 편지를 넣으신 봉투에 글발을 써나가시였다.

차영일동지의 안해 리설희동지에게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김 정 은**

유가족을 위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정에는 끝이 없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어떻게 편지만 가져가겠는가고 하시면서 액정TV와 랭동기, 극동기, 가구류들과 집기류들, 매 계절에 따르는 옷가지들과 화장품, 어린이놀이감 등 가지수만 해도 헤아릴수 없이 많은 선물들을 마련하여 함께 가지고 가도록 직접 조직사업을 해주시였고 유가족들을 찾아가 위로해주도록 날자까지 정해주시였다.

이렇게 되여 2015년 2월 18일, 비행사가 복무하던 부대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차영일의 안해 리설희에게 보내주신 은정어린 친필서한과 선물을 전달하는 모임이 진행되였다.

그날에 모임참가자들이 받은 충동을 어떻게 한두마디로 다 전할수 있겠는가.

장내는 말그대로 눈물바다를 이루었고 자애로운 어버이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으로 세차게 끓어번졌다.

그날 이 뜻깊은 자리에서 차영일비행중대장의 안해 리설희는 이렇게 심장으로 토로했다.

《여러분! 인간이 사는 이 행성에 하늘을 날으는 비행기는 얼마나 되고 그 비행기를 조종하는 비행사는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수는 헤아릴수 없이 많을것입니다. 많고많은 유명무명의 비행사들의 삶의 양상도 천태만상일것입니다.

일화

## 비애의 하늘을 날은 비행기

비애와 슬픔으로 가득찼던 2011년의 12월 어느날이였다.

그 누구보다 더 큰 상실의 아픔을 안으시고 온 나라 일을 돌보시느라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몸소 한 감독의 병치료정형을 료해하시고 그를 지체없이 외국의 이름있는 병원에 보내여 치료받도록 대책을 세워주시는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을 바래워드리는 영결식에 참가하고 떠나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녀성감독에게 일군이 뜨거운것을 삼키며 말하였다.

《동무를 하루빨리 떠나보내라는 것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자애로운 인민의 어버이께서만이 내리실수 있는 명령, 세상에 다시 없을 인간사랑의 특별명령이였다.

이렇게 되여 위대한 어버이의 사랑의 명령을 받아안은 녀성감독은 오열을 삼키면서 비행기에 몸을 싣게 되였다.

차영일, 저의 남편도 그 하많은 비행사들중의 한사람으로서 비행구분대의 평범한 추격기비행사였습니다.

로동자의 아들인 저의 남편은 늘 우리들에게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품은 자기에게 인생의 희망과 포부를 이룰수 있게 해준 대지이고 하늘이라고 하면서 그 품속에서 힘차게 날으고 한생을 빛나게 살리라고 말해왔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런 저의 남편의 값높은 한생에 숭고한 경의를 드린다고 하셨습니다.

이 땅의 남아로 태여나 먹여주고 키워주고 내세워준 고마운 조국을 위해 한목숨바친것이 무슨 큰일이라고 이렇듯 높이 내세워주신단 말입니까. 남편은 죽지 않았습니다. 원수님품에서 그는 영생합니다.

숭고한 도덕의리의 화신이신 **김정은**원수님! 끝도 기슭도 없는 원수님의 무한한 의리의 세계속에 이 나라 천만의 생이 안겨살고 천만의 삶이 빛납니다.》

예로부터 자연계에서 제일 뜨거운 불덩이라고 하는 저 하늘의 태양도 그 열도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인간애, 인민애로 불타는 절세위인의 위대한 심장이 펼치는 숭고한 의리의 세계는 그 순결성과 열도를 가늠할수도 잴수도 없거니 인류는 억년바위도 녹이는 열화같은 심장을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고결한 도덕의리심을 세세년년 전해가며 격찬할것이다.

# 60여년세월이 흘렀어도

가렬처절했던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37살의 젊은 나이에 생을 마친 종군작가—김사량.

그에게는 그의 뒤를 이어 문필활동을 하는 손자가 있다. 그가 바로 중좌의 령장을 달고 조선인민군의 어느한 창작기관에서 붓을 달리고있는 군인작가이다.

30대인 그는 할아버지에 대한 소중한 추억을 간직하고있다. 짧았어도 천년, 만년을 산 사람들도 가지지 못한 인생의 영광을 다 받아안은 할아버지의 삶에 비쳐진 거룩한 광원에 대한 그의 추억은 혈육간의 단순한 감정의 축적이라기보다 그 어디에서 생의 출발을 떼였다 해도 조국과 인민을 위한 길에서 조금이라도 흔적을 남긴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든 생을 빛내주고 영생을 꽃펴주는 위대한 은인에 대한 전 인민적인 체험이라고 할수 있다.

그가 《빛을 노래한 나의 할아버지—김사량》이라는 표제를 달고 오늘에도 그 련속편을 계속 쓰고있는 장편수기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며 애독되고있다.

《생이란 무엇인가. 살아숨쉬며 생존만 한다면 그것이 생인

가. 이 땅에 뿌리를 둔 천태만상의 생들이 모여 인간사회를 이루고있는 오늘날 어제를 살았고 오늘과 래일에 살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의 생에 대하여 생각한다.

어떤 생이 참다운 생이며 어떤 생이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끝나지 않는 생으로 남아 길이 전해지는가. 인간의 망각도, 세월의 흐름도 지울수 없는 참된 생으로 빛나는것은 무엇에 기인되는가.

김사량, 나의 할아버지이다.

작가였던 그를 공화국인민들은 물론 남조선과 해외의 동포들도 알고있다.

세상에 태여나 서른일곱해밖에 살지 못한 그가 세상을 떠난지도 어언 70여년이 지났지만 평양의 한복판에 자리잡은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영웅홀에 공화국영웅이 된 할아버지의 사진이 있다. 풍치수려한 석박산기슭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에 생전의 자기 모습을 천연화강석에 새긴 할아버지가 살아있다.

너무도 젊은 나이에 붓을 놓은 작가였어도 할아버지는 절세위인들의 자애에 넘치는 사랑과 정, 믿음과 의리의 빛발속에서 참다운 인간으로서 벅찬 삶을 누렸으며 세월의 망각도 지울수 없는 영생의 모습으로 빛나게 되였다. 인간에게, 인민에게 비쳐지는 사랑과 정, 믿음과 의리의 빛발속에서 인간은 인간으로서 자주적삶을 누릴수 있게 되였으며 인민은

사랑과 정의 그 빛발이 펼쳐준 락원에서 생의 희열을 마음껏 터치고있다. 이것이 바로 할아버지가 그토록 웨치고싶어한 위대한 태양의 빛이였다.

오늘 공화국의 인민들은 물론 온 겨레는 또 한분의 희세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이 땅에 생을 둔 그 누구에게나 골고루 비쳐지는 뜨거운 사랑과 정, 숭고한 믿음과 의리의 위대한 빛발은 영원하다는것을 페부로 절감하고있으며 그 빛발속에 사는 사람들의 생도 줄기차고 영원하다는것을 절대의 진리로 새겨안고있다.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때로부터 70년이 지났지만 그를 공화국영웅으로, 온 세계가 아는 자폭종군작가로 영생의 언덕에 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고결한 의리의 세계에 대하여 다시한번 구가하려는것이 내가 장편수기를 쓰기 시작한 명백한 리유이다. …》

손자의 심장의 웨침과도 같은 할아버지에 대한 장편수기에 숭고한 도덕의리로 이 땅에 펼쳐진 사랑과 정의 화원을 더더욱 아름답게 가꿔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인간상에 대한 한 가문의 체험, 인민의 체험이 력력히 비껴있다.

주체102(2013)년 7월 자정도 지난 어느날 밤이였다.

한대의 승용차가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건설장으로 미끄러지듯 달려오더니 기념탑앞에 이르러 서서히 멈춰섰다.

승용차문이 열리면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내리시였다.

황급히 달려온 일군들이 놀라운 기색을 감추지 못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이 깊은 밤에…》

격해지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뒤말을 잇지 못하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원수님께서는 자정이 지났지만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돌아보고싶어 또 나왔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여러곳을 차례로 돌아보기 시작하시였다.

밤은 점점 깊어져 어느덧 새벽 2시를 가까이하였건만 원수님께서는 공화국영웅홀로 걸음을 옮기시는것이였다.

이곳에 이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화국영웅홀이 멋있다고 하시며 기쁨속에 영웅홀을 바라보시였다.

이때였다.

그이께 한 일군이 여기에 전쟁시기 배출된 공화국영웅, 로력영웅 수백명을 전시하고 종군작가 김사량영웅의 자료를 더 전시하려 한다고 말씀드렸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의 말에 수긍하시며 적후에 떨어졌던 영웅작가의 생애를 더듬으시는듯 한동안 말씀이 없으시였다. …

해방된 조국땅에서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창작활동을 벌리며 수많은 문예작품들을 세상에 내놓은 김사량은 전쟁이 일어나자 즉시 전선탄원을 제기하였다.

다음날 대위견장을 단 군복을 입은 그는 여러명의 종군기자, 종군작가들과 함께 신임장과 권총을 수여받고 즉시 분담

된 전선지역으로 떠났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히 수표하신 특별신입장을 가슴에 품고 김사량은 당시의 제105땅크사단에 배속되여 땅크를 타고 남으로 진격하였다. 도중에 그는 첫 종군기 《서울서 수원으로》를 썼다. 련이어 그는 땅크부대와 함께 평택, 천안해방전투에 참가하였다. 계속하여 금강을 도하하고 대전에 들어가 가렬처절한 시가전장을 취재하여 종군기 《우리는 이렇게 이겼다》를 써서 평양으로 올려보내였다. 그는 이밖에도 포연내가 진하게 배인 《지리산유격구를 지나며》, 《락동강반의 전호속에서》 등 수많은 종군기를 창작하였다.

9월 어느날 마산근방의 어느한 고지점령을 위한 옹근 하루동안의 힘겨운 전투끝에 전사들과 함께 고지정점에 오른 김사량은 눈앞에 펼쳐진 남해를 보고 끓어오르는 격정을 금치 못하며 유명한 종군기 《바다가 보인다》를 썼다.

하지만 이것이 유고작품으로 될줄은 그자신도 몰랐다.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김사량의 건강은 급기야 악화되였다. 심장병이 도져 눈을 뜰수 없게 얼굴이 붓고 숨이 차 말하기도 힘들어했다.

기침이 시작되면서 각혈까지 하였다.

어느날 혼수상태에서 깨여나 자기가 대오에 짐이 된다고 판단한 그는 어려운 결심을 하였다. 그곳에 떨어졌다가 병이 낫는 차제로 지리산인민유격대를 찾아갈 생각이였다.

대렬책임자에게 소지품과 종군수첩을 넘겨준 김사량은 동지들과 헤여지기에 앞서 조국에 보내는 마지막편지를 썼다.

지금까지의 후퇴과정과 자신의 몸상태를 비교적 상세히 적은 길지 않은 편지는 아래와 같은 구절로 끝나고있다.

《…조국과 인민, 민족앞에 한점 부끄럼없이 살것이다. 그 길에서 생명이 필요된다면 기꺼이 바쳐 한생을 총화할것이다.

나의 종군수첩은 작가동맹에 전해다오. 승리를 위하여, 희망을 위하여.

**김일성**장군 만세!

1950년 10월 1일 김사량》

후날 김사량의 편지와 종군수첩은 작가동맹중앙위원회에 전달되였다.

하지만 그의 운명에 대해서는 오래동안 누구도 알수 없었다.

좀처럼 알려지지 않는 김사량의 생사여부를 두고 요설의 능수인 일본의 보수언론들은 한때 《김사량실종》설을 내돌리며 그가 복잡한 경력과 가정환경때문에 《조선의 내부사정으로》 매장되였다는 괴이한 론조를 퍼뜨리기도 하였다.

《전향》과 《변절》설을 퍼뜨리는 일부 편협한 사람들은 머리를 기웃거린적도 있었다.

하지만 김사량을 변함없이 믿으시고 그의 명예와 가족들을 끝까지 지켜주신분은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행적을 알수 없는 김사량에 대하여 못내 걱정하시며 그는 정의감이 강하고 량심적이며 신념이 있는 사람이라고, 신념이 있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시며 자신께서는 그가 생명의 최후순간까지 견결히 싸웠으리라 믿는다고 확언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김사량의 최후에 대해 밝혀내는 문제는 단순히 한 인간의 생사여부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어버이수령님께서 아끼고 믿어주시던 인테리의 정치적생명을 빛내여주기 위한 중요한 문제라고 하시면서 남조선에서 들어온 사람들과 여러 출판물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그후 김사량과 인연이 있는 관계자들에 의하여 그가 지리산인민유격대에 들어가 출판선전사업을 책임지고 투쟁하였다는것이 알려졌다.

김사량의 장렬한 최후에 대하여서는 남조선출판물에 실린 좌담회자료에 의하여 밝혀지게 되였다.

그에 의하면 해방전부터 김사량을 잘 알고있던 남조선의 한 작가가 좌담회에서 자기가 지리산빨찌산《토벌》에 참가했던 남조선군 장교에게 김사량과 같은 인재를 죽인것은 큰 실책이였다고 비난하자 그 장교가 김사량은 자기들이 죽인것이 아니라 본인이 자폭했다고 증언했던것이다.

이처럼 그의 최후는 영웅적이였다.

지리산의 산과 골짜기에 《토벌》의 총포성이 멎을 날이 없던 1951년 6월 어느날, 적들의 화염방사기가 뿜어대는 불길에 휩싸인 초막안에서 불에 그슬린 두 부상병이 서로 부축하며 걸어나왔다.

두사람은 가없이 펼쳐진 하늘을 쳐다보았다.

다음순간 《**김일성**장군 만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의 웨침에 이어 수류탄폭음이 산발을 들었다놓았다.

그들중의 한사람이 김사량이였음은 후에 확인된 사실이다.

그는 이렇게 최후를 마치였다.

세계전쟁사나 인류문화사를 살펴보면 종군한 문예인들이 적지 않지만 자기의 최후가 영원히 알려질수 없는 정황에서 영웅적으로 자폭한 사람은 작가 김사량뿐이다. 그가 생의 마지막순간에 터친 심장의 웨침, 오랜 세월의 곡절많은 언덕을 넘어 조국에 전해진 사실은 결코 세월의 장막으로 없앨수 없고 인간의 망각으로도 지울수 없다.

너무도 애석하고 아쉬운 삶이였다.

그러나 누가 감히 그의 생이 끝났다고 말할수 있겠는가. 누가 그의 창작이 끝났다고 생각할수 있겠는가. …

깊은 감회속에 잠기셨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윽하여 일군들을 바라보시며 김사량은 조국해방전쟁시기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과 크나큰 믿음을 받아안고 종군작가로 적극 활동하였으며 자폭으로 최후를 마치는 마지막순간까지 용감하게

싸웠다고, 수령님께서는 생전에 그에 대하여 자주 회고하시였다고, 당에서는 김사량이 전사한지 60여년의 세월이 흘러갔지만 그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여 지난 6월 공화국영웅칭호를 수여하도록 하였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새벽 2시, 삼라만상이 다 잠든 야밤삼경에 60여년전에 세상을 떠난 한 작가의 생애를 뜨겁게 추억하시며 동서고금에 없는 사랑과 의리의 숭고한 세계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영웅홀에 전시된 참전영웅들의 사진을 하나하나 정겹게 바라보시며 걸음을 옮기시는 그이를 우러러 일군들은 뜨거운 격정에 휩싸였다. 그러면서 수십일전에 있었던 감격의 그날이 영화의 화면처럼 다시금 눈앞에 펼쳐졌다.

2013년 6월 어느날이였다.

이 땅의 천만자식을 따사로운 사랑의 한품에 안으시여 삶을 지켜주시고 빛내여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날 김사량의 공적을 높이 평가하시여 그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칭호를 수여하도록 하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영웅칭호를 수여하는 모임에서 김사량의 후손이 터친 진정의 목소리는 큰 진폭으로 장내를 진감하며 사람들의 심장을 울렸다.

《저의 할아버지는 해방후 약 6년동안 창작활동을 한 평범한 작가로서 독자들속에도 널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최후 역시 지리산속 어느 골짜기의 고립무원한 정황에서 마쳐진것으로 하여 오랜 세월 생사여부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가친척들의 마음속 한구석은 늘 무거웠고 그것도 세월이 흐르고흘러서 이제는 없어지고 모습조차 기억에 남지 않았댔습니다.

그런데 절세위인들께서 그토록 많은 품을 들여 할아버지

## 일화 약상표는 대양과 대륙을 넘어

어느날 저녁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일군들과 이야기를 나누실 때였다.

그때 기침을 연거퍼 하는 한 일군을 걱정어린 안색으로 바라보시던 그이께서는 언제부터 기관지천식을 앓는가, 지금 무슨 약을 쓰는가 다정히 물으시였다.

대답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그가 내민 자그마한 약통을 손에 받아쥐시고 한참이나 자세히 들여다보시였다. 그러시고는 급히 한 일군을 찾으시여 이 약의 상표를 떼서 여러장 복사하라고 하시며 의학기술이 발전된 나라들에 나가있는 대표부들에서도 약을 구해볼데 대한 과업을 주어야 하겠다고, 자신께서도 병원들에 알아보시겠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이렇게 되여 한 평범한 일군의 건강을 위하여 복사된 여러장의 약상표가 대양과 대륙을 넘어 저 하늘을 날게 되였다.

또 하나의 위대한 인간사랑의 새 전설을 온 우주에 새기며…

생의 자욱자욱을 더듬어찾아 빛내주시고 오늘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60여년이라는 오랜 세월의 이끼에 묻혀있던 자그마한 공적을 귀중히 여겨 공화국영웅이라는 값높은 칭호를 안겨주셨으니 이 대해같은 은혜를 무슨 말로…》

너무도 감격이 극하여 말을 채 끝맺지 못하고 오열을 터뜨리였으나 사람들은 그가 하려던 심장의 고백을 똑똑히 듣고있었다.

60여년세월이 흐른 뒤 수여된 공화국영웅칭호.

이는 혁명전사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천품으로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심장이 피여올린 영생의 꽃이고 숭고한 도덕의리의 최고정화라고.

절세위인의 그 은정, 그 의리에 떠받들리여 영생의 언덕에 오른 김사량.

과연 누가 그대의 삶이 37살에 끝났다고 말하랴.

**김정은**원수님!

위대한 그이의 넓고도 넓은 의리와 믿음의 품속에서 김사량의 삶은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영원할것이다.

# 바람부는 주작봉마루에서

여기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한량없는 사랑속에 한생을 살고 인생의 말년에는 또 한분의 절세위인의 품속에서 생을 빛내이고 영생의 언덕에 오른 항일의 로투사가 남긴 글발이 있다.

리을설, 그는 일찌기 너무도 어린 나이에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손길아래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항일전에 나섰으며 어버이장군님의 하해같은 믿음속에 그이의 가장 친근한 전우, 동지로서 삶을 빛내이였다. 그러던 그를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서 특출한 공적을 쌓아올린 귀중한 로혁명가로 여기시며 여생을 빛나게 해주시고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력사에 일찌기 없었던 숭고한 도덕의리를 베푸시여 영원한 삶을 안겨주신분은 **김정은**원수님이시였다.

하기에 그가 혼신의 정력을 다 쏟아 운명을 며칠 앞두고 쓴 글발은 사람들의 심장을 세차게 울려주고있다.

《나의 생의 갈피갈피에는 백두산장군들의 뜨거운 사랑과 의리가 수놓아져있고 그분들의 체취와 숨결이 살아숨쉬고있다. 내 생명의 원천이기도 한 그것은 그대로 젊으신

**김정은**원수님에 의해 이어져오고있으니 이 세상에 나처럼 보기 드문 행운을 받아안은 사람은 없을것이다.

내 삶의 태양 **김정은**동지! 그렇게밖에는 더 부를수 없는 열혈의 인간!

어쩌면 그이는 피어린 백두광야에서 어린 나를 껴안으시고 행군하시던 어버이수령님과 꼭같으신가. 어쩌면 그이는 병상에 누워 운신조차 하기 힘들어하는 나의 병상태를 헤아려보시고 외국에 치료를 보내시면서 몸소 비행장에 나와 바래주시며 눈굽을 적시시던 **김정일**장군님과 꼭같으신가.

아직도 나의 눈앞에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국가의 령도자로 모시였을 때 온 나라에 차넘치던 인민의 환희와 격정이 그날처럼 안겨온다. 더우기 불철주야로 나라의 방방곡곡을 찾으시여 인민사랑의 새 력사를 펼쳐가시는 그이의 모습을 보며, 온 나라에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아침과 저녁이 몰라보게 우후죽순처럼 솟구치는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을 보며 경애하는 그이를 받들어나가는 길에 조국과 민족의 창창한 미래가 약속되여있음을 페부로 느낀 사람들이 터치는 목소리가 귀에 쟁쟁히 들려온다.》

이 글에는 절세의 위인들의 슬하에서 삶을 빛내여온 한 로투사가 자신의 한생의 체험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들과 꼭같으신 또 한분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여 끝없는 인민의 기쁨과 환희, 더욱더 찬란할 미래에 대한 확

신이 어리여있다.

사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주체혁명위업의 후계자로 추대되시였을 때 위대한 수령님들의 슬하에서 조국과 인민을 위한 성스러운 길에 한생을 바쳐온 항일투사들의 마음과 마음은 남다르게 격동되여있었다.

너무도 뜻밖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서거하시였을 때 항일투사들은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안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어깨에 실린 무거운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수 없는 죄스러움이 가슴에 사무쳐와 안타까이 모대기였다.

그래서 리을설은 경애하는 그이께 자그마한 힘이라도 되고싶은 로투사들의 간절한 심정을 담은 글을 삼가 올리였다.

그런데 그이께서 몸소 친필회답까지 보내주실줄 어찌 상상이나 하였겠는가.

《리을설동지.

로투사동지들의 기대에 어긋남없이 맡은 일을 잘하겠습니다.

항상 건강에 주의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은**이 올립니다.

2011년 12월 30일》

친필서한을 받아안던 날 그는 너무도 격정이 커서 온밤 잠들수가 없었다.

자신께서는 그처럼 크나큰 부담을 걸머지시고도 오히려 항일투사들의 소박한 마음을 중히 여기시며 건강까지 걱정해주시니 글줄마다에 뜨거운 사랑과 정이 차넘치는 문장표현과 필체가 어쩌면 어버이장군님과 그리도 꼭같은지 그는 저도 모르게 장군님생각이 나서 눈굽을 적셨다.

평생 좀처럼 눈물을 모르던 그였으나 경애하는 그이를 목메여 부르며 흐르는 눈물을 어쩔수 없었다.

주체101(2012)년 위대한 수령님 탄생 100돐경축 열병식때 항일투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정어린 조치에 의하여 열병식을 편히 앉아서 볼수 있는 특별좌석에 초대되였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열병식이 끝나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군중들에게 답례를 보내실 때 초대석에서 인사를 올리는 리을설을 알아보시고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다정히 손을 저어주시였다.

순간 리을설은 그이를 우러르며 감격의 눈시울을 적시였다.

(아, 희세의 위인께서 이 늙은이를 알아보시고 손까지 저어주시다니…)

그로부터 이틀이 지난 4월 17일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리을설과 함께 항일의 로투사들을 태양절을 맞으며 금수산태양궁전에서 진행되는 경축대표들과의 기념사진촬영에 몸소 불러주시였다. 그리고 당과 국가의 많은 책임일군들이 있음에도 항일투사들을 혁명선배라고 존대

해주시며 자신의 가까이에 위치를 정해주시였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다시금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참가자들에게 답례를 보내시던 그이께서는 문득 리을설을 띄여보시더니 급히 다가오시였다.

밝은 미소를 안고 오시는 그이를 삼륜차에 앉아 맞이하지 않으면 안되였던 그는 참으로 크나큰 격정과 송구함을 금할수 없어 눈물을 머금고 삼가 인사를 올리였다.

그러자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몸소 허리를 굽히시고 그의 두손을 다정하게 잡아주시며 오래간만이라고, 건강은 어떤가고 말씀하시였다.

그는 너무도 고마와 원수님의 손을 그냥 놓지 못한채 하는 일없이 지내는 이 늙은이를 당대표자회 대표로, 수령님 탄생 100돐 경축대표로 내세워주시고 오늘 또다시 이 영광의 기념촬영장에까지 불러주시니 정말 고맙다고 감사의 말씀을 아뢰였다.

그러자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그의 두손을 더욱 뜨겁게 잡아주시면서 이제는 항일의 로투사들이 몇분 남지 않았는데 아무쪼록 건강관리를 잘하여 오래오래 앉아계셔야 한다고, 투사동지들이 옆에 앉아만 있어도 저에게는 힘이 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들으면 들을수록 사랑과 정이 차넘치는 그 음성, 로투사들을 아끼고 위해주시는 그 말씀에 산천도 울리는 그이의 고결

한 의리심이 넘쳐나고있었다.

그는 누를길 없는 고마움과 그동안 느끼고 받아안았던 모든 감사의 마음을 담아 경애하는 그이께 또다시 편지를 올렸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그의 편지를 보아주시고 다음과 같은 회답을 보내주시였다.

《리을설동지,

또다시 보내주신 편지를 고맙게 받아보았습니다.

로투사동지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혁명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가겠습니다.

을설동지, 항상 건강해주십시오.

로투사동지들이 건강한 몸으로 계셔야 **김정은**이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전투적인사를 올립니다.

경례!

2012년 4월 27일

**김정은** 드림》

사랑의 친필서한을 받아안고 그는 또다시 온몸에 스며드는 그 따뜻한 정에 못이겨 눈물을 흘렸다.

2015년 11월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대해같은 품속에서 그이의 사랑과 정을

생명의 명줄로 잇고 살던 리을설이 심장의 고동을 멈추었다.

한생을 절세위인들의 슬하에서 조국과 인민을 위한 복무의 길을 묵묵히 걸은 애국충신 리을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가 세상을 떠났다는 비보를 도저히 믿을수 없으시였다. 자신의 곁을 떠났다는것이 꼭 꿈처럼 느껴지시였다. 그리고 못다 준 사랑이 있어 그가 간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드시여 참으로 가슴이 아프시였다.

그의 령구가 있는 곳을 찾으시여 그를 보시는 원수님의 안광은 슬픔으로 가득차있었다.

이제라도 소리쳐부르면 금시 눈을 뜨고 일어날것만 같은 충직한 로투사, 이제 떠나보내면 다시 볼수 없는 그의 모습이여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용히 누워있는 고인의 얼굴에서 오래도록 시선을 떼지 못하시였다.

손수건을 눈가에 가져가시기를 그 몇번…

그이를 따라선 일군들의 눈가에도 뜨거운것이 맺혀 흘렀다.

사실 어린 나이에 집을 떠나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나섰던 리을설에게 있어서 수령님과 장군님은 삶의 위대한 스승이고 수령이기 전에 자기 운명을 통채로 맡긴 삶의 전부였고 친부모이시였다.

하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서거하신 후 그에게 부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은 참으로 각별하시였다.

그를 혁명의 원로로 높이 존대해주시며 중요정치행사들에

빠짐없이 불러주시고 장군님의 존함을 모신 시계표창도 남먼저 수여해주시였으며 그의 건강에 이상이 생길세라 늘 관심하시며 수시로 해당한 대책을 세워주시였다.

그렇게도 다심한 정을 기울여 보살펴주시던 그가 끝내 심장의 고동을 멈추었으니 이 시각 그이의 심정이 과연 어떠하시였겠는가.

기나긴 한생을 위대한 수령님들을 몸가까이 모시고 혁명의 길을 걸어온 조국과 인민의 충직한 아들을 잃은 애석함을 안으시고 경건히 묵상하시는 그이를 우러르며 고인과 영결하기 위해 모여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격정을 금치 못했다.

### 일화 사랑과 정의 화폭

백두산건축연구원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미 만나신 적이 있는 로설계가의 손을 잡아주시려 할 때 그 설계가가 원수님의 손을 잡을수 없다고 울먹이였다.

감기에 걸렸다고, 원래 여기에 나오지 말아야 하겠는데 멀리서라도 원수님을 뵈옵고싶어 나왔다고 아뢰는 눈물에 젖은 설계가의 목소리가 장내를 울렸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를 미덥게 바라보시며 정깊은 어조로 일없다고 하시며 또다시 손을 잡아주시려 하시였다.

그러자 로설계가는 손을 뒤로 가져가면서 또 물러섰다.

(아, 경애하는 원수님! 이 늙은 몸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은정을 베푸시는것이옵니까.)

며칠후.

투사의 령구는 그가 그렇게도 사랑했던 붉은기에 휩싸여 대성산혁명렬사릉으로 향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감동적인 화폭이 펼쳐지게 될줄은 누구도 몰랐다.

분분초초가 더없이 귀중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일군들과 함께 령구가 안치되는 곳까지 오르시였던것이다.

투사를 잃은 가슴아픔이 정녕 얼마나 크시였으면, 항일혁명투사의 한생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시였으면 며칠밤을 꼬박 새우신 그이께서 오늘은 또 이렇게 대성산혁명렬사릉에까지 오신단 말인가.

애도사를 하는 전 기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손수건으로 거듭 눈굽을 찍으시였다.

조국과 인민에게 끝없이 충직하였던 로투사에게 주실수 있는 정을 다 주시려는듯 그이께서는 고인의 유해에 몸소 손으로 흙을 얹으시였다.

한줌, 두줌…

정녕 수령과 전사간의 혼연일체는 끊을래야 끊을수 없고 가를래야 가를수 없는 굳건한것임을 눈물겹게 새기는 시각이였고 혁명선배에 대한 그이의 의리심이 얼마나 뜨겁고 진실한 것인가를 사무치게 절감하는 순간이였다.

눈물없이 볼수 없는 그 광경앞에서 일군들과 유가족들은

마음속진정을 이렇게 터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 그는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원수님의 그 숭고한 도덕의리에 떠받들려 그는 조국과 인민의 아들로 영생할것입니다.)

인간이 받아안을수 있는 최상의 영광과 행복을 다 누리였으며 오늘은 값높은 영생의 언덕에 오른 로투사.

참으로 리을설투사에게 베풀어진 숭고한 사랑과 의리에 대한 이야기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조국을 위해 바친 혁명전사의 생은 세월과 더불어 더욱 빛난다는 생의 진리를 뜨겁게 새겨주고있다.

# 전사의 얼굴을 애타게 어루만지시며

주체106(2017)년 1월이였다.

새해의 정월도 다 가는 어느날 온 나라 인민들은 숭엄한 감정에 휩싸였다.

신문과 방송, TV를 통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장 비통한 심정을 안으시고 한 일군의 령구를 찾으신 사실을 알게 된것이였다.

고요히 잠든 사랑하는 전우의 얼굴을 쓸어보시며 강기섭동무는 일욕심이 많고 사업에서 도식을 모르며 침착하고 책임성이 높은 우리 당에 무한히 충직한 혁명전사라고 하시면서 다시는 돌아올수 없는 길을 떠나보내는것이 너무도 가슴아프시여 오래도록 격한 심정을 누르지 못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을 뵈오며 사람들은 쏟아지는 눈물을 걷잡지 못했다.

비행기와 더불어 한생을 살고 민용항공부문의 책임일군으로 사업하면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심중에 그토록 깊은 자욱을 남긴 강기섭.

그 어떤 과업도 훌륭히 해제끼는 충실한 전사, 일욕심이 많고 사업에서 도식을 모르며 침착하고 책임성이 높은 일군,

원수님께서 자신의 한 부분과도 같이 여기시며 그렇게 애지중지하시던 일군이였다. 그가 갑자기 심장의 고동을 멈추게 되였다는 뜻밖의 비보를 받으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너무도 억이 막혀 한달음에 병원으로 달려오시였다.

ㅡ 기섭동무! 기섭이! 죽으면 안돼. 나와 끝까지 같이 가자고 약속한 동무가 아닌가?

애타게 불러도 대답이 없는 전사의 이름을 찾고 또 부르시며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눈물속에 온밤을 지새우시였다. 그러시고도 그의 희생이 도저히 믿을래야 믿을수가 없으시여 또다시 전사의 령전을 찾으시였다.

금시 자신께로 달려올것만 같은 그가 누워있는것이 그이께서는 너무도 억이 막히시였다. 이게 생시가 아니고 꿈이였으면 얼마나 좋으랴싶어 그이께서는 고요히 잠든 그의 얼굴을 쓰다듬으시였다.

그러시고는 억장이 무너져내리는것같은 아픔을 참을길 없으시여 격정을 터놓으시였다.

ㅡ 어제까지 펄펄 뛰여다니던 사람이 어떻게 이럴수가 있는가. 세상에 이런 일도 있는가. 그처럼 사랑을 주고 정을 주었는데, 이제 더 큰일을 맡기자고 마음속생각을 굳히고있었는데 내 진정을 받아주지 않고 이렇게 간단 말이요!

그이께서는 통탄을 금할수 없으시였다.

혁명의 길에 왜 희생이 없으랴만은 그렇게도 사랑해주던

그가 간다는 말 한마디 없이 마음속에 이다지도 아픈 상처를 남기고 떠난단 말인가.

동지들에 대한 사랑이 남달리 뜨거우시여 상실의 아픔도 누구보다 크신 원수님께서는 귀중한 그를 잃은 비분으로 가슴터지는것같으시였다.

쏟아지는 눈물을 가까스로 누르시며 그가 남기고 간 살붙이를 품에 꼭 안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철없는 어린것의 울음소리가 아프고 쓰린 마음을 더 허비여 다시 돌아올수 없는 길을 떠난 전사가 더 야속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정말 아까운 사람을 잃었다고, 강기섭총국장과 같은 유능한 민용항공일군을 잃은것은 우리 혁명에 있어서 커다란 손실로 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장내는 숙연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고요가 사람들의 가슴을 더 허비였다.

그이께서는 남다른 충정과 열정으로 높뛰던 전사의 심장이 고동을 멈춘것이 정녕 믿어지지 않으시였다.

그래서인듯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다시 가서 깨워보자고, 내가 이름을 부르면 강기섭이 벌떡 일어날것같다고 몇번이나 외우시였다.

순간 령구가 안치된 장내가 눈물의 바다로 변하였다. 고결한 인간애, 동지애를 지니신 절세위인의 숭고한 모습을 우리

르며 사람들이 오열을 터뜨렸다.

남편의 령구가 안치된 곳에서 경애하는 그이를 우러르는 안해의 얼굴에서도 눈물이 비오듯 쏟아져내렸다. 그러는 그에게는 남편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대해같은 사랑과 믿음에 이어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처럼 뜨거운 사랑과 의리의 품속에서 복된 삶을 누려온 하많은 감동깊은 이야기들이 우렷이 떠올랐다.

…두메산골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여난 강기섭의 꿈은 비행사가 되여 하늘을 나는것이였다.

인생의 좌표를 하늘길에 두고 한생 비행기와 함께 애국충정의 항로만을 날은 유능한 비행사이고 민용항공부문의 실력있는 책임일군인 그에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각별한 정을 기울이시였다.

빛나는 예지와 해박한 식견으로 세계적인 민용항공발전추세에 정통하시고 항공운수분야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올려세우기 위한 방략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는 위대한 스승의 슬하에서 강기섭은 막히는것이 없는 항공전문일군으로 자랐다.

그런 그를 두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하늘길에서는 강기섭이 있어야 마음이 놓인다고 하시며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고 항상 그를 곁에 불러주시면서 뜨거운 사랑을 부어주시였다.

2013년 12월 어느날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주신 임무수행을 위해 강기섭은 비행기를 타고 삼지연비행장으로 떠나게 되였다.

그가 리륙한지 얼마쯤 지나서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 총국의 한 일군을 전화로 찾으시였다.

그를 통해 비행기가 정비과정에 발견한 약간의 결함을 퇴치하느라 예정시간보다 좀 늦게 리륙했다는것을 아시게 된 그이께서는 강기섭과 일행이 임무수행을 마치고 돌아올무렵 몸소 승용차의 운전대를 잡으시고 비행장에 나오시였다.

현지에서 뜻밖에 그이를 뵈옵게 된 비행대의 한 일군이 놀람과 기쁨이 뒤섞인 표정으로 인사를 드렸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비행기가 떠날 때 변변치 않은 상태에서 출발한것같은데 마음이 놓이지 않아 나왔다고 하시며 언제 도착하는가고 물으시였다.

비행기가 11시 10분경에 도착할것이라는 대답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현재 기술상태는 별일이 없는것같은데 어쩐지 마음이 놓이질 않는다고 말씀하시였다.

잠시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금 비행기가 어디까지 왔는가고 일군에게 다시금 물으시였다.

그가 항공지휘소에 알아보려 하자 그이께서는 그를 만류하시고 자신께서 직접 비행기의 비행정형을 알아보시였다. 그러시고는 나와 함께 착륙하는것을 한번 보자고 하시며 승용차에 오르시여 손수 운전대를 잡으시였다.

땅우에서 이런 일이 있는줄도 모르고 그사이 강기섭이 탄 비행기는 유유히 평양국제비행장상공에 도착하여 기수를 낮추었다.

착륙을 앞둔 긴장한 시각 승조원들의 시야에 문득 비행장 한끝에 서있는 그이의 승용차가 안겨들었다.

일시에 환성이 터져올랐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나오시였다!》

그는 불쑥 솟구치는 격정에 목이 꽉 메여왔다.

뿌잇하게 흐려진 눈앞에 12월의 찬바람을 맞으시며 비행장에 서계시는 그이의 모습이 점점 확대되여 다가왔다.

(아! 어쩌면…)

비행기가 무사히 착륙하자 그는 엎어질듯 그이께로 달려갔다.

그이께서는 수고했다고, 비행도중에 다른 일은 제기된것이 없는가고 물으시며 반가이 맞아주시였다.

그이의 안광에 못내 다행스러워하시는 빛이 어리였다.

강기섭은 솟구치는 격정을 애써 누르며 그이를 우러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그를 정답게 바라보시며 나는 비행기가 공중에 떠있는 기간 잠시도 마음을 놓지 못했다고, 더우기 오늘 아침 비행기에서 결함이 나타나서 좀 늦게 떴다는 보고를 받고는 동무들 생각만 했다고 조용히 뇌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억대우같은 사나이들이 끝내 참지 못하고 눈물의 동을 터치며 그이 품에 와락 안겨들었다.

무사히 돌아왔으니 얼마나 좋은가고 하시며 그이께서는 어깨를 들먹이는 승조원들을 껴안으시고 만시름이 풀리신듯 환히 웃으시였다.

얼마나 안타까이 기다려주신 그이이신가.

그 누군가는 세상에 기다리는 일처럼 힘든 일은 없다고 하였다.

그렇다. 체험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있듯이 기다림속에 흐르는 시간은 분분초초가 1년맞잡이로 지루하고 힘겨웁다.

특히 먼곳에 갔다가 돌아오는 사람을 기다릴 때는 더욱 그러하다.

그것은 그 기다림속에 그리움과 상봉의 기쁨만이 아닌 근심과 걱정 또한 산처럼 쌓여있기때문이다.

아마 그래서 모든 어머니들은 사랑하는 자식을 어디론가 떠나보낼 때마다 인차 돌아오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외우는것이리라.

하지만 그런 어머니보다 더 위대하고 자애로운 어버이께서 그처럼 귀중하신 시간을 바치시여 그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려주시였으니 그 열렬하고 정깊은 품을 그 어디에 비기랴.

강기섭은 경애하는 그이를 우러르며 흐느껴울었다. 그리고 심장으로 토로했다.

아, 비행기와 더불어 한생을 살아오는 나는 얼마나 행복한가. 또 우리 비행사들은 자애로운 위인의 품속에서 얼마나 값높은 삶을 누리고있는것인가.

강기섭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수시로 만나뵈옵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아안군 하였다. 만나뵈올수록 그 위대함에 매혹되고 원수님을 닮은 실력가형의 일군이 되여 나라의 민항을 강화하고 발전시키는데 한몸바쳐갈 불같은 열정이 샘솟아올랐다.

자신의 제일가는 혁명동지, 혁명전우라고 하시며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는 원수님의 품에 운명의 피줄을 더욱 굳게 이은 그는 신심과 배짱을 가지고 나라의 항공운수를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의 선두에서 기치를 들고나갔으며 그 나날에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를 숭고한 인생관으로 체현하신 경애하는 그이의 위인상에 깊이 감복하였다.

고지식하고 정직한 일군이라고, 오직 당에서 하라는대로만 하는 일군이라고 정답게 불러주시며 지혜가 모자라면 지혜를 주시고 때로는 어버이의 웅심깊은 사랑으로 아픈 매도 드시며 걸음걸음 이끌어주신 그 손길에 떠받들리여 그의 성장의 날과 달이 흘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과 열이 가슴에 사무쳐올수록 강기섭

은 전사의 의리를 가다듬으며 분발하고 또 분발했다.

침실을 아예 사무실로 옮긴 그는 낮과 밤이 따로없이 일에 파묻혀 살았다.

나라의 항공운수를 발전시킬데 대한 당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아글타글 애쓰는 강기섭이 더없이 대견하시여 원수님께서는 그에게 중요비행임무들도 직접 주시고 몸소 비행지휘도 해주시였다.

그는 몸소 조종간을 잡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처음으로 원수님과 한승조가 되여 비행하는 행운도 지니였었다. 바로 그날은 그에게 있어서 일생에 다시없을 가장 큰 영광의 날, 가장 큰 행복의 날이였다.

로숙한 비행사만이 느낄수 있는 비행감각을 소유하시고 복잡한 비행술어들도 자유자재로 구사하시며 현대과학기술의 종합체인 비행기를 능숙하게 다루시는 원수님을 우러러 그는 경탄을 금치 못했다.

뜻깊은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한 전사를 위해 그리도 마음쓰시며 인생을 빛나게 살라고 한생토록 안고 살 혁명가의 삶의 좌우명도 새겨주시였다.

— 사람은 하루를 살아도 값있게 살아야 한다. 한생을 살고도 흔적이 없으면 산 보람이 없다. 우리 일군들은 조국과 인민을 위한 길에 피와 땀을 바쳐 생의 뚜렷한 흔적을 남겨야 한다.

그이의 금옥같은 가르치심은 그가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속에서도 맡은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기 위해 뛰고 또 뛰게 한 위대한 힘의 원천이였다.

일밖에 모르는 그의 건강을 념려하시여 베풀어주신 은정은 또 그 얼마나 뜨거운것이였던가.

2014년 1월 어느날 밤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를 찾으시였다.

그가 드리는 새해인사를 받으신 그이께서는 흥그러운 어조로 마식령스키장을 멋있게 건설해놓고보니 총국장동무가 생각나서 찾았다고, 지난해 삼지연에 갔을 때 스키를 탈줄 몰라 땀을 빼던 모습이 선하다고 말씀하시였다.

### 일화 오열을 터뜨린 녀인

네번째로 어느한 수산사업소를 찾으시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면서 종업원들은 물론 가족들과 함께 모두 기념사진을 찍자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배인의 안해가 건강이 허락치 않아 기념촬영에 한번도 참가하지 못하였다는것을 아시고 어서 데려오라고 이르시였다.

시간이 지나 안해가 어푸러지듯 달려와 그이의 품에 와락 안기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지배인의 안해를 만나니 반갑다고, 빨리 건강을 회복하고 남편의 뒤바라지를 잘하여 그가 맡은 일을 더 잘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고 뜨겁게 고무해주시였다.

오열을 터뜨리는 녀인의 눈가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웃음어린 그이의 말씀에 그는 저도 모르게 얼굴을 붉혔다.

며칠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몸소 스키장에 나오시였다.

강기섭과 일행의 인사를 받으신 그이께서는 그동안의 스키훈련과 휴식정형을 료해하시고 그들을 방안으로 이끄시였다. 그러시고는 매 일군들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다심히 물으시고나서 나는 고려항공총국장동무가 최근에 내가 주는 중요비행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면서 평양항공역사건설을 비롯하여 부대사업으로 휴식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일하기때문에 이번에 새로 완공된 마식령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면서 푹 휴식하도록 하였다고, 총국장동무가 마식령스키장에서 며칠간 휴식을 하게 되면 머리가 거뜬해지고 쌓였던 피로도 다 풀릴것이라고 정을 담아 말씀하시였다.

순간 그의 가슴속에서는 뜨거운 격정이 용암처럼 끓어번졌다.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하루 한때의 휴식마저 뒤로 미루시며 낮과 밤이 따로없이 불철주야로 사업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인민의 문화휴식장소로 훌륭히 꾸려진 이 마식령스키장에만 하여도 얼마나 크나큰 헌신의 자욱을 새겨오신 그이이신가.

그런데도 그이께서는 응당 할 일을 했을뿐인 그의 수고를 먼저 치하해주시니 가슴속에 솟구치는 격정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할수 있겠는가.

마식령에서 돌아온 그는 그야말로 불사신의 기상으로 일을 해제꼈다. 그가 그 어떤 과업도 훌륭히 해제끼는 충실한 전사여서, 일욕심이 많고 사업에서 도식을 모르며 침착하고 책임성이 높은 일군이여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를 더 아끼고 내세워주시였다. …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전사를 두고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으시여, 다시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나보낸다고 생각하니 못견디게 가슴이 저려드시여 오래도록 그의 곁을 떠나지 못하시였다.

그에게 못다 주신 사랑이 있으신듯 일군들을 보시며 그이께서는 우리는 혁명동지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한다고 절절히 말씀하시면서 유가족들이 오직 당만을 믿고 꿋꿋이 살도록, 그들이 자그마한 불편도 느끼지 않도록 잘 돌봐주어야 한다고 뜨겁게 당부하시였다.

강기섭이 한생토록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을 받들어 애국의 한길만을 꿋꿋이 걸어왔듯이 그의 자식들이 오늘은 대를 이어 그 길을 변함없이 걷고있다.

그의 아들이 국가회의장의 높은 연단에서 한 절절한 웨침은 사람들에게 참다운 인생에 대하여, 그 인생을 지켜주고 빛내주는 위대한 품에 대하여 많은것을 생각하게 한다.

《저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지는 여러해가 지났지만 우리 가족은 언제 한번 아버지없는 서러움을 가져본적이 없

습니다. 아버지의 몸은 비록 우리곁을 떠나갔으나 경애하는 원수님의 추억속에 빛나는 생으로 길이 남아있으며 절세위인의 사랑과 믿음속에 저희 가족도 행복하게 살고있습니다.

언제나 자애에 넘치는 태양의 빛발이 없이 어떻게 참다운 인생을 말할수 있으며 그 빛발이 없이 어떻게 그 인생이 지켜지고 영원한 생으로 빛날수 있겠습니까.》

# 광부의 안해는 말한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근로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사회의 정신적 및 물질적재부가 창조되고 사회력사발전이 추동되며 그래서 인민은 나라의 근본이고 인민보다 더 귀중한 존재는 없다고 하는것이다.

하지만 어느 사회에서나 이들의 평범한 삶이 귀중하고 값높은 생으로 빛나게 되는것은 아니다.

넓으나넓은 이 행성을 둘러보면 인간의 삶에 대하여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된다.

참으로 행복한 인간의 삶은 어떤것인가. 그 삶은 무엇으로 하여 복되고 빛나게 되는것인가.

풍치수려한 신미리의 애국렬사릉에 가면 이 나라 그 어디서나 보게 되는 평범한 로동자의 한사람이였던 검덕의 광부가 영생의 모습으로 빛나고있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름은 박태선.

나라없던 수난의 그 세월에는 땅속에서 사는 두더지나 버려지는 막돌과 같다고 하여 《두더지인생》, 《버럭인생》으로 불리웠을 그는 오늘 령도자와 인민의 축복속에 영생의 삶

을 누리고있다.

검덕.

지심깊이 뻗어있는 연아연광맥의 생김새가 마치 거미와 같다고 하여 《거미덕》이라고 불리워오다가 《검덕》으로 되였다는 이곳에 나라의 굴지의 광물생산기지인 검덕광업련합기업소가 자리잡고있다.

많은 광부들이 살며 일하고있는 바로 이곳에 군사복무를 마친 박태선이 제대배낭을 풀어놓고 광부의 첫발을 뗀것은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 11월이였다.

그는 광산에서 일을 시작한 첫날부터 만근자였다. 그렇지만 광산에는 그를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았다.

원래 말이 없고 대중앞에 나서기도 저어한 그였던것이다. 생활범위는 극상하여 갱주위에 머물렀고 오가는 걸음도 채굴장과 막장휴계실, 집으로 이어진 외통길뿐이였다. 한마디로 있는지 없는지 모를 사람이였다.

허나 그는 온 소대가 사랑한 사람이였다. 항상 어렵고 힘든 일에 남먼저 뛰여들고 맡은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라면 모든것을 깡그리 바치는것이 그의 습성이였다.

소대의 누가 출근하지 못하였을 때면 그 빈자리에는 항상 박태선이 서있었다. 작업도중 어려운 정황에 부닥치면 말없이 소대를 이끈 기수가 그였다. 박태선은 그 누구에게도 말한적이 없지만 그것을 동지에 대한 의리, 집단에 대한 의리

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자신이 걷는 길이 량심으로 선택하고 의리로 걷는 길이라고 언제나 생각하였다.

그가 희생되기 전날은 소학교에 다니는 아들의 생일이였다.

그는 이른새벽에 일어나 안해와 함께 찰떡을 치고 송편도 빚었다. 안해더러 저녁에 아들 광명이의 담임선생님을 모셔오라고도 하였다. 그리고는 날이 밝자 출근길에 나섰다.

안해가 지금까지 미루어온 대휴도 있는데 하루 집에서 쉬면 안되겠는가고 하면서 대문밖까지 따라나섰다.

박태선은 서운해하는 안해를 잠시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당신답지 않게 왜 그러오? 우리 교대에 엊그제 입직한 광부들이 있어 내가 자릴 비우면 안된다는걸 잘 알지 않소. 래일 저녁에 들어오겠소. 미안하오.》

그는 아쉬움을 풀라는듯 한눈을 찡긋하여 웃어보이고는 인차 광구로 향하였다.

품위높은 광석은 지심깊이에 있는 법이다. 그것처럼 사람의 참된 가치도 겉에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생활에서는 눈에 보이는것보다 훨씬 더 많은것이 그 밑바탕에 깔려있기때문이다.

돌이켜볼수록 박태선은 지심깊이의 보석과도 같은 사람이였다.

어느해 겨울날이였다.

이날 박태선의 안해는 불편한 몸으로 소대의 한 광부네 집에 종일토록 가있었다. 그 광부의 안해가 해산을 했는데 병

원에서 퇴원한 후 머나먼 곳의 친정집에 가지 못하고 집에 혼자 있었다. 그것을 안 박태선은 안해에게 산모의 어머니가 올 때까지 잘 돌보아주라고 간곡히 분부했던것이다.

그런데 박태선이 하루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보니 안해가 부엌에서 서성거리는것이 보였다.

그는 방에 앉지도 않은채 성이 나서 안해에게 소리쳤다.

《사람이 그렇게도 무정하오? 어쩌면 그런 산모를 놔두고 집에 돌아온단 말이요? 전국고속도굴진경기에 참가한 남편이 돌아오자면 아직도 먼데…》

안해는 억울해서 눈물을 쏟았다.

사실 다리를 잘 못쓰는 그였지만 남편의 말을 언제 한번 거역해본적이 없었다. 소대총각들의 작업복은 물론 내의까지 그의 손을 거치지 않은 빨래감이 거의 없었다. 불편한 몸인 그가 일밖에 모르고 소대원들을 위한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남편을 만난 덕에 남모르게 겪는 고생은 이루 말할수 없었다.

남편의 뒤바라지를 하기도 헐치 않은데다가 짬만 있으면 별들이 조으는 깊은 밤까지 소대원들에게 먹일 간식과 장갑을 만드느라면 손에서는 자개바람이 일고 뒤목이 뻣뻣하군 했다.

어디 그뿐인가. 남편이 집걱정을 하지 않게 어머니와 함께 집에서 땔 구멍탄을 종일 찍을 때면 온몸이 천길나락속

으로 굴러떨어지는것처럼 노그라들었다. 물론 이 모든 일은 남편모르게 이루어졌다. 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제스스로 성수가 나서 하는 일이였다. 박태선은 집안일과 소대원들을 위한 좋은 일이 주로는 장모의 손에 의해 행해지고있는것으로 알고있었다.

그날도 저녁끼니때가 지났기에 남편이 걱정스러워서 허겁지겁 달려왔었는데 남편은 사연은 알아보지도 않고 욕을 하는것이다.

한참 흘쩍거리다가 얼결에 고개를 쳐들던 그는 깜짝 놀랐다.

뜻밖에 고개를 숙인 남편의 두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있었기때문이였다.

《?!》

가슴이 찌르르했다. 남편도 자기에게 큰소리를 친것이 미안하고 마음이 아파서 울고있는것이다. 이런 사람을 노엽히다니…

그 녀자는 남편의 두손을 꼭 움켜잡고 다시는 안그러겠다고, 당장 그 집에 가겠다고 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안해를 만류했을것이다. 이제는 늦었는데 래일 아침에 가도 된다고.

박태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안해 역시 그런 기대를 품지 않았다. 언제 무슨 일이 닥

쳐올지 모르는 산모때문에 일을 하면서도 한시도 걱정이 떠날줄 몰랐을 남편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있기때문이다.

이윽고 집을 나서는 그의 뒤에서 귀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미안하오. 당신이 또 수고하겠구만.》

출입문을 닫는 안해의 눈굽에서 눈물이 샘처럼 솟구쳤다.

박태선은 비록 평범한 광부였어도 뜻이 높았다.

집단과 동지를 위한, 조국과 인민을 위한 길에서 삶을 참되게 빛내이는것, 이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였고 지향이였다.

2012년 1월 15일, 이날은 금골의 광부들에게 있어서 평범한 하루였다. 정월광물생산계획을 끝낸 기세로 광명성절전까지 1.4분기계획을 앞당겨 끝내려는 열의로 광부들의 기세가 여느때없이 앙양되여있었다.

이날 박태선은 아침일찍 교대성원들과 함께 막장에 들어가 착암준비를 서둘렀다. 착암준비에서 중요한 공정의 하나가 막장천정에 매달린 돌들을 찾아내여 떨구는것이였다.

딱— 딱—

앞에서 돌두드리는 소리가 울렸다.

전해에 인민군대에서 제대된 지동규라는 광부가 지레대를 들고 작업을 시작했다. 박태선은 그쪽으로 전지불을 비치였다. 신입채광공보다 막장경험이 많은 자기가 천정전반을 감시하며 작업을 지휘하는것이 보다 안전하였던것이다.

얼마간 시간이 흘렀을 때였다. 천정짬에 끼인 작은 돌과

씨름하던 지동규는 갑자기 귀전을 때리는 《얏—》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자기 몸을 세게 밀치는 힘에 못이겨 뒤로 나가넘어졌다. 거의 동시에 《쿵—》 하는 소리가 막장을 울리였다.

지동규는 쓰러진채로 두눈을 부릅뜨고 앞을 노려보았다.

3t이 넘는 큰돌이 채광장바닥에 떨어져있었는데 거기에 박태선이 깔리워있었다. 눈깜박할 사이에 생긴 일이여서 어안이 벙벙했던 신입채광공의 입에서 피타는 절규가 터져나왔다.

《아, 태선동지!》

박태선은 이렇게 생을 마치였다. 떨어지는 큰돌을 먼저 발견한 그가 만약 한걸음만 뒤로 물러났으면 살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자기가 살수 있는 길이 아니라 자기를 바쳐 동지를 살리는 희생길을 택하였던것이다. 그의 최후는 순간이였다. 허나 그는 그 순간을 바쳐 참으로 값높은 영생의 삶을 받아안았다.

2012년의 정초부터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전에로 전체 인민을 불러일으키시고 나라의 방방곡곡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박태선의 소행에 대한 자료를 보고받으시였다.

이름은 박태선.

42살의 제대군인광부.

제대된 후 단 한번의 결근도 없이 채광공으로 헌신.

자기의 희생으로 동지를 구원하고 최후를 마침.

유가족으로는 안해와 소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있음.

…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박태선이 희생되기 전의 생활경력과 제대된 후 지금껏 채광공으로서 참되게 일해온 나날들이 씌여진 글줄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시였다.

쉽게 그 진가를 알아볼수 없는 무명의 진짜애국자였다. 분명 땅속깊이에 묻혀있는 진주보석이였다.

박태선. 이 나라의 그 어디서나 살고있고 또 자신께서 공장과 어촌을 찾으실 때마다 스스럼없이 품안에 안겨드는 그지없이 소박하고 진실한 사람들과 꼭같은 평범한 광부이다. 이런 인간에게는 안락한 생활이나 높은 직위, 사회적명예가 인생의 목적이 아니며 누가 알아주건말건 묵묵히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는것이 인생의 보람, 인생의 더없는 뜻일것이다. 이런 보이지 않는 무수한 주추돌에 떠받들리여 조국이 굳건히 서있는것이고 그 어떤 광풍과 도전속에서도 도도한 전진을 멈추지 않는것이 아니겠는가.

비록 광부의 육체는 갔어도 그는 이 세상에 없는것이 아니다. 그처럼 고결한 정신세계의 소유자가 어떻게 세상을 떠났다고 말할수 있단 말인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심중에 이름할수 없는 뜨거운것이 솟구쳐올랐다. 그것은 이름없던 광부를 이 세상 제일의 인간으로

내세우고싶으신 불같은 의리심이였다.

그이께서는 활달하신 필체로 문건의 앞장에 훌륭한 인간이라고 힘주어 쓰시였다. 그러시고는 그의 소행에 대하여 다시금 음미해보시였다.

박태선이 생의 최후순간에 결심한 선택과 그로부터 발휘된 소행.

누구나 할수 있는 선택이 아니였다. 지어먹은 마음에서는 억년이 가도 발현될수 없는 소행이였다.

그와 다른 한 광부가 일한 작업현장은 사람들이 붐비는 지상과 수천척거리를 둔 지심깊이의 막장이다. 그들이 주고받는 말, 그들이 하는 일은 누구도 알수 없었다. 만사람이 지켜보는 속에서와는 달리 이런 무인지경이나 다름없는 천길지하막장에선 본능만이 인간의 사고와 행동을 지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이다.

3t이 넘는 큰돌이 떨어지는것을 발견한 박태선은 피하면 분명 살았을것이다. 그가 피했다고 나무랄 사람도 없었다.

그러나 박태선은 피하지도 않았고 자신을 바치면서도 동지를 살리는 길을 택하였다. 이것은 분명히 그의 본능의 선택이였다.

본능까지도 동지와 조국에 대한 사랑과 의리로 체질화된 바로 여기에 박태선의 사상정신적특질이 있는것이 아닌가. 온나라의 남녀로소가 서로 돕고 아껴주며 동지를 위해 피와 살

도 서슴없이 바치는것이 범상한것으로 되여있는 우리 사회의 사상정신적면모의 본질이 바로 이 박태선의 소행에 함축되여 있는것이 아닌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박태선의 소행과 그의 삶을 높이 평가해주고 길이 빛나도록 해주고싶은 충동을 금할수 없으시였다. 참된 사람의 아름다운 인간상을 오늘은 물론 래일에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게 하는것이 자신의 의리라고 생각되신 그이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비문에 쪼아박듯 한자한자 쓰시였다.

《훌륭한 인간입니다. 이 동무의 영웅적소행을 잊지 말며 동지들을 위해 바친 그의 값높은 삶이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빛나도록 희생된 동무의 몫까지 합쳐 더 많은 일을 합시다.

2012. 2. 1

**김 정 은**》

정녕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 친필은 수천척 지하막장에서 묵묵히 애국의 땀을 바쳐온 평범한 광부의 생을 영광의 최절정에 세워준 가장 값높은 표창이며 사랑과 의리의 고귀한 결정체였다.

끝도 기슭도 없는 그 사랑, 그 의리의 자애로운 손길에 따

라 검덕의 이름없는 광부였던 박태선이 공화국영웅이 되였으며 그에게 애국렬사증이 수여되고 그가 일하던 소대를 그의 이름으로 부르도록 할데 대한 국가적조치가 취해졌다. 그리고 렬사가 남기고 간 자녀를 혁명학원에서 키우도록 하는 은정깊은 조치가 취해졌다.

그로부터 퍼그나 날이 흐른 어느날 저녁이였다.

안해 김정순이 광산의 문화회관에서 주석단으로 오르고있었다.

광물생산에 기여한 가두녀성들에 대한 표창수상자들속에 그도 있었던것이다.

그런데 빼곡이 들어찬 관중들이 그를 바라보며 갑자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한쪽다리를 잘 쓰지 못하는 불편한 몸이였던 그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정속에 평양의 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있다는것은 알고있었지만 벌써 완치되여 여느 사람들과 꼭같은 자세, 꼭같은 걸음새로 당당히 주석단으로 오르는 그를 보는 순간 끓어오르는 격정을 금할수 없었던것이였다.

사람들의 마음을 죄다 읽기라도 한듯 장내를 절절히 울리며 터치는 김정순의 목소리가 사람들을 울리였다.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다 아시다싶이 박태선의 안해인 제가 다리를 잘 쓰지 못해 여직껏 고생하고있다는것을 료해하신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전문병원에서 저를 맡아 집중치료하여 원상회복시킬데 대한 조치를 취해주시여

지금은…》

정순은 더 말을 잇지 못했다. 감격이 북받쳐올라 어깨를 들먹이기만 할뿐이였다.

이어 3대를 이어오며 검덕에 태를 묻고 살아오는 오랜 광부가 재촉해서야 그는 오열을 터뜨리며 토로했다.

《여보, 어서 일어나 여기를 좀 보라구요. 십여년을 함께 살면서 몸불편한 저때문에 한쪽구석은 늘 어두웠던 당신 마음을 원수님께서 아시고… 흐흑…

여러분, 저의 남편 박태선은 말이 없고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여서 가정잡사는 아예 누구에게도 비치지 않는 성미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때문에 마음속에는 늘 무거운 납덩이를 안고 살았는데 누구도 그것을 몰랐고 혹 알았다고 해도 그것은 어쩔수 없는것으로 여겼었습니다.

그러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만은 그처럼 고결한 최후로 생을 마친 남편이 마음속그늘도 깡그리 가시고 영생의 삶으로 빛나기를 절절히 바라시였습니다. 떠나간 그의 유일한 마음속아픔마저 자신의 아픔처럼 여기시였기에, 인간에 대한 진정과 의리를 천품으로 타고나신분이였기에 그이께서는 남편에게 주실수 있는 온갖 은정을 다 베풀어주시고도 유가족들을 위해 그토록 심혈을 기울이신것이 아니겠습니까.

무한한 의리의 세계, 그 사랑의 빛발속에 저의 남편은 오늘 평양시교외의 풍치수려한 애국렬사릉에 안치되여있습니다.

돌사진과 함께 묘에 새겨져있는 채광공이라는 글발을 보며 사람들은 쉬이 발걸음을 떼지 못합니다.

이 지구상에 수천길 지하막장에서 탄을 캐고 광석을 캐는 탄부나 광부가 수백만, 수천만이나 되겠지만 그렇게도 많은 탄부, 광부들중에 남편과 같은 영생의 삶을 받아안은 사람이 과연 있습니까. 그처럼 평범한 광부가 조국과 인민을 위해 큰 공헌을 한 렬사들과 어깨나란히 빛나는것을 본적이 있습니까, 들어본적이 있습니까.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품이 얼마나 넓고넓은지 렬사릉에 가보면 다 알수 있습니다. 저희 남편과 같은 로동자가 그곳 애국렬사릉에서 조국과 인민을 위해 큰 공헌을 한 렬사들과 어깨나란히 생시의 모습으로 살아있습니다. 또 거기엔 농민도 있습니다. 이 꿈같은 사실앞에서, 원수님의 끝이 없는 사랑앞에서 온 나라 인민이 울고 강산도 흐느낍니다.》

조선에서 펼쳐진 한 광부에 대한 전설같은 의리의 세계는 실로 많은것을 시사해주고있다.

평범한 한 광부의 아름다운 인간미와 자그마한 소행도 그처럼 소중히 여기시고 크나큰 은정을 부어주시는 한없이 뜨거운 인간애와 고결한 의리의 세계야말로 동서고금에 있어본적 없는 가장 숭고한 의리를 위대한 천품으로 체현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신 사회주의조선에서만 펼쳐질수 있는 가슴뜨거운 현실이 아니겠는가.

애국렬사릉의 광부의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그 어디에서 생의 출발을 떼였다 해도 조국과 인민을 위한 헌신의 한길에서 고귀한 생명을 바친 사람이라면 모두 품에 안아 영원한 생으로 빛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니신 숭고한 도덕의리의 최고정화를 본다.

오늘 우리 조국에서는 평범한 광부처럼 나라와 인민, 집단을 위해 귀중한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가운데는 군인도 있고 로동자와 농민, 나어린 학생도 있으며 국가의 높은 직위에 있던 사람들도 있다.

### 일화 축구선수들의 환희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진행된 4.25팀과 선봉팀간의 결승경기가 4.25팀의 승리로 끝났을 때.

원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석단으로 달려올라가 사랑의 축복을 받아안고있는 4.25팀선수들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선봉팀선수들은 경기장바닥에서 울고만 있었다.

이때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4.25팀에 패한 선봉팀의 선수들과 감독들이 경기장에서 울고있는데 그들도 주석단앞으로 올라오라고 하여야 하겠다고 조용히 이르시였다. 그러시며 선봉팀선수들이 오늘 경기에서 패한것만도 섭섭하겠는데 내가 그들을 만나주지 않으면 밤잠을 자지 못할것이라고 다시금 말씀하시였다.

순간 관람군중들속에서 《와!-》 하는 흠모와 기쁨에 젖은 함성소리가 터져나와 경기장을 또다시 진감시켰다.

이긴 선수, 패한 선수들이 다같이 받아안은 영광.

정녕 그것은 축구력사의 그 어느 갈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감동깊은 사실이였다.

그들이 태여난 고향과 출신환경, 나이와 경력도 서로 다르다.

하지만 그가 누구이든, 그 어디서 생의 출발을 뗐든 경애하는 원수님의 한없는 의리의 세계에서 그들은 영생하는 삶을 누리고있다.

평시에는 순박하고 일밖에 모르는 고지식한 농민이였어도 함께 일하는 분조원들을 구원하는데서는 열혈의 심장을 서슴없이 내댄 리창선과 범람하는 홍수속에서 수정같이 맑고 깨끗한 마음을 만천하에 보여준 신흥군의 나어린 10대소녀 한현경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고귀한 사랑과 의리의 품에 안겨 죽어서도 빛나는 생을 누리고있다.

정녕 그가 누구이든, 그 어디서 생의 출발을 뗐든 조국과 인민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한 사람이라면 다 한품에 안아 삶을 빛내주고 사후에는 끝나지 않는 영생을 안겨주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의리의 품은 한없이 넓고넓다.

그이의 숭고한 도덕의리의 세계에 대한 하많은 이야기들은 천만사람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며 세계를 격동시키고있다.

희세의 천품을 타고나신 경애하는 그이의 끝도 기슭도 없는 의리의 세계에서 세상에 부럼없는 존엄높은 생을 살고 죽어서도 끝나지 않는 영생의 삶을 누리는것은 조국의 인민들이 받아안은 특전이며 누구나 쉽게 지닐수 없는 행운이 아닐수 없다.

# 《내 아들의 묘주가 원수님이시라니?!》

사람들은 살아가는 과정에 선대와 후대사이, 부모와 자식사이, 동지와 동지사이 등 여러가지로 서로 의리를 맺게 되며 그 의리를 천금처럼 중히 여기고 그 의리를 지켜 목숨까지 바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인간의 의리중에 가장 숭고하고 값높은 의리는 어떤것이겠는가.

이에 대해 세계적인 차원에서는 여러가지 해석이 있을수 있겠지만 우리가 당당히 말하는 인류사회에서 가장 높고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의리는 수령과 전사간의 의리, 전사들에 대한 수령의 도덕의리이다.

**김정은**원수님!

그이는 인간애로 불타는 뜨거운 심장을 지니신 열혈의 인간, 인간에 대한 고결한 의리로 위대하신 절세의 위인이시다.

경애하는 그이의 한없이 뜨겁고 고결한 사랑과 의리에 떠받들려 얼마나 많은 유명무명의 사람들이 영생의 삶을 빛내이고있는가.

주체102(2013)년 11월 1일이였다.

불면불휴의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이날 동해안의 어느한 해군부대를 찾으시였다.

푸르른 하늘아래 갈매기떼 날아예는 바다는 잠풍에 조용히 흐느적이였지만 원수님의 심중에선 세찬 파도가 일고있었다. 얼마전에 희생된 해군용사들이 둔덕의 용사묘에 잠들고 있었던것이다. 그들의 최후를 보고받으신 그때로부터 어느 하루, 어느 한시도 용사들을 잊지 못하시던 원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달려오신것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차를 세우신 곳은 묘앞에서 얼마간 떨어진 곳이였다. 희생된 용사들이 누워있는 묘앞까지 승용차를 타고 올라가실수가 없으신 그이이시였기에 묘지구역 입구에 차를 세우시였던것이다.

그이께서는 마중나온 지휘관들과 인사를 나누신 후 용사들의 묘부터 찾아보자고 하시며 곧바로 그곳으로 향하시였다. 멀리 평양에서부터 희생된 용사들을 위해 몸소 꽃송이를 준비하여가지고 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는 지휘관들의 눈가에는 뜨거운것이 고여올랐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빠른 걸음으로 묘에 당도하시였다. 세상에 없는 동지애, 전우애의 위대한 세계를 펼치신 절세의 위인을 우러르며 일군들도 끓어오르는 격정속에 그이의 뒤를 따랐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희생된 용사들의 묘비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돌아보시면서 사진이 아주 잘되였다고, 모두 젊고 끌끌하고 잘났다고 하시며 금시라도 일어나 반길것만 같다고 격정을 금치 못해하시였다.

(아, 저 젊고 끌끌한 모습들에 새겨진 그이의 로고는 그 얼마였던가.)

그이를 우러르는 일군들의 뇌리에 희생된 해군용사들을 위하여 수많은 밤을 지새우시며 바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고결한 의리의 세계가 어제일이런듯 생생히 펼쳐졌다.

…해군용사들이 전투임무수행중 장렬하게 희생되였다는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그 사실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으시여 해당 부문 일군에게 몇번이나 확인하고 또 확인하시며 너무도 억이 막혀 가슴이 터져옴을 금치 못해하시였다.

얼마나 사랑하시던 병사들이였던가. 조국과 인민을 수호하는 성스러운 길에서 언제나 한전호에 계시며 그토록 애지중지 키우신 전사들이여서, 그 전해인 2월에도 자신과 함께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으며 격정의 눈물을 흘리던 그 모습들이여서 그이께서는 도저히 진정하실수 없으시였다.

조국수호의 길에서 군인의 희생은 불가피하게 있을수 있다. 하지만 전시도 아닌 평화적시기에 너무도 애어린 전사들이 머나먼 바다길에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되였다니 이 얼

마나 가슴쓰린 일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그들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파 잠을 이룰수 없고 밥이 목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그들에게 푸짐한 식사 한끼 제대로 시키지 못하고 떠나보낸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여지는것같다고, 나는 그들이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시며 눈굽을 닦으시였다.

그이를 우러르는 일군들도 소리없는 울음을 터뜨렸다. 전사들에 대한 생각으로 억장이 무너져내리는 아픔을 느끼시는 그이께 무어라 아뢰며 진정의 말씀을 드릴지 알수 없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러는 일군들에게 그들의 시신을 다 찾기 전에는 장례식을 절대로 할수 없다고 근엄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천길바다밑을 다 뒤져서라도 희생된 용사들의 시신을 마지막 한사람까지 무조건 찾아내여 장례식을 잘해줄데 대한 명령을 내리시였다.

그 불같은 사랑, 뜨거운 은정에 떠받들리여 희생된 용사들의 시신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대지에 솟아올랐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용사묘를 잘 꾸려주자고 하시며 몸소 그 형성안초안을 그려가시였다. 그리고 그에 기초하여 완성된 용사묘의 형성안을 여러 차례나 보아주시고 부대가 있는 명당자리에 위치까지 정해주시였으며 묘의 란간형식과 돌색갈은 어떤것으로 해야 하는가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러시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신듯 원수님께서는 묘비들에 용사들의 생전의 모습을 새긴 돌사진을 붙여주자고, 그래야 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것같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원수님께서는 해당 부문 일군을 부르시여 희생된 해병들의 사진을 곧 올려오도록 이르시였다. 묘비에 돌사진으로 고착시킬 그들의 모습을 자신께서 직접 생전의 가장 훌륭한 초상으로 만드실 결심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아무리 작은 사진이라도 좋으니 원본을 올려보내라고 하시였다.

부대지휘관들은 난감하지 않을수 없었다. 사진들의 크기가 서로 다르고 질이 그닥 좋지 못한것도 문제였지만 보다 안타까운것은 겨우 찾은 한 용사의 사진이 눈을 감고 찍은것밖에 없는것이였다. 강원도 안변군에 고향을 둔 그는 군사복무의 나날을 거의나 함선에서 보내다나니 부대에 남긴 다른 사진은 없었다.

하는수없이 부대지휘관들은 눈을 감고 찍은 용사의 사진원본을 경애하는 원수님께 그대로 보고드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한 일군을 부르시여 눈을 감은 군인의 사진이 올라온데 대하여 알려주시면서 자신께서 언제인가 이 부대를 찾았을 때 군인들과 함께 찍은 기념사진에서 이 동무의 사진을 찾아보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찍은 영광의 기념사진들에는 사랑하는 병사들의 모습이 그대로 고착되여있었다. 부대의 지휘관들이 그처럼 찾지 못해 속을 썩이던 그 용사의 눈을 뜬 사진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간수하고계신 기념사진에 의하여 세상에 전해지게 되였다. 기념사진속의 용사의 모습은 원래 몹시 작았다. 하지만 그이께서는 부모들도 인차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작은 그 사진에 숱한 품을 들이고 지성을 기울이시였다. 해군용사들의 사진 하나하나마다에는 다 이런 가슴뜨거운 사연들이 소중히 깃들어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렇게 품을 들이고 정을 기울여 만든 용사들의 사진이 돌사진으로 묘비들에 고착되였을 때에는 하나하나 보아주시며 잊지 못할 전우들과 마음속대화를 나누시였다.

력사에는 군령도자와 병사들사이의 류다른 관계를 전하는 일화들이 많다. 하지만 이처럼 최고사령관이 기념사진에서 떠나간 병사의 모습을 찾아 빛내준 례는 일찌기 없었다.

동해의 해군용사들은 조국의 바다를 지키는 전투임무수행의 길에서 온전한 유품도, 변변한 사진 한장도 남기지 못하고 떠나갔지만 조국수호의 길에서 만나신 그들의 끌끌한 모습을 소중히 간직하고계신 경애하는 원수님에 의하여 가장 훌륭한 군인의 모습으로 조국청사에 영원히 아로새겨지게 되였다. …

살아숨쉬는듯한 생동하고 열정적인 모습들이 돌사진속에서 그이를 우러르고있었다.

함의 군관 장세철이며 늘 말없이 궂은일만 골라하던 초기복무사관 엄춘삼, 함의 막냉이인 18살의 황해도내기 홍혁성…

정녕 비통함을 참을수 없으시였다. 끝내 걸음을 멈추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포부도 크고 위훈을 세우려는 꿈과 희망으로 가슴 불태우며 복무의 나날을 보낸 용사들과 영웅이 되여 고향으로 돌아오겠다고 싱글벙글 웃으며 떠난 아들들의 희생을 두고 눈물을 흘릴 부모들, 돌아올 남편을 기다리던 안해들을 생각하면 가슴에서 억장이 무너지는것만 같다고,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그들의 심정이야 오죽하겠는가고 갈리신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조국수호는 희생도 각오해야 하지만 용사들이 너무도 젊은 나이에 우리곁을 떠난것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고 비분을 금치 못해하시였다.

희생된 용사들이 떠나온 고향은 서로 달랐다. 하지만 그들이 그 어디서 생의 출발을 떼였다 해도 모두를 한품에 안아 영생의 언덕에 내세워주고싶으신 심정이 그이의 심장에 고패쳤다.

오랜 시간에 걸쳐 용사묘를 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앞에는 푸른 바다가 펼쳐져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빛이 비쳐드는 묘를 이윽토록 바라보시며 이렇게 용사들을 안

장하고보니 한결 마음이 놓인다고 조용히 뇌이시였다. 그러시다가 문득 묘비에는 묘주의 이름이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 동무들의 묘주는 내가 되겠소, 묘비에 나의 이름을 써넣으시오, 묘주의 이름까지 써놓아야 마음이 조금이나마 풀릴것같소!라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흐르는 세월을 거슬러 력사를 되새겨보면 이 세상에 군대가 출현하여 군령도자와 병사간의 사랑과 의리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가 수없이 전해져오지만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처럼 희생된 용사들을 위해 몸소 묘주가 되여주신 그런 례가 일찌기 없었다.

예로부터 묘주는 고인의 가장 가까운 혈육이 되는것이 상례이다.

그렇다면 경애하는 원수님과 희생된 해군용사들은 과연 어떤 관계에 있는가.

경애하는 원수님은 이 땅에 생을 둔 모든 사람들의 운명의 보호자이시다. 조국의 미래와 후손들의 앞날까지도 그이께 전적으로 맡기고 가장 가까운 혈육조차 주지 못하는 이 세상 가장 위대한 사랑과 은정속에 생의 보람과 가치를 매일매 시각 페부로 절감하며 사는 이 나라의 인민이다. 조국과 인민을 위한 길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원수님을 따르면서 사람들은 이것을 실지 체험으로, 생활의 본령으로 뼈에 새기였다.

령도자이시기 전에 매 가정의 어버이, 혈육중의 가장 가까운 혈육이 되신 **김정은**원수님. 그이는 정녕 생의 은인, 삶의 어버이로 인민의 심장속에 자리잡으신 위대한 인간이시다.

그러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 땅의 어느 어머니도 줄수 없는 한없는 사랑과 고결한 의리로 희생된 해군용사들의 묘주가 되여주신것이 아니던가.

《묘 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 정 은**》

용사묘비에 새겨진 이 불멸의 글발에서 사람들은 그 어디에서 생의 출발을 떼였다 해도 조국과 인민을 위한 헌신의 한길에서 생명을 바친 사람이라면 모두 품에 안아 영원한 생으로 빛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니신 숭고한 도덕의리의 최고정화를 본다. 이 글발에서 사랑과 의리의 최고화신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과 바다의 용사들, 아니 온 나라 인민이 끊을래야 끊을수 없는 한피줄로 더욱 가깝게, 더욱 뜨겁게 이어지는 성스러운 조국의 아름다운 래일을 본다.

세상사람들은 최고사령관이 묘주라는 이 전설같은 사실에서 그 어떤 의무감이나 인정과 동정으로 계산할수 없으며 돈으로는 더욱더 계산할수 없는 천금주고 살수 없는 경애하는

원수님과 병사들간의 혈연의 정, 의리의 정을 본다.

위대한 존함이 금문자로 새겨진 묘비앞에서 한 녀인은 아들의 모습이 새겨진 묘비를 쓰다듬으며 오열을 터치였다.

《내 아들의 묘주가 원수님이시라니?! 세상에 이런 일도 있습니까? 우리 원수님이 아니고서야 누가 세상에 이런 일을 펼칠수 있겠습니까!》

녀인의 말은 길지 않았다. 하지만 길고긴 장편의 무게를 가지고 울리는 그의 웨침에는 력사에 류례없는 사랑의 전설을 이 하늘아래의 인간세상에 아름답게 펼쳐주신 고마운 은인에 대한 다함없는 찬가가 흐르고있었다.

그이의 숭고한 도덕의리의 세계에 대한 하많은 이야기들은 천만사람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며 세계를 격동시키고있다. 체험자, 목격자들이 터친 눈물의 고백만이 아닌 남조선과 세계에서 울려나온 반향들도 사람들을 격정에 휩싸이게 한다.

《최고사령관이 병사들의

칭송의 목소리

### 전사들의 묘주가 되시여

**김정은**최고사령관께서 혁명렬사릉 등에서 리용하는 돌사진까지 새겨넣은 장중한 합장묘를 조성하고 묘주이름에 **김정은**최고사령관 이름을 직접 적어넣어 그 묘지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밝히시였으며 그 바쁜 와중에 직접 꽃을 들고 찾아와 헌화까지 하시였다. …

정말 병사들을 자신의 살붙이로 여기고 그 살점이 떨어져나가는 아픔을 느끼지 않았다면 생각할수 없는 조치들이였다.

(남조선언론에 실린 글중에서)

묘주가 된것은 세계력사에 전무후무한 일이다. 이남에서 당국이 위공자들을 개처럼 내버리고 돌보지 않아 그 가족들이 해외로 망명하고있는것과 대비하면 하늘과 땅차이이다. 저런 군대가 령도자를 위해 왜 목숨을 내대지 않겠는가.》

《육탄영웅으로 세계에 알려졌던 마뜨로쏘브의 이름이 교과서에서 지워지고 묘비마저 파괴되였다. 어린 처녀의 몸으로 침략자와 용감히 싸운 조야의 공헌도 모독되였다. 그런 나라에 몸담은 내가 여기 조선의 현실을 목격하면서 얼마나 충격이 컸겠는가 하는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 충격속에서 나는 하나의 진리를 터득했는바 그것은 한때 영웅으로 떠받들렸어도 그 삶을 영생에로 이어주지 못할 때에는 비참하게 끝장나게 된다는것, 위대한 품이 있을 때 영웅의 이름이 영원히 빛나게 된다는것이다.》

# 로병들을 영광의 최절정에

군대를 가지고있는 나라에는 다 로병이 있고 전쟁을 겪은 나라에는 전쟁참전자가 있기마련이다.

육체적생명에 한계가 있어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로병이나 전쟁참전자들은 하나둘 이 땅을 떠나가고 사람들의 기억속에서도 그들의 무훈이 점점 사라져가고있는것은 어쩔수 없는 현실로 되고있다.

그러나 세월의 이끼가 두터워져가도 변함이 없고 더더욱 뜨거워만지는 고결한 사랑과 의리로 그들의 삶에 청춘의 활력을 부어주고 죽어서도 빛나는 영생의 언덕에 내세워주는 위대한 품이 있다.

의리의 인간 **김정은**!

경애하는 그이의 끝도 기슭도 없는 무한한 의리의 세계속에서 이 땅의 로병들과 전쟁참전렬사들은 얼마나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고있는것인가.

전쟁로병인 한 일군의 회상록에는 그에 대한 가슴뜨거운 사실들이 적혀져 사람들의 눈시울을 적셔주고있다.

《언제인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모시고 국가적인

행사가 진행되던 때의 일이다.

이날 주석단에 나이많은 장령들이 자리잡게 되였는데 나도 그속에 있었다. 모두가 일찍부터 위대한 수령님들을 따라 한생을 변함없이 걸어왔고 고령의 나이에도 군복을 벗지 않고 조국과 인민을 위한 길에 한생을 바쳐가는 로병들이였다.

속일수 없는것이 나이인지라 시간이 흐르자 나는 발을 이쪽저쪽으로 옮겨짚으며 몸의 균형을 바로잡느라 애썼다.

바로 이러한 때 나와 주석단에 자리잡고있던 또 다른 로병의 신상을 두고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그처럼 뜨거운 관심을 돌리고계시는줄 나는 후에야 알게 되였다.

일군의 말에 의하면 행사가 시작되여서부터 주석단에 서있는 나이많은 일군들을 눈여겨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한 일군을 부르시더니 그들이 이제는 나이가 많아 서있기 힘들어하는데 의자를 가져다주어 앉아서 행사에 참가하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다심히 이르시였다는것이였다.

그 순간 일군은 주춤거렸다고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도 서계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겠는가 하는 심정에서였다.

그의 생각을 헤아리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들을 의자에 앉히면 행사분위기에 맞지 않고 설사 의자를 가져다주어도 앉지 않겠다고 할수 있는데 그래도 의자를 가져다주어야 하겠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고 한다.

이렇게 되여 행사관례를 깨뜨리고 나와 또 한명의 로병의 뒤에 의자가 놓이게 되였다. 우리 둘은 앉지 않으면 안되였다. 저도 모르게 격정이 솟구쳐 눈물이 와락 쏟아져나오는 것을 어쩔수 없었다. 옆의 로병은 소리없이 흐느끼고있었다.

자고로 그 어느 나라 력사에도 국가적인 행사에 령도자는 서서 참가하고 수하일군은 의자에 앉아서 참가한 사실은 없었다. 력사에 전무후무한 이 가슴벅찬 사실의 체험자, 목격자로서 나는 오로지 **김정은**원수님을 모신 우리 나라에서만 있을수 있는 로병들에 대한 사랑에 대하여, 전대미문의 도덕의리에 대하여 쓰지 않을수 없는 충동을 금할수 없었고 그래서 이렇게 붓을 들게 되였다. …》

세상에 발표되자마자 사람들의 관심을 끈 회상록에는 공화국에서 해마다 진행되군 하는 전국로병대회와 새로 꾸려진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에 깃든 사연에 대하여서도 상세하게 렬거되여있다.

2012년 7월 온 나라에 전승절경축행사가 성대히 진행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 소식에 접하여 온 나라가 끓어번졌다.

누구보다도 전쟁로병들이 받아안은 충격이 컸다. 온 나라의 대경사로 경축하는 전승절행사에 자기들이 대표로 초청되였다는 소식이 전쟁로병들을 몹시 흥분시켰다.

정주년도 아닌 전승 59돐이 되는 그해에 성대한 경축행사

가 진행되게 된데는 깊은 사연이 깃들어있었다.

전승절을 앞둔 어느날 일군들에게 다가오는 전승절행사와 관련한 가르치심을 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자신께서는 전쟁로병들이 더 늙기 전에 그들을 만나 기념사진도 함께 찍고 국가연회도 차려주려고 한다고, 자신께서 전쟁로병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면 그들의 손자, 손녀들도 할아버지가 전쟁로병이라는것을 자랑스럽게 여길것이라고 하시였다.

그후 어느날 또다시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당이 아끼고 내세우는 전쟁로병들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싸운 참다운 애국자, 민족의 장한 아들딸들이라고 하시며 전쟁로병들을 존대하고 적극 내세워주며 잘 돌봐주는것은 혁명의 요구이며 후대들이 지녀야 할 숭고한 도덕의리라고 또다시 강조하시였다.

이렇게 되여 7월 24일 신문, 통신, 방송들은 일제히 전승절경축행사가 성대히 진행됨을 알리는 보도를 날리게 되였던 것이다.

전승절을 뜻깊게 경축한다고 하면서도 여느 명절들처럼 공연이나 크게 조직하면 될것이라고 생각하던 일군들은 자기들의 생각이 얼마나 짧았는가를 깊이 뉘우치지 않을수 없었다.

행사에 참가하는 로병들을 비행기도 동원하고 뻐스나 렬차를 동원하여 평양에 올려오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그

들을 잘 우대해줄데 대하여 하나하나 세심히 가르쳐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정에 머리가 수그러들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로병들이 발휘한 고귀한 혁명정신을 높이 평가하시며 하신 말씀이 일군들의 귀전에 메아리쳐왔다.

그들에게 1950년대에 수령님의 령도따라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침략으로부터 우리 조국을 지켜냈기에 오늘이 있다는것을 간곡히 강조해주어야 한다. 전쟁로병대표들에게 그렇게 말해주는것이 조국해방전쟁에서 이룩한 그들의 공적에 대한 평가로 된다. …

전화의 위훈자들에 대한 한없는 사랑과 정이 넘치는 그이의 말씀은 그후에도 일군들의 가슴을 계속 울려주었다.

나는 전쟁로병들을 도덕의리적으로만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나의 할아버지, 아버지로 생각하며 존경하고 귀중히 여긴다. 사회적으로 전쟁로병들을 존대하고 잘 대우해주어 그들이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참가자라는 긍지감을 가지고 자기의 한생을 빛나게 총화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렇듯 웅심깊은 뜻과 은정에 의하여 조국해방전쟁승리 59돐을 온 나라의 대경사로 성대히 경축하게 되였으며 전쟁로병들은 행사의 주인공들로 어디서나 떠받들리우며 전승세대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있었다.

전승절의 하루하루를 젊음을 되찾은 기분으로 즐거움속에, 행복속에 보내고있던 전쟁로병들에게 바라고바라던 영광의 시

각이 왔다.

전승 59돐 경축행사에 참가한 전쟁로병대표들을 몸소 만나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나라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가렬한 싸움에서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영예롭게 지켜냈으며 불멸의 위훈을 세운 그들을 축하해주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전쟁로병들이 건강하여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 높이 발휘한 집단주의, 대중적영웅주의정신을 후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줌으로써 주체혁명위업을 꿋꿋이 계승해나가도록 고무추동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실 때 로병들은 모두 울었다. 그들의 자식들과 손자, 손녀들, 아니 온 나라 인민이 감격에 목메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로병들과 함께 찍으신 기념사진, 그것은 조국수호의 결전장마다에서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쳐싸운 전체 전쟁로병들에 대한 값높은 표창이고 평가였다.

해마다 전쟁로병들을 평양에 불러다 전승절을 크게 쇠는것을 전통화하도록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그렇게 하면 전쟁로병들이 올해의 전승절행사에 다 참가하지 못해도 다음해에는 참가할수 있다는 신심을 가지고 건강관리를 더 잘할것이라고 하시며 모든 전쟁로병들의 가슴에 재생의 활력을 부어주신 그이이시다.

전승용사들에게 영원한 승리자의 모습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은 날이 갈수록 더욱 뜨거워지는 절대적이고 숭고한것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2015년 7월 제4차 전국로병대회에서 하신 축하연설의 구절구절이 오늘도 만사람의 심장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어제가 없는 오늘이 없고 오늘이 없는 래일이 있을수 없습니다.

우리의 전쟁로병들은 영웅조선의 강대성과 승리의 력사를 체현한 증견자들이며 위대한 수령들의 존함과 함께 불리우는 시대를 대표하는 금은보화에도 비길수 없는 나라의 귀중한 보배입니다.

우리 당은 전쟁로병들을 피로써 조국을 지킨 은인으로뿐 아니라 최후승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계승자들의 대오에 조국결사수호의 맥동을 더해주는 훌륭한 혁명선배, 교양자로 더없이 존경하며 높이 내세우고있습니다.

우리의 전쟁로병들은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결사수호한 민족의 장한 영웅들이며 진정한 애국자들입니다.》

금은보화에도 비길수 없는 나라의 귀중한 보배!

조국결사수호의 맥동을 더해주는 훌륭한 혁명선배, 교양자!

조국과 인민을 결사수호한 민족의 장한 영웅들, 진정한 애국자들!

과연 어느 나라의 령도자가 로병들을 이렇듯 고귀한 칭호로 불러주고 이렇듯 귀중한 존재로 내세워주었던가.

인생 칠십 고래희라는데 팔십을 넘기면서 후대들의 존대속에 사는것만으로도 인생의 락으로, 행운으로 여겨온 모든 로병들에게 원수님께서는 이 세상 가장 고귀하고 영예로운 칭호를 다 안겨주시며 떠받들어주시는것이다.

여러 나라들에서 전쟁로병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부자들의 별장경비를 서주거나 자기들의 가슴에서 빛나던 훈장들을 팔겠다는 광고를 신문에 내는 심각한 사회정치적문제가 제기되고있는 때에 류례없는 전쟁로병존대기풍으로 세계정치계를 진동시키신 경애하는 원수님!

정녕 그것은 경애하는 그이께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의 승리상에 《위대한 년대에 경의를 드린다》라고 불멸의 친필을 새기시였듯이 자기 한목숨을 기꺼이 내대고 싸운 조국수호전의 용사들에게 그이께서 친히 표시하시는 가장 숭고한 경의였으며 영원한 청춘의 모습으로 새세대들에게 참된 조국수호정신을 넘겨주기를 바라시는 크나큰 믿음이였다.

평양의 풍치수려한 석박산기슭에 숭고한 도덕의리의 기념비인양 솟아 빛나는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가 있다.

이 땅에 전쟁의 포화가 멎은 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렀

다. 강산이 변한다는 그 10년이 여러번 흐른 오늘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 성스러운 조국해방전쟁에 참전하여 영용하게 싸우다가 전사한 렬사들의 공적을 새겨보는것은 무엇때문인가.

그들의 위훈과 업적이 영웅적이고 그들이 남긴 정신이 고결하기때문이다.

하지만 보다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한없이 숭고한 의리의 대돌을 높이 쌓아 조국수호의 년대를 빛내인 영웅들의 이름을 한사람한사람 천연화강석에 사진과 함께 쪼아새겨 영원히 빛나게 해주신 그 가슴뜨거운 사연이 천만사람들의 심장을 울려서가 아니였던가.

세월의 흐름은 많은것을 희석시키고 잊게 한다고 했다.

그러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니신 떠나간 영웅전사들에 대한 사랑과 의리의 세계는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더더욱 부각되고 진함을 모르는 영원한 사랑과 의리의 위대한 세계이다.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이 되는 해인 주체102(2013)년 7월 1일.

새로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건설을 발기하시고 언제나 묘건설에 큰 관심을 돌려오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날 조국수호와 인민의 행복을 위한 현지지도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친히 완공단계에 이른 렬사묘건설장을 찾으시였다.

그 모습이 확연히 안겨오는 렬사묘전경을 바라보시며 걸음

을 옮기시던 원수님께서는 잔디밭에 이르시여 하나같이 잘 자란 잔디들을 쓸어보시며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인민군렬사들을 안치하게 될 반원형으로 되여있는 렬사묘구역에 이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옛날부터 묘에는 묘주가 있다고,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에서 전사한 인민군렬사들을 안치한 묘의 묘주는 우리 당이라고, 조국의 통일독립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친 인민군렬사들의 영웅적위훈을 후대들에게 길이 전해주는 의미에서도 그렇고 혁명선배들에 대한 도덕의리의 면에서 놓고보아도 마땅히 우리 당이 인민군렬사묘의 묘주가 되여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묘주는 조선로동당!

만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이 부름에는 조국과 인민을 위한 성전에서 오래전에 떠나간 전쟁로병들을 한품에 안아 영생의 봄빛을 비쳐주시는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뜨거운 사랑과 고결한 의리심이 집약되여있었다.

문주앞에 이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문주를 특색있고 무게있게 건립했다고 하시면서 문주가 멋있다고, 문주를 휘날리는 당기와 공화국기로 형상하니 인민군렬사들이 우리 당과 공화국의 품에 안겨 영생하고있다는것이 조형예술적으로 잘 안겨온다고, 문주에 전쟁기간을 의미하는 《1950》, 《1953》

이라는 년도를 부각시켜 위대한 년대에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한목숨 서슴없이 바쳐싸운 렬사들의 묘라는것이 잘 안겨오게 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이어 렬사묘구역의 중심에 일떠세운 기념탑을 돌아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기념탑이 아주 멋있다고, 우리 나라에 총대와 총창, 공화국기를 하나로 결합시키고 기폭에 공화국영웅메달을 형상한 기념탑은 여기밖에 없을것이라고, 기념탑을 공화국기가 총대를 휘감으며 힘차게 날리는것으로 형상한것이 보기 좋다고 말씀하시면서 총창부분을 실감이 나게 형상할데 대하여서도 이르시였다.

그토록 귀중한 시간을 바쳐가시며 완공을 앞당기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일일이 가르쳐주시고 떠나시는 원수님을 우러르며 렬사묘건설자들은 뜨거운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한없이 고결한 전우애와 숭고한 의리에 의하여 렬사묘가 석박산기슭에 거연히 솟아올랐다.

주체102(2013)년 7월 25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 준공식이 엄숙히 진행되였다.

준공식장에는 영웅전사들의 생을 후세에 길이 빛내여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와 흠모의 정이 뜨겁게 굽이쳤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손수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 준공테프를 끊으시였다.

준공의 이날을 위해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기울여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한없이 경건한 마음으로 우러르며 준공식 참가자들은 이 땅에 펼쳐지고있는 조국수호자들에 대한 위대한 사랑과 의리의 력사가 어떻게 련면히 이어지며 흐르고있는가를 뜨거운 격정속에 되새겨보았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군렬사들을 추모하여 묵상하시였다.

전체 참가자들도 조국과 인민을 위한 성전에 자기의 고귀한 생명을 바친 인민군렬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하였다.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을 맞으며 조국의 방방곡곡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사랑과 숭고한 도덕의리심에 의하여 렬사묘들이 훌륭히 꾸려졌다.

이 렬사묘들을 보며 사람들은 영웅전사들의 공적과 삶을 최상의 높이에 올려세워주는 위대한 령도자의 품속에서 렬사들의 생은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다는 영생의 진리를 다시금 깊이 새겨안았다.

예로부터 영원히 추억해야 할 이름은 천연바위에 쪼아새긴다고 했다.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

천연화강석으로 다듬어 세운 하나하나의 묘비에 유명무명의 참전자들의 이름과 생전의 모습이 새겨진것을 보며 해내외의 동포들과 세계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심정을 터놓았다.

《본인은 남쪽이 고향이고 현재는 이국땅에 살고있지만 언제 한번 공화국을 잊은적 없다. 제 민족, 제 조국이여서 그렇겠지만 주요하게는 전쟁때 의용군으로 조선인민군에 입대하여 싸우다 전사한 아버지의 유골이 북에 있기때문이다. 오늘 이 렬사묘에서 공화국영웅메달을 단 아버지의 젊은 모색의 돌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다. 자식들에게도 없는 사진을 60년만에 보아서였다. 사람이 이름을 남긴다는게 이런것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천연바위에 새긴 이름이 지워질수 있는가. 경기도내기, 전라도태생 등 남에 고향을 둔 로병들이 **김정은**령수님의 은총으로 이 영생단에 올라있는걸 보고 또 놀랐다. 그가 어디에 생의 뿌리를 두었든 차별없이 품에 안아주는 령수님은 실로 사랑의 신이다.》

일화

## 꼭 짚으시여 보내주신 지게차

락랑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영예군인들이 물동을 나를 때는 좀 힘들어한다는 지배인의 보고를 받으시고 그러면 지게차가 있어야 하지 않는가고 물으시였다.

너무도 자기들의 속마음을 잘 아시는 그이의 말씀에 지배인이 탄복을 금치 못하며 지게차도 필요하다고 성수가 나서 말씀올렸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떠나가신지 얼마 안되여 뻐스와 화물자동차를 비롯한 륜전기재들이 공장에 도착하였다. 그속에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꼭 짚으시여 보내주신 지게차도 있었다.

《우리 나라에도 쏘도전쟁참전자들의 묘가 있지만 평양의 이 렬사묘에는 대비도 안된다. 그나마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보수자금을 충당 못해 점점 퇴색돼가고있다. 그 규모에 있어서나 내용에 있어서 세계최고인 이 렬사묘에 얼마나 많은 재원이 들었겠는가를 음미해보며 조선령도자의 전쟁참전자들에 대한 의리에 탄복을 금할수 없다.》

《하늘은 시간을 두고 변하고 사람은 일생을 두고 변한다고 했다. 세월이 흐르면 강산도 변하고 사람들의 마음에도 이끼가 쌓인다고 했다. 그러나 조선의 현실은 이것을 부정하고있다. 공적을 쌓은 이들의 이름이 세월과 더불어 더욱더 부각되고 빛나고있다. 인류력사의 최정상에 빛나는 **김정은**령도자의 인간에 대한 사랑, 참전자들에 대한 의리는 사멸되여가는 서방의 도덕의리세계에 경종을 울리고있다.》

참으로 전쟁로병들과 희생된 참전자들에게 베풀어지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사랑과 도덕의리의 세계는 끝도 기슭도 없다. 지나온 영광의 10년세월속에 로병들만이 아닌 이 땅에 생을 둔 공화국의 남녀로소, 해외의 우리 동포들이 자기들의 목격과 체험으로 이것을 똑똑히 새기였다.

# 6. 위대한 사랑으로 조국의 만년미래를

- ❖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신다
- ❖ 축복속에 만발하는 해바라기들
- ❖ 전례없는 소년들의 대회합
- ❖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억만금도 아낌없이
- ❖ 병든 자식, 상처입은 자식도 한품에 안아
- ❖ 청년강국의 새시대

몇해전 함북도에 큰물피해가 났을 때였다.

피해지역에 갔던 국제기구 성원들이 어느한 산골마을에서 열살을 갓 넘긴 어린 소녀를 만나게 되였다.

집과 재산도 다 떠내려가고 온 가족이 한지에 나앉았다는 소녀였는데 이상한것은 그에게서 공포와 비관, 실망의 빛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수 없는것이였다.

국제기구 성원들은 물었다. 앞으로 어떻게 살겠는가고.

소녀는 당돌하게 말했다.

일없다. 우리 아버지원수님께서 이제 새집을 지어주신다. 옷도 생기고 신발도 다 생긴다.

그러는 아이의 눈가에 맑은 눈물이 가랑가랑 고여올랐다. 아버지가 그리워, 해님을 사무치게 그리며 저도 모르게 고여오르는 믿음의 눈물이였다.

아이들의 눈물은 거짓을 모른다. 아이들의 마음도 거짓을 모른다.

어느때 어느 장소든 경애하는 원수님만 뵈오면 그이를 우러러 열광적으로 환호하며 이 나라의 청소년학생들과 어린이들이 흘리는 눈물.

이 세상 누구도 연출해낼수도 지어낼수도 없는 가장 진실하고 뜨거운 이 눈물속에 후대들을 위해 바친 위인의 10년이 비껴있다. 가장 열렬한 혈연의 정으로 후대들을 보살피시며

력사에 일찌기 없었던 위대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새 력사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세계가 비껴있다.

가장 위대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가장 뜨거운 혈연의 정이 어떤것인가를 웅변적으로 알게 해준 지난 10년세월을 돌이켜보며 인민은 이렇게 웨친다.

경애하는 원수님처럼 미래에 대한 열렬한 사랑, 한없이 고결한 후대관을 지닌 위인만이 민족만대까지 책임질수 있다!

#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신다

흔히 한집안의 화목과 번성은 자식들의 얼굴에 비끼고 나라의 면모는 아이들의 모습에 비낀다고 한다.

그것은 아이들이 자그마한 꾸밈이나 거짓이 없이 자기가 보고 듣고 느낀것을 그대로 감수하고 표현하기때문이다. 그런 아이들이 언제나 명랑한 모습으로 뛰놀게 한다는것은 과연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더우기 세상에서 가장 큰 설음, 부모없는 설음을 안고있는 고아들의 얼굴에 비낀 그늘은 하늘의 태양도 지워버릴수 없는것으로 되여왔다.

그래서 고아는 자고로 불행의 대명사로 널리 알려져왔고 그들의 슬픔과 절망에 대한 눈물겨운 이야기를 소재로 한 문학작품들도 적지 않은것 아닌가.

그러나 이 땅에 원아들이 한점의 그늘도 없이 명랑하게 자라나게 하시려 그토록 마음쓰시는분이 계시나니 그이가 바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 있어서 원아들은 부모있는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앞날의 기둥감들로 억세게 자라날 혁명의 후비대이

며 그이의 살붙이, 아들딸들이다.

여기에 평양애육원의 한 일군이 쓴 수기의 한 대목이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난해 국제아동절을 맞으며 우리 애육원을 찾으신 후의 어느날이였다.

후에 알게 된 일이지만 그날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엄한 질책의 말씀을 하시였다고 한다.

평양애육원에 가서 원아들이 재롱을 부리는 모습을 보았을 때에는 기분이 대단히 좋았는데 식당에 가서 그들이 늄식기에 밥을 담아 먹는것을 보고는 가슴이 아팠다. 지금 우리 일군들가운데 원아들에게 그런 그릇에 밥을 담아주는것을 보고 가슴아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것이다. 일군들이 자기 자식이나 손자, 손녀들에게 그런 그릇에 밥을 담아주었다면 가만있지 않을것이다. …

그러시고는 아직 우리 일군들속에 원아들에 대한 관점이 바로서있지 않다고 가슴아프게 뇌이시며 전국의 육아원과 애육원, 초등학원과 중등학원, 양로원들에까지 집기류들을 새로 일식으로 갖추어주기 위한 대책을 세워주시였다.

정말이지 친혈육의 뜨거운 마음으로 원아들의 생활을 보살피시는 그이가 아니고서는 누구도 그들이 리용하는 그릇까지 헤아려보지 못했을것이다.

그 소식을 감격속에 전해듣던 날 나의 머리속에는 문득 언제인가 한 출판물에서 보았던 외국인의 글이 떠올랐다.

그는 자기의 글에서 인간세상에서 가장 고독하고 불행한 삶은 아마 고아들의 운명일것이다, 그러나 조선에서 정치의 가장 따뜻한 손길이 미치는 대상은 부모없는 아이들이라고 하면서 뜨거운 정과 열의 최고체현자이신 위대한 령도자를 아버지로 모시고있기에 조선에서는 부모없는 아이들도 복받은 삶을 누리고있다고 평하였다.

옳은 평가라고 생각한다.

우리 원수님께서 후대중시, 미래중시를 혁명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중대사로 보시며 특별히 더 관심을 돌리시고 온갖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는 대상이 바로 부모없는 아이들인것이다.》

한방울의 물에 온 우주가 비낀다고 했다.

아이들이 사용할 그릇을 두고서도 그토록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그 한가지 사실을 놓고서도 애육원의 일군들만이 아닌 온 나라 사람들은 원아들을 위하시는 원수님의 사랑을 왜 친어버이의 사랑보다 더 따뜻하고 더 세심하다고 하는지 폐부로 절감할수 있다.

주체103(2014)년 1월 어느날 대소한의 강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눈보라가 세찬 험한 길을 헤치시여 어느한 단위에서 새로 건설한 수산물랭동시설을 돌아보시면서 하신 원수님의 말씀은 또 얼마나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준것인가.

오늘 자신께서 여기에 찾아온것은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 및 중등학원, 양로원들에 대한 물고기보장가능성을 토론하기 위해서이라고, 모든 원아들이 부모없는 설음을 모르고 부러움없이 혁명의 계승자, 혁명의 골간으로 무럭무럭 자라게 하자는것이 당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라고 뜨겁게 말씀하신 원수님. 이들에게 물고기를 하루에 300g씩 꼭꼭 먹이려면 년간 그 수량이 얼마나 되여야 하겠는가에 대해 추운 겨울의 날씨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냥 밖에 서시여 몸소 수첩에 계산까지 해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나라의 경제사정이 아무리 어렵고 품이 많이 들어도 원아들에게 물고기를 정상적으로 충분히 먹여 그들이 키도 크고 뼈도 튼튼하게 자라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렇듯 다심한 친어버이사랑이 있어 전국의 육아원과 애육원, 초등 및 중등학원, 양로원들에 물고기를 정상적으로 공급해줄 사명을 지닌 수산사업소가 태여났고 온 나라 원아들에게 오늘도 물고기를 보장하기 위한 힘찬 투쟁이 벌어지고있다는것은 온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이에 대하여 수산사업소의 한 일군은 오늘도 자주 이렇게 말하군 한다.

《우리들은 육아원과 애육원, 초등학원과 중등학원, 양로원들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사랑이 깃든 물고기를 실어다주는것을 최상의 영광으로 생각하고있다. 우리들이 물고

기를 싣고 육아원과 애육원, 초등학원과 중등학원, 양로원들에 찾아가면 해당 도의 책임일군들 그리고 원아들과 로인들이 떨쳐나와 마중해준다. 그들이 물고기를 받아안고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면 정말 가슴벅차오름을 누를길 없다.》

원아들에게 하나라도 색다른것을 더 많이 먹이시려고 그처럼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다심한 사랑은 원아들에게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곶감에도 어려있다.

언제인가 평양애육원을 찾아오신 날 앞으로 애육원 원아들에게 곶감도 먹이자고 한다고, 곶감을 육아원 원아들은 먹지 못하지만 애육원 원아들은 잘 먹을것이라고, 애육원 원아들에게 곶감을 정상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그리시고 감은 안변의 감이 유명하다고, 그래서 감이 많이 나는 곳에 주둔하고있는 인민군부대들에서 애육원 원아들에게 먹일 감과 곶감을 마련하여 보장하도록 최고사령관명령을 하달하려고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이를 두고 사람들은 말했다.

부모없는 아이들의 친부모가 되시여 사랑을 부어주시는 원수님께서만이 내리실수 있는 사랑의 명령이라고.

이때를 회상하며 평양애육원의 한 일군이 한 이야기는 오늘도 사람들의 기억속에 남아있다.

《원아들이 곶감을 먹지 못한다고 하여 이상하게 생각할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 부모있는 아이들중에도 곶감을 정상적으로 먹는 아이들은 아마도 감고장아이들을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어려울것이다.

그러나 우리 원수님께서는 원아들에게 곶감을 한두번 맛보이는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공급해주려고 최고사령관명령을 친히 하달하신것이다.

원수님께서는 늘 원아들은 정으로 키워야 한다고, 원아들이 제일 그리워하는것은 정이라고 하군 하신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친부모가 주는 정만큼 크고 따뜻한 사랑은 없다. 친부모의 사랑이 다른 사랑과 구별되는 차이는 거기에 뜨거운 혈육의 정이 흘러넘친다는데 있다. 하지만 친부모도 미처 다 줄수 없는 그런 세심한 정과 사랑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어찌 친부모라는 세 글자에 담아 부를수 있겠는가. 우리 아이들이 이제 다 자란다한들 원수님의 사랑이, 아버지의 그 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깊은것인지 다 알수 있겠는가.》

진정 원아들모두를 한품에 안으시고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원수님의 친어버이의 사랑에 대해 어떻게 한두마디 말로 다 표현할수 있으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원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2012년 1월 24일의 일화가 있다.

이날은 위대한 장군님과 영결한지 한달도 되지 않았던 날, 위대한 장군님을 잃고 처음으로 맞는 설명절이였다.

이 설명절에 하셔야 할 일, 만나보셔야 할 사람들, 찾으셔야 할 곳이 헤아릴수 없으시련만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다름아닌 만경대혁명학원의 원아들을 찾아주시였다.

청천벽력같은 대국상을 치른지 얼마 되지 않던 그때여서 사람들은 누구도 원아들의 쓰리고 아픈 마음을 헤아릴 생각을 하지 못하고있었다.

그러나 경애하는 원수님의 마음은 만경대혁명학원을 비롯한 온 나라의 원아들에게로 달리였다.

천사만사를 다 뒤로 미루시고 원아들을 찾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날 어둠이 깃들 때까지 온 하루를 원아들과 함께 보내시였다.

이때를 회상하며 만경대혁명학원의 한 일군은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라고 부르며 환호하는 원아들에게 손을 들어 답례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먼저 기념사진부터 찍자고 하시며 원아들의 앞으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대소한의 맵짠 날씨도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눈물을 흘리며 발을 동동 구르는 원아들의 마음을 얼굴수 없었다.

환호하는 원아들을 바라보시는 그이의 눈가에도 맑은것이 맺혀있었다.

그이께서는 어린 원아들의 앞으로 다가가시여 춥지 않는가고 하시며 그들의 손을 하나하나 자신의 손으로 따스히 감

싸쥐시였다.

그러시고는 손이 차다고 걱정하시며 한 일군에게 원아들이 추운데 왜 장갑을 끼게 하지 않았는가고, 어서들 장갑을 끼게 하라고 이르시였다.

조그마한 날씨변화에도 자식들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는 친아버지의 다심하고도 뜨거운 정이 어려있는 말씀이였다.

원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의 정을 한껏 쏟으며 그이의 넓은 품에 얼굴을 묻었다.

정녕 그 모습은 부자간의 사랑과 정의 폭발 그대로였다.》

실로 그렇다.

세상에는 부모잃은 아이들이 많아도 그들과 나라의 령도자

**일화 웃으시며 지신 《빚》**

만경대혁명학원을 찾으시여 체육관의 구석구석을 눈여겨 살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롱구장 한쪽켠에 세워놓은 탁구판에 시선을 주시였다.

체육설비를 보관하는 방이 따로 없는것같다고 나직이 외우시던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체육관을 확장해야겠다고 하시며 내가 오늘 학원에 체육관을 새로 지어줄 빚을 졌다고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빚!

빚이라고 하면 그것은 크건작건간에 인간에게 있어서 마음의 가장 큰 짐이고 부담이다.

하기에 그것을 웃으며 락으로, 보람으로 받아들이는 때는 오직 부모가 자식을 위할 때뿐이 아니겠는가.

가 한데 어울려 울고웃으며 이런 따뜻한 정을 나누는 행복한 화폭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친어버이로 모신 공화국에서만 펼쳐질수 있는것이다.

2014년 5월 어느날 《로동신문》을 펼쳐보던 사람들은 한상의 영상사진문헌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였다.

어느한 병원을 찾으시여 한 원아를 품에 꼭 안으시고 환히 웃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상사진문헌이였다.

온갖 시름과 걱정이 다 풀리신듯 환하게 웃으시는 절세위인의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원아들에 대한 그이의 숭고한 사랑의 세계를 더욱 절감하였다.

이 감동적인 화폭은 어떻게 되여 펼쳐지게 되였는가.

그해 2월 전국의 육아원과 애육원들의 실태를 료해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느한 육아원과 애육원에 몸이 약한 아이들이 있다는것을 알게 되시였다. 그이께서는 즉시에 원아들을 어느한 병원에 입원시켜 특별보양치료를 해주도록 대책을 세워주시였다.

매일매일 치료정형을 보고받으시며 친부모의 사랑을 부어주시고도 그이께서는 보양치료를 받는 원아들을 직접 보지 않고서는 마음을 놓을수 없으시여 몸소 병원을 찾아오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품에 안겨드는 아이들을 안아주시며 혈색이 좋고 영양상태도 좋다고, 하나같이 보동보동한것을 보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기뻐하시였다.

그때의 그 광경을 병원의 한 책임일군은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그이께서는 원아들에게 몇살이냐, 밥은 잘 먹느냐, 무엇을 하며 놀고있었느냐 다정히 물어주시였다.

원아들은 저저마다 손가락을 꼽아가며 만화영화도 보고 노래도 불렀다고, 맛있는것도 많이 먹었다고 자랑하듯 말씀을 올리였다.

마치도 친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있는 자식을 찾아온듯 애틋한 가정적향기가 입원실에 흘러넘쳤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제일선참으로 안겨들어 짧은 두팔로 자신을 꼭 그러안았던 원아에게 어디가 아팠댔는가고 물으시였다.

그러자 어린이는 다 아물어가는 상처자리를 가리키며 깔깔 웃음을 터뜨렸다.

참으로 지어낼래야 지어낼수 없는 따뜻한 정이 넘쳐나는 화폭이였다.

이런 혈연의 화폭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찾으

칭송의 목소리

## 숭고한 후대관

후대들을 사랑하라, 그리고 승리를 확신하라! 이것이 **김정은**령도자의 후대관, 미래관이다.

아이들에 대한 사랑의 감정은 가장 헌신적이고 적극적이며 지어낼수도 강요할수도 없는 순결하고 아름다운 감정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와 **김정일**각하께서 지니시였던 후대관은 존경하는 **김정은**령도자에 의하여 훌륭히 꽃펴나고있다.

(영국주체사상연구소조 서기장)

신 원아들의 입원실들마다에 펼쳐졌다.

절세위인의 친아버지의 사랑과 은정이 있어 원아들은 몰라보게 성장한 모습으로 병원문을 나서게 되였다.

병원에 입원하던 때에 비해 몸무게가 훨씬 불어난 원아가 있는가 하면 치료기간에 키가 7㎝나 자라 새옷을 해입히지 않으면 안되게 된 원아도 있었다. 보육원들도 미처 몰랐던 속병까지 뚝 뗀 원아도 있고 얼굴의 허물을 말끔히 없앤 원아도 있었다.

병명도 각각이던 원아들이 온 나라 가정의 친아버지의 사랑과 은정속에 이처럼 부모있는 아이들도 부러워할 복동이들로 될수 있었다.

이날 우리는 그이의 품을 파고들며 <아버지!>라고 스스럼없이 부르며 어리광을 부리는 모습에서, 그애들을 한 아이라도 스칠세라 한명한명 세심히 살펴보시고 안아주시는 친아버지의 그 거룩하신 모습에서 우리 원아들이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복받은 아이들이라고 세상에 대고 소리높이 자랑하고싶은것을 어쩔수 없었다.》

옳은 말이다.

부모없는 아이들일수록 넓으신 한품에 뜨겁게 껴안아주시며 친아버지의 극진한 정을 부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2016년 7월초 새로 일떠선 평양중등학원을 찾으시여 평양중등학원은 우리 나라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의 본보기,

표준이라고, 다른 나라들에도 이렇게 훌륭하게 꾸려진 학교는 없을것이라고, 원아들에게 멋쟁이학원을 안겨주게 되였으니 하늘의 별을 따온것같이 기쁘다고, 대단히 만족하다고 하시면서 원아들을 세상에 부럼없이 키우려는 자신의 소원이 또 하나 풀리게 되였다고 그토록 환하게 웃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

평양중등학원형성안의 점 하나, 선 하나를 두고 그처럼 깊은 사색을 하시고도 자신의 로고는 가뭇없이 잊으시고 오직 아이들의 기쁨과 성장만을 생각하시니 친부모인들 이보다 더 기뻐하고 이보다 더 환히 웃으실수 있겠는가.

우리는 원아들이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이다, 앞날의 주인공이라는 자부심을 가지도록 밝게 키워야 한다고 하시며 원아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노래소리를 굳건히 지켜주시려는 의지를 더욱 가다듬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친부모도 줄수 없는 위대한 사랑에는 정녕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는것이다.

그 사랑에 떠받들려 전국도처에 일떠선 육아원과 애육원, 초등학원과 중등학원에서 밝고 씩씩하게 자라나는 원아들, 그들속에서 나온 과학자, 교육자, 군인, 대학생은 또 얼마나 많은것인가.

정녕 세상에는 령도자가 많아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처럼 부모없는 아이들을 위해 이처럼 마음쓰시는 령도자를 찾아볼수 없다.

하기에 오늘날 세상사람들은 숭고한 후대관을 지니시고 강국의 미래를 가꾸어가시는 절세위인에 대한 칭송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궁전같은 평양육아원, 애육원의 건설을 발기하고 완성시켜주신분은 다름아닌 조선의 모든 어린이들이 아버지라 부르는 **김정은**령도자이시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경치가 제일 좋은 대동강기슭의 명당자리에 평양육아원, 애육원의 터전을 잡아주시고 형성안도 거듭 지도해주시였으며 강력한 건설력량도 투입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였으며 평양육아원, 애육원이 완공되였을 때에는 현지를 돌아보시면서 아이들을 위한 이처럼 훌륭한 보금자리는 세상에 없을것이라고, 부모없는 원아들에게 제일 좋은 멋쟁이집을 안겨주게 되니 하늘의 별이라도 따온듯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고 되뇌이시였다.

그이께서는 2015년 1월 1일에는 신년사를 마치신 그길로 평양육아원, 애육원을 찾으시여 아이들을 한품에 안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방문기간 평양중등학원에서 받은 충격은 매우 크다.

훌륭한 교육설비들이 그쯘히 갖추어진 학원에서 원아들은 책가방, 학용품을 비롯하여 제기되는 모든것을 나라에서 공급받으며 공부하고있다.

당과 국가가 베풀어주는 사랑과 은정속에 학원의 원아들은 부모없는 설음을 모르고 생활하면서 나라의 역군으로 자라나고있다.

후대문제가 빛나게 해결된 조선의 미래는 밝고 창창하다.》

일찌기 이 나라 인민은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성장하였다.

그 후대들이 오늘은 누구나 경애하는 원수님을 아버지라고 스스럼없이 부르며 그이의 품에 안겨들고있다.

《아버지!—》

이 부름은 절세위인의 위대한 인간미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미덕인 후대사랑의 아름다운 메아리이다.

친아버지의 사랑을 그대로 안고 어제도 오시고 오늘도 오시고 래일도 또 오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며 이 나라의 원아들은 오늘도 이렇게 웨친다.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신다!

## 축복속에 만발하는 해바라기들

자식 하나를 키우는데 오만자루의 품이 든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자식을 낳아 대바르게 키우려면 부모들이 항상 자녀의 성장에 관심을 돌리고 다심한 사랑과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후대들의 건전한 성장에 국가적, 사회적관심을 돌리지 않는다면, 하여 어린이들이 낳아준 부모를 원망하고 세상을 저주하며 혼란된 현실에 눈물짓게 된다면 그 나라는 미래가 없고 전도가 암담한 나라이다.

언제인가 전 미국대통령 지미 카터는 미국은 《세계인권재판관》으로 처신할 권리가 없다고 말한바 있다.

그의 이러한 비평은 미국의 인권실태가 얼마나 험악한가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게 한다.

미국은 쩍하면 자기 나라는 아이들의 《천당》이라고 자랑한다.

과연 그것이 사실인가.

최근 어린이권리보호를 위한 미국의 한 단체가 발표한 자료

에 의하면 해마다 폭력행위로 피해를 입고있는 어린이는 공식등록된것만도 300만명이상에 달한다.

그러나 실지로는 이보다 더 많다고 한다.

미국의 언론사들자체가 어린이사망소식을 숨기는 일이 많기때문에 해마다 학대로 인한 사망자수가 정확히 얼마인지 파악하기 힘들다고 토설하였다.

이뿐이 아니다.

미국의 19개 주에서는 학교에서의 육체적처벌을 법적으로 승인하고있어 학생들이 《교양》의 미명하에 항시적인 구타와 폭행을 당하고있다.

미국의 한 잡지에 실린 자료에 의하면 이 나라에서 10대의 어린이 약 절반이 정신질환에 시달리고있다고 한다.

오늘 미국에서는 어린이학대행위가 하나의 사회적위기로까지 번져지고있다.

세상을 잘못 만난탓에 눈물과 설음, 죽음과 공포로 가득찬 유년시절을 보내지 않으면 안되는 불우한 인생들을 보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있다.

차라리 이 세상에 태여나지 않았더라면…

미국만이 아니라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도 어린이보육과 교양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있다.

하여 미래에 대한 우려와 걱정으로 사람들의 눈빛에 그늘이 짙어가고있는 오늘 인류는 활기넘치는 아이들의 천국은 과

연 어디인가에 초점을 모으고있다.

그 시선이 어린이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랑랑하게 울려나오고있는 주체조선에로 돌려지고있다. 공화국의 현실에 대한 찬탄의 목소리들이 울려나오고있다.

《조선에서는 인민이 하늘이다. 그런데 그 하늘나라의 왕은 아이들이였다. 어디 가나 아이들의 웃음소리, 아이들의 궁전이다. 어린이들의 밝고 명랑한 모습만 보아도 더 밝은 앞날을 그려볼수 있다.》

하다면 이 나라의 아이들은 무엇때문에 그토록 밝고 명랑한가.

그것은 아이들의 밝은 모습, 밝은 웃음을 위하여 언제나 마음쓰시며 그들의 밝은 앞날을 축복해주시는 자애로운 아버지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기때문이다.

절세위인의 축복속에 이 땅에 만발하는 해바라기들가운데는 뭍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외진 섬마을의 아이들도 있다.

너무도 작은 섬이여서 지도에도 표기되여있지 않는 서해기슭 최전연에 위치한 장재도.

이 작은 섬에서 살고있는 사람들에게는 온 나라는 물론 세계가 다 알고있는 고장에서 살고있다는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이 있다.

그중에서도 정항명어린이의 긍지와 자부심은 더더욱 소중하고 특별한것이였다.

주체101(2012)년 8월 어느날이였다.

기별도 없이 장재도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엎어질듯 달려오는 군인가족들속에서 한 애기어머니를 띄여보시였다.

젖내가 물씬 풍기는 태여난지 6개월밖에 안되는 정항명어린이를 그의 어머니로부터 받아안아 따뜻이 품에 안으신 그이께서는 애아버지가 누구인가고 다정히 물으시였다.

항명이의 어머니는 남편이 부대의 군관인데 지금 출장중이라고 대답을 올리였다.

그이께서는 항명이를 높이 추켜올리시며 자신께서 이애를

**일화 왕들을 위한 특별연회**

2014년 국제아동절의 저녁무렵 평양애육원의 철부지원아들과 함께 계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 일군이 떠나실 시간이 되였다고 말씀드리였을 때였다.

그이께서는 자신의 바쁘신 시간에 대하여서는 감감히 잊으신듯 애육원 원장에게 원아들이 저녁밥을 언제 먹는가고 다정히 물으시고는 식당으로 발걸음을 옮기시며 래일은 원아들에게 꿩고기완자를 만들어 먹여야 하겠다고, 애육원에 료리사들을 보내여 원아들에게 꿩고기완자를 만들어 먹이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다음날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원아들에게 특별연회를 차려주기 위해 여러 차례나 구체적인 조직사업을 해주신데 따라 애육원에 성대한 특별연회상이 펼쳐졌다.

세상에 없는 왕들을 위한 특별연회였다.

안고 사진을 찍어야 출장중에 있는 애아버지가 기뻐할것이라고 하시면서 항명이를 더 꼭 껴안으시였다.

이렇게 되여 정항명어린이가 절세위인의 품에 안겨 기념사진을 찍게 되였다.

어린이들을 자신의 친자식처럼 귀여워하시고 사랑과 정을 부어주며 앞날을 축복해주시는 절세위인께서만이 남기실수 있는 참으로 뜻깊은 화폭이였다.

이듬해 9월초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곳을 또다시 찾아주시였다.

환호하는 군인들과 군인가족들에게 답례하시면서 걸음을 옮기시던 그이께서는 마주 달려오는 항명이와 그의 어머니를 알아보시였다.

항명이가 몇달사이에 많이 컸다고, 그동안 보고싶었다고 하신 그이께서는 애어머니한테서 항명이를 받아 자신의 품에 안으시였다.

그리시고 일군들에게 항명이를 보여주시면서 그동안 무척 컸다고 기뻐하시였다.

친아버지인양 반가와하시며 기뻐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는 항명이 어머니의 눈앞에는 몇달전 그이께서 오늘처럼 항명이를 껴안고 그의 앞날을 축복해주시던 일이 뜨겁게 되새겨졌다.

…2013년 3월 장재도를 찾아오시였던 그날 환호하는 군인들

과 가족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문득 누구인가를 찾으시는듯 사방을 살피시였다.

그이의 자애로운 눈길이 한 아이에게서 멈춰섰다.

항명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항명이를 보시자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그를 닁큼 안아올리시였다.

그러시고 그의 볼에 자신의 얼굴을 비비시며 항명이의 모색이 많이 달라졌다고, 그새 큰것이 알린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어린 몸에 군복을 입고있는 모습이 너무도 귀여우시여 또다시 뜨거운 애무를 해주시며 환하게 웃으시였다.

주변에 모여섰던 사람들이 격정으로 설레였다. 항명이의 어머니는 무한한 행복감에 눈굽이 축축히 젖어들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윽하여 항명이의 집으로 향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으시며 항명이 아버지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였다.

지난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오시였을 때 그이를 만나뵙지 못하였던 항명이 아버지는 오늘 또다시 자기 아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몸소 집을 찾으시여 평생소원도 풀어주시였으니 꿈을 꾸는것만 같았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과 항명이부모들을 바라보시며 항명이의 첫돌이 어제였다는것을 미리 알고왔다는데 대하

여 말씀하시였다.

(아니, 항명이 첫돌생일날까지?!)

나라의 모든 일을 돌보셔야 하는 한 나라의 령도자께서 뭍과 멀리 떨어진 외진 섬마을의 한 어린이생일까지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일군들은 물론 그의 부모들도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몸소 준비해가지고 오신 돌을 맞는 항명이에게 줄 선물을 내놓으시면서 항명이의 앞날을 축복해주시였다. …

이날 새로 지은 항명이네 집을 찾으시여 구체적으로 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만족하신듯 환한 미소를 지으시였다.

항명이 어머니는 울먹울먹한 목소리로 말씀드리였다.

《원수님, 집이 정말 멋있습니다. 이 섬에서…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게 될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윽고 마당으로 나오신 그이께서는 새집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자고 하시였다.

그런데 이날도 항명이 아버지는 출장중이였다.

이것을 아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자신께서 처음 왔을 때에도 출장을 가고 없었는데 정말 안됐다고 하시면서 그날처럼 항명이를 자신께서 안고 사진을 찍겠다고 하시였다.

태양의 축복속에서 생글생글 웃으며 사진을 찍은 항명이!

벌써 그이를 모시고 세번째로 찍는 사진이였다.

태여나 6개월만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축복을 받으며 그이의 두팔에 떠받들리여, 그다음에는 원수님의 돌생일선물을 받아안고, 오늘은 또 새집에서 무한한 행복감에 넘쳐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는 더없는 행운을 지닌 항명이.

절세위인의 축복을 받아안은 항명이의 이야기는 흐르는 세월과 더불어 계속되였다.

2016년 11월 장재도를 또다시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군인들과 가족들의 열광의 환호에 따뜻이 답례하시며 어린이들의 손도 하나하나 잡아주시였다.

그러시다가 항명이를 알아보시고나서 태여난지 6개월밖에 안된 애기를 안아주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몰라보게 컸다고 그의 두볼을 살뜰히 애무해주시였다.

절세위인의 뜨거운 축복속에 외진 섬마을의 정항명어린이는 해님을 향해 피는 해바라기로 무럭무럭 자라나고있다.

태양의 축복을 받아안은 섬마을의 어린이들가운데는 무도의 장포성어린이도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서해의 최전연에 위치한 무도를 찾아주시였던 2013년 9월초였다.

그이께서는 새로 지은 살림집구역으로 걸음을 옮기시다가 한 어린이를 보시고 그를 들어올려 품에 꼭 껴안으시였다.

그가 연평도포격전투때 태여났다고 하여 이름을 장포성이

라고 지은 사실을 아신 그이께서는 이름이 상징적이라고, 포성이를 잘 키워 전세대들의 조국수호정신을 그대로 이어받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밝은 미소를 지으시고 어린애를 높이 추겨올리시였다.

그이께서는 앞으로 이애가 자라 무도영웅방어대장이 될수도 있다고 그의 앞날까지 축복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최전연섬마을의 어린이들을 특별히 귀여워하시고 그들의 앞날을 축복해주시는것은 그애들이 외진 섬에서 자라나기때문만이 아니다.

그들모두를 최전연섬초소를 지켜선 부모들처럼 조국수호정신을 체질화한 나라의 역군으로 키우는것을 자신이 응당 맡아야 할 본분으로 여기시기때문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이 보내온 편지들을 하나하나 보아주시고 몸소 축복의 회답서한을 보내시는것을 행복으로, 기쁨으로 여기시며 귀중한 시간을 아낌없이 바치신다.

2013년 8월 어느날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자랑을 가득 담아, 희망과 포부를 가득 담아 보내온 한 학생의 편지를 받으시였다.

이름은 김유진, 다니는 학교는 남포외국어학원, 나이는 13살…

유진이는 4살때부터 글을 읽고 그림책을 보면서 신통하게

뜻풀이를 하군 하였다.

소학교에 입학해서부터는 매일 일기를 쓰고 작품도 창작하군 했는데 묘사와 분석능력이 남다르고 감정정서가 풍부하여 천성적인 재능이 있다고 누구나 칭찬하였다.

그런 그의 마음에 언제부터였는지 작가들처럼 부피두터운 소설을 쓰고싶은 꿈이 꽃망울처럼 자라기 시작하였다.

어머니는 일이 아무리 바빠도 도서관에 들려 소설책을 얻어다 아들이 매일 읽게 하였다.

유진이가 지금껏 써온 일기들에 기초하여 중편실화소설을 창작하겠다고 하였을 때에는 신심을 가지고 달라붙도록 밤을 지새우며 수많은 원고들을 정리해주었다.

마침내 소설이 완성되였을 때에는 온 가족이 너무 기뻐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학교와 마을에서는 그를 소설《대가》라고 불렀다.

유진이는 세상에서 제일 큰일을 해낸것같아 어깨가 으쓱해졌다.

그는 이 자랑을 아버지원수님께 아뢰고싶은 충동을 금할수 없어 그이께 자기의 자랑과 포부가 가득 담긴 편지를 쓰기 시작하였다.

유진이는 편지에 중편실화소설을 창작하여 제1차 6.6절아동문학작품현상응모에서 1등을 한 자랑을 썼다.

그리고 아버지원수님의 사랑속에 싹튼 창작기량을 더 훌

륭히 련마하여 그이께서 아시는 소설대가가 될 결의를 다지였다.

나라일에 그처럼 분망하신 속에서도 유진이가 올린 편지를 보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안광에는 따뜻한 미소가 어리였다.

나어린 유진이가 소설을 써낸것이 너무도 기특했고 대견스러우시였다.

온 나라가 다 알도록 미래의 소설대가를 축복해주고싶으시였고 그에게 더없는 믿음과 정을 안겨주고싶으시였다.

정을 담아 편지를 한자한자 보시고나서 한동안 생각에 잠기셨던 그이께서는 몸소 펜을 드시였다.

《유진학생이 보내는 중편실화소설 <선군동이들>을 기다리겠습니다.

**김 정 은**

2013. 8. 14》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몸소 보내주신 친필을 받아안은 유진이와 그의 부모들, 온 학원이 격정을 터쳐올렸다.

온 나라가 절세위인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친필을 받아안은 13살 난 소설대가의 앞날을 축복해주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의 축복을 받아안은 아이들은 비

단 그만이 아니다.

허준혁어린이도 위대한 태양의 축복을 받아안았다.

2012년 가을 준혁이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편지를 올리였다.

《자나깨나 보고싶은 아버지 **김정은**원수님! 안녕하십니까.

난 평양긴마을1유치원에서 공부하는 다섯살 난 허준혁이예요.

우리들을 제일 곱다고 사랑해주시는 원수님께 내가 배운 펜글씨로 편지를 써요. …》

아직은 5살, 때이르게 부모를 다 잃고 울던 준혁이의 가슴에 언제부터인가 고운 꿈이 자라기 시작했으니 좋은 일을 많이 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리고싶은 소중한 마음이였다.

그래서 할머니와 함께 최전연의 장재도와 무도를 찾아가 편지와 원호품을 전하고 군인들앞에서 노래를 불렀다.

유치원교양원들과 마을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어깨가 으쓱해진 준혁이는 자기의 자랑을 아버지원수님께 알려드리고싶어 고사리같은 손으로 펜을 잡고 편지를 써서 올렸던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준혁이가 기특했고 너무도 대견스러우시였다.

비록 뜻밖에 아버지, 어머니는 잃었어도 어린 준혁이가 더 밝게, 더 씩씩하게 자라도록 기쁨을 주고 축복을 주고싶으시였다.

그래서 아이들이 무엇을 제일 좋아하는지, 어느때 제일 기뻐하는지 한동안 사색을 모으시다가 몸소 펜을 드시였다.

《준혁아! 기특한 일을 했다. 정말 대견하구나. 어서빨리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자랑스러운 우리 준혁이에게 빨간별 5개를 준다.

2012. 10. 10

**김 정 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친필아래에 빨간별을 새겨가시였다.

하나, 둘, 셋…

드디여 다섯개의 별이 그려졌다. 어린이의 앞날을 밝게 비쳐주는 축복의 별들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친필을 받아안은 준혁이와 할머니, 온 유치원이 격정을 터뜨렸다. 너무도 꿈같은 행복에 온밤 잠들지 못하고 절세위인의 친필을 보고 또 보았다.

이 세상에 경애하는 원수님 아니시면 누가 어린것의 가슴을 따뜻이 덥혀줄수 있으랴.

친아버지가 아니면 누가 《준혁아!》라고 정을 담아 불러주고 친어머니가 아니면 누가 자랑이 가득한 어린 마음에 빨간별 다섯개를 새겨주며 그의 밝은 앞날을 축복해줄수 있단 말인가.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표창이 빨간별이기에 손수 빨간별을 그려가신 그이의 심중에는 그늘이 비낀 가정일수록 더 따뜻이 품어안아 그들의 앞날을 축복해주시려는 어버이의 진정이 가득 고여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사랑과 정을 담아 보내주시는 회답서한들마다에는 아이들의 자그마한 재능의 싹도 귀중히 여기고 활짝 꽃피워나가기를 축복해주는 친어버이의 념원과 기대가 어리여있다.

《리향아! 더 밝고 아름답게 자라 훌륭한 조선의 딸이 되거라.》

《좋은 일을 많이 한 자랑을 안고 보내준 너의 편지를 기쁘고 반갑게 받아보았다.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좋은 일을 더 많이 하고 공부도 더 잘하는 훌륭한 모범소년단원이 되기 바란다.》

《의젓한 사진을 참으로 기쁘게 받아보았다. 앞으로 꼭 훌륭한 과학자가 되거라.》

…

철부지아이들이 쓴 소박한 편지들을 국가의 중대사를 론하는 문건들보다 더 중히 여기시며 하나하나 마지막까지 보아주시고 그들의 밝은 앞날을 축복해주시는 절세위인의 은정속에 이 땅에서는 복받은 해바라기들이 만발하고있다.

참으로 조선에서만 볼수 있는 화폭이다.

# 전례없는 소년들의 대회합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에서 다년간 사업한적이 있는 한 일군은 어느한 신문에 실은 자기의 글에서 이렇게 썼다.

《이 땅의 천만아이들이 그늘 한점 없이 행복하게 자라나고있는 벅찬 현실을 시시각각으로 목격하고 체험할 때마다 나는 생각이 깊어지군 한다.

지나온 10년세월에 우리 조국과 인민은 그 얼마나 준엄한 시련과 엄청난 도전에 부딪쳤으며 그것을 강행돌파하며 얼마나 많은 피와 땀을 흘리고 그 얼마나 가슴벅찬 승리와 영광도 줄기차게 맞이하였던가.

그속에서도 조국과 민족의 보배이고 미래인 온 나라 아이들에게 명랑한 웃음만을 안겨주시려 바쳐오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헌신과 로고는 그이의 성스러운 10년려정에서 특출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말할수 있다.

나에게는 일생 잊지 못할, 또 잊어서는 안될 사변적인 일이 뇌리에 또렷이 찍혀져있다.

그것은 우리 조국은 물론 동서고금에도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었던 소년들의 대회합인 조선소년단창립 66돐 경축행사

이다.》

온 나라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대성황리에 진행되였던 조선소년단창립 66돐 경축행사.

이는 인류의 정치사에 진정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이란 과연 어떤것인가를 뚜렷이 새겨주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만고의 위인상을 만천하에 노래한 가장 아름다운 송가였다.

6월 6일은 조선소년단원들의 명절이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첫 기슭에서 이날을 앞두고 조국땅에서는 온 나라 인민들이 커다란 환희에 휩싸이게 하는 희한한 소식이 전해졌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전국각지의 2만명 소년단원들을 수도 평양에 초청하여 조선소년단창립 66돐 경축행사를 성대히 진행하도록 하신 소식이였던것이다.

조국력사에 당대회를 포함하여 그 어느 회합도 그처럼 대규모로 진행된 례는 없었으며 더우기 국가의 최고령도자가 나어린 아이들을 친히 수도에 초청하여 특전, 특혜를 누리도록 한 사실은 력사에 전무한것이였다.

목에 소년단넥타이를 두른 9살짜리 애어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전국의 2만명 소년단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앉아 자기들의 명절을 성대히 경축하게 된것은 실로 조국청사에 특별히 아로새겨질 대경사였으며 세계를 또 한번 충격케 한 특대사변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투쟁을 진두에서 이끄시는 그처럼 분망한 속에서도 경축행사준비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소년단대표선발기준으로부터 수송수단과 숙식조건, 아이들의 먹는물보장문제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안을 다 짜주시였다.

경축행사에 참가할 대표들은 로동자, 농민, 군인, 과학자, 기술자자녀들을 위주로 선발하며 부모들의 생활경위와 같은 것은 따지지 말고 철저히 학습과 조직생활, 좋은일하기운동에서 모범을 보인 소년단원들을 기준으로 선발하라, 이것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몸소 정해주신 소년단대표선발기준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에 따라 심심산골에서 사는 선로공의 아들, 평범한 영예군인의 딸, 섬마을분교의 세쌍둥이를 비롯하여 벌목공, 탐사대원, 광부, 농장원, 상하수도관리공 등 근로하는 로동자, 농민, 군인, 과학자, 기술자자녀들 지어 아버지가 법적제재를 받고있는 가정의 소년도 대표로 선출되였다.

근로하는 인민의 아들딸들을 제일로 내세우는 이 고마운 은정에 온 나라가 놀라움과 격정에 넘쳐 끓어번졌다.

안악군의 한 농장원학부형은 애어린 딸이 대표로 추천되였으나 대대로 농사군인 자기네 가문에서는 평양에서 열리는 그런 성대한 행사에 참가해본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처음에

는 선뜻 믿으려 하지 않다가 딸이 달려와 울먹이며 사실이라고 알려주자 평양의 하늘가를 바라보며 오열을 터뜨렸다.

그 가정만이 아니였다.

안주시에서 살고있는 한가정에서는 아들이 학습과 소년단조직생활에서 남다른 모범을 보이고 품행도 단정하여 모범소년단원으로 집단과 동무들의 사랑을 받고있었으나 아버지가 조국과 인민앞에 엄중한 죄를 짓고 법적제재를 받고있어 고민속에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있었다.

그런데 그 아들애가 소년단대표로 뽑힐줄을 어찌 알았으랴.

그날 그의 어머니는 꿈인가 생시인가 정신을 가다듬지 못하고있다가 아들애를 꽉 부둥켜안으며 《얘야, 평양에 가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찾아뵙고 이 어머니의 마음까지 합쳐 꼭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고 오너라.》 하고 울음을 터치였다.

이처럼 인민들의 목메인 환성속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대로 그지없이 평범한 사람들의 자녀들이 소년단대표로 선출되게 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소년단대표들을 근로인민의 평범한 아들딸들로 선발하면서도 조국의 최북단 두메산골로부터 분계연선마을, 외진 섬에 이르기까지 전국각지의 모든 소학교, 중학교(당시), 분교들에서 빠짐없이 고르롭게 선발하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백두산기슭으로부터 조국의 최전방인 초도에 이르기까지 나라의 모든 학교들에서 선발된 2만명 소년단대표들가운데는 자그마한 륙지분교와 섬분교의 소년단대표들도 있었는데 서해의 외진 섬 자매도에 세워진 학교에는 학생이 형과 동생 2명뿐이여서 학습에서 더 모범을 보이고있는 형이 대표로 선출되는 희한한 일도 생겨났다.

대표인원이 2만명에서 2만 1명으로 된 사연은 오늘도 인민들의 마음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2만명의 소년단대표들은 다정한 선생님과 정다운 동무들,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존경하는 마을사람들의 바래움을 받으며 승용차와 뻐스, 기차와 배, 비행기에 몸을 싣고 마음속에 그려보던 평양으로 물결쳐왔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대회를 직접 조직하시고 대회참가자들을 평양으로 부르셨다는 소식은 전국의 모든 소년단원들의 가슴가슴을 세차게 고동치게 하였고 동무들과 이야기를 나누어도, 꿈을 꾸어도 원수님 계시는 평양으로 달리게 하였다.

조선소년단 전국련합단체대회가 진행되기 직전이였다.

대회장밖을 에돌던 한 소년이 갑자기 대회장출입구에 나타나 대회에 참가시켜달라고 떡 버티고 서서 떼를 쓰기 시작하였다.

그로 말하면 평안북도의 어느한 소학교에서 공부하는 9살

의 평산이라는 학생이였다.

사랑의 애기궁전인 평양산원에서 태여났다고 해서 평산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소년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온 나라 소년단대표들을 평양으로 불러주셨다는 소식이 전해진 다음부터 안절부절을 못했다. 조선소년단 전국련합단체대표자격을 받지 못한 안타까움과 그로 인한 철부지소년의 괴로운 마음은 어린 그의 가슴에 어떻게 하면 대회에 참가하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온넋을 불타게 했다. 그것은 대회에 참가하지 못한 아쉬움에서만이 아니라 원수님의 넓은 품에 안겨 그이의 사랑을 한껏 받아보고싶은 간절한 소원에서 오는 충동이였다.

소년은 무작정 렬차에 몸을 싣고 수백리길을 달려 평양에 들어섰다.

소년은 대회장앞에까지 와서 막무가내로 참가시켜달라고 졸라댔던것이다.

이 사실은 그대로 경애하는 원수님께 보고되였다.

뜻밖의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환하게 웃으시였다.

그러시고는 오매불망 대회에 참가하고싶은 오직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수백리길을 혼자서 달려온 소년의 애타는 마음을 너그럽게 헤아리시여 그 간절한 소원을 풀어주자고 하시며 즉석에서 대회에 참가시키도록 특별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소년에게 즉시 대표증이 수여되였다.

세상에 없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의 조치, 특별조치에 의하여 당당한 대표가 된 소년은 축하연설을 하시는 원수님을 눈물속에 뵙게 되였다. 원수님을 모시고 진행된 공연도 관람하고 다음날에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신 가장 가까운 자리인 가운데 앞줄에서 기념사진을 찍는 꿈같은 행운을 지니게 되였다.

한줄기 작은 시내물도 그것을 품어주는 대하가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후대사랑이 이 나라의 이름없는 한 소년의 가슴속에까지 이렇게 속속들이 스며든것이다.

철부지소년의 엉뚱한 행동까지 그처럼 너그럽게 헤아려 베

## 일화 소원을 푼 철부지소년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준공식에 참석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아이들의 축구경기를 보신 후 선수들과 감독들, 심판원들을 따뜻이 고무해주시고 사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였을 때였다.

경기보장성원으로 있던 한 소년이 갑자기 경애하는 원수님께로 달려와 자기들도 기념사진을 찍어달라고 철없이 응석을 부리였다.

소년을 따뜻이 품어안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환하게 웃으시며 그와 함께 격정의 환호를 올리는 경기보장성원들까지 몸가까이 부르시여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는 한량없는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철부지소년의 응석까지도 허물없이 받아주시는 경애하는 그이의 모습은 정말로 다정한 친아버지의 모습이였다.

푸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은 천하를 울리였다.

남조선의 한 언론은 《눈앞의 현안문제들에 집착되여있는 세계 대다수의 정치가들에게 **김정은**령수의 행보는 충격적이며 시사하는바가 크다. 50년, 100년을 내다보며 국가의 대들보를 미리부터 준비해가는 배포유한 강자의 심장이 아니고서는 저런 정치를 펼수가 없다.》고 격찬하였다.

일찌기 이름난 소년운동가였던 작가 방정환은 1920년대 나라없는 슬픔속에서 민족의 후대들을 끝없이 사랑해줄것을 원하는 피절은 마음을 글줄에 담아 이렇게 썼었다.

《…어린이는 어른들보다 더 높게 대접하시오.

어른은 뿌리라 하면 어린이는 싹입니다. 뿌리가 근본이라고 위에 올라앉아서 싹을 내리누르면 그 나무는 죽어버립니다. 뿌리가 싹을 위해 키워주어야 그 나무는 뻗어나갈것입니다. …》

민족의 이 간절한 소원이 어떻게 오늘처럼 빛나는 현실로 꽃펴났던가.

주체조선의 후대사랑의 력사를 돌이켜보면 저애들이 추위에 떨고있는데 내가 백장의 모포를 덮은들 마음이 편하겠는가고 절절히 말씀하시며 아이들의 마음속아픔을 외면한자들을 절규하시던 어버이수령님의 음성이 귀전에 울려온다.

해방된 새 조선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어린이들에게 새벽하

늘에 샛별같이 빛나는 새 나라 조선의 800만 어린이여! 새해와 한가지로 새복을 받아 굳세고 씩씩하게 무럭무럭 자라서 무궁한 새 조선의 새 일군 되소서라고 한편의 시를 써내려 보내주시였던 위대한 수령님의 해빛같은 미소가 떠오른다. 그리고 혁명학원 원아들을 한품에 안아주시던 김정숙어머님의 모습도 떠오른다.

어느해 설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문필가들에게 안겨주신 만년필에도 그이의 숭고한 미래관, 후대관이 비껴있다. 문필가들에게 줄 만년필에 어떤 글을 새겨줄것인가를 많이 생각해보다가 《미래를 사랑하라!》라고 써주기로 결심하였다고 뜨겁게 말씀하신 장군님.

아름다움중에 가장 아름다운것이 보이지 않는 새싹에 부어준 사랑이다.

마안산추억이 보여주는것처럼, 《첫 의정》이라는 글발이 보여주는것처럼, 혁명학원 원아들의 모습이 말해주는것처럼 공화국인민들은 이 세상 그 어느 민족에게도 없는 가장 고결한 후대관을 지니신 절세의 위인복을 가진 행운아들이다. 그러한 인민이 오늘은 또 한분의 위인께서 지니신 숭고한 후대관에 접하여 가슴뜨겁게 감복하고있는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행사 전 기간이 아이들이 한생 잊지 못할 인생의 고귀한 추억으로 되도록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고 따뜻이 이끌어주시였다.

이번 행사가 큰 행사인것만큼 청년동맹에만 맡겨두지 말고 당적으로 밀어주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에 따라 귀여운 소년단원들을 싣고 만리창공에 자랑높이 날아오를 비행기들과 가장 고급하고 멋진 뻐스와 특별렬차들이 정히 마련되였다.

금싸래기와도 같은 아이들이 평양으로 올라올 때와 내려갈 때, 행사기간에 자그마한 지장이나 불편이라도 있을세라 국가의 간부들과 지방의 책임일군들이 현지에서 확인하고 대책하는 사업이 벌어지고 실력있고 유능한 의사들이 아이들을 따라다니며 건강을 책임적으로 돌보아줄 만단의 준비를 갖추었다.

따사로운 사랑의 해빛아래 아이들이 특별렬차와 비행기, 뻐스, 배에 올라 행복의 노래 높이 부르며 수도 평양을 향하여 속속 출발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집에서 대표들이 떠날 때부터 도, 시, 군들에서 환송사업을 크게 조직하도록 해주시고 평양에 도착해서부터는 행사급수를 당대표자회의수준에서 보장할데 대한 특별조치도 취해주시였다.

말그대로 온 나라가 다 떨쳐나 나어린 소년단원들에 대한 환송, 환영열기로 세차게 끓어번졌다.

아직은 철부지인 소년단대표들이 조선소년단창립 66돐 경축행사 대표증을 수여받고 너무도 크나큰 행운에 겨워, 너무

도 꿈같은 행복에 목메여 애어린 심장을 진정하지 못하였다.

조국력사에서 처음으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영상을 모신 대표증, 이는 경애하는 그이께서 조국의 미래로 자라는 소년단대표들에게 안겨주시는 최대의 믿음의 표시였다.

드디여 기다리고기다리던 6월 6일 풍치수려한 모란봉기슭에 자리잡은 **김일성**경기장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조선소년단창립 66돐경축 조선소년단 전국련합단체대회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선연설을 하신 력사적인 곳에서 꿈결에도 뵙고싶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소년단원들의 명절을 경축하게 된 크나큰 환희가 온 대회장에 굽이치는 가운데 그이께서 뜨거운 축복을 담아 하시는 축하연설이 6월의 하늘가에 우렁우렁 울려퍼져갔다.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먼길을 한달음에 달려온 장한 소년단대표들과 소년단원들을 만나게 되여 정말 기쁘고 반갑다고 하시는 경애하는 그이의 따뜻한 음성, 여기에 참가한 소년

칭송의 목소리

### 조선이야말로 아이들의 천국이다

옥류아동병원은 병원이라기보다 아이들의 궁전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어린이들의 꿈을 소중히 여기시며 지켜주고 가꾸어주시는 **김정은**동지의 위대한 사랑이 있어 조선의 어린이들은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언제나 희열과 랑만에 넘쳐있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

단원들의 대견한 모습과 정다운 얼굴들을 보니 동무들을 평양으로 뜨겁게 바래워준 소년단원동무들과 선생님들, 동무들의 부모형제들을 다 만나보는것만 같다고 하시는 그이의 다감한 말씀은 아이들의 가슴마다에 피줄기가 되여, 봄날에도 비길수 없는 따스한 자양이 되여 흘러들고있었다. 진정은 초목도 알아본다고 하였거늘 아이들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품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러르며 온 나라가 감격과 격정으로 설레였다.

경축음악회 《미래를 사랑하라!》에도 참석하시여 공연관람과 함께 경축축포가 터져오르는 야경도 아이들과 한데 어울려 부감하시고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 무려 20번이나 자리를 옮겨가시며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면서 귀중한 시간을 바쳐가실 때, 경축대표로 선발되였지만 뜻밖의 일로 평양에 올라오지 못한 아이들에게도 기본대표들과 꼭같이 대표증과 선물을 수여하도록 하여주시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도 소년단대표들이 올 때처럼 좌석에 편안히 앉아 시창을 통하여 조국의 대지를 한껏 굽어보라고 려객기들을 동원시켜주실 때 세계는 인류사가 아직 그 심오한 의미를 모르고있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미래사랑의 최고정화를 똑똑히 보게 되였다.

《<**김정은**령도자는 자기가 하겠다고 말한것은 그대로 실천하고있다.> 이 말은 미국의 웹싸이트인 <밸류워크>에 실린 오

하이오주 공화당원 짐 죤즈가 한 말이다. 그의 말에 접하고 보니 2012년에 북조선의 평양에서 있은 아이들의 대회합이 떠오르면서 그의 말에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북조선이 처한 조건과 상황은 미국과 서방의 세기를 이어오는 제재와 압박으로 하여 지구상에서 최악의 상태에 놓여있다. 그럼에도 엄청난 인적, 물적자원을 들여 세계에 보기 드문 아이들의 대잔치를 치르었다는 사실은 국가의 장래가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는가에 달려있다는것을 잘 알고있는 미래지향적인 정치가의 안목을 잘 알수 있게 한다.

현재에 살면서 미래를 내다보고 정치하는 령도자는 분명코 보통의 정치가가 아니다. 세계를 놀래운 소년들의 대회합은 통큰 정치를 펴나가는 **김정은**령도자의 특출한 자질과 정치실력을 보여주는 더없는 청사진이다.》

세상사람들에게 강한 여운을 준 서방의 한 론객이 한 이 말은 오늘도 **김정은**원수님의 탁월한 정치실력과 고매한 위인적풍모의 저변에 무엇이 흐르고있는가를 강렬하게 시사해주며 끝없이 전해져오고있다.

#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 억만금도 아낌없이

인민의 체험속에 영원히 살아있고 력사의 갈피에 길이길이 새겨지는 만고의 위인이 체현한 장점의 하나는 눈앞의 오늘에 연연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래일에 대한 원대한 구상을 가지고있다는데 있다.

오늘이 어려워도 그속에서 래일을 마련해가는 정치가!

위인의 진짜매력은 여기에 있고 인민의 령도자와 인민우에 군림하는 통치자의 차이도 바로 여기에 있다.

장편소설 《청춘송가》를 쓴것으로 하여 유명한 공화국의 작가 남대현은 자기의 수기에서 이렇게 쓰고있다.

《…대체로 작가들은 자기가 구상하고있는 작품에 대하여 미리 공개하지 않는다. 나 역시 그렇다.

하지만 나는 아이들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천품으로 지니고계시는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소설을 준비하고있다는것을 숨기지 않으며 또 나름대로의 고민에 빠져있다는것도 스스럼없이 터놓는다. 그렇다면 고민은 무엇인가.

흘러간 격동의 10년세월에 인민은 경애하는 그이의 후대사랑의 무한한 세계를 눈물속에, 환희속에 늘 접하며 살아

왔다. 생동하게 펼쳐지는 현실이상 큰 감화력을 가진 청사진이 없다고 볼 때 내가 과연 그 현실의 절반만이라도 깊이 있게 그려낼수 있을가. 태양을 형상하려다가 하나의 자그마한 동그라미를 그려놓은데 불과한 졸작을 써낸다면 후대들에게 천추에 씻지 못할 대죄를 짓는것으로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털어버릴수 없는 저의 고민일진대 그로 하여 도저히 붓을 들수가 없다.

돌이켜보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을 위하여 심신의 정력을 너무도 많이 쏟으시였고 너무도 고생을 많이 하시였으며 너무도 많은 눈물을 흘리시였고 너무도 많은 억대의 재부도 아끼지 않으시였다.

무릇 후대들을 사랑하고 잘 돌봐주는것은 원대한 포부와 리상을 지닌 위인들의 숭고한 사명이였으며 그것은 그들이 지닌 미덕중의 미덕으로 되여왔다. 아이들을 몹시 사랑했던 맑스는 사상리론활동을 벌리는 분망한 속에서도 자주 벗들과 함께 빈민굴을 방문하면서 집문턱에 걸터앉아있는 람루한 옷을 걸친 어린애들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군 했다고 한다.

어느한 문호는 이에 대해 <그에게 있어서 아이들과 같이 즐기는것은 하나의 생활적인 요구였는바 아이들과 같이 지냄으로써 그는 휴식하였으며 기분을 전환하였다.>고 하면서 맑스는 자기의 즐거움과 휴식을 위해 아이들을 찾군 했다고 썼다.

어버이장군님께서 간곡히 교시하신것처럼 이 세상 그 어느 위인도 따르지 못할 아이들에 대한 사랑은 **김정은**원수님의 특유의 천품이다. 그이께 있어서 아이들은 즐거움과 휴식을 주는 대상이 아니라 심장과 하나의 피줄로 이어져있는 혈붙이이며 억만금의 금은보화에도 비길수 없는 귀중한 보배이고 희망과 미래의 전부이다. 그이의 성스러운 10년려정이 그것을 력력히 증명하였거늘 바로 그러하기에 경애하는 그이는 그 누구보다도 심장이 열화같으시고 그 누구보다도 강하신것이 아닌가.》

작가의 이 글은 요란한 표현이 없지만 소박한 자기의 심정을 통해 하나의 커다란 정치적문제, 국가와 민족의 장래에 대한 의미있는 문제점을 던져주고있다.

미래를 사랑하라! 미래를 위해 한몸을 불태우고 미래를 위해 억만금도 아끼지 않는 사람이 진정한 정치가이고 명실상부한 위인이다!

주체102(2013)년 7월 어느날 며칠째 내리던 비가 세찬 바람까지 동반하면서 억수로 쏟아지던 궂은 날씨의 이날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아동병원건설장에 나오시였다.

험한 날씨에 원수님을 어수선한 건설장에 모시게 된 일군들은 송구스러움을 금치 못해하였지만 그이께서는 개의치 않으시고 건설자들의 수고부터 헤아려주시며 새로 건설될 병원의 설비명세를 보아주시였다.

한 일군이 설비명세와 관련한 문건을 가져다드리였는데 그만 흩날리던 비방울이 그우에 휘뿌려졌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쓰고계시던 우산으로 문건우를 가리우시면서 설비들의 종수와 개수에 대해 외우시며 그 정형에 대해 일군들에게 물으시였다.

그이께서 허리를 굽히시여 문건을 보실 때였다.

억수로 쏟아지던 비가 갑자기 더 세차지면서 그이의 옷을 순식간에 화락하니 적셔놓았다.

일군들은 너무도 급하여 그이를 에워싸며 주위를 막아나섰건만 비가 너무도 세차게 내려 어쩔수가 없었다.

비는 벌써 그이께서 신으신 구두의 밑굽까지 차올랐다.

했건만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이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아동병원에 놓을 의료설비와 관련하여 제기된 문건을 보니 많은 의료설비를 놓을것으로 예견하였는데 그 설비들에 대해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다고 무거운 어조로 지적하시였다.

일군들은 그제서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런 험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현지에까지 급히 나오신 깊은 뜻이 마쳐와 가슴이 쩌릿해졌다.

아동병원문제를 두고 얼마나 마음을 쓰시였으면…

일군들의 마음은 충격과 죄책감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 심정을 헤아리신듯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아동병원을 현대적인 병원으로 꾸리자면 의료설비들에 대해 잘 아는 사

람들과 아동병원일군들, 설계일군들이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고 따뜻이 이르시였다.

그이의 다심한 깨우침앞에서 일군들은 더욱 크나큰 죄책감을 느끼며 설계에서 병원건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실책을 깨달았다.

경애하는 그이께서 중앙현관쪽으로 걸음을 옮기실 때 앞마당은 억수로 쏟아지는 비물에 잠겨 땅이 거의나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한 일군이 몇군데 땅이 드러난쪽으로 그이를 안내해드리려고 하였으나 그이께서는 비물이 출렁이는 진창길을 거침없이 그대로 밟으시며 건물의 현관부로 곧추 들어가시였다.

그런데 거기도 형편은 매한가지였다.

휘틀자리가 그대로인 현관홀 천정에서도 역시 비물이 줄줄이 떨어져내렸고 벽체마다 물이 흘러내려 바깥이나 별로 다름없이 어수선하였던것이다.

그이의 옷은 비에 더욱 젖어들고있었다.

하건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떨어지는 비방울에 온몸을 적시시며 일군들에게 열정적으로 가르치심을 주고계시였다.

내리는 비를 다 맞으시며 뜨거운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자욱을 새겨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는 일군들의 가슴은 격정으로 젖어들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그러는 그들에게 일군들이 오늘처럼

비오는 궂은날에 내가 건설장에 또다시 나올가봐 념려하는데 자신께서는 그렇게 할수 없다고, 아동병원은 자신께서 결심하여 건설하고 설계도 구체적으로 보고 비준하여준 대상인것만큼 자주 나와 지도하여야 건설이 잘될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 비내리는 건설장으로 계속 걸음을 옮기시였다.

쏟아지는 폭우속에서 병원건설장의 요소요소를 다 돌아보시며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화제를 바꾸시였다.

아동병원에 들여놓게 될 설비들에 대한 문제였다.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얼마전에 해당 부문에서 보고한 문건을 보니 일부 의료설비들이 부족하여 아동병원에서 치료받게 될 어린이들의 병진단을 어떤것은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에 가서 하고 치료는 아동병원에서 하는것으로 예견하였는데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하시였다.

사실 아동병원에 설치하게 되여있는 의료설비들의 값은 대단히 비싼것들이였다.

어느한 설비는 자기공명화상법을 리용하여 물로 이루어진 사람의 인체에서의 수소이온들의 움직임을 화상으로 처리하여 병을 진단하는 최신의료설비이고 CT설비 역시 렌트겐기술과 콤퓨터단층촬영기술을 리용하여 병을 진단하는 의료설비로서 그 값이 엄청난것이였다.

그래서 병원에 새로 갖추어야 할 설비문제에 대해 문건을

작성하는 일군들은 그 설비들에 대해서는 엄두를 내지 못하였던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사실 의료설비들을 갖추어놓지 못하고 건물이나 지어놓고 준공식을 하여서는 의의가 없다고 지적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윽하여 설비들의 가격에 대해 물으시였다.

일군들로부터 그에 대해 료해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단호한 어조로 아동병원에 그 설비들을 놓아주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설비 한대 값이 너무 비싸 예견하지 못하였다고 하는데 값이 아무리 비싸더라도 아동병원에는 갖추어주도록 하여야 한다고, 아동병원은 자신께서 마음먹고 건설하는 우리 어린이들의 종합적인 치료기지인것만큼 자금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설비를 무조건 갖추어주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없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없다!

일군들은 그이의 말씀에 모두 눈시울을 적시였다.

지금이 어느때인가. 강국건설의 크고작은 전구들마다에서 얼마나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고있는 때인가.

하지만 경애하는 원수님께 있어서 나라와 민족의 희망이고 미래인 어린이들을 잘 키우는것만큼 중대사는 없으시였다. 억대의 재부도 아이들을 위해 있다고 보시는 그이이시기에 아이

들을 위한 병원건설에 그처럼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바쳐가시며 나라의 억만금도 아낌없이 돌려주고계시는것이 아닌가.

오랜 시간 건설장을 일일이 돌아보시며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고 뜨거운 은정을 거듭 베풀어주신 그이께서 건물밖으로 나오시였을 때 경애하는 그이의 옷자락은 화락하니 젖어있었고 신으신 구두는 흙탕물에 말이 아니였다.

하건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환히 웃고계시였다.

그지없이 순결하고 용암처럼 불타는 심장만이 발산할수 있는 태양의 미소!

미래를 확신하고 미래를 당겨오는 진정한 위인만이 지을수 있는 최강자의 미소!

예로부터 아이들에 대한 사랑의 감정은 가장 헌신적이고 적극적이며 지어낼수도 강요할수도 없는 순결하고 아름다운 감정이라고 했다.

그럴진대 억수로 쏟아붓는 비발속에 진창길을 걸으시며 아이들을 위하여 한몸을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그이의 미소야말로 가장 순결하고 가장 아름다운 미소가 아니겠는가.

바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 미소속에 아이들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천품으로 지니신 그이의 후대사랑의 세계가 비껴있는것이 아닌가.

아이들에 대한 절대의 사랑과 천만로고속에, 후대들을 위해서는 억대의 재부도 아끼지 않는 한없는 은정속에 오늘 이

땅우에는 후대사랑의 기념비와도 같은 수많은 궁전들과 야영소들, 학교들과 병원들이 명당자리마다에 우후죽순처럼 솟아올랐다.

전국의 도처에 일떠선 육아원, 애육원들과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비롯한 아이들의 웃음소리 드높은 소년궁전들, 번뜻하게 솟아오른 교사들이며 궁전도 무색케 할 유치원, 탁아소들…

조국의 앞길에 드리운 고난과 시련의 장막을 산산이 부시며 솟아오른 이 모든 아이들을 위한 건축물들은 결코 자금이 남아돌아가고 조건이 용이해서 일떠세운것이 아니였다.

그 언제나 아이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것을 하루빨리 안겨주고싶은것이 자신의 심정이라고 절절히 말씀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같은 소원, 우리가 1년을 고생하면 조국은 10년 발전한다시며 눈비내리는 건설장의 험한 길도 웃으며 가시는 그이의 눈물겨운 희열의 세계, 제재와 봉쇄라는 전대미문의 포위망속에서도 해마다 대건설의 전역을 련이어 펼치시는 그이의 무비의 담력과 배짱속에 아이들의 요람, 행복의 보금자리들이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솟아오른것 아니랴.

총포성없는 전쟁을 치르는것과 같은 엄혹한 환경속에서, 인쇄기에서 신문을 찍어내듯 우리 국가에 대한 선전포고와도 같은 《제재결의》문들이 날마다 날조되는 긴장한 정세속에

서도 해마다 일떠섰고 오늘도 일떠서고있는 황홀하고 현대적인 아이들의 《천국》들은 그 가치에 있어서 건축물의 요소를 이루는 세멘트나 강재, 자금의 량으로서는 도저히 설명할수 없다.

재부나 육체적힘에는 한계가 있다.

남들 같으면 생존하기조차 힘겨웠을 최악의 역경속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속도로 조국의 도처에 생겨나고있는 아이들의 《천국》은 참으로 힘겨워도 미래에로의 길을 중단하지 않는 절세위인의 위대한 정신력이 낳은 눈부신 현실, 조선의 미래상이다.

아이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것을 하루빨리 안겨주고 싶은것이 자신의 심정이라고 절절히 말씀하시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겨울과 여름에도 찾으시고 전선길에서도 찾으시였던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아이들의 궁전으로 세상에 보란듯이 솟아오른 이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서 제일 멋진 곳이 어디인가고 물으면 우리 아이들은 하나같이 대답할것이다.

그것은 동해가 그대로 들어앉은것같이 웅장하고 신비로운 수족관이라고.

그렇지만 이 수족관이 야영소가 개건되기 전에는 없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건설일군들과 설계가들이 수백차례의 수정을 거쳐 완성한 야영소개건형성안에도

수족관이 없었다. 야영소개건전반에 막대한 자금이 든다는데로부터 일부 시설물들은 기존의것을 그대로 놔두는 방향에서 형성안이 만들어졌고 더우기 방대한 자금이 드는 수족관을 새로 건설하는것은 생각조차 하지 못하였던것이다.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 수족관이 새로 웅장화려하게 건설될수 있은것도 아이들을 위해서는 억대의 재부도, 억만금의 자금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직접적인 발기와 현명한 령도에 의해서였다.

2013년 5월말이였다.

그처럼 정세가 긴장한 속에서도 이곳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야영소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개건보수시에 퇴

**일화 걱정하신 아이들의 청각**

삼지연학생소년궁전의 현악소조실에서 소조원들의 연주를 들어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바라보시며 소리가 세서 아이들의 청각이 나빠지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방안을 둘러보았다.

확실히 현악소조실이 소조원수와 악기대수에 비해보면 크기가 작았고 그래서 소리울림이 너무 컸다.

그이께서 그 대책에 대해서도 가르쳐주시자 궁전일군들의 얼굴이 금시에 밝아졌다.

걸음을 옮기시던 그이께서는 다시 일군들을 향해 돌아서시며 방배치를 능력에 맞게 다시하라고, 아이들의 청각이 나빠지면 안된다고 다시금 강조하시였다.

치할 점들에 대해 세심히 가르쳐주시면서 해양지식보급실에 들어서시였다.

그이께서는 여기가 해양지식보급실인가고 하시면서 방을 둘러보시였다.

말이 해양지식보급실이지 관람석처럼 높은 의자들이 놓여있고 뒤쪽으로 전시한 박제품들과 물고기표본들은 얼마 되지 않았으며 뒤벽에는 영사실창문이 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웃음을 띠우시며 해양지식보급실이 원래 영화관이였던것을 개조하여 꾸린것같은데 여기에 좋은 동식물표본들을 보내주고 박물관의 한개 실처럼 잘 꾸리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야영소의 일군들은 그이의 말씀에 부끄러워 머리를 들지 못하였다.

말그대로 바다가야영소인데 해양지식보급실을 이렇게밖에 꾸리지 못하였으니 학생들에게 어떻게 바다지식을 생동히 보급할수 있단 말인가. 야영의 기본목적이 학생소년들에게 학교에서 볼수 없는것들을 현실속에서 직접 보여주면서 그 과정을 통하여 산지식을 다지도록 하자는것이 아닌가.

그래도 야영소의 한 일군이 용기를 내여 어항에 있는 물고기를 가리켜드리며 그이께 여기에 산 물고기가 있다고 말씀드리였다.

그이께서는 어항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며 무슨 물고기인가

고 물으시였다.

그는 얼른 붕어라고 말씀드렸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호탕하게 웃으시며 해양지식보급실에 있는 동물표본들이 좋지 못하다고, 해양지식보급실뒤쪽에 있는것이 어항인지 무엇인지 락후하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일군들에게 야영생들이 해양지식보급실에 와서 생동한 동식물표본들을 보고 여러가지 지식을 습득할수 있게 해주는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시였다.

동행한 일군들이 가르치심의 자자구구를 새겨안으며 그이를 우러르는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무엇인가 결심하시려는듯 한동안 말씀이 없으시였다.

장내는 숨소리조차 안들릴 정도로 너무도 조용하였다.

이윽하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결연한 어조로 수족관을 잘 꾸려주어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와보면 누구나가 다 감탄을 금치 못하는 멋쟁이수족관, 외국의 야영생들이 세계의 그 어느 나라에도 아이들의 야영소에 이처럼 훌륭한 수족관은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수족관은 이렇게 되여 마련되였다.

후대들을 위한 일에는 비록 그것이 억대의 재부가 드는것이라 해도 주춤을 모르고 한계를 모르는 자애로운 어버이의 절대의 사랑, 절대의 은정이 그대로 응축되여있는 수족관!

수족관만이 아닌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의 모든 건축물들과 화려한 승강기들을 비롯한 하나하나의 설비들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대해같은 후대사랑이 응축되여있고 귀중한 자금이 투자되였다는것은 이미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조선의 실정에 대해 파악이 있다고 하는 일부 사람들은 모름지기 미국과 서방의 날강도적인 제재와 봉쇄로 전대미문의 경제적어려움을 겪고있는 나라에서 당면한 생산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데 막대한 투자를 하고있는것을 두고 적자의 미궁에 빠지는 실리없는노릇이라고 할지도 모른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야말로 근시안적인 투시이며 금전의 수판알만 튀기는 수전노의 안목이다.

진정한 위인의 안목, 미래를 당겨오는 정치가의 눈길은 지척과 함께 멀리 미래에 와닿아있다. 한몸을 그대로 초불처럼 태워 미래를 위해 사랑을 바쳐가는 위인에게는 미래가 현실로 보인다. 오늘이자 래일이며 래일을 오늘로 안고 사는 위인만이 인민이 알고 세계가 격찬하는 참다운 정치가이다.

원대한 포부와 심원한 미래의 구상을 안고있는 절세의 위인은 바야흐로 가닿을 최강국의 면모를 떠올리며 최후의 웃음을 오늘에 짓고있을것이다.

말하라, 력사여! 이 세상에 누가 아이들을 제일 사랑하는가.

나라에 재부가 넘쳐나서 아이들의 궁전이 일떠서는가. 아

이들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정치가가 있어 아이들의 《천국》이 일떠서는가.

가는 길 험난해도 미래를 실속있게 가꾸어가며 웃는 희세의 위인, 아이들을 위해서는 타산을 앞세우지 않는 진정한 후대사랑의 정치가만이 그처럼 어려운 경제적 조건에서도 세상에 없는 기적을 창조하고 미래의 집을 오늘에 짓는다.

하기에 포근하고 따스한 자애의 품으로 어서 오라 부르는 어머니모습인양 독특한 건축미와 웅건함을 자랑하며 우아하게 솟아오른 아이들의 궁전인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찾은 로씨야의 한 시인은 이렇게 토로했다.

《너무도 놀랍다. 이 아이들의 궁전에 쓰인 고급석재로는 내가 다녀온 어느

칭송의 목소리

### 그늘도 구김살도 찾아볼수 없다

조선의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슭에 자리잡고있는 평양육아원과 애육원에는 원아들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져있다.

이곳에서는 보육원, 교양원, 의사를 비롯한 많은 성원들이 원아들의 생활을 항상 곁에서 돌봐주고있다. 서방의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사실이다.

나라들마다 부모없는 아이들은 국가와 사회의 가장 어두운 리면을 보여주는 존재들로 치부되고있다.

허나 **김정은**령도자의 후대사랑속에 조선에서는 원아들이 온갖 특전과 특혜를 받으며 생활하고있다.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밝게 웃으며 마음껏 뛰노는 이들의 얼굴에서는 한점의 그늘도 구김살도 찾아볼수 없다.

(로씨야의 인터네트홈페지에 실린 글)

한 나라의 대통령궁전을 수십개나 지을수 있다.

**김정은**국무위원장이 이에 대해서 모르는가.

알아도 너무도 잘 알것이다. 너무도 잘 알기에 국무위원장은 서슴없이 아이들을 위한 궁전에 정부청사에도 깔지 못한 그 고급석재를 아낌없이 돌린것이다.

그 리유는 명백한바 두가지로 요약하여볼수 있다.

하나는 **김정은**국무위원장이 아이들에 대한 애정을 자신도 어쩔수 없는 천품으로 가지고있다는것이다.

다른 하나는 **김정은**국무위원장이 젊으신 정치가이지만 미래의 강국이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가를 너무도 잘 아는 원대한 포부를 가진 강자형의 정치가라는데 있다.》

세계는 조선이 세계굴지의 매장량을 자랑하는 억대의 자원을 발밑에 딛고 전도유망한 대부대의 인재력량을 가지고있으며 반세기를 다지고다져온 자립적민족경제토대를 가지고있을뿐 아니라 보다 중요하게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일심단결의 무기를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그 발전가능성이 제일 큰 나라라고 평하고있다.

물론 옳은 평이다.

하지만 힘들어도 어려워도 미래의 큰 그림을 오늘에 그려가는 절세의 위인, 인민의 태양 **김정은**원수님의 특유의 후대사랑정치를 감안한다면 조선에 대한 세계의 평은 실로 충격적일것이다.

# 병든 자식, 상처입은 자식도 한품에 안아

후대들에 대한 믿음과 사랑은 조국에 바쳐지는 송가가운데서도 가장 순결하고 아름다운 송가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불미스러운 과거를 안고있는 청년들을 모두 한품에 안아 그들을 부강하고 번영할 조국의 억센 기둥감들로 키워주신 사랑의 이야기들은 이 땅에 아름다운 교향곡이 되여 울려퍼지고있다.

그 울림을 타고 병든 자식, 상처입은 자식을 탓하지 않고 더 마음을 쓰며 사랑과 정으로 품어주고 아픈 상처를 감싸주며 또다시 일으켜 내세워주는 품, 이것이 어머니 우리당의 품이라고 절절히 말씀하시던 절세위인의 자애깊은 영상이 인민의 마음속에 다시금 뜨겁게 새겨진다.

어머니, 이 부름은 사랑과 헌신의 상징이다.

어머니는 못난 자식, 말썽많은 자식이라고 하여 버리지 않으며 병신자식, 상처입은 자식일수록 더 걱정하고 마음을 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런 어머니의 진정으로 떳떳치 못한 가정주위환경으로 가슴에 시름을 안고있는 청년들의 마음속그늘을 가셔주시고 잘못된 길을 걸어 괴로움을 겪는 청년

들의 마음속에는 신심의 기둥을 세워주시며 그들모두를 나라의 기둥감들로 키워주신다.

비록 불미스러운 과거를 가지고있다 해도 이 땅에 사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든 따뜻이 품어안아 어머니의 마음으로 사랑을 주고 정으로 보살펴주며 믿음으로 이끌어줄 때 부서져도 빛을 잃지 않는 백옥처럼, 불에 타도 곧음을 잃지 않는 참대처럼 역경속에서도 신념을 잃지 않는 불사신들로 키울수 있다.

이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의 철학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에서도 설사 엄중한 과오나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하여도 그에게 99%의 나쁜 점이 있고 단 1%의 좋은 점, 량심이 있다면 우리는 그 량심을 귀중히 여겨야 하며 대담하게 믿고 포섭하여 재생의 길로 이끌어주어야 한다고, 골병이 든 사람, 가슴앓이를 하는 사람일수록 더 뜨겁게 대해주어야 하며 그들의 마음속에 맺혀있는 문제를 풀어주는데 특별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흔히 어떤 사물현상에서나 1%라고 하면 거의나 무시하는 경우가 례상사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1%라고 하면 매우 보잘것없는것으로 생각하거나 무시해버린다.

그것은 1%가 해당한 사물현상의 존재와 발전에서 거의나

의미를 가지지 않으며 별로 역할을 하지 못하기때문이다.

반면에 어떤 사물현상이든지 그 내용의 99%에 변화가 오면 그 사물현상은 더는 존재할수 없게 된다.

다시말하여 그 사물현상으로서의 고유한 속성과 존재가치를 잃어버리게 되고만다.

인간의 량심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의 리치가 작용한다.

량심은 인간의 고유한 미덕으로서 사람들을 자각적이고 아름다운 행동에로 추동하는 정신적힘의 원천이다.

사람에게는 량심이 있기에 집단과 어울려 살면서 함께 운명을 개척해나갈수 있다.

사회적인간으로서의 량심을 어지럽히면서 사는 사람은 뭇사람들의 지탄과 배격을 면할수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인간의 됨됨에 대해 말할 때 그의 량심에 대하여 반드시 이야기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못난 자식, 말썽많은 자식일수록 더 걱정하며 마음을 쓰는 어머니심정으로 누구나 단정해버리고마는 1%의 량심마저도 귀중히 여기시며 더 따뜻이 품어 전진하는 대오에 떳떳이 내세워주시였다.

그이의 한없이 넓은 품에 청년돌격대의 어느한 지휘관도 안겼다.

그는 중학교를 졸업한 후 청년돌격대에 탄원하여 자기의 성실한 땀을 아낌없이 바쳤다.

그러던 그는 동생이 나라앞에 죄를 짓고 법적처벌을 받은 것으로 하여 사람들앞에서 머리를 들수 없었다.

그는 눈앞이 캄캄해지고 마음은 말할수 없이 괴로왔다.

사업과 생활에서 생기를 잃고 주눅이 들었으며 돌격대를 그만두고 고향에 내려가려는 나약한 생각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어머니의 심정으로 모든 사람들을 차별없이 돌봐줄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일군들은 그가 주저앉을세라 힘과 용기를 안겨주고 대오의 앞장에서 나가도록 걸음걸음 떠밀어주었다.

그들의 손길에 이끌려 그는 자기 집안이 지은 죄를 조금이라도 씻고싶어 헌신의 땀을 아낌없이 바쳤다.

그러던 그는 2013년 2월 뜻깊은 광명성절을 맞으며 조선청년의 최고영예인 **김일성**청년영예상을 수여받게 되였다.

수여식에 참가한 그는 꼭 꿈을 꾸는것만 같았다.

이윽고 한명한명 수상자들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다.

(정말 내 이름도 부를가?)

그는 이런 생각이 갈마드는것을 어찌할수 없었다.

자기의 이름이 불리워지는 순간 그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 끓어오르는 격정으로 하여 대답할수 없었던것이다.

그의 두볼로는 진한 눈물이 흘러내렸다.

두번, 세번 이름을 거듭 불러서야 그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을 두손으로 감싸쥐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람은 믿음과 사랑속에서 사는 존재이다. 사랑과 믿음을 받지 못하는 인간은 비록 육체적생명이 있다 해도 인간다운 삶을 누릴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사랑과 믿음이자 인간의 삶이고 인간의 삶이자 사랑과 믿음의 련속이라고 말하는것이다.

그러한 사랑과 믿음가운데서 가장 큰 사랑과 믿음은 다름아닌 자기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이끌어주며 빛내여주는 위대한 어버이의 사랑과 믿음이다.

그는 수여식장에서 허물많은 자식 언제 한번 탓하지 않고 한품에 안아 사랑을 주고 믿음을 주며 내세워주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믿음은 이 세상 전부이라는것을 온몸으로 절감하였다.

그는 그 누구에게도 함부로 터놓기 힘든 자기 가정의 불미스러운 과거와 상처입은 자신을 따스히 감싸안아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고마움의 인사를 함께 적은 편지를 그이께 삼가 올리고싶은 마음속충동을 금할수 없었다.

후날 그는 TV무대에서 그때의 심정에 대하여 이렇게 토로하였다.

《정작 책상에 마주앉았지만 마음속 한구석에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저처럼 떳떳치 못한 청년이 올리는 편지도 보아주실가 하는 생각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가 올린 편지를 몸소 보아

주시고 더 큰 믿음의 친필을 보내주실줄이야 어찌 알았겠습니까.

<숨기고싶었을 집안의 과거를 스스럼없이 터놓고 당을 믿고 따르는 좋은 청년입니다.

**김 정 은**

2013 4 10>

친필을 받아안은 저의 격정은 이루 말할수 없었습니다.

한 나라의 령도자께서 편지를 보아주신것만도 무한한 행복이고 영광인데 오히려 당을 믿고 따르는 좋은 청년이라고 친필을 보내주시였으니 그이의 대해같은 사랑을 무슨 말로 표현해야 할지 알수 없었습니다.

과거사나 가정주위환경보다도 가슴속에 소중히 간직된 량심을 먼저 헤아리시고 그것을 그 어떤 진주보석보다도 값높이 평가하시며 좋은 청년이라는 최상의 믿음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은 저와 같은 청년들의 삶도 떳떳이 빛내여주시는 자애로운 친어버이이십니다.》

절세위인의 그 믿음, 그 사랑에 떠받들려 떳떳치 못한 과거를 가진 인간은 도저히 오를래야 오를수 없다고 생각했던 영광의 최절정에 바로 그자신이 오를수 있었던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주체103(2014)년 9월에는 **김일성**사회

주의청년동맹(당시) 제4차 초급일군대회의 높은 연단에 그를 올려세워주시였으며 온 나라가 다 아는 어엿한 일군으로 내세워주시였다.

어머니당의 품속에서 재생의 길에 들어선 금야군의 신혼부부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의 축복을 받아안았다.

그들은 한때 조국이 겪는 시련을 외면하고 인생길을 잘못 내짚은적이 있었다.

그러나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지난날을 부끄러워하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 고개를 들지 못하고 살았다.

이렇게 주눅이 든 그들을 찾아 따뜻이 품어주는 품이 있었다.

병든 자식, 상처입은 자식에게 더 마음쓰며 따뜻이 품어주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받들고 한 일군이 그들을 찾아왔던것이다.

그 일군의 따스한 손길에 이끌려 그들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안착된 생활을 할수 있었다.

홀어머니와 함께 모여살게 해주고 결혼식도 차려주었을뿐아니라 혈육의 정으로 집세간과 생활용품도 마련해준 일군의 모습에서 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아안았다.

그들은 자기들의 끓어넘치는 감사의 목소리를 합쳐 아들딸을 낳아 훌륭히 키워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내 나라를 굳건히

지키고 빛내이는데 적은 힘이나마 바쳐갈 굳은 결의를 담은 편지를 경애하는 원수님께 삼가 올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들의 소박한 편지를 받아보시고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는 사랑의 친필을 안겨주시였다.

《동무들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아들딸 많이 낳고 행복하게 잘살기 바랍니다.

**김　　정　　은**

2013. 7. 11》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화같은 사랑과 믿음의 세계에서 잘못 살아온 지난날과 결별하고 어렵고 힘든 곳으로 자원해온 청년들도 인생의 영광을 받아안았다.

한때 사회와 집단으로부터 《말썽군》으로 불리우며 비난을 받았던 청년들이 석탄전선의 전초병이 되여 인생의 새 출발을 하려는 열망을 안고 어느한 탄광으로 달려왔다.

그들은 값없이 흘러보낸 지난날과 결별하고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서 청춘의 값높은 삶을 빛내이기 위해 하루과제를 두배, 세배로 넘쳐 수행하며 련일 혁신을 일으켜나갔다.

2015년 2월 어느날이였다.

사람들이 단잠에 들어있던 이른새벽 이들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밀려드는 피로가 말끔히 가셔지신듯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들의 애국심을 더욱 키워주고 잘 보살펴주며 이끌어주어 시대의 당당한 주인공들로 내세워야 하겠다고, 청년들의 소중한 애국심에 접하고보니 우리 당은 천군만마를 얻은듯 힘이 난다고 했다는것을 돌격대원들에게 전달해주고 자신의 인사를 꼭 전해주라고 거듭거듭 당부하시였다.

천군만마를 얻은듯 힘이 난다!

이제 겨우 보답의 첫자욱을 뗀데 불과한 그들이였다.

하건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노도쳐 진군하는 천만대오의 상징과도 같은 천군만마에 비겨 그들모두를 시대의 주인공으로 온 나라 인민앞에 내세워주신것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은 그대로 돌격대원들의 지칠줄 모르는 힘의 원동력이 되였다.

나이도 경력도 서로 달랐지만 경애하는 원수님과 맺은 정을 피줄처럼 간직한 그들은 그이께서 바라시는대로 강국건설의 당당한 주인공, 기둥감들로 준비해갈 결사의 의지를 가다듬고 막아서는 붕락도, 무섭게 덮쳐드는 감탕벼락도 두려움없이 헤쳤다.

그 나날에 난관도 시련도 맞받아 전진, 전진, 투쟁 또 전진하며 부강조국의 새 탄발을 마련해나가는 믿음직한 청년들로 자라났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나라의 기둥감들로 자라난 이들의 위훈과 소행을 높이 평가해주시며 청년돌격대원들을 제2차 전국청년미풍선구자대회장으로 불러주시고 영광의 단상우에 높이 내세워주시였다.

상처입은 자식들에게 돌려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은 단지 이들 몇몇 사람들에게만 그친것이 아니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2021년 8월말에도 어렵고 힘든 부문에 탄원진출하여 인생의 새 출발을 한 청년들을 만나주시며 그들의 밝은 앞날을 축복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뒤떨어졌던 청년들이 자기들을 품어주고 키워준 어머니당과 사회주의제도의 고마움을 깨닫고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제일 어렵고 힘든 초소에서 인생의 새 출발을 한것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대견하게 여긴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혁명의 새로운 승리를 안아오기 위한 간고한 투쟁을 이어가고있는 시대에 이들처럼 당과 혁명의 부름에 충실한 청년들이 수많이 배출되고있는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의 표출이며 우리 청년들의 고상한 인생관, 미래관의 발현이라고, 혁명하는 당에 있어서 자기의 믿음직한 교대자, 후비대, 전도양양한 젊은 주력부대를 가지고있는것은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제일가는 자랑이고 밑천이며 재부이라고 긍지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들을 미덥게 바라보시며 오늘의

장엄한 총진군길에서 우리 청년집단이 그 어디서나 투쟁의 불씨가 되고 료원의 불길이 되여야 한다고, 보석같은 애국의 마음을 안고 조국의 부흥과 진보를 위하여 분투하는 청년영웅이 되여야 한다고 간곡히 이르시였다.

친어머니의 다심하신 정으로 지난날의 《말썽군》들도 강국건설의 기둥감들로, 청년영웅들로 키우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은 이렇듯 진실하고 뜨거운것이다.

하기에 병든 자식, 상처입은 자식을 가리지 않고 친어머니의 심정으로 품에 안아 보살피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는 절세위인을 우러러 이 나라의 청년들이 부르는 《내 심장의 목소리》의 노래소리가 오늘도 주체조선의 하늘가 멀리로 높이 울려퍼지고있는것이 아닌가.

…
그 품에 자란 천만아들딸 한마음 우러르며
생을 주시고 빛내여주신 어머니를 따릅니다
사심없이 변함이 없이 그대만을 사랑할 마음
어머니 어머니 위대한 어머니 영원히 안기렵니다

당이여 당이여 어머니당이여 영원히 받들렵니다

# 청년강국의 새시대

오늘 주체조선은 존엄높은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그리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청년강국으로 자랑떨치고있다.

그뿐이 아니다. 《혁명의 계승자》, 《당의 믿음직한 후비대, 척후대, 익측부대》, 《사회주의조국의 영예로운 수호자》, 《우리 당의 마음의 기둥, 억척의 지지점》, 《사회의 가장 활력있는 부대》라는 부름이 말해주듯이 이 나라의 청년들은 그 어느 나라 청년들이 지녀보지 못한 가장 큰 영예와 긍지를 안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앞장에서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힘있게 떨쳐가고있다.

이 긍지높은 부름들은 그대로 절세위인의 품속에서 청춘의 보람과 영예를 떨치며 청년강국의 주인공들로 억세게 자라난 수백만 조선청년들에 대한 아름다운 청춘송가이다.

청년강국의 새시대, 이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청년중시정치를 빛나게 이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탁월한 령도의 손길이 안아온 자랑찬 결실이다.

주체105(2016)년 1월 어느날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한해치고 가장 큰 추위가 오는 절

기라고 일러오는 대한을 앞둔 이날 새로 건설된 청년운동사적관을 돌아보시였다.

이날 그이께서는 청년운동사적관에는 혁명의 장기성을 내다보시고 주체혁명의 첫 시기부터 심혈을 기울여 청년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청년운동령도사가 집대성되여있으며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지니신 숭고한 미래관, 후대관이 응축되여있다고 하시였다.

그러시고 혁명령도의 전 기간 어렵고 힘든 일이 제기될 때마다 청년들을 시대의 주인공으로 내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믿음이 있어 청년강국의 기틀이 마련되였으며 청년들은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맹장들로, 주체의 혈통을 이어나가는 계승자들로 자라났다고, 우리의 청년강국은 이 세상 그 누구도 모방할수 없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청년강국!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받아안는 일군들의 가슴은 후더워올랐다.

세상을 둘러보면 오늘 많은 나라들에서 청년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난문제로 제기되고있는가.

지구상의 수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잃고 앞날에 대한 꿈과 희망도 없이 정신도덕적으로 타락하여 사회의 우환거리가 되고있는것이 현실이다. 알려진데 의하면 최근에만도 실업자로 전락되여 거리를 방황하는 24살미만의 청년들이 미국에

서는 약 600만명, 영국에서는 근 90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남조선에서도 수많은 청년들이 극심한 생활난으로 사랑과 결혼, 해산을 포기하는 《3포세대》, 여기에 내 집마련의 꿈과 인간관계까지 포기한 《5포세대》를 넘어 모든것을 다 포기한 《N포세대》로 불리우고있다.

하지만 공화국에서는 어느 나라에서도 해결을 보지 못한 청년문제를 가장 완벽하게 해결하고 세상이 부러워하는 청년강국을 일떠세웠으니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것인가.

울렁이는 가슴을 진정하지 못하며 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수령님들에 의하여 마련된 청년중시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빛내이며 청년강국의 새시대를 펼쳐주시던 나날들을 숭엄한 마음으로 되새겼다.

뜻깊은 새해를 맞으며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에 공동사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2012년을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를 발표하도록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그해 1월 26일에는 청년들의 힘찬 발걸음에 의해 강성할 래일은 더욱 앞당겨지게 될것이라고, 언제나 곧바로, 당을 따라 앞으로라는 내용의 친필서한을 보내주시여 당을 따라 언제나 곧바로, 곧바로 나아가도록 힘을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주시였다.

어버이장군님을 뜻밖에 잃고 처음으로 맞이한 새해의 첫

기슭에서 청년들에게 한없는 믿음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청년중시의 날과 달들을 쉬임없이 이어가시였다.

청년동맹을 당의 믿음직한 후비대, 척후대, 익측부대로 내세워주시고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여 청년운동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신 그이께서는 청년들의 명절을 크게 경축하도록 하시고 전선시찰의 길에서 청년절을 맞는 온 나라 청년들에게 축하문도 보내주시였다.

청년들에 대한 수령의 하늘같은 믿음과 기대에 충성으로 보답할 일념으로 사회주의건설의 주요전구들마다에서 피끓는 청춘의 기백과 열정을 발휘하면서 사회와 집단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하고있는 청년들이 기특하고 대견하시여 그들모두를 제2차 전국청년미풍선구자대회장에 불러주시고 사랑의 기념사진도 찍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잊을수 없는 그날의 기념촬영장에서 격정에 목메여 목청껏 만세를 부르는 미더운 청년미풍선구자들을 보시며 그이께서는 말씀하시였다.

이런 열기는 보기 드문것이라고, 완전히 용암이라고, 환호하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보니 천군만마를 얻은듯 힘이 난다고…

가야 할 행군길이 아득히 그어져있고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이 그 어느때보다 악랄하게 감행되고있는 때에 이런 충직한 청년들, 이런 순결한 청년들, 이런 불같은 청년들

이 천으로, 만으로 당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쳤으니 그이께서 얼마나 큰 힘을 얻으셨으랴. 얼마나 창창한 조국의 래일을 확신하시였으랴.

천군만마는 강대한 힘과 용맹한 기상, 천하를 뒤흔드는 질풍노도를 상징한다.

예로부터 천군만마를 얻으면 천하를 얻고 큰뜻을 이룬다고 하였다. 하기에 무적의 장군을 천군만마를 거느린 용장으로 일러왔고 장군의 힘을 천군만마의 기상에 비겨왔다.

청년강국의 새시대에 천군만마와 같은 수백만 청년대군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철옹성같이 뭉쳐있다. 그이의 사상과 의도를 심장에 쪼아박은 티없이 맑고 순결한 청년투사들의 집단, 힘과 열정, 포부와 랑만, 미덕과 용감성에 있어서 그이를 제일로 닮은 열혈의 청년대군이 자기의 령도자를 맨 앞장에서 결사옹위하고 받들어가고있다.

돌이켜보면 공화국이 걸어온 자랑찬 로정에는 각이한 세대 청년들의 고상한 사상정신적풍모와 그들의 지위와 역할을 특징짓는 긍지높은 시대어들이 아로새겨져있다.

혁명의 선봉투사, 혁명의 계승자, 우리 당의 청년전위, 최고사령관의 별동대, 예비전투부대…

청년강국!

오늘은 또 하나의 시대어가 태여나 주체조선의 위용을 만방에 떨쳐주고있거니 그날은 2015년 4월중순이였다.

청년들이 있는 곳이라면 아무리 멀고 험한 곳도 다 찾으시며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날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당시)건설장을 찾으시였다.

그이께서는 발전소를 돌아보시며 청년돌격대원들을 온 세상이 부러워하게 금방석에 앉히고 저 하늘의 별을 따다가 그들의 가슴에 달아주고싶은 심정을 금할수 없으시였다.

하기에 그이께서는 우리 나라는 사상강국, 군사강국이며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이라는데 대하여 선언하시듯 말씀하시였다.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

그이의 말씀은 봄우뢰마냥 산골의 고요를 깨치며 퍼져갔다.

일군들의 가슴은 온 세상을 통채로 받아안은듯 격정으로 마냥 일렁이였다.

사회의 가장 활력있는 부대로 자랑떨치는 청년들의 대부대를 가지고있는것이 그리도 기쁘고 만족하시여 우리 나라는 사상강국, 군사강국이며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이라고 말씀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력사의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까지 공사를 완공함으로써 우리 당의 70년력사는 청년중시의 력사, 청년강국을 일떠세운 력사라는것을 온 세상에 떨치자고 뜨겁게 호소하시였다.

평범한 자기들을 청년강국의 주인공으로 세상이 부럽도록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믿음과 기대에 발전소완공의 날을 하루빨리 앞당기는것으로 보답할 열의에 넘쳐 청년돌격대원들은 한사람같이 일떠섰다.

정치가 좋아 민심이 좋으면 흥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며 세인을 경탄시키는 영웅서사시도 수많이 창조되는 법이다.

청년들이 결심하고 떨쳐일어나면 못해낼것이 없다는 신심을 백배해주는 격전장이 백두대지에 펼쳐졌다. 무궁무진한 슬기와 용맹을 지닌 청년들이 발휘하는 힘에는 한계가 없었다.

이 나날 불과 두달사이에 수만㎥에 달하는 언제콩크리트타입이 진행되고 물길굴피복공사에서 련일 혁신적인 성과가 이룩되였다.

거대한 언제가 껑충 뛰여오르고 나무만 무성하던 산기슭에 100여동의 아담한 살림집이 자태를 드러낸것을 비롯하여 10년을 몇달로 앞당기는 기적이 매일 매 시각 창조되였다.

발전소건설자들이 발휘한 백절불굴의 투쟁정신,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과 위훈을 목격한 외국의 한 인사는 《조선청년들은 특수한 체질을 가지고있다. 강의성과 불굴성은 조선민족, 조선청년들의 고유한 체질이다.》며 감동을 금치 못하였다.

강철이 불길속에서 단련되듯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구상과 의도를 맨 앞장에서 받들어가는 발전소건설과정에 통이 크고 배짱있게 일을 제끼는 영웅청년들의 대부대가 억세게 자라났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에서는 누구나 할것없이 깨끗한 량심과 의리, 조국애로 불타는 뜨거운 심장을 지니고 시대와 혁명, 당과 조국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바치게 되고 청춘의 용맹과 지혜가 솟구쳐올라 기적과 위훈이 창조되게 된다.

그이의 손길을 떠나 그처럼 어려운 투쟁속에서, 그처럼 짧은 기간에 상상할수 없는 투지와 용맹을 어떻게 발휘할수 있으며 고난앞에서 두려움을 모르는 강자들로 자라날수 있었으랴.

하지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미더운 기적과 위훈의 창조자들을 시대의 앞장에 높이 내세워주시였다.

그해 9월중순 또다시 발전소건설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청년들이 정말 용타고, 지난 4월 자신께서 발전소건설장을 다녀간 때로부터 120여일간 낮과 밤이 따로 없는 백열전을 벌림으로써 세상을 놀래우는 영웅청년신화를 창조하였다고, 우리 당의 품속에서 교양육성된 조선청년들만이 창조할수 있는 신화이라고 하시며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 청년들은 모두가 영웅들이라고 하시며 발전소의 이름을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로 명명해주시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심중에 소중하게 안겨드는것이 있었다.

바로 백두대지를 가꾸며 백두의 넋과 정신을 지닌 오늘의

빨찌산투사들로 발전소의 언제보다 더 크게 성장하고있는 청년들의 모습이였다.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날 올려다보면 하늘끝에 닿은 우리 청년들의 기상을 보는것만 같고 멀리서 보면 당중앙을 옹위하여 성새, 방패를 이룬 청년대군의 모습을 보는것만 같다고, 백두산영웅청년1호발전소 언제의 높이는 우리 청년들의 애국심의 높이, 청년강국의 높이이라고 말씀하시였다.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이 얼마나 사람들의 심장을 뜨겁게 울려주는 부름인가.

영웅이란 칭호는 조국과 인민이 자기의 훌륭한 아들딸들에게 주는 값높은 칭호이다.

평범한 청년들을 투사로, 영웅적위훈의 창조자들로 온 세상이 다 보란듯이 내세우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정은 이처럼 극진하고 열화와 같은것이였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도 청년들이 높이 발휘한 위훈을 영웅성의 본보기로 내세운적은 없었다.

참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청년중시사상과 탁월한 령도의 손길은 청년들을 청년강국의 미더운 주인공들로 어엿하게 키워준 무궁무진한 원천이며 그이의 사랑은 청년들을 영웅적위훈을 떨치게 하는 자양분으로 되였다.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에 참가하였던 청년돌격대원은 이렇게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청년돌격대원들에게는 아까울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솜옷과 가죽장갑, 털구두를 비롯한 사랑의 선물을 가슴가득 안겨주시였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뭐니뭐니해도 발이 든든해야 당을 따라 혁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수 있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 돌격대원들에게 구두를 보내주겠으니 우리들의 신발문수를 모두 재여 올려보내도록 거듭 사랑을 베풀어주시였습니다.

그이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솜옷, 그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한번밖에 없는 청춘시절을 백두산에서 가장 값있고 보람있게 보냈다는 증표였습니다. 이 세상 금은보화를 다 준대도 바꿀수 없는 청년제복이였습니다.

사랑의 솜옷을 그 어떤 보물보다 소중히 간수하고싶어 작업을 할 때에도 입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글쎄, 우리의 원수님께서 우리들의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작업을 하면서도 입을수 있는 솜옷을 또다시 보내주실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솜옷을 받아안고 모두가 눈물로 두볼을 적시였습니다.

청년돌격대원들에게 안겨주신 그이의 사랑과 은정은 우리모두를 청년강국의 맹장들로 키워준 활력소였고 위대한 어버이를 따르는 길에서 죽어도 변치 않을 신념과 의리를 뼈속깊이 새겨안게 한 정신적원천이였습니다.》

청년들이 세운 위훈을 온 세상이 다 알도록 높이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청년강국의 화원을 더욱 만발하게 가꾸어가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 조국과 인민앞에 세운 청년들의 영웅적위훈을 값높이 여기시며 길이 전해가도록 해주시였다.

몇해전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교양마당에 새로 건설하는 어느한 건물을 보시고 《백두산영웅청년위훈전시관》이라고 부르도록 하시였다.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의 문주에 새겨진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라는 글발에도, 청년들의 위훈을 상징하여 일떠선 기념비에 빛나는 《영웅청년위훈기념비》라는 글발에도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떨쳐온 청년들의 위훈을 영원토록 빛내여주시려는 그이의 숭고한 뜻이 깃들어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백두대지에서 청년들이 발휘한 투쟁정신을 《백두산영웅청년정신》으로 명명해주시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온 나라가 따라배워야 할 시대정신으로 내세워주시였다.

백두대지에 나래친 청년들의 위훈을 높이 내세워주시려 바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고와 심혈은 끝이 없다.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에서 진행할 군민청년대합창공연이 당

의 현명한 령도밑에 영웅청년들이 이룩한 공적과 위훈을 노래하는것으로 일관되도록 하신 사연이며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를 일떠세운 돌격대원들을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경축 청년전위들의 홰불행진에 참가시켜 온 나라 인민들의 축하와 환영을 받게 하며 돌격대종대가 지나갈 때 방송으로 그들을 크게 소개하도록 하신 감동깊은 이야기…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에서도 그이께서는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 당창건 일흔돐에 드리는 선물로 마련한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를 비롯하여 나라의 방방곡곡에 일떠세운 자랑찬 청춘대기념비들은 조선로동당의 후비대가 어떻게 준비되고 조선혁명의 대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를 힘있게 보여주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정녕 청년들을 위해서라면 백만자루, 천만자루 품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여 공화국은 청년운동의 최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였으며 청년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대강국으로 위용떨치고있는것 아니랴.

절세위인의 손길아래 조선에서 청년강국의 새시대가 펼쳐지고있는데 대하여 캄보쟈국가라지오방송은 이렇게 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조선의 평범한 청년들을 청년강국의 주인공들로 키워주시였다. 그이의 사랑과 믿음속에서 조선청년들은 사회주의조국의 영예로운 수호자, 강국건설의 돌격대

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있다.》

오늘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청년들의 강렬한 지향과 무궁무진한 힘을 믿으시고 그들을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앞장에 내세워주신다.

그이께서는 2021년 4월 청년동맹 제10차대회를 마련해주시고 력사적인 서한 《혁명의 새 승리를 향한 력사적진군에서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의 위력을 힘있게 떨치라》를 보내주시였다.

그이의 서한에는 수백만 청년들이 선렬들이 물려준 충성과 애국의 바통을 억세게 이어 사회주의강국의 찬란한 미래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서 조선청년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청년강국의 기개를 온 세상에 떨쳐가기를 바라시는 크나큰 믿음과 기대가 담겨져있다.

절세위인의 탁월한 령도의 손길따라 공화국은 앞으로도 영원히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의 존엄과 위용을 높이 떨쳐갈것이다.

*　　　*

력사를 읽을줄 아는 인민은 언제나 승리한다. 력사를 바로 보는 인민만이 자기의 운명개척과 사회력사발전에서 근본문제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깨닫고 정의의 길을 끝까지 갈수 있으며 그 길에서 최후의 승리자가 될수 있다.

위대한 강국건설의 새 려정에 들어선 인민이 준엄했어도 보람찼던 격동의 10년을 돌이켜보며 앞으로 걸어갈 길을 내다보면서 필승의 신심과 크나큰 락관에 넘쳐있는것은 무엇때문인가.

그것은 조국과 인민이 걸어온 그 려정은 물론 가야 할 천만리길우에 태양이 찬란히 빛나기때문이다.

빛과 열, 그 힘으로 만물에 소생을 주는 저 하늘의 태양과도 같이 인민에게 빛을 주고 정을 주고 힘을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여 걸어온 험로역경의 길에서 결단코 승리했다는 긍지, 그이를 삶과 운명의 태양으로 모시였기에 걸어갈 앞길이 명백하고 그 길에 번영과 행복이 기약되여있다는 자부.

바로 이것으로 하여 하많은 추억과 희망이 엇갈리는 력사

의 분수령에서 태양을 우러르는 인민의 심장속에는 래일에 대한 신심과 락관이 넘쳐있는것이다.

인민의 태양 **김정은**원수님!

오늘 우리 조국과 인민이 떨치는 모든 영광과 존엄은 그 누구도 대신할수 없는 경애하는 그이의 불굴무변한 헌신과 그 공적우에 높이 받들려있다.

위대한 심장에서 활활 타오르는 인민에 대한 사랑, 위민헌신의 무한한 열정은 천하제일의 인민의 락원, 통일강국의 출현을 예고하는 가늠할수 없는 무한대한 잠재력이며 조선민족의 진짜힘이다.

바로 여기에 절세의 애국자, 인민의 위대한 태양으로서의 **김정은**원수님의 근본특징이 있다.

력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천출위인이신 **김정은**원수님을 태양으로 높이 모신것은 조선인민, 온 민족의 대행운이 아닐수 없다.

위대한 태양이 빛나 조선은, 인민은 백전백승한다!

이는 그이와 언제나 한피줄, 한심장을 이루며 10년의 모든 격난들을 용감히 헤쳐왔고 새로운 신심과 용기로 더운 피 끓이며 새 려정의 전진보폭을 보무당당히 내짚은 이 나라 인민의 드팀없는 신념의 웨침이다.

이 땅 한끝에서 한끝까지 그 어디를 가보아도, 그 누구를 만나보아도 태양의 빛발을 따라 강성번영의 길을 대를 이어

끝까지 이어갈 철석의 의지로 심장이 불탄다.

위대한 태양의 품에 삶의 명줄을 잇고 세상에 오직 한분 그이만을 따르는 길에서 모든 승리와 영광을 맞이하려는것은 억척불변의 이 나라 민심이다.

걸어온 길보다 더 험한 길, 더 머나먼 길을 가야 하는 오늘에 있어서 이 열광의 민심보다 더 강위력한것은 없거니.

찬란한 태양이 빛나 인민은 새로운 천만리려정에서도 영광만을 떨치리라!

조선은 태양이 추켜든 정의와 승리의 보검을 더 높이 들고 부흥번영의 길을 끝까지 갈것이며 그 길에서 사랑과 정이 넘쳐나는 새세상, 강국의 새시대를 제일먼저 마중하리라!

인민의 태양 **김정은**찬가

| | |
|---|---|
| 필 자 | 한영수, 홍범식, 림이철, 리연선 |
| 장 정 | 김 영 일 |
| 교 정 | 림 향 |
| 낸 곳 | 평 양 출 판 사 |
| 인쇄소 | 평 양 인 쇄 공 장 |
| 인 쇄 | 주체111(2022)년 5월 17일 |
| 발 행 | 주체111(2022)년 5월 21일 |

ㄱ—1538ㄷ


ISBN 978-9946-31-158-6

ISBN 978-9946-31-158-6

9 789946 311586